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식민 이후 한국과 인도의 분단  
과정의 문학적 형상화

-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을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Rajesh Kumar

# 식민 이후 한국과 인도의 분단 과정의 문학적 형상화

-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종 욱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Rajesh Kumar (쿠마르 라제쉬)

Rajesh Kumar (쿠마르 라제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김유중 (인)

부위원장 손유경 (인)

위 원 구재진 (인)

위 원 장두영 (인)

위 원 김종욱 (인)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분단을 항상 내부 혹은 한국의 분단문학으로만 보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의 분단 문제를 내부로 보면 항상 단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 분단된 국가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이 분단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해 본다면, 이를 통해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포괄적인 새로운 시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피식민지화 과정에서 분단된 국가 중 한국과 인도를 비교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했다. 식민지는 피식민 국가의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유럽의 식민지와 동아시아의 식민지를 비교하면, 식민지 경험의 공통된 틀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의 염상섭과 인도의 쿠스완트 싱의 작품을 통해 인도와 한국의 분단 문학을 탈식민주의 이론과 기억과 망각의 융합한 이론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본고에서 염상섭의 중기 단편 「삼팔선」, 「이합」, 「재회」와 인도의 작가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통해 분단과 식민 이후 국민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해봤다. 이 두 명의 작가를 통해 분단의 문제와 국민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탈식민 국가의 수립 과정을 관찰했다.

2장에서 인도의 분단을 쿠스완트 싱의 소설 『파키스탄행 열차』로 살펴봤다. 소설에서 싱은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던 마노 마즈라 마을을 분단의 폭력과 국민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무대로 설정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싱은 분단 상황에서 종교적인 정체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영국 지배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국의 분할 지배 전략은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인도의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그렸다. 식민지 지배의 이와 같은 잔재는 분단을 일으켜 집단 학살로 이어졌다. 싱은 종교 정체성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분단을 영국 식민지배의 정치 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도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태도로 인한 분단을 탈식민지라는 것으로 그렸다. 쿠스완트 싱은 종교적인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의 양상으로 집단학살, 대규모의 폭력, 이산 문제를 그렸다. 그는 군인, 경찰, 지도자, 관료 모두 폭력을 가한다고 했다. 싱은 분단 상황에서 일반인도 학살, 상해, 강간에 참여했다고 한다. 권력자, 부자, 정치인들은 분단의 트라우마로부터 비교적 덜 고통받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은 분단을 이용해 보상받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분단 때 벌어진 대학살과 강간과 상처로부터 시달리고 살해당했다. 분단의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분단으로부터 발생한 피난민 문제였다. 사람들의 이별은 물질적인 것이

자 정서적인 이별이고, 분단으로 인한 또다른 불행한 결과물이었다. 피난민들이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폭도들에 의해 학살되었던 경우가 빈번했다. 작품 속에서 분단의 여파로 나타난 것이 한 양상은 타자화이다. 분단 이후 이러한 타자화는 회복할 수 없는 종교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쿠스완트 싱은 작품에서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 중 나타난 국가 분단이 이산, 이주와 여성의 수난으로 구체화되는 점을 그렸다.

3장에서 염상섭의 세 편의 중기 단편소설 「삼팔선」, 「이합」, 「재회」를 통해 해방 직후 분단으로 인한 민주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사상의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살펴 보았다. 염상섭의 작품은 사상적인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치며 분단이 되었다는 점을 묘사했다. 이와 같은 분단의 원인은 정치사상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정치 사상은 식민주의 특성도 있고 신식민주의 특성도 있다. 염상섭은 사상적인 대립의 양상을 「이합」의 김장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그렸다. 장한의 가정이 분단되는 것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비슷한 것이며, 염상섭은 이러한 가족 내 사상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사상의 충돌은 국가 또는 가정이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국가 수립과 국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는 국민 사이에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좌우의 사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고문당한 것이다. 염상섭은 좌우의 대립을 통해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했다. 염상섭은 한국의 현상을 소련군과 미군의 존재를 제시하며 주권국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렸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염상섭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삼팔선」에서 피난민들이 두려워하는 주체는 이동을 통제하는 소련군, 보안대 등과 같이 국가가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이다. 염상섭은 국가의 운명이 해방 이후 외세인 군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신식민주의의 변모라는 외세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폭력, 사회적 양극화, 제도화된 차별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폭력이 발생했다. 이 폭력은 물리적인 것이고 비물리적인 것이었다. 염상섭은 해방과 분단의 허무함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합」에서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분단의 한 여파로 나타나며, 「삼팔선」에서도 난민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은 모습이 그려진다. 이산은 분단 당시 조선의 현실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해 월남과 월북을 선택했다. 이들은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고향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4장에서 인도와 한국의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작가들의 감각을 비

교했다. 인도와 한국 작가들이 분단을 감각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염상섭은 서울 토박이 소년이었고 중산층에 속한 일본에서 유학한 문학가가 있었다. 그리고 쿠스완트 싱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변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학계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분단을 감각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다. 염상섭은 식민지의 지배 전략 혹은 분할 지배라는 정책이 한국의 분단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무시했다, 반면에 쿠스완트 싱은 인도 분단의 책임자였던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의 통치 전략을 비판했다. 쿠스완트 싱은 소설에서 분단의 원인을 영국 지배에서 찾아내고 비판했다.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책임이 영국 통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인도의 분단을 일으킨 식민 통치의 정책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영국인을 사악한 정책으로 인도를 통치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독재 정권과 영국이 떠난 후 통치하게 된 새로운 지도자들 모두를 비판했다. 다시 말하자면 싱은 식민지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민중이 받게 된 고통의 원인이 영국 지배에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염상섭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일제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식민지 정책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다. 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만주로 탈출했다. 한국의 민중은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 강점기에 계급 의식과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해방 후 발생한 좌우 이데올로기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좌우 대립은 더 나아가 냉전 시대의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염상섭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한 일본인들에게 애도의 태도를 표한다. 그 대신 염상섭은 미국과 소련이 가져온 사상의 이분법에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찾았다. 그는 소련과 미군의 주둔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보여준다. 분단의 책임자로 신식민지배자인 소련과 미국을 고발한다. 염상섭의 이런 태도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망각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각의 차이는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사회상과 생애 때문이다. 즉 이들이 분단때 서 있는 위치때문이다. 염상섭은 남한 사람이며 분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잃은 것이 없었다. 오히려 염상섭은 분단 때 남한에 돌아와 안정감을 취했다. 반면에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피해자였다. 그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분단을 경험했다. 분단 때 시크교에 속함으로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큰 이분법에서 자기 종교 정체성이 힌두교에 흡수된 시크교로 분단을 감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분단을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염상섭은 분단을 신식민지의 영향으로만 보았고, 이것이 염상섭으로 하여금 분단을 단순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국의 분단을 인도의 분단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탈식민지 분단은 복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에는 신식민지가 도입되었다. 신식민지는 냉전 체제의 결과물이고 한국 사회를 좌파와 우파로 나눴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 우파의 이분법은 신식민지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의 대립은 식민지 지배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식민지의 분할과 지배의 통치 전략은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나눠 계급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식민지는 분할 지배의 한 도구로 이용한 개혁을 통해 한국의 사회를 여러 파로 분할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해방 이후 회상되어 심각한 사상의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상의 갈등은 신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지도자와 국민의 욕망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의 설립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은 소설을 통해 분단의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대항했다. 내셔널리스트 역사는 해방과 국민국가의 형성 위대한 사건으로 기념하여 분단을 무시했다. 인도와 한국의 분단은 양국의 국민에게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 소설가로서 염상섭과 싱은 해방의 여파인 분단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적과 개인적인 진술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은 외적 혹은 신식민지의 도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 혹은 일본 식민지의 매우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분단에 있어서 식민지의 영향도 깊이 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분단을 바라보는 작가는 분단을 단순하게 봤다. 염상섭은 한국의 분단을 신식민지의 결과로 봤다는 것이 분단을 냉전 체제의 한 정치적인 문제로 단순화한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단의 뿌리는 식민지 지배 전략에 있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국의 분단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혹은 한국의 분단을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한국에서 이념의 갈등을 심었다. 이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 식민지가 한국 사회에서 심은 계급 의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에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주요어 :** 분단, 기억과 망각,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스트 역사학, 식민지 지배전략, 분할 통치,  
**학 번 :** 2017-39530

# 목 차

## <국문초록>

|                                   |     |
|-----------------------------------|-----|
| 1. 서론 .....                       | 1   |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 1   |
| 1.2. 연구의 시각 .....                 | 17  |
| 2. 종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 분단 .....        | 34  |
| 2.1. 종교적 갈등과 국민의 분열 .....         | 34  |
| 2.2. 폭력으로서 집단적 기억 .....           | 56  |
| 3.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내전의 위기 .....       | 96  |
| 3.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신식민주의의 재편 .....   | 96  |
| 3.2. 망각된 식민지 경험과 이념적 타자의 축출 ..... | 121 |
| 4.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분단에 대한 대응의 비교     | 159 |
| 4.1. 식민지 지배전략에 대한 작가로서의 감각 .....  | 159 |
| 4.2.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의 대항으로써 글쓰기 .....  | 176 |
| 5. 결론 .....                       | 181 |
| <참고문헌> .....                      | 185 |
| <Abstract> .....                  | 194 |





# 1.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인도 및 한국은 거의 동시에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에 독립이 되었고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1947년 8월 15일에 독립이 되었다. 이 독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유사한 점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 있는 여러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독립되었다. 인도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인도의 독립은 기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분단의 슬픔도 함께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이 항복은 연합국의 두 대국 사이에서 큰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은 전후 세계에서 패권을 얻으려고 했다. 이완범은 일본의 패배 직후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 통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을 지었다.<sup>1)</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가 앞으로의 세계 정복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변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은 냉전 혹은 전후 세계와 신식민지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분법적 정치사상의 갈등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세계대전이 끝나 영국은 승전에도 불구하고 식민 영토를 잃어버렸다. 수십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얻었다. 서구에서 식민지의 비법과 전략을 배운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식민에서 벗어난 해방된 국가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국가 건설과 새로운 국민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내전이자 갈등이었다. 이 내전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 그런데 탈식민 국가에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한국분단의 원인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sup>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적 요인은 지도자들의 열망과 국민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경우 계급의 불평등한 분배라고 볼 수 있으며, 인도에서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있는 적대적인 관계가 그것이었다. 인도 및 한국의 해방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해방 이후의 분단이자 국민국가의 형성이었다. 그럼

---

1) 이완범, 『(1945-1948)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29면.

2) 이완범, 앞의 책, 15면.

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 분단 문학을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과 인도 해방공간의 역사 혹은 국민국가의 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도 매우 드물다. 그런데 각각 한국의 분단과 인도의 분단을 주제로 삼은 문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제출되어온 바 있다.

인도 및 한국의 분단 역사를 비교한 대표적인 연구로, 쉐퍼(Schaeffer) 연구를 예로 볼 수 있다.<sup>3)4)</sup> 쉐퍼(Robert Schaeffer)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정치적 갈등과 민간 폭력으로 인한 분단을 연구했다. 쉐퍼는 역사적이고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분단 문제를 조사했다. 그는 한국을 일반적인 분단으로, 인도를 특정한 분단으로 정의한다. 쉐퍼는 13개국과 분할을 관찰하고 분할이 여러 요인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중 일부는 피식민화, 냉전, 민주화 및 자결권이었다. 인도의 분단은 국민과 종교에 기반한 피식민지와 자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속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냉전과 사상이었고 두 초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했다. 스티븐 휴 이(Steven Hugh Lee) 연구는 전후 시대의 분단에 대한 진정한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통해 분단에 대해 논의한다. 스티븐은 분단국가의 분할과 내전을 통해 분단 또는 이로 인한 폭력, 난민 문제를 파악한다. 그는 인도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분단을 사례로 제시하며 피식민지화의 결과로 분단을 규정한다. 한국의 분단을 ‘강대국’의 의지로 나타난 분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에 폭력적인 사회적·정치적 격변을 경험했던 다른 분단 지역들의 맥락이라는 보다 넓은 비교론적 기반에서 보아야 함을 주장했다. 전후 국제체제에서 새롭게 형성된 국가들의 권력 구조 내에서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한계와 더불어, 1945년 이후 독립의 가능성에 대해 각 지역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인도 및 한국의 분단 문학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 소설에 관한 비교연구는 아직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싱과 염상섭에 관한 독자적 연구는 풍부하다. 먼저 싱의 작품 『파키스탄행 열차』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싱의 소설은 분단을 주제로 많이 연구되었고 싱은 인도에서 다작의 영어 작가로 평가받았다.

---

3) Robert K Schaeffer, *Warpaths: The Politics of Partition*, New York: Hill and Wang, 1990.

4) Robert K Schaeffer, *Severed States: Dilemmas of Democracy in a Divided World*, Lanham: Rowman & Littlefield, 1999.

5) Steven Hugh Lee, “The Civil Wars of Partitioned States - Cold War Histories of Decolonization and Conflict.” *Asia Review* vol.5, no.1, 2015.

쿠스완트 싱에 관한 연구 중에서 경희대학교의 안슈만 토마르(Anshuman Tomar)와 서덕순의 연구<sup>6)</sup>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연구이다. 안슈만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집단학살, 가족의 해체, 여성 수난들을 비극의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품에서 분단과 통합, 증오와 사랑, 분노와 애정, 복수와 희생의 이분법이 있다고 했다. 안슈만에 따르면 소설에 나타난 열차는 어둠과 파괴를 상징한다. 그는 『파키스탄행 열차』에는 인도의 문화, 종교, 신분제, 관습에 대한 묘사도 있다고 지적한다. 안슈만은 소설에 카스트, 하위 계급이 당하는 압박과 인도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서술되어 있다고 논했다.

쿠스완트 싱에 대한 인도나 외국에서 선행된 연구는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작가 중심 연구이고 둘째는 작품 중심 연구이다. 작가 중심 연구는 연구자가 쿠스완트 싱의 총체적인 작품 활동을 분석하는데, 아이엔거(K. R. Srinivasa Iyengar)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7)</sup> 아이엔거는 싱을 위대한 작가라고 하며 그의 작품을 소개만 한 것에 불과하다. 아이엔거는 『파키스탄행 열차』의 줄거리를 소개하며 인도에서 최초의 분단의 서사라고 비평했다.

싱의 작품 중심 연구는 방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대부분 싱의 독자적인 연구가 아니라 인도 문학의 속한 분단 문학을 주제로 담은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 중에서 카비타 다이야(Kavita Daiya)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녀는 인도 탈식민 사회에서 분단 이후로 버려진 폭력의 재현을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포함하면서 다른 작가들의 소설, 단편, 영화 등의 작품을 통해 관찰하였다.

아비지트(Abhijit)는 인도 분단에 대한 역사학과 문학의 서사는 대립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인도의 분단 소설과 역사학을 탈식민지 이론으로 비교하는 메타연구를 시도했다<sup>9)</sup>. 연구자는 싱의 작품을 “두 가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관점에서 말하는 탈식민주의 동양 문학 정경에서 나온 전형적인 텍스트”라고 높게 평가한다. 텍스트는 공식 역사적 기록에서 가장 자주 무시되는 정치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것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공식 역사 내에서 잃어버린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 논평의 역할을 하는 내러티브에 중요한 사건을 담

6) Anshuman Tomar, 서덕순, 「인도 분단 소설에 나타난 비극의 양상 연구 -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8호, 2021.

7) K. R. Srinivasa Iyengar, *Indian Writing in English*, London: Asia Pub. House, 1962, p.498

8) Kavita Daiya, *Violent Belongings: Partition, Gender, and National Culture in Postcolonial India*. Philadelphia, Pa: Temple Univ. Press, 2011.

9) Abhijit Seal, “Historical against Literary: Some reflections on Partition Meta Narratives of selected Indian Texts”, *Mapping Postcolonial and Subaltern Perspectives*, Chennai: Notion Press, 2001.

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은 “국가 예측의 간섭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된 사회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 연구자는 마노 마즈라 마을 사람들의 단결은 분단과 제국에 대한 작은 역사적 저항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투파르나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인도의 영문 분단 소설로 남아 있다고 한다.<sup>10)</sup>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에 대한 최초의 소설이며 비평가와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싱이 분단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며 싱은 초보 역사가로서 자신이 살았던 인도 역사의 중요한 시대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 이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묘사와 정치인과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그녀는 소설이 폭력, 난민, 또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규정한다.

쿠스완트 싱의 작품에 대해 박사 논문도 다수 제출되었다. 이 연구들도 싱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분단이라는 공통점에 중시하고 있다.

카믈레쉬(Kamlesh)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분단에 대한 최초의 인도 영문 소설이라고 하며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소설을 분석했다.<sup>11)</sup> 카믈레쉬는 싱이 모든 정당에 대한 무한한 고뇌에서 『파키스탄행 열차』를 쓴 동기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과도정부의 무익함과 관료적 차원의 파산이 소설에서 도발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역사의 왜곡된 이해와 종교적 편견의 전염 효과는 소설에서 완벽하게 주입된다. 이 소설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가 상호 조화, 평화, 관용 속에서 사는 동질화된 공동체의 영역을 제시한다. 국민주의의 공허함, '간디의 제자인 정치인'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마을 소수자의 뿌리 뽑기, 뿌리 뽑힌 자의 파열된 정신, 소란스러운 봉기로 인한 다수 공동체의 두려움이 소설에서 미학적으로 제시된다. 카믈레쉬에 따르면 소설가는 인본주의를 전파하고 공동체주의를 비난한다는 것이다.

배샬리 나익(Vaishali Naik)은 전 인도의 분단이 아니라 서부 국경 즉 편자브주에 분단에 초점을 맞춘다<sup>12)</sup>. 그녀의 연구는 역사와 문학이라는 두 분야의 더 큰 영역에서 수행된다. 인도 분단이 시민권, 국가-정체성, 국가 및 하위 국가,

---

10) Rituparna Roy, *South Asian partition fiction in english: from Khushwant Singh to Amitav Ghosh*.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11) Kamlesh Dangwal, “The Trauma Of Partition A Study Of Train To Paksitan Azadi Tamas And Ice Candy Man.”, Kumaun University, PhD Thesis, 2009.

12) Vaishali Naik, “A study of the Indian partition as seen through selected works of literature and history.”, Savitribai Phule Pune University, PhD Thesis, 2013.

이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질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분단 소설이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간적 틀 안에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기풍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설이나 단편소설 같은 내러티브를 연구하여 더 적절한 비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익에 따르면 인도 분단의 내러티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침묵되었다는 것이다. 폭력이 『파키스탄행 열차』의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라고 파악하며 마노 마즈라의 예를 들고 내부 폭력이 인도 시골의 일부였다고 주장을 한다. 내부 폭력이 원래부터 존재하며, 이 내적 폭력이 분단과 관련된 폭력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분단의 폭력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무슬림이 당한 폭력의 책임자로 국가와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하며 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 사이에 타자성을 고발한다. 싱의 소설을 높게 평가하며 분단 폭력에 대한 강력한 문서라고 규정한다. 나익은 결론적으로 “문학은 역사와 역사는 문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군두르(Gundur N.S)는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가 인도 영문 문학사에서 분단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소설이라고 주장한다.<sup>13)</sup> 이 소설은 집단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인도 정치사의 한 측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분단이 마을 공동체의 분할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했다.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서구와 편자브 주의 특징이 있으며 소설의 사건이 소설을 지배하고 작가의 개인적인 분노와 목소리 없이 서술되었음을 관찰한다. 군두르에 따르면 『파키스탄행 열차』는 사랑과 모험의 낭만적인 이야기이다. 군두르는 자가와 누란의 애인 관계는 히르-란자<sup>14)</sup> 민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군두르는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도구로 은유와 직유를 사용했다고 관찰한다. 싱은 소설에서 “공동 공포와 편견의 군중 심리”도 소설에서 등장하며 정서적 애착을 가진 인간관계와, ‘마음의 분열’을 보여준다고 했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의 등장인물을 통해 당시 관료제의 문제를 묘사한다. 소설은 개인의 비극보다 공동체의 비극을 더 많이 묘사하며 소설에 폭력의 장면이 많이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자가 쿠스완트 싱은 소설에서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비전, 하나는 엘리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서민의 관점을 제시했다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군두르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적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 다른

13) N. S. Gundur, “The theme of partition in Indian literature in English with special reference to fiction”, Karnatak University, PhD Thesis, 2004.

14) 편자브 지역의 대표적 민담은 히르와 란자의 애인 서사이다. 란자와 히르는 낭만적이며 헌신적인 남녀를 상징한다.

아쉬운 점으로 『파키스탄행 열차』는 난민과 재할 문제를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순다르라잔(Sundarrajan)은 소설의 등장인물을 분석했다.<sup>15)</sup> 『파키스탄행 열차』는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순다라라잔에 따르면 『파키스탄행 열차』는 인도 역사의 분단기의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 자가를 통해 싱은 여성을 위한 남성 희생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강조하며 인간과 사회적 갈등은 종교와 카스트라는 두 가지 힘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소설은 사회의 가치와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희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일반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는 후쿰 천드라는 등장인물을 『파키스탄행 열차』의 주요 인물로 가리킨다. 순다르라잔은 이크발이 사회의 지식인 계급을 나타내고 자가는 다차원적 성격이 있는 등장인물로 평가한다. 자가는 개인의 성격과 행동이 자신의 특성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다르라잔은 다음과 같이 등장인물의 특성을 요약한다. 미트 싱은 착하고 다정한 친구이다. 이맘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크발은 공산주의자이고 후쿰찬드는 통치자이다. 누란은 이쁘고 하세나도 이쁘다. 탈라 람탈는 부자이고 대금업자이다. 말리는 비열하다. 반타 싱은 충실하다. 자가는 ‘인류의 보석’이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덕과 악을 상징하는 선악을 서술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시수 폴(Shishu Paul)은 소설의 등장인물과 은유를 바탕으로 소설을 분석했다.<sup>16)</sup> 그는 이 소설을 연애 이야기로 여긴다. 그에 따르면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의 트라우마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사실주의 소설 중 하나이며 모든 등장인물이 실제 생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날씨’는 정치적인 날씨를 나타내고 ‘기차’는 개인의 운명, 고통, 국가 운명 등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기차는 기계시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기계시대는 인본주의적 가치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삶과 행동을 상징하지만 죽음과 재난을 상징하는 이중적 주체이다. 이크발은 엄격하게 반-영국을 대표하며 후쿰 찬드와 부경위는 무능한 관료집단을 대표한다. 시수는 이크발과 자가가 받은 대우를 바탕으로 소설이 카스트와 계급 차이를 서술한다고 지적하며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는 정치적 격변의 영향으로 인간관계가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된다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결

---

15) K. Sundararajan, “Positive aspects in Khushwant Singh’s fiction”, Bharathidasan University, PhD Thesis, 2004.

16) Shishu Paul, “Human relationships and political upheavals: a study of select novels of Khushwant Singh Kamala Markandaya and Nayantara Sahgal”, Himachal Pradesh University, Phd Thesis, 2009.

론으로 시수는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 시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 정치적 문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이 소설은 당시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계를 탐구한다.

딜립 신(Dilipsinh)은 『파키스탄행 열차』가 싱이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경험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sup>17)</sup> 딜립은 인본주의자로서의 싱은 당시 공권력과 정치 인가를 비판한다고 했다.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치는 트라우마를 보여주며 이슬람 공동체의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가가 희생함으로써 인본주의적 종말로 소설을 끝맺는다고 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 마노 마즈라의 사람들이 종교의식이 있었지만, 서로의 갈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며, 공권력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다고 한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이크발이라는 인물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을 풍자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슬람교도는 분단 후 마을이 대피했기 때문에 분단의 희생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는 휴머니즘과 소설 속 자가를 통해 ‘보편적인 남성’이 되기 위한 등장인물의 발전으로 끝났다고 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용서와 화해는 공동체주의나 집단 갈등의 해결법으로 나타났다.

빌라윈(Villavan)은 『파키스탄행 열차』가 종교에 근거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소설에 대한 싱의 동기는 그가 분단의 잔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싱은 거짓을 쓰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하며 시크교임에도 불구하고 시크교가 저지른 만행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의 등장인물과 미노마즈라의 위치가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도 분단의 문제에 대한 진술은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체성의 견해, 등장인물들이 겪는 문제와 트라우마, 눈물, 죽음, 살인, 희생, 무력감 등은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소설은 이벤트의 가장 섬세한 면에 구축된다. 싱은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적 경험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예술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소설에서 보듯이 접경지역의 거의 모든 마을의 상황과 사회적 관습은 유사한 것이며 마을의 우애가 무너진 것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

---

17) Kuldipsinh Dilipsinh Jadeja, "The partition of India and its reflections in the select english and hindi novels A comparative study.", Mewar University, PhD Thesis, 2018.

18) V. VILLAVAN, "Reading of Trauma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shoka Mitran's The Eighteenth Parallel and Taslima Nasrin's Lajja", Bharathidasan University, PhD Thesis, 2020.



세티아(Setia)는 쿠스완트 싱이 인도의 분단에 대해 작품을 낸 최초의 소설가라고 말한다. 세티아도 영국 지배자들에 의해 분단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공포와 잔혹함이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싱은 편견과 편애 없이 분단을 소설로 창작했으며 분단에 대해 균형적인 견해를 취했다고 한다. 싱이 묘사한 야만적인 행위는 과장 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니며 소설가의 주요 초점은 분단과 폭력으로 이어진 종교적 광신에 있다. 싱은 공동체의 관용, 사랑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간청한다. 사랑의 모티브는 자가와 누란의 연애 이야기로 소개된다고 지적한다. 이 연애 이야기와 자가의 희생은 마음 연합의 상징이다. 싱은 후쿰 찬드라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소설에서 관료의 역할을 기소했고 편협한 사람들, 공산주의자, 정치인, 경찰, 사이버-공산주의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세티나는 싱이 ‘사랑이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한다.

치트라(Chitra)는 소설의 불량이 많지 않지만, 『파키스탄행 열차』는 고전이라고 평가한다.<sup>20)</sup> 그녀는 싱이 분단의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하며, 소설이 정치적 증오와 대중의 열정의 서사이며, 분단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에서 싱은 주로 분단 사건에 집중했고 소설에서 폭력이 인도의 시골 지역을 통해 조용하고 서서히 전파되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싱에게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짜릿한 경험이며, 이는 소설에도 반영되었다. 치트라는 소설에서 소문이 폭력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소설가 시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모두를 비난한다는 것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종교인, 지도자, 공권력을 비판한다고 하며 소설은 무고한 사람들의 끔찍한 학살을 보여준다.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에 대한 소논문도 상당히 많다. 이 연구의 공통점은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하고 작품에 나타난 분단의 트라우마를 논의하는 것이다.

비노티니(Vinothini)와 벤자가르(Benzigar)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여성의 피해와 이중 피해에 대해 논한다.<sup>21)</sup>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분단 상황에서의 인도

19) Satyam Setia, “The Theme of Partition In Indo Anglian Fiction With Reference to the Novels of Kushwant Singh B. Rajan A. Hosain M, Malgonkar C. Nahal And S. Rushdie”, Dr. B. R. Ambedkar University Agra, PhD Thesis, 2001.

20) Chitra Charu, “Treatment of Partition in Attia Hosain’s Sunlight on a Broken Colum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Rahi Masoom Reza’s Adhagaon, Bhisim Sahni’s Tamas: A Comparative Study”, Dr. B. R. Ambedkar University Agra, PhD Thesis, 2000.

21) Vinothini M, and Benzigar M, “Double Victimization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여성의 피해를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거부와 억압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으며 인도의 식민 사회는 인도 남성은 백인 여성을 좋아하고 백인 여성이 매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지적한다. 소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도구로 종교가 이용되었다고 했다. 비노티니에 따르면 소설은 후쿰찬드와 부경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부패를 보여준다.

마라디(Maradi)의 연구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실제 역사를 픽션의 내러티브에 동화시킨다고 주장한다.<sup>22)</sup> 연구자는 실제 사건들을 참고하면서 『파키스탄행 열차』를 분석한 바가 있다. 마라디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쿠슈완트 싱의 인도 영문 소설 중 가장 훌륭한 사실주의 소설 중 하나이고 싱의 최고의 창작으로 평가한다. 연구자에 따르면 소설가의 주요 목적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파키스탄행 열차』가 잘 엮인 구조, 예술적으로 구상된 줄거리, 몰두한 내러티브 스타일 및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등장인물들이 있다고 평가한다. 싱은 다양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저널리즘’의 기준을 뛰어넘는 스토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다고 논한 것이다. 연구자는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인들이 처음부터 ‘분할과 지배’ 정책에 의존했고 결국에는 ‘분열된 아대륙’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주세페 드 리소(De Riso, Giuseppe)에 따르면 분단은 과거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기억과 망각 복합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하면서, 『파키스탄행 열차』를 동거하는 서로 다른 인종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잔혹성을 묘사하는 모범적인 소설로 평가한다.<sup>23)</sup> 『파키스탄행 열차』는 집단 기억을 만드는 루머에 집중하는 소설이라고 주장한다. 싱의 작품은 수십만 명의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의 대량 이주에 대해 논의한다. 소설은 시크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사이의 상호 신뢰의 점진적인 붕괴를 파악한다고 한다.

라디카 쪼쁘라(Radhika Chopra)는 『파키스탄행 열차』의 현실성을 그 당시 역사와 연결하며 연구했다. 그녀는 싱이 인도 정치인과 영국 지배자를 비판했다고 한다.<sup>24)</sup> 그녀에 따르면 싱은 편자브의 분단 현실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

---

Pakistan: A Postcolonial Feministic Reading.”, Journal of Xi’an University of Architecture & Technology, Vol.13, no.3, 2021.

22) Sumangala Maradi, “The Theme of Partition in Manohar Malgonkar’s A Bend in the Ganges,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nd Chaman Nahal’s Azadi.”, The Criterion: An International Journal in English, Vol. 10, no. 1, 2019.

23) Giuseppe De Riso, “Memory and Negotiations of Identity in Train to Pakistan.” Le Simplegadi, vol.16, no. 18, 2018.

24) Radhika Chopra, “Partitioned Lives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nd Manju

소설은 매우 효과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국경의 양측에서 이어지는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싱은 피할 수 있는 공동체 폭동에 대해 영국인과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파키스탄행 열차』를 썼다는 것을 강조한다.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칼파나 네헤레(Kalpana P. Nehere)와 바바르(P. R. Bhabad)는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sup>25)</sup> 이 분석은 페미니스트적 분석이다. 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한 등장인물 자가의 애인 누란의 상황을 평가한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욕망을 표시하면서 연구자는 여성이 복수의 도구였음을 주장한다. 네헤레와 바바르는 여성의 희생, 사회와 남성의 부양 가족으로서의 여성, 여성끼리의 차별, 여성의 약점을 미화하는 것,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침묵, 여성 착취와 여성의 질식에 대해 논하며 “마노 마즈라의 여성은 가부장제의 상징이다” 라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린다.

코말 라이추라(Komal Raichura)는 분단 소설에서 종교의 정치학을 연구한 바가 있다.<sup>26)</sup> 그의 여러 분석 대상의 하나는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이다. 이 연구는 분단에 대한 관점과 소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소설에서 종교의 정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는 분단의 이유로서의 종교이고 둘째는 분단의 결과로 발생하는 종교적 문제이다.” 그녀는 “분단 당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양측 지식인이 주도한 사회의 과정이 기적적으로 화해와 상호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쿤조(Singh, Kh. Kunjo.)는 분단 전의 마노 마즈라에서 공동체주의, 갈등, 평화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주장을 내리며 『파키스탄행 열차』가 문화의 갈등과 국민적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7)</sup> 그는 더 나아가 소설가가 인도를 분단시키는 과정과 그것이 암울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인다. 문화적 갈등과 국민적 폭력을 묘사한 싱의 모티브는 인간 내면의 사랑과 이해로 그러한 악의 근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푸자 삭세나(Pooja Saxena)는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 마노하르 말곤카르의

---

Kapur's "difficult Daughters". " Indian Literature, Vol. 54, no. 3, 2010.

25) K. P. Nehre, and P. R. Bhabad, "Representation of Women in Train to Pakistan by Khushwant Singh", Asian Research Consortium: Asian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 4, No. 8, 2014.

26) Komal Raichura, "Politics of religion in Partition Novels: Rahi Masoom Reza's Adha Gaun and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and Literature. vol. 5, No. 8, 2014.

27) Kunjo Singh, "Conflict of Cultures and Ethnic Violence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Modern Research Studies. vol. 1, no. 2, 2014.

‘갠지스강의 굽이’, 차만 나할의 ‘아자디’에서 분단의 주제를 비교 연구했다.<sup>28)</sup> 그녀는 힌두교-이슬람교의 관계, 사람들의 공존, 대량 이주, 조국에 대한 사랑 등을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소설에서 우리는 살인, 약탈 공격의 결정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작가의 동기가 소설을 통해 사회의 상황을 사회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산카르(G. Sankar)는 『파키스탄행 열차』와 여러 작품을 통해 분단에 대해 논의한다.<sup>29)</sup> 그는 싱의 소설에서 분단의 기원을 논하며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는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며, 분단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인도 지도자의 근시안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의 갈등은 인도 시골 풍경의 상황이 아니었지만, 먼저 영국 정부가 ‘분할 및 통치’ 정책에 따라 제기되었고 다음 국민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무슬림 리그의 두 국가 이론은 분단을 일으켰다. 따라서 분단의 진정한 책임은 진나(Jinnah)와 그의 무슬림 리그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르카르 (Imrul Kayes Alam Sarkar)는 싱의 작품을 당시의 상황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바가 있다.<sup>30)</sup> 사르카르는 싱이 정치인의 결정으로 인한 증오와 파괴의 실제 이야기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휴머니즘, 혼돈의 시대에 찾아낸 사랑이라는 주제도 담았다고 한다. 그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싱은 광기와 분단이라는 공동체의 광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고통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를 투영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싱은 중립적이며 분할에 대해 어떤 집단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각 집단이 다른 집단을 비난하는 실제 상황을 매우 능숙하게 묘사했다”고 한다.

다른 편에 염상섭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 연구는 김윤식, 김종균과 권영민을 통해 이뤄졌다. 김종균과 김윤식의 염상섭 연구는 1974년대 출간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보영의 『난세의 문학』이란 연구도 나왔는데 이것은 염상섭의 식민시대의 작품 활동을 중시하였다. 염상섭 문학에 대한 논자들의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한 비교문학적 연구로 강인숙<sup>31)</sup>, 김치수<sup>32)</sup>,

---

28) Pooja Saxena, “Review on three partition novels written by Indian writers.” Research Journal of Language, Literature and Humanities. Vol. 3, no. 3, 2016.

29) G. Sankar, “Political Turbulence in Kushwant Singh and Chaman Nahal Selected No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Vol. 2, no. 7, 2014.

30) Imrul Kayes Alam Sarkar, “Political Upheaval and Communal Frenzy as Witnessed in Kushwant Singh’s Partition Narrative Train to Pakistan”, European Academic Research. vol. 3, no. 11, 2016.

31)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2』 고려원, 1991.

32) 김치수, 「자연주의 재고」, 『한국현대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김홍규<sup>33)</sup>, 김현<sup>34)</sup>, 정명환<sup>35)</sup> 등이 있고, 작가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김우중<sup>36)</sup>, 김윤식<sup>37)</sup>, 유종호<sup>38)</sup> 등이 있으며, 작품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김경수<sup>39)</sup>, 김화영<sup>40)</sup>, 김윤식<sup>41)</sup>, 김종균<sup>42)</sup>, 정한숙<sup>43)</sup> 등이 있다. 염상섭의 비평을 다룬 연구는 권영민<sup>44)</sup>, 이보영<sup>45)</sup>, 정호웅<sup>46)</sup> 등이 있다.

해방기 염상섭의 소설을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중 하나가 이 시기 염상섭의 '중간파' 입장을 논하는 연구이다.

김윤식은 염상섭의 중간파 입장을 염상섭의 문학의 근본으로 규정하는 근대적 가치중립의 한 측면으로 해석한다. 김윤식이 말하는 '중립성/중도성'은 “서울 중산층이 삶의 감각과 일본을 통해 체득한 근대적 삶의 감각”이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7)</sup> 김윤식은 「이합」을 5인 가족의 엑소더스적인 대로망인 중편이라고 하면서 증언에 해당된다고 평가한다.<sup>48)</sup> 권영민은 염상섭의 중간파적 사상은 좌우를 편견 없이 비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중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좌와 우를 비판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조남현도 염상섭의 사상에 대해 권영민이 주장한 논의를 따라 한다.<sup>49)</sup> 이우용의 연구에서 「이합」과 「재회」에서 나타난 염상섭의 현실 인식을 체념과 도피의 차원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sup>50)</sup> 신형기의 연구도 이런 경향을 따라 했다. 신형기는 염상섭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을 표시한 후, 염상섭의 작품은 중간파의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윤리론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내린다.<sup>51)</sup> 염형운은<sup>52)</sup> 염상섭의 해방 후기 문학은 비판의식의 부재와 일상

33) 김홍규, 「1920년대 초 한국자연주의문학재고」, 『고대문화』, 1970.

34) 김 현, 「염상섭과 발자크」, 『서울대학교양논문집』, 1971.

35)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한불연구』, 1974.

36) 김우중, 「산문정신의 구도자」, 『문학사상』, 제6호, 1973.

37)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38) 김용직 외, 유종호, 「염상섭론」, 『현대한국작가연구』, 민음사, 1976.

39)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40) 김열규·신동욱 편, 김화영, 「취우론」, 『염상섭 연구』, 새문사, 1982.

41) 김윤식, 「염상섭」, 『문학과지성사』, 1977.

42)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4

43) 정한숙, 「염상섭문학의 사회성과 세태풍정」, 『아세아 연구』, 53호, 1975.

44) 권영민, 「염상섭의 문학과 리얼리즘 인식」, 『염상섭 연구』, 새문사, 1982.

45)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46) 정호웅, 「염상섭의 전기문학론」,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 6집, 1985.

47)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782면.

48)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737면.

49)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50)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현실인식문제」,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51)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52) 염형운, 「해방후 염상섭 단편소설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세계로의 후퇴로 평가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염형운은 염상섭의 해방 이후의 단편소설을 “이데올로기의 투영을 통한 사회상 바라보기가 아닌 체험과 생활이 함께 한 사고의 전환을 통한 사회상 바라보기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염형운은 「삼팔선」을 통해 서울로 귀향 과정에서 직면한 좌우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조병도는<sup>53)</sup> 염상섭의 대한민국 건국기(1945~1950)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특징과 성격을 규명한다. 그는 ‘체험과 반영’이라는 소설의 본질과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애를 썼다고 한다. 조병도는 염상섭이 신의주에 머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실체를 감각적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염상섭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멸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삼팔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병도에 따르면 「이합」과 「재회」는 삼팔선을 넘게 된 사실에 대한 논리적 부연이었다. 조병도는 염상섭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좌우 통합을 추구했던 국민주의 계열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후 염상섭 소설에 대한 탈식민성을 찾아내는 연구는 배하은<sup>54)</sup>의 석사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를 해방기로 봤다. 이 5년 동안에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현실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배하은은 염상섭의 분단 이후의 상황과 소설을 연계시켜 분석한 바가 있다. 배하은은 소설 텍스트 분석에 더 중시하며 분석을 시도한다. 이외에 염상섭의 식민지 시대의 문학을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장두영<sup>55)</sup>이 했다. 장두영은 염상섭의 식민지 시대의 창작을 통해 식민지 현실 인식의 양상을 살펴본 바가 있다. 그는 소설의 미적 구조와 내용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용 분석에 치중한 기존 연구가 놓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염상섭의 해방 후기 문학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져 있다.

박성태<sup>56)</sup>는 염상섭의 해방 후기 문학에 나타난 중도적 정치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발표된 염상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민족의식의 의미화 양상’을 중심으로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성태는 염상섭을 민족자주와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중간파 지식인으로

2013.

53) 조병도, 「廉想涉 建國期(1945~1950) 小説의 이데올로기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7.

54)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5)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내적형식과 탈식민성』, 태학사, 2013.

56)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 『구보학보』 23집, 1호, 2019.

규명하였다. 박성태는 「이합」과 「재회」 연작을 통해 염상섭은 사상적 양극화와 일상화된 반공주의의 폐해를 그려냈다고 한다. 박성태의 다른 연구<sup>57)</sup>는 민족통합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는 염상섭이 「이합」과 「재회」 연작에서 중도적 화해를 통해 좌익과 중간파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민영<sup>58)</sup>은 「삼팔선」이 ‘민족적 현실의 자각’과 ‘작가로서의 복귀’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염상섭은 민족 작가의 목소리로 비약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식민적 주체라고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민영은 『만세전』의 귀향과 「삼팔선」의 귀향을 식민지와 피식민지 주체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삼팔선」을 해방 이후 피난민의 여로를 다니게 된 주체의 서사라고 주장한다. 그는 「삼팔선」이 탈식민 사회에서 고국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귀향의 여로에서 겪었던 문제가 「삼팔선」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해령<sup>59)</sup>은 염상섭의 「삼팔선」작품을 통해 정치의 사상성과 검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삼팔선」을 분석하여 해방 이후 냉전의 현실화와 함께 정치적 표현이자 거지에 대한 선택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이 사상통제와 검열의 일반문법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병순<sup>60)</sup>은 「이합」, 「재회」와 『효풍』을 분석하며 이 작품들이 중립적 노선을 표방하는 작품으로 규정하였다. 염형운<sup>61)</sup>은 염상섭의 해방기 문학 「이합」과 「재회」를 연구한 바가 있다. 그는 「이합」과 「재회」는 생활자의 진정한 생활을 찾아가려 노력하는 인물의 변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숙<sup>62)</sup>은 해방기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귀환의 양상을 고찰한 바가 있다. 이정숙은 「삼팔선」을 분석하며 염상섭의 「삼팔선」은 신의주에서 사리원을 거쳐 「삼팔선」을 넘어 남쪽으로 피난가는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함께 서민들의 고단하고 험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수빈<sup>63)</sup>은 해방 이후 염상섭이 지니고 있었던 시대

57) 박성태,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3호, 2021, 312-340.

58) 이민영, 「낮선 고국으로의 귀향과 탈식민사회의 근대 -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팔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5호, 2022.

59) 이해령,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4호, 2012.

60) 이병순, 「염상섭의 후기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10호, 1993.

61) 염형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배제를 위해 선택한 ‘생활자’의 지향점 - 염상섭의 「離舍」과 「再會」를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75호, 2021.

62)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48호, 2011

63) 박수빈, 「해방기 염상섭의 시대감각 연구- 해방기(1946~1949) 염상섭 단편소설을 중심

감각과 리얼리즘적 시각에 대해 분석했다. 박수빈에 따르면 염상섭에게 해방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재회」에는 겪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 해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들뜸과 흥분, 그리고 혼란과 감격이 실체 없이 난무했던 당대의 상황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19세기는 식민주의가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의 식민지를 지배받았던 나라들이 꽤 많았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일본도 동아시아에 식민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만주, 대만 등의 나라는 일본의 식민 야심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20세기 중에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세계 질서가 크게 흔들리며 식민하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되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세계적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새로 독립한 피식민지 국가 사이의 유사점은 분단이다. 이 피식민지 국가의 분단은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관찰되었다. 제국의 지배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제국의 지배는 식민 국가의 역사,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식민 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난 분단이었다. 피식민 국가의 분단은 지역성의 특징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식민 과정의 분단에는 독특한 유사성도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방되었다. 이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일본이 패했다는 것의 결과물이었다. 이 식민지의 지배가 끝난 후 한반도에서 미소의 새로운 신식민지가 도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냉전 체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 냉전 체계와 식민지의 영향의 이분법에서 새로운 국가의 형성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 과정의 양상이 다양하다. 그런데 제일 뚜렷하게 등장한 양상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충돌과 이 충돌로 인한 국가의 분단이었다. 피식민 후 국민국가의 형성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가라앉은 내부적인 갈등이 심하게 폭발하였다. 이 정체성의 갈등은 이념, 종교, 인종, 민족 등의 여러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지배가 종결한 후 일어난 사건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식민지와 제국주의는 제3국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식민지 국가의 분단을 항상 내부로만 혹은 국가의 내적 자료로 보는 경향이 많다. 즉 피식민 국가의 분단을 식민지 국가에서 생산된 문학이나 역사 자료로 보는 관점이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의 분단은 민족(ethnic)의 갈등과 인도의 분단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내부적인 요소에 그친다. 한국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분단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분단을 한국의 내부 시선으로 관찰해 왔다. 한국의 분단을 내부적인

---

으로」, 『돈암어문학』 제32집, 2017.



연구의 시선으로 보자면 한국의 분단은 신식민지의 도입으로 인한 사상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런데 제3국 국가의 분단의 한 독특한 공통점은 피식민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분단을 관찰하는 한 도구로 그 나라의 분단문학이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수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는 국가의 피식민 과정에서 일어난 분단을 그 나라의 문학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분단도 꾸준히 한국 내부에서 혹은 한국의 분단문학으로만 관찰되었다. 그래서 한국분단을 내부에서 분석하면 항상 단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한국분단을 한국 분단문학으로만 보는 것은 보수적이고 좁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분단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분단사를 새로운 시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분단된 국가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의 분단 의식과 관찰하는 관점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들의 글에서 분단의 양상을 한국의 분단과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한국의 분단을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국의 분단을 외부에서 혹은 동시에 분단된 국가와 비교하고 분석하면 한국분단에 대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피식민 과정에서 분단을 당한 국가의 분단문학과 한국의 분단문학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로써 탈식민지 국가의 분단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중간에 피식민이 된 국가가 많아서 모든 국가의 작가와 한국의 작가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피식민 과정에서 분단된 국가 중에서 인도와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인도는 200여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인도 및 한국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라는 점에서 탈식민주의라는 유사점이 있다. 식민 국가의 많은 작가는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 분단을 봤고 경험했다. 이들은 자기 작품에서 분단의 역사를 통합한 기록을 작성한 바가 있다. 본고는 한국과 인도의 분단문학을 통해 인도와 한국의 분단을 비교하려 한다. 양국의 분단 문학을 통해 분단의 문제와 국민<sup>64</sup>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탈식

---

64) 번역어로 수용된 'nation'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식민화와 분단의 과정을 거친 한국의 사회에서 nation의 번역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진태원, 이태훈, 장문석 등)가 진행되어 왔으니 이러한 논의는 서구사회로부터 유래한 nation이라는 개념체의 문제성에는 주목못했다. 인도는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라는 다양성이 있는 국가라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수는 없고 국민이라는 단어는 더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고는 nation의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나 민족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민족 대신에 내선의 번역인 국민, 민족주의를 nationalist(내셔널리스트)로 번역하여 내셔널리스트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민 국가의 수립을 관찰하려고 한다. 본고는 분단으로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탈식민지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해 보며, 한국분단에 대한 새로운 시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1.2. 연구의 시각

식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며 피식민 국가와 서구 국가 간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에서도 나타난다.<sup>65)</sup> 21세기의 세계화된 세계에서 공간과 사람들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역사와 그들의 경험도 서로 연결되었다. 19세기의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는 식민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는 국가의 발전, 평화, 통일에 있어 불평등과 폭력 등의 장애물을 가져왔다.<sup>66)</sup> 식민주의는 근대국가의 역사에서 흔히 '결정적 고비'(critical juncture)로 이해되기 때문에 해방국가의 운명의 '근본적 명분'(fundamental cause)이라는 유력한 요소로 등장한다. 식민 통치받은 사회는 분명히 식민지 이전의 중요한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식민 통치는 토착 제도를 파괴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식민 근대성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식민주의로서 도입된 변화라는 대규모의 폭력성은 국민국가의 구성과 국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sup>67)</sup>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피식민 국가의 식민 역사의 비교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시선을 얻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식민 욕망은 지방주의와 예외주의라는 관점으로만 고찰됐다. 김택현은 논하다시피 일본의 식민 욕망도 유럽의 영향 결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식민주의는 연결된 실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식민주의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는 유럽 식민지에 중시를 두었으며 유럽의 제국과 동아시아의 제국에 관한 비교연구는 많지 않다. 즉 유럽 식

---

65) Aparna Basu, "Colonial Education : A Comparative Approach", Proceedings of the Indian History Congress, Vol. 50, 1989, p.707.

66) S.J. Potter, J. Saha, "Global History, Imperial History and Connected Histories of Empire." Journal of Colonialism and Colonial History, vol. 16, no.1, 2015, p.2.

67) A. De Juan, J. H. Pierskalla, "The Comparative Politics of Colonialism and Its Legacies: An Introduction." Politics & Society, Vol. 45, no.2, 2017, p.160.

민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사이드가 논하다시피 문학 비교연구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비교문학의 영역은 사이드가 “비교연구의 영역은 유럽과 라틴 기독교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계층 구조로 인식론적으로 조직되었다”<sup>68)</sup>고 말한 것처럼 유럽 중심적 특성이 있다. 사이드는 이 비교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했다. “비교문학의 개념은 보편성과 어족에 대해 문헌학자들이 얻은 일종의 이해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없는 거의 이상적인 평온함을 상징했다.”<sup>69)</sup> 이런 교차문화적 비교연구의 가장 생산적인 잠재력은 겉보기에 이질적인 맥락을 가로질러 연결성과 관계를 찾아내고 지방주의(Provincialism)와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up>70)</sup> 따라서 제국의 식민지 역사 연구는 사람들이 장거리 상호 작용의 패턴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식민주의라는 공통의식”을 통해 세계의 멀리 위치한 장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로도 보여줄 수 있다.<sup>71)</sup> 분쟁, 국가 건설과등의 국가 간 차이를 드러내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단순히 “근접한”(proximate) 원인이 아닌 “근본적인”(fundamental)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sup>72)</sup> 유럽·비유럽 식민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식민 연구의 영어 편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73)</sup> 포터의 “대영제국을 하나의 봉인된 단일 세계 체계로 조사하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74)</sup>는 말을 인용해, 다르게 말하자면 동아시아 식민제국 유산의 연관성, 유사점과 차이점은 유럽식민지 유산의 연속으로서 일제 식민지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민 유산의 한 형태로서의 탈식민지 국가 건설과 정체성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서로 다른 제국과 서로 다른 식민지 내에서 특정 지역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유럽의 식민지 세력인 영국제국의 지배 받은 인도와 동아시아의 식민지 세력인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은 한국의 식민지 역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8)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1993, p.45.

69)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1993, p.45.

70) Ania Loomba, “Race and the Possibilities of Comparative Critique”, *New Literary History*, Vol. 40, No. 3, Summer 2009, p.501.

71) S.J. Potter, J. Saha, 앞의 글, p.3

72) A. De Juan, J. H. Pierskalla, “The Comparative Politics of Colonialism and Its Legacies: An Introduction.” *Politics & Society*, Vol. 45, no.2, 2017, p.160.

73) S.J. Potter, J. Saha, 앞의 글, p.3.

74) S.J. Potter, J. Saha, 앞의 글, p.3.

한국과 인도의 경우 식민지하에서 피식민되는 과정에서 분단이 이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분단은 식민지의 기능이 있어서 탈식민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인도 및 한국의 분단을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비교하며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과거와 현재의 식민지 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식민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이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끝과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식민주의 시대 종결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 군사·식량·경제 등의 원조를 받으면서 재식민화의 길을 걸었다.<sup>75)</sup> 김동춘에 따르면 이것은 ‘부드러운 식민주의’<sup>76)</sup>이다. 억압과 폭력에서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일상생활과 정신의 내면세계에까지 조용하게 침투한 제국의 지배세력은 정신적 활동의 전체에 걸쳐 간여하면서 철저하게 식민화 상황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한국의 분단은 이런 피식민화와 새로운 식민의 토착 사이에 일어났다. 다른 한편, 인도는 1947년에 해방되기 전에 두 나라로 분단하는 것으로 영국지배자들이 결정하였다. 이것을 스티븐 휴 리는 쇠락하는 대영제국의 영향력<sup>77)</sup>이라고 했다. 이 피식민지 과정이 탈식민 연구로 작품을 분석하고 내포된 탈식민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영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점점 붕괴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편에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에 항복했고 일본의 식민지는 독립을 얻었다. 식민 지배의 오랜 역사는 식민 국가의 문화, 언어 및 사회를 혼합했다. 즉 식민 지배는 토지뿐만 아니라 식민의 정신과 문화까지 식민화한 것이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신속했지만, 식민지 잔재로부터의 해방은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긴 과정이었다. 이 시기는 탈식민지 시기이다. 인도와 한국은 계속된 식민주의의 억압과 폭력에서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일상생활과 정신의 내면세계에까지 제국의 지배 세력이 스며들어서 철저하게 식민화 상황을 감추고 있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화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분단 이후 국민정체성의 형성의 원인, 양상 및 결과 찾기를 가능하게 한다. 또 탈식민주의는 해방기 당시의 작품들이 재현하고 있는 사상과 종교의 갈등이 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단국가의 갈등과 분단국가 간의 문제 등을 해석하는데 있어 적절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식민주의 정의는 사이드가 주장하였다.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주로

75)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아주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09, 4~5면.

76) 김동춘, 「한국 사회 과학에서의 탈식민의 과제」, 비평, 3, 2000, 10면.

77) 스티븐 휴 리, 나지원, 「분단국가들의 내전」, 『아시아리뷰』, 5집, 1호, 2015, 264면.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 이후 서구 탐험가, 시인, 소설가, 철학자, 정치 이론가, 경제학자, 제국 행정가들이 날조해 온 동양 또는 동양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78)</sup> 탈식민주의 이론가 길로이는 탈식민주의를 이렇게 규정한다. “제국주의와 식민 과거는 과도하게 발전했지만 더 이상 제국은 아닌 국가에서 정치 생활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sup>79)</sup> 길로이는 인종, 인종 차별주의, 이민자 및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국내 개념을 제국의 범위와 연결하여 신규 이민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sup>80)</sup> 피터 차일즈는 단순히 포스트 식민주의를 식민주의가 종식된 이후의 시대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사에서 한 시기에만 식민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sup>81)</sup> 그런데 이것은 탈식민주의 시간성의 문제도 있다. 역사적이나 개념적으로 틀을 너무 멀리까지 확장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문제이다.<sup>82)</sup> 차일즈는 탈식민지 연구가 유럽 중심이었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의 정의에 따라 한국은 탈식민지 사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영상섭도 탈식민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탈식민주의 이론은 인도의 탈식민지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탈식민지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들이 서구 중심적 이론을 가져 서구에서 정착하면서 인도의 탈식민주의를 개념화했다고 비판했다. 인도 현지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인도의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연구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이론의 인도에서 수용과 비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도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의 평가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서구 학계에서 시작된 탈식민지 담론은 인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탈식민지 이론은 인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인도의 현실 상황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인도의 현지인 학자들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불만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탈식민지 담론의 독특한 특징은 서구의 학문적 동질이다. 바바, 스피박이라는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학자는 서구에서 유학한 인도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담론에서 서구

78) Edward W. Said, *Orientalism*. Penguin Classics, 2003.

79) Paul Gilroy, *After Empire: Melancholia or Convivial Cul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4.

80)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저), 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 2004.

81) P. Childs, P. Williams,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London: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1997, p.2.

82)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저), 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 2004, 18면.

의 학문적 동질화를 실제로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동질화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탈식민주의 사회로부터의 문화적 생산에 대한 억압적이고 규범적인 폐쇄를 생성한다.<sup>83)</sup> 서구에 살아왔으며 서부에 학자들은 인도의 식민지 경험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인도를 피서구적 주체로 정의했다. 그런데 인도는 '피서구'라고 하면서 '서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피서구'는 서구적 용어이기 때문이다.<sup>84)</sup> 탈식민지 학자들은 대도시의 안락함에서 유럽계 미국의 권력에 의해 계속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투쟁을 주변화하는 담론을 제시하는 엘리트 초국적 지식인이다.<sup>85)</sup> 탈식민지 학자들이 선택한 언어도 문제삼고 있다. 이 학자들이 선택한 언어도 원주민이 아니라 식민지 개척자들의 언어였다. 지배적인 탈식민지 텍스트와 그 비평은 제1세계 독자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탈식민주의는 서양 이론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늘 아니라도 가장 잘 표현되는 것 같다. 파라나페(Paranjape) 이 논의는 서쪽에 의해 전유하려는 욕망이 분명하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이것은 탈식민지 학자들이 경멸하는 것과 모순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영토적 식민주의의 종말을 문화적, 학문적, 이론적, 철학적 식민주의의 영속화의 원천으로 바꾼다.<sup>86)</sup> 탈식민지 학자들은 탄압이 식민자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심했다. 이들은 카스트 제도, 종교적 공권력적 권위,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의 경제적 착취가 식민주의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sup>87)</sup> 서구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존재했던 인도 사회의 브라만식 구조와 수 세기 동안 인도에서 브라만 헤게모니의 구조는 이 학자들에게 무시되었다. 인도의 브라만급(Brahmin)의 구조는 하층 카스트 사람들이 학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출생의 공로에 대한 저작물을 부여하는 카스트 제도는 서구의 유학자인 학자들로부터 비판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비록 카스트에 기반한 폭력의 잔혹함의 책임이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가해졌다. 토착적인 형태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가 쉽고 자신의 동족들로 소외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외국의 주체였기 때문에 맞서 싸울 의

83) Saeed-Ur-Rehman, "Decolonizing Post-colonial Theory", Kunapipi, vol. 20, no.2, 1998, p.31.

84) Ashis Nandy, *The Intimate Enemy: The Loss and Recovery of the Self under Colonialis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73.

85) Arnad Chakladar, "The Postcolonial Bazaar:Marketing/Teaching Indian Literature.", Ariel-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Vol. 31, 2000, p.186.

86) Saeed-Ur-Rehman, "Decolonizing Post-colonial Theory", Kunapipi, vol. 20, no.2, 1998, p.32.

87) Saeed-Ur-Rehman, 앞의 글, p.33.

지는 있지만, 동족 압제자들에게 맞서 싸우고 반성하려는 의지는 이 학자들의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상당히 결여가 되었다. 탈식민지 담론의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수 세기 동안 학문의 특권을 누렸던 상류 계급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여전히 카스트라는 낙인에 직면해 있는 인도 사회는 이 학자들에 의해 침묵을 당했다. 동족에게 큰 불의를 가져온 원주민 대신에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춘 탈식민지 담론은 큰 자리를 잡았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자본주의 담론이라 서구 및 동양 혹은 식민지와 피식민지 권력의 차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보다 문화 시장(market)에 더 중시한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타자를 위한 어떤 여분의 담론적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마련할 수도 없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역설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곳에서 유래한다.<sup>88)</sup> 탈식민주의 담론이 서구 학계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도래하면 탈식민주의 사회의 문화적 생산을 위한 더 나은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양 사이에 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타자를 위한 어떤 여분의 담론적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마련할 수도 없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역설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곳에서 유래한다.<sup>89)</sup> 탈식민지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그 기원에 있다. 탈식민지 담론은 제1세계 학계에서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과거 식민지 사회의 문화 생산에 대한 비판적 수용은 여전히 서구에 의해 중재되고, 승인되고, 감시되고 억제된다.<sup>90)</sup> 서구 인식론은 여전히 지배적인 인식론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진정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sup>91)</sup> 서구의 전유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탈식민지 담론의 목표를 상실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현재 유통 방식으로 인해 서구의 문화적 물질적 헤게모니의 역사적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문화 및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sup>92)</sup> 예를 들어, 연애의 주제를 다루는 소설로 이어진 연애 결혼의 아이디어에 대한 원주민 작가의 영향은 대안적인 정서적, 사회적 기풍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것은 중매 결혼의 지배적인 관행과 대조적이었다. 페미니즘과 카스트 의식이라는 주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지역 문학의 주제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지배적인 브라만 상상은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진보라는 서구 부르주아 사상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탈식민지

88) Saeed-Ur-Rehman, 앞의 글, p.33

89) Saeed-Ur-Rehman, 앞의 글, p.33.

90) Saeed-Ur-Rehman, 앞의 글, p.33.

91) Saeed-Ur-Rehman, 앞의 글, p.33.

92) Saeed-Ur-Rehman, 앞의 글, p.34.

담론은 탈식민지 세계에서 작가들의 도시적 경험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도적'이라는 개념이 인도 사회의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글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전략은 식민지 때 반대 담론의 생성하는 목적이 있을 때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독립 이후 이 방법은 '인도적'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엘리트주의 미학의 지배로 바뀌었다. 일부 토착 비평 이론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미학적 틀에 인도의 도시 또는 대도시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제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성이 있다.<sup>93)</sup> 둘째로 인도에서 탈식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도학자들의 비평을 보기로 한다. 인도 영문문학 비평가 프란자페(M. Parajape)는 서구에서 유학하고 서구에서 학업 활동을 한 서구로부터 전유를 구하는 탈식민지 학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스피박과 바바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우리 학문 문화의 건전성은 미미하다. 그들은 서구와 대화하고 서구의 사고와 글쓰기 방식을 수정하려고 한다. 그들이 인도에 진정한 이해 관계가 있다면 인도에서 출판하고 그들의 작업을 인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인도의 간행물에서 그들 중 한명의도 글쓰기를 찾지 못했다.<sup>94)</sup> (연구자 번역)

프란자페의 비평을 서구 학계 내에서 비판적 텍스트의 출판, 마케팅, 유통 및 소비의 내재적 정치로 보아야 한다. 탈식민지 학자들은 인도 학계를 버리고 서구 학계를 위해 출판했다. 제미슨(Fredric Jameson)은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 문학'('Third 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이라는 글에서 제3세계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sup>95)</sup> 탈식민지 담론은 대도시 담론이다. 대도시 탈식민주의 담론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를 위협한다. 이것은 제3세계가 제1세계 학자의 소비를 위한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사실로 이어질 것이다.<sup>96)</sup> 잔 모하메드(Jan Mohamed)와 패리(Parry)<sup>97)</sup>는 탈식민주의 현실은 흑인과 백인, 식민자

93) Saeed-Ur-Rehman, 앞의 글, p.35.

94) Makarand Paranjape, "Coping with Post-colonialism",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edited by Harish Trivedi and Meenakshi Mukherjee,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p.42.

95)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vol.15, 1986, p.69.

96) Arnad Chakladar, "The Postcolonial Bazaar:Marketing/Teaching Indian Literature.", *Ariel-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Vol. 31, 2000, p.186



와 피식민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압제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매니교적인 (manichean) 이분법으로 양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에는 불순함과 비판적 순진함 외에는 그사이에 틈도 없고, 삼위일체도 없고, 혼성도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탈식민지 문학은 서구에서 영감을 받은 탈식민 학자들의 날카로운 이분법으로 부풀리지 않는 이 회색 영역에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병철도 한국의 탈식민지에 대해 “두 영토를 사이의 틈새에 개입 해야 하는 과제”로 규정한다.<sup>98)</sup> 룬바(Loomba)는 호미 바바의 저술에서 그가 한 가지 예를 취하고 전체 식민지 조우를 설명함으로써 “a particular act of enunciation to a theory of all utterance”<sup>99)</sup>로 도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관찰했다.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국민의 식민지적 체험은 경험이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 유사하다. 예를 보자면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인도와 매우 다르다. 일본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인도나 알제리를 식민지배한 것과는 다른 동기로 한국을 지배했다. 룬바(Loomba)는 스피박의 침묵하는 서발턴에 대한 이론이 서발턴의 행위의 불가능성을 시사하는 방법을 지적했다. 룬바(Loomba)에 따르면 바바와 스피박은 자신의 정체성과 선택의지를 회복하고, 협상하고, 선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스피박의 은 하위 주체의 목소리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주관성의 '노스텔지어, 수정주의적 회복'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는 것을 비판한다.<sup>100)</sup> 이 분야에 대한 독창적인 기여가 아니라 다양한 이론의 절충적인 조합으로 작동하고 이제 신식민주의의 규범적 중요성을 획득한 탈식민주의 문학의 또 다른 모델이다. 아룬(Arun P. Mukherjee)은 탈식민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sup>101)</sup>

1. 문화 생산물은 제1세계 탈식민주의 이론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센터(center)에 다시 쓰는 대신 모든 센터(center)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권 문학 연구나 이진주의 미학의 식민지 유산 이외의 명백한 영향은 단순히 무시된다. 이 이론은 탈식민주의 사회 문학의 주요 주제

97) Benita Parry,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vol. 9, no. 1,2, 1987. p.27-58.

98) 나병철, 「한국문학과 탈식민」, 『상허학보』 14집, 2005, 16면.

99) Ania Loomba, “Overworlding the Third World”,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it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4, p.309.

100) Ania Loomba, 앞의 글, p.309.

101) Arun P. Mukherjee, “Postcolonialism: Some Uneasy Conjectures”,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edited by Harish Trivedi and Meenakshi Mukherjee,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p.15.

는 현재 부재한 식민지 개척자에 대한 담론적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이론은 문제없이 제국에게 답을 보내는 작가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사회 구성원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3. 이 이론은 정착 식민지와 자신의 영토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이의 차이를 경시하며 둘 다에 대해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리스(Harish Trivedi)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피식민주의의 공포를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눈가림하려는 시도이며, 세계의 다양한 역사를 식민지 이전과 이후 두 개의 깔끔하고 위생적인 구획으로 나누어 보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한다.<sup>102)</sup> 더욱이, 연구 분야로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지식 분야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제 및 제도와 한 분야의 담론적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멀리서 영어로 글을 쓴 많은 작가가 대작가로 칭송받는 이유다. 서구 청중들 사이에 인쇄되어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하리스 트리베디(Harish Trivedi)는 힌디어 문학에 대한 탈식민지 비평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인도의 다른 언어 문헌에 대한 탈식민주의 비평이 결핍되어 있다. 탈식민주의의 궤적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결합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빠진 탈식민주의 문학과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탈식민주의 문학의 해석 모두를 경멸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영어로 작품 활동하고 인도의 현지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작가들만 계속해서 검토를 받는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새로운 탈식민지 비평가들은 다양한 탈식민지 문학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sup>103)</sup> 현지화되고 개인화된 체험과 인식을 통합한 작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다르(T.N Dhar)는 처음에는 탈식민주의는 대체하려는 제3세계에의 코먼웰스 문학 이론과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거의 전 세계를 위해 수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104)</sup> 프라사드(GJV Prasad)는 인도 탈식민지 학계에서 영어영문학만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주장했다. 그는 인도의 다른

---

102) Harish Trivedi, "India and Post-colonial Discourse",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edited by Harish Trivedi and Meenakshi Mukherjee,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p.235.

103) Arnad Chakladar, "The Postcolonial Bazaar: Marketing/Teaching Indian Literature.", Ariel-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Vol. 31, 2000, p.186.

104) T.N Dhar, "History, Myth and The Post-colonial: The Indian context",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ed. by Harish Trivedi and Meenakshi Mukherjee,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p.141.

언어로 창작된 작품들도 유사한 탈식민주의 경험으로 창작되었다고 하며 이 작품들이 무시당한다고 했다.<sup>105)</sup>

지금까지 유럽 중심적인 탈식민지 담론의 문제에 대해 보았다. 서구의 식민지가 아닌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는 진실하고 진정한 연구에 큰 한계가 될 수 있다. 제3세계의 문학에 대한 탈식민지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탈식민지 연구는 식민지를 겪은 모든 언어와 지역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는 현지화된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서구의 영향을 무시해야 진정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인도의 현지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인도의 대표적인 탈식민지 이론가들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의 분단을 공통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적합한 연구 방법은 어떤 것 있을까? 이런 연구 방법은 탈식민주의 이론과 혼성된 연구 방법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기억과 망각으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태도와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기억과 망각의 역할을 고찰하는 시도이다. 본고의 개념적 틀은 주로 탈식민주의 이론에 의존하지만, 기억과 망각 또는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기억과 망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억의 개념을 국민 정체성 형성에 적용하여 탈식민지적 접근을 통해 기억, 정체성과의 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기억과 망각의 연구에는 탈식민주의 담론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탈식민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sup>106)</sup> 문화적 기억은 탈식민지 담론의 핵심이다. 비교문학은 탈식민지 담론의 공통점과 기억이 국민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사회의 세력인 주체가 과거를 회상하는 언어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형성한다.<sup>107)</sup> 언어권 전반에 걸친 문학 연구는 특히 기억 연구와 탈식민주의 연구 사이의 새로운 동맹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sup>108)</sup> 세계 문화사의 거시적 수준에서 문학은 연상기호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레나트(Renate Lachman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학은 문화의 기억이며,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라 문화에 대해 기록된 지식을 포함하는 기념 행위의 집합체이다.”<sup>109)</sup> 이것은 아스트

---

105) G.J.V. Prasad, “Reply-paid Post-colonialism: The Language of Indian English Fiction”,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p.188.

106) Michael Rothberg, “Remembering Back.” *The Oxford Handbook of Postcolonial Studies*, edited by Graham Hugg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360.

107) Michael Rothberg, 앞의 글, p.362.

108) Michael Rothberg, 앞의 글, p.362.

109) Renate Lachmann, “Mnemonic and Intertextual Aspects of Literature”.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ited by Astrid Erll and

리드(Astrid Erll)이 “문학 속의 기억“과 대조적으로 “문학의 기억“이라고 주장한다.<sup>110)</sup> 다시 말해, 문학이 기억을 주제화하는 방식과 식민지 역사 및 유산과 관련된 현재의 기억 담론을 표현, 생산, 제시, 비평 또는 반영하는 방식이다. Erll은 문학에서 그러한 기억의 모든 단계는 사회의 기억 담론과의 역동적인 교환 관계에 관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sup>111)</sup> 비르기트 노이만(Birgit Neumann)은 문학이 단순히 기존의 기억 담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버전“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sup>112)</sup> 문학 및 기타 문화 생산은 “실제와 상상, 기억된 것과 망각된 것, 그리고 내러티브 장치를 통해 기억의 작동을 상상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sup>113)</sup> 하바트(Herbert Uerlings)는 문학에서 기억의 시학은 문학과 예술의 개별 작업의 미학적 또는 형식적 의미/의도성을 사용하여 본질적인 “탈식민주의 문학의 잠재력“을 실현한다고 논의한다.<sup>114)</sup>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지 담론에서 기억과 망각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기억은 작품을 통해 식민지와 신식민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가의 태도를 의미할 것이다. 식민지 과거에 대한 이러한 회상은 현재와 미래를 형성함을 논의할 것이다. 즉, 이 기억과 망각은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민 정체성 형성은 식민지배에 의해 파괴되고 연대감은 탈식민주의적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학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하에서 식민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인도와 한국의 역사학은 오리엔탈리즘적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역사학도 서양 제국주의 역사학과 비슷하다. 일본의 역사학은 한국의 역사학을 지배했다.<sup>115)</sup> 김택현은 일본을 ‘동양의 서양’이라고 했다. 인도와 한국의 역사학은 내셔널리즘주의 역사학이다.<sup>116)</sup> 한국의 역사학도 내셔널리즘주의 국가 수

---

Ansgar Nünning,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08, p.301.

110) Astrid Erll, *Collective memory and cultures of remembrance*, Stuttgart: Metzler, 2011, p.74.

111) Katia Pizzi, Dirk Göttsche, *Memory and Postcolonial Studies Synergies and New Directions*, Oxford: Peter Lang Ltd International Academic, 2019, p.14.

112) Birgit Neumann,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Memory”,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ited by Astrid Erll and Ansgar Nünning,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08, p.334-5, p.341.

113) Birgit Neumann, “앞의 글, p.334.

114) Herbert Uerlings, “Ich bin von niedriger Rasse”, *(Post-) Kolonialismus und Geschlechterdifferenz in der deutschen Literatur*, Cologne, Weimar: Böhlau, 2006, p.15.

115)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155면.

116) 김택현, 앞의 책, 157면.

립의 관점으로 쓰였다.<sup>117)</sup> 국민국가를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쓴 분단사는 대부분으로 승리의 기록이나 악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분단사는 '강력한 내러티브'의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다른 공동체의 형이상학적 정체성과 집단적 운명에만 관심이 있다.<sup>118)</sup> 역사는 민중의 일상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시간에서의 행동을 논하지 않는다. 분단사는 과거에 '회고적 명료성'과 합리성을 부여한 목적론적 역사이다.<sup>119)</sup> 국가가 만들어낸 기억은 항상 새로운 국민국가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분단의 역사를 쓰면서 내셔널리즘주의 역사가는 분단 이후의 민중의 이동과 이주 또는 분단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즉 내셔널리즘주의 역사학에서는 민중의 고통과 곤경을 쉽게 무시해 왔다. 수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는 국가는 해방 이후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 갈등은 물론 식민지의 유산 혹은 식민지배자들의 정치 정책의 결과물이었다.<sup>120)</sup> 갈등은 드디어 내전을 일으켜 국가의 분단을 초래했다. 그러나 독립과 국민국가가 수립 이후 역사의 기록은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다. 새로 형성된 국민국가와 정부가 명령한 역사는 국가의 독립을 국가의 분단보다 더 큰 사건으로 여겼다. 내셔널리스트(Nationalist) 역사학은 식민주의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방대한 서사를 설정했다. 탈식민지 내셔널리스트 역사도 식민지 개척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독립 국가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역성과 개인성이 있는 진술보다 내셔널리스트주의적 역사 기록을 더 중요시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 역사학은 국민의 비난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형성된 민족 국가의 의제를 강화하려는 것과 국민 국가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폭력에 대한 민중의 서사는 독립의 장대한 서사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셔널리스트주의 역사학만으로는 탈식민지 사회의 절반 사실만 알 수 있다. 국가가 공동체의 기억을 만드는 데에 있어 개인적인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다. 내셔널리스트주의 역사학은 해방을 큰 사건으로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이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고난이 제외되었다. 이 현상은 역사의 일반화이고 특정화 혹은 개인

117) 한국과 인도에는 국가의 피식민지는 새로운 경계선을 그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한민족과 한반도는 수천년 동안 하나였으나 탈식민지화와 정치사상으로 인하여 분단되었다. 인도와 한국의 국민주의적(nationalist) 목적으로 기록된 분단사를 탈식민지적인 특징이 있다. 즉 식민지는 역사학을 크게 영향을 마쳤다.(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156면.)

118) Robert Jay Lifton, Eric Markusen, *The Genocidal Mentality: Nazi Holocaust and Nuclear Threat*, London: Macmillan, 1988, p.12.

119) Paul Ricoeur, Kathleen McLaughlin, David Pellauer, *Time and Narrative*.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157.

120) 스티븐 휴 리, 나지원, 「분단국가들의 내전」, 『아시아리뷰』, 5집, 1호, 2015, 260면.

화가 아니다. 내셔널리스트주의 역사학은 분단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고 이 탈식민지 역사학을 통해 분단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다. 분단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면 국민이 당한 고난과 아픔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트라우마도 내셔널리스트주의 역사의 큰 범위 밑에 으깨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민지 시대 작가들의 작품에 반영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으로 분단의 큰 과정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단의 문학은 분단을 겪은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을 목소리를 주었다. 문학은 분단 동안 일반 사람들의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진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공적 기억에 기록되지 못한 상처 난, 침묵된, 지워진 분단의 역사가 문학으로 생생해진다. 이렇다면 문학이 역사 사건의 진정한 진술이 될 수 있느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문학은 작가가 글로 표현한 일상의 경험이다. 역사는 사건을 공동체주의 기억으로 기록하는 것인 반면, 문학은 역사 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응과 파악으로 구성된다. 즉 문학은 역사 사건에 대한 큰 관점이 아니라 역사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역성과 개인성이 있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 구하(Ranajit Guha)가 문학은 역사를 보강한다는 논의를 빌리고<sup>121)</sup> 반대적으로 인용하자면, 문학은 경험으로서 국민주의적 역사라는 큰 개념에서 탈피하려면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이 역사에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언(Ian Watt)의 ” 인간의 기본 관습과 경험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보도이다<sup>122)</sup>” 라는 문학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역사 재기록과 국민주의 역사에서 탈피하려는 데에 있어 좋은 방법이다. 역사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객관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지만, 문학은 여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기록이다. 이 객관적인 관점은 인간의 정서와 체험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구하는 “세계사의 소음과 그 국가주의적 관심이 역사학을 일상생활의 한숨과 속삭임에 둔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sup>123)</sup> 디두르(Jiles Didur)의 주장을 따라 하면 역사와 문학의 진정성 사이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디두르가 지적했듯이 역사와 문학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sup>124)</sup> 그러므로 문학이 역사

---

121) “우리의 내러티브는 일상생활 수준의 인간 행위자에 대해 경이로움을 담아야 한다고 하며 국가 발전을 나타내는 엄격한 형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은 국가의 공익에 초점을 두는 것을 비판한다. 구하는 역사가 인간의 일상적 경험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는 문학에 대해 문학은 경험의 전형적인 서사라고 말한다(Ranajit Guha, *History at the Limit of World-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2, p.55.)

122)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Harmondsworth: Penguin, 1970, p.33.

123) Ranajit Guha, *History at the Limit of World-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2, p.73.

124) Jill Didur, “Fragments of Imagination: Rethinking the Literary in Historiography

사건을 보장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역사 사건에 대한 역사에서 생략된 개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문학에 등장하는 것이 “임의적 상호 연결성”의 원리에 대한 것이라는 캐롤린 포터(Carolyn Porter)의 주장을 참조할 수 있다.<sup>125)</sup> 포터는 역사와 문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종균은 역사를 문학으로 살펴보는 것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다룬 문학작품은 마구 얽혀 있는 사실들 속에서 특별한 인과관계를 뽑아 '이야기'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에 집중할 수 있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한 사건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며, 공적 역사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문학의 리얼리즘이 가진 힘을 믿으며, '분단'이라는 묵직한 역사를 현재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선택했다.<sup>126)</sup>

이 논의를 통해 역사와 문학은 포괄적인 역사를 기록하는데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김상수는 문학은 현실의 재현이기 때문에 더 신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학은 역사적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역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27)</sup> 김종균은 문학은 현실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분단문학을 관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논의한다. 문학은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이 만들어 낸 허구적인 서사이지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문학은 역사적 사실보다 진실성을 담고 있어서 생생하다.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문학은 복잡한 사실을 드러내기에도 의미가 있다.<sup>128)</sup> 이런 점으로 보자면 본고는 분단의 역사 사건을 그 당시 작가의 문학적인 대응을 통해 관찰할 것이다. 본고는 분단의 비극이라는 사건으로 고통을 서사하는 작가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은 모두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분단을 경험했다. 쿠스완트 싱과 염상섭은 이 가까운 데에서 체험한 분단을 자기 작품에서 기록한 바가 있다. 이들의 창작한 문학은 내셔널리

---

through Narratives of India's Partition“, *Unsettling Partition: Literature, Gender, Mem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6, p.52.

125) Carolyn Porter, “History and Literature: ‘After the New Historicism.’” *New Literary History*, vol. 21, no. 2, 1990, p.258.

126) 이병수, 통일인문학연구단, 『기억과 증언 : 소설로 읽는 분단의 역사』, 쌤크스마트, 2020, 9면.

127) Kim Sang Soo,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Intertextuality and Agency“, *영국연구* vol.17, no.0, 2007, p.488.

128) 이병수, 통일인문학연구단, 『기억과 증언 : 소설로 읽는 분단의 역사』, 쌤크스마트, 2020, 8면.

스트주의 역사학으로 외면된 분단의 서사를 말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의 인도와 한국 사회가 탈식민적인 사회였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해방기 소설과 쿠스완트 싱의 해방기 소설에서 탈식민성의 추출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은 분단을 이해하는 데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염상섭의 해방 후 단편소설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텍스트는 원본에 충실하되, 부득이한 경우 『염상섭 전집』과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의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 염상섭 전집은 113편 중 「삼팔선」, 「이합」, 「재회」 3편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염상섭은 국민과 국민 정체성을 추구하고 작품 활동했다. 김윤식은 염상섭의 해방기 이후 문학은 체험 문학이라고 평가하였다.<sup>129)</sup> 이 체험에는 한반도의 해방 이후 분단과 난민 의식이 드러난다. 이 소설의 특징은 자전적이고 피난민으로 경험했던 체험으로 구성된다. 염상섭의 해방 후기의 창작은 분단 의식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해방 공간에서 발표된 중기단편 「삼팔선」, 「이합」, 「재회」로 기반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박사 논문으로써 3편의 작품으로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염상섭의 해방공간에 발표된 다른 작품에서 사례를 표시하고 논의를 보강할 것이다. 염상섭은 10여 년간 조국을 떠나 제국이 건설한 만주국에서 생활했고 만주로부터의 귀환을 통해 ‘개인적 체험의 소설화’<sup>130)</sup>으로써 분단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문단에서 문제적인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염상섭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삼팔선」, 「이합」, 「재회」를 기본으로 하여 만주 체험과 해방 후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진술에 바탕을 둔 사상적 정체성의 대립으로 국가 분단 혹은 사상적인 국민 정체성의 욕망과 여파를 살펴볼 것이다. 『파키스탄행 열차』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체험 문학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리고 싱도 자기 문학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의 고통받는 일반 사람들의 진술이다. 또한, 분단 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학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의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진술을 통해 인도의 분단 혹은 종교적인 국민 정체성의 욕망과 여파를 살펴볼 것이다. 인도 및 한국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도와 한국의 분단문학을 비교하는 것이다. 해방된 인도와 한국의 작품에서 나타난 분단 트라우마의 양상을 비교하며 분단 사건을 담고 있는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작품에서 기억과 망각으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기억과 망각 또는 국민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종교와 사상적인 국

129)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687~688면.

130) 권영민, 『廉想涉全集 別卷)廉想涉 文學研究』, 민음사, 1987, 196면.



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작가들의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분석을 하면서 기억과 망각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억과 망각의 현상은 작품에서 어떤 공통과 차이점으로 나타났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탈식민주의와 기억과 망각의 방법론은 질적 연구의 범주에 속하며, 선별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적인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본고는 이 기억과 망각을 통해 국민 정체성 형성의 탈식민주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연구는 모든 담론이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 지식과 의미의 체계에 기여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소설을 분석하고 외면된 분할의 사실을 보완할 것이다. 이 이론적 분석에서 식민 세력에 대한 반동의 개념, 정체성의 탐색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될 문학 텍스트에서 의미의 한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관점이다. 인도 소설의 탈식민지 담론의 시각을 통해 한국 소설 전체에 대한 서술을 비교하여 한국 소설가와 인도 소설가의 분단을 바라보는 시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텍스트의 서술적 분석을 할 것이다. 연구는 해방 이후 변하는 상황과 국민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를 찾아낼 것이다. 인도의 소설가는 인도의 분단을 일으키는 원인과 양상을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지를 찾아내고 한국의 소설가의 파악 방식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해방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에서 제공되는 특정 사건으로 더 세밀하게 볼 것이다.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억과 망각, 정체성, 폭력의 관계가 있다. 연구자는 한국과 인도의 탈식민화 시대 또는 탈식민지 시대의 기억과 정체성과 폭력의 관계를 작가들이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인도와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억과 망각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 기억과 망각이 작품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논의하고, 두 작품에서 이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억과 망각의 현상에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국가 수립의 과정은 식민지와 신식민지 이분법에 얽혀 매는 것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식민지 시대를 망각하고 신식민지하에서 희망찬 국가를 만드는 것과 상은 식민지 시대를 기억하며 희망찬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고는 기억과 망각의 키워드로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 정체성 형성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작품에서 분단은 어떻게 논의 되었는가 그리고 작가들의 시점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차이와 공통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시도를 하겠다.

제 II 장은 쿠스완트 싱의 작품 『파키스탄행 열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한 분단 상황에서 국민이 당한 고난에 관한 서술이다. 본 장에서 인도의 분단을 탈식민주의 종교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인도가 피식민지 과정에서 분단을 겪었던 것을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기억과 망각으로 단일한 종교적인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 종교적인 정체성 형성과정의 양상을 통해 작가가 바라보는 시점을 설명하며, 종교적인 국가 수립의 비극적인 여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III 장은 염상섭의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 대한 분석이다. 본 장은 모든 것이 빼앗기고 피난민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트라우마를 깊게 설명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염상섭의 개인 경험으로 쓰인 「삼팔선」에는 민주에서 쫓겨난 조선인들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본 장에서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사상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논할 것이다. 해방 후 피식민지와 신식민지의 틈에 있는 한국의 분단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에 제시했다시피 기억과 망각으로 과거를 밝아보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국민국가 수립은 단일한 사상적인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시점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염상섭은 사상적인 정체 형성과정의 양상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상적인 국가 수립의 비극적인 현실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제 IV 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작품 속에서 식민지의 지배 전략을 논하고, 탈식민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양국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분단을 바라보는 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쿠스완트 싱과 염상섭이 식민지를 감각하는 차이와 유사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 2. 종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 분단

### 2.1. 종교적 갈등과 국민의 분열

인도의 분단은 인도의 해방과 함께 왔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도의 해방은 분단의 결과이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1947년 8월 15일 독립을 얻었고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4일에 독립되었다. 이 해방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라는 두 나라 혹은 국가 수립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인도의 분단은 큰 폭력과 대규모의 집단 학살로 끝을 맺었다. 인도 역사에서 분단의 폭력은 제일 큰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단을 당시 작가들이 여러 차원으로 분석한 바가 있지만, 공통하게 나타난 것이 폭력과 집단 학살이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분단의 원인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작가들 중에는 분단을 체험한 작가들도 있고 분단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도 있다.

쿠스완트 싱은 첫 번째로 분단을 서사화한 작가이다. 그는 분단의 8년 이후 『파키스탄행 열차』를 창작했다. 그래서 인도 분단 문학에서 『파키스탄행 열차』는 큰 의미가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작가의 개인 경험이고 내셔널리스트 역사학과 대립하는 지역적인 진술로 작성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그려진 장면은 분단을 기록하는 데에 있어 내셔널리스트 역사학과 대립한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분단의 폭력과 폭력의 원인,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타자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인도의 분단 문학에서 큰 의미가 있다. 쿠스완트 싱은 라호르에 있을 때 분단의 폭력 중에서도 정체성의 중요해지는 사건을 경험했다. 라호르에서 싱의 이웃들은 파시교도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은 폭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슬람교도에 의해 학살과 폭동을 당하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을 보았다.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독교인 이웃 사람은 집 앞에 십자가를 걸었다. 이것은 폭도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었다<sup>131)</sup>.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한 마을인 마노 마즈라의 이야기로 분단에 대한 미시적인 시각으로 분단 이야기를 그리는 것에 애를 썼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처음에 ‘마노 마즈라’라는 제목으로 출판되

131) Khushwant Singh, Truth, Love and a Little Malice: an Autobiography, New Delhi: Penguin Books in association with Ravi Dayal Publisher, 2003, p.112.

었고 나중에 ‘『파키스탄행 열차』’로 제목을 바꿨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에서 분단을 해방의 한 아쉬운 결과물로 보는 담론을 비판한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힌두교도 중에서 한 종교만 고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쓴 작품이다. 그래서 분단에 대한 사실성이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의 이유는 쿠스완트 싱의 삶에서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현재 파키스탄 깊숙한 곳에 있는 영국령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에는 이슬람교도의 대다수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마을에서 소수 종교로서 존재했다. 싱은 시크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웃의 다른 종교인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힌두교와 다른 종교의 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쿠스완트 싱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둘 다와 매우 좋은 교감을 했으며 변호사로 라호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차별 없이 모두 비서로 고용했다. 라호르에 정착하는 동안 그의 이웃들은 기독교인과 파시교도였다. 심지어 라호르에 있을 때 몰비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배웠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싱은 그 당시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고 그들의 의식에 대해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인도가 분단되기 전에 파키스탄의 라호르란 도시에서 변호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분단을 체험했다. 그는 시크교라서 파키스탄에서 도망치고 인도에 가야 했다. 쿠스완트 싱에 따르면 편자브의 이슬람교도들은 조직적이어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을 더 많이 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편자브 경찰은 대다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서 불행히도 당파적이었기 때문에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을 죽이는 것을 도왔다. 파키스탄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왔던 쿠스완트 싱의 친구 만주르 카디르(Manzoor Qadir)는 시크교도 학살을 보았다.<sup>132)</sup> 그래서 쿠스완트 싱에게 파키스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인도로 도망가라고 했다. 카디르는 상황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오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기회가 오지는 않았다. 쿠스완트 싱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어떤 흔적도 없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크교도들은 터번과 긴 턱수염 때문에 쉽게 확인되었다고 말했고 이렇게 쉽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학살을 많이 당했다고 했다. 쿠스완트 싱이 살고 있던 라호르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새로 만들어진 파키스탄에서 쫓겨나고 소유한 재산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빼앗겼다. 싱은 분단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험했고 분단 이전, 분단 당시와 분단 이후의 시대에서 살면서 분단을 일으키는 과정을 세밀하게 봤기 때문에 분단을 일으킨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싱에 따르면 시골 전체가 공포에 질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132) Khushwant Singh, 앞의 책, p.113.

않았다. 분단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사는 가족들은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피난민이 되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나 파키스탄으로 간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부딪혔다. 폭력과 재산 및 생계의 손실은 피난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sup>133)</sup> 싱은 시체들이 주위에 누워있는 것과 도시들이 화염에 휩싸인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쿠스완트 싱은 라호르에서 인도로 탈출한 후 한 사건을 자기 인터뷰 또는 자서전에서 언급했다. 그는 카술리(Kasauli)에서 델리로 가는 길에 몇몇 젊은이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그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슬람교도들을 제거했다고 말한 것을 쿠스완트 싱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sup>134)</sup>. 싱은 이런 널리 퍼진 혐오, 폭력과 적대감으로 인한 끔찍한 광경을 본 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싱은 이 모든 죄책감과 속죄는 나중에 『파키스탄행 열차』로 출판된 소설 ‘마노 마즈라’를 쓰게 만들었다고 했다. 『파키스탄행 열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작품에 대한 쿠스완트 싱 스스로의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쿠스완트 싱은 이 소설이 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물’이라고 하며 이 소설은 분단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공동의 화합과 유감을 조성하기 위해 쓴다고 덧붙였다.<sup>135)</sup> 『파키스탄행 열차』에 쿠스완트 싱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싱이 자기 자서전에도 썼다.<sup>136)</sup> 이것은 로이도 언급했다.<sup>137)</sup> 이것을 보자면 『파키스탄행 열차』는 쿠스완트 싱이 직접 경험한 분단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첫 소설, 『파키스탄행 열차』를 썼다. 나는 이 소설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등장인물들과 줄거리로 구성된 사탕발림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

133) Andrew Whithead,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134) Khushwant Singh, Truth, Love and a Little Malice: an Autobiography, New Delhi: Penguin Books in association with Ravi Dayal Publisher, 2003, p.113.

135) Kuldipsinh Dilipsinh Jadeja, “The Partition Of India And Its Reflections In The Select English And Hindi Novels: A Comparative Study”, Mewar University, PhD Thesis, 2018, p.43.

136) Andrew Whithead,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137) Rituparna Roy, “Partition: The Holocaust”, South Asian partition fiction in English: From Khushwant Singh to Amitav Ghosh,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34.

도 분단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것은 나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나는 이슬람교도나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놀랍게도 반응이 아주 좋았다. 내가 염두에 둔 주제는 인도의 분단과 그에 수반된 끔찍한 대학살이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몇 가지 줄거리를 고려했고 많은 인물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모든 인간이 힌두교의 신들인 브라흐마, 비슈누 그리고 시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중 하나 또는 다른 면이 우세하다. 아마도 브라흐마의 측면은 농부, 비슈누는 치안관사와 같은 법의 지지자에 의해, 그리고 시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악을 파괴하기를 원했던 공산주의자를 통해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후,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줄거리를 좌우하기 시작했고 소설은 이런 형태로 쓰였다.<sup>138)</sup> (연구자 번역)

싱은 라호르에서 유명한 변호사 밑에서 변호하면서 소송들로 작은 마을과 읍내를 방문했다. 이 방문지는 소설 줄거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설의 배경과 등장인물들은 실제 사람들과 장소에서 영감을 얻었다. 쿠스완트 싱은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자신이 자주 방문했던 강변의 몇몇 마을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쿠스완트 싱은 그가 변호한 소송들 덕분에 이 마을들에 익숙했다. 또한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몇 명 인물들은 허구이지만, 애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시크교도 남자 또는 몇 명 다른 등장인물들은 실제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로 그렸다고 했다. 또한 쿠스완트 싱은 이 소설을 쓸 때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개인적인 경험이 소설의 핵심이 되었다고 했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을 폭력, 이주, 학살 등의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도와 비슷하게 그린 『파키스탄행 열차』의 평화로운 마노 마즈라처럼 인도의 마을도 분단으로 인하여 집단 학살에 참여하게 되며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와 유사하게 자기 고향을 떠나 파키스탄에 가게 되었다는 이슬람교도들이 많았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나타나시다시피 지방의 평화도 결핍되어 공포, 혐오가 널리 퍼졌다는 것은 인도 지방의 현실이 되었다.

138) Andrew Whithead,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본 장에서는 분단을 체험한 쿠스완트 싱의 분단 서사 『파키스탄행 열차』를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쿠스완트 싱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제시한 분단을 일으킨 탈식민주의의 특징, 둘째 분단의 자세한 양상, 마지막으로 분단의 여파를 살펴볼 것이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쿠스완트 싱은 인도의 분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원인의 공통점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이다. 이 지배전략으로 식민지의 외부적인 것이 인도 사회의 내부적인 혹은 종교와 결합하여 분단을 일으켰다. 이 내부적인 것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하고 소환하는 것으로 상황을 더 억압시켰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의 원인을 여러 차원의 복잡한 결합으로 그렸다. 이의 한 차원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으로 인한 과거의 종교 갈등의 기억 혹은 영국제국의 분할 지배의 기억이고 이를 이해하기에 실패하거나 정치 권력을 얻는 것의 욕망에 빠진 정치인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식민지의 지배전략의 기억을 망각시키기보다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의 기억을 소환하고 갈등을 더 강제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지식인도 지배전략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탈식민적인 기억과 정치인의 태도를 이해하지 않고 분단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 식민지 세력인 영국의 정책이 어떻게 분단의 기억과 망각의 원동력이 되었는가 살펴볼 것이다.

Iqbal felt his temper rise. ‘They are a race of four-twenties,’ he said vehemently. ‘Do not believe what they say.’ .....

I have lived in their country many years. They are nice as human beings. Politically they are the world’s biggest four-twenties. They would not have spread their domain all over the world if they had been honest.<sup>139)</sup>

“저는 그들의 나라에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들은 좋은 인간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남을 믿지 말라는 420조를 만들어 낸 최강대국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직했다면 세계 도처에 자기네 지배력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sup>140)</sup>

139)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3.

140)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78면.

이 인용문에서 싱은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공동체의 증오를 부추기는 영국의 통치를 비판한다. 쿠스완트 싱은 본 인용문에서 인도 정치인과 영국 통치자들이 서둘러 인도를 떠나 권력을 이양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sup>141)</sup>. 싱은 소설에서 영국 지배자의 정치 정책을 비판하고 도둑과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여러 학자가 지적하시다시피 영국 지배자는 인도를 통치하려고 종교 간의 공동체적 혐오를 선동했다. 뻔데이에 따르면 영국 지배자와 학자는 종교 간 소규모의 충돌을 큰 집단적 폭력으로 묘사했다.<sup>142)</sup> 이런 태도는 민중 사이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갈등의 기억을 만들어 놓았다. 영국의 지배전략은 갈등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화합의 기억을 망각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종교 간의 혐오가 커지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통치가 끝난 후 이러한 공동체적 증오는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 영국 지배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도를 서둘러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수 세기 동안 인도를 지배할 목적으로 이용해오던 종교 간의 혐오는 해결되지 못했다. 급하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다른 나라로 분할하는 것이었다. 영국 지배자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도 영국의 이런 공동체적 혐오에 대한 해결법을 쉽게 받아들였다. 쿠스완트 싱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영국 지배자들과 인도 정치인들을 함께 나라를 분할시킨 사기꾼이라고 상기시킨 것은 이 식민지 지배전략 혹은 분할 통치의 다른 모습이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영국의 지배 정책은 사람들을 종교를 강하게 믿게 했고 이는 독립 이후 분단 때 더 강화되었다. 우익 단체도 이 정책을 이용하며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의 책임자로 다른 종교를 고발하였다. 그 결과로 다종교에 대한 불만과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고정관념은 점점 커졌다. 서서히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품기 시작했다. 인도 사회에서 종교가 빠질 수 없다는 현실을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가 활용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는 종교가 제일 중요한 사회와 집단주의 정체성의 기억이 되었다. 『기억의 소환』의 이 인용문은 종교가 인도인들에게 최고란 것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가리킨다는 장면이 있다. 이를 통해 싱은 소설에서 마노 마즈라 사람들에게 종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If we have no faith in God then we are like animals,” said the

141) Radhika Chopra, “Partitioned Lives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nd Manju Kapur’s ‘Difficult Daughters.’” *Indian Literature* Vol. 54, no.3, 2010, p.166.

142) Gyanendra Pandey, “The Colonial Construction of Indian Past”, *The construction of communalism in colonial north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23.



Muslim gravely.”<sup>143)</sup>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지요” 무슬림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sup>144)</sup>

식민지 지배자들이 백 년동안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대립시키며 지배한 것 혹은 분할 지배는 더 나아가 집단적 동족 살해(communal fratricide)로 변했다. 이 동족 살해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권력인 관료, 경찰, 군인들 모두를 휩쓸었다는 것은 인도의 분단 역사의 사실이다.<sup>145)</sup>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의 마노 마즈라 마을 사람들이 분단에 대해 전혀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는 수많은 세월 동안 종교 간의 화합을 기억해 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영향은 이 마을에서 분단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싱이 소설에서 가리키는 ‘외부 영향’은 식민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예가 많다. 서서히 이런 강한 신앙으로 인한 고정관념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의 공포로 변했다. 이것은 소설에서 한때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을 목숨을 바쳐 기꺼이 보호하려 했던 마노 마즈라의 젊은이들이 변하게 된 원인으로 그려져 있다. 소설에서 난민들이 마노 마즈라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살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리하여 이전의 화합의 기억이 상실되었고 갈등의 기억은 소환되었다. 이 젊은이들은 한때 보호하기로 약속했던 마을 무슬림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 태도 변화는 외부 사람 혹은 파키스탄에서 계속 도망치고 마노 마즈라 마을에서 정착하는 난민들로 인해 이뤄졌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이슬람교도를 죽이고 복수하기 위해 선동했다. 소설의 이 장면에서 싱은 마노 마즈라를 인도의 작은 상징물로 그리고 화합의 기억으로서 가리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식민 지배는 인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중 간에 차별을 심고 민중 간의 갈등을 강화했고 이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갈등은 분단의 큰 원인이 되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영국 지배자들의 분단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한다.<sup>146)</sup>

143)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2.

144)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78면.

145)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66-67.

146) Satyam Setia, “The Theme of Partition In Indo Anglian Fiction With Reference to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정치의 역할을 분단을 일으킨 다른 큰 요소로 봤다. 싱은 소설에서 영국과 당시 주도자들을 이 분단의 책임자로 그렸다.<sup>147)</sup> 역사적으로 보자면 국민들에게는 집단 학살과 사회의 평화와 화합의 붕괴를 일으킨 주체가 정치인이었다.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우파주의 정당은 이 사실을 이용하며 의제를 더 강화했다. 우익 단체들도 공동체의 혐오를 부채질하고 인도의 분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중 사이 화합의 기억을 망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인도에서 공동체적인 과거의 기억을 보자면 인도는 옛날부터 다종교 국가였으며 공동체의 갈등은 인도 사회에서 드물었다.<sup>148)</sup>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갈등을 제외하면 평화롭게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 인도 사회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개척자들은 분할 지배 정책을 이용했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적대감의 기억을 소환했다. 이 공동체적 증오는 나날이 심해져 화합의 기억이 상실되어 인도의 분단까지 도달했다. 해방 이후 인도의 지도자들도 분단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영국의 분단 기획을 받아들였다.<sup>149)</sup>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의 큰 원인으로 정치인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발한다. 즉 인도와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도를 두 국가로 분단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행 열차』속 정치인들은 종교 사이의 집단 학살을 통제할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정치인은 분할을 피할 수 있었던 모든 대안적 수단을 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파, 좌파, 힌두교 정당, 이슬람교 정당은 정체성에 대한 감정을 더 강요하는 데에 애를 썼다. 무슬림 연맹은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해 인도를 분단하는 것을 강요하게 요구했다. 이 사실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의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자기가 체험한 것 때문에 등장한다. 쿠스완트 싱에 따르면 자기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매춘부보다 하찮게 생각했고 매춘부가 변호사에 비해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 정치에

---

the Novels of Kushwant Singh B RAjan A Hosain M Malgonkar C Nahal And S Rushdie” , Dr. B. R. Ambedkar University Agra, PhD Thesis, p.25, 40.

147) Radhika Chopra, “Partitioned Lives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nd Manju Kapur’s ‘Difficult Daughters.’” Indian Literature Vol. 54, no.3, 2010, p.167.

148) Gyanendra pandey, “The Colonial Construction of Indian Past” The construction of communalism in colonial north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26.

149) Asim Roy, “The High Politics of India’s Partition: The Revisionist Perspective.” Modern Asian Studies, vol. 24, no. 2, 1990, p.387.

서의 정치적 가치는 결핍되어 있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네루, 파텔, 진나의 직업은 모두 변호사였다.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인도의 지도자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중요한 정치인이 되었다. 네루는 변호사이며 독립 후에 인도의 첫 총리가 되었다. 반면에 진나는 파키스탄의 총리가 되었다. 싱의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광복 전날에 연설한 네루의 유명한 스피치 운명과 밀회(Tryst with Destiny)를 비판한다. 쿠스완트 싱은 변호사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완이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보면 분단 때 백만 명의 죽음과 수많은 사람을 피난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의 책임자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정치인을 가리키고 있다. 쿠스완트 싱이 네루와 이 변호사인 정치인들이 분단 때 백만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 명의 피난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린 까닭도 변호사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이슬람교도의 자기 국가 요구에 찬성했지만<sup>150)</sup>,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 아대륙의 동부와 서부에 있는 두 개의 독립된 자치지역을 이슬람교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sup>151)</sup> 그런데 쿠스완트 싱은 분단 이후 일어난 2개국 이론(양국 이론)과 사람들의 이동과 살해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쿠스완트 싱에 따르면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자치지역을 찬성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sup>152)</sup> 쿠스완트 싱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They are not the ones to talk. Ask anyone coming from Delhi and he will tell you that all these Gandhi disciples are minting money. They are as good saints as the crane. They shut their eyes piously and stand on one leg like a yogi doing penance; as soon as a fish comes near—hurrup.<sup>153)</sup>

“델리에서 온 사람이면 누구나 간디의 제자들은 모두 돈을 찍어대기만 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학처럼 훌륭한 성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심 깊게 눈을 꼭 감고 또 참회를 하는 요가 선생처럼 외 다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마리가 다가들라치면 허둥대는 것입죠.”<sup>154)</sup>

150) Andrew Whithead,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151) Andrew Whithead, 앞의 자료.

152) Andrew Whithead, 앞의 자료.

153)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22.

이 인용문에서 부경위와 후쿰 찬드는 델리에서 오는 사람은 누구나 간디 제자들이 혹은 분단 이후의 정부와 정치인들이 돈을 손쉽게 벌고 있다고 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했다. 후쿰 찬드는 간디 제자로 국민회의파(Congress)를 포함하며 영국 지배자가 떠난 후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후쿰 찬드는 영국 통치의 후계자 혹은 인도의 정치인도 부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자면 후쿰 찬드의 이 말은 전 인도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 형성된 국가에서 통치자가 부패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영국식민지 때의 간디 제자들은 영국 통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중의 공동체 기억에서 위대한 주체로 존경받았지만, 이들이 부패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곤란이 더 강화되었다. 민중 사이에서 존경 받는 지도자들이 민중의 정서를 무시하고 폭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국민도 그런 짓을 하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국민도 폭력을 저지를 경향이 많아졌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것은 후쿰 찬드과 부경위의 대화로 분명해진다.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에 대한 소식은 일반 사람들을 비롯하여 후쿰 찬드과 부경위에 게도 부패한 관행에 빠지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는 또한 관료들도 식민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려져 있다. 관료가 식민지 지배 때 하는 짓을 독립 이후에도 계속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관료제는 식민지의 연속성을 대표한 사례이었다. 식민지 시대 때 했던 거의 모든 짓, 부패,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 등은 식민지의 기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파키스탄행 열차』에 그려져 있다.

영국 지배자들이 실시한 분할과 지배라는 식민자 통치 기술과 공권력은 독립 이후에도 이용되었다. 쿠스완트 싱의 소설에서 정치인, 지도자 또는 관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기억의 연속으로 등장하며 비판을 받는다. 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공권력에 의해 암묵적으로 조장된 근본주의적 공동체주의와 폭력적인 보복의 씨앗은 마을의 ‘평화와 집단적 화합을 깨트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 155)으로 이 식민지의 기억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식민지의 기억이 관료제로

154)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48면.

155) Giuseppe De Riso, “Memory and Negotiations of Identity in Train to Pakistan.” Simplegadi (Udine, Italy), Vol 16 no. 18, 2018, p.152.

그대로 등장하는 것의 사례를 살펴보자.

‘Fill in the warrant of arrest correctly. Name: Mohammed Iqbal, son of Mohammed Something-orother, or just father unknown. Caste: Mussulman. Occupation: Muslim League worker.’ ..... ‘Yes, yes, get them in any way you like,’ answered Hukum Chand impatiently. ‘Also, enter today’s two arrests on separate pages of the police station diary with other items in between. Do not let there be any more bungling.’<sup>156)</sup>

체포 영장의 공란을 정확히 채우도록 하시오. 이름 모하메드 이크발, 모하메드 아무개의 아들이면 아들, 또는 부친 이름 불명이면 불명. 카스트-무슬림, 직업-무슬림 동맹 분자..... (중략)

.....좋소 좋아. 당신 편한 방법으로 그 이름들을 알아내시오.“ 후쿰 찬드 대꾸했다. “그리고 오는 체포한 두 사람은 경찰서 일지에다가 기록하되 서로 분리시켜서 다른 사건들을 그 사이에 끼워 의 페이지에다가 각각 적어놓도록 하시오. 더 이상 서투른 실수가 없도록 해요.“<sup>157)</sup>

위 인용문에서 관료가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누군가를 잘못 비난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료의 이런 행동은 식민지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쿰 찬드는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을 조종하고 가능한 빨리 파키스탄으로 보내려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쿰 찬드는 이슬람교도들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범질서에 문제가 생기며 자기에게도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후쿰 찬드는 부경위에게 이크발이 이슬람 지도자라고 잘못 비난하도록 조언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분단 시기에 관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만든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식민지 지배의 분할과 지배와 다르지 않았다. 소설에서 후쿰 찬드가 이 사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마노 마즈라의 시크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마노 마즈라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었다. 관료들의 이런 태도도 사람을 피난민으로 만들고 학살을 당하도록 문턱에서 버리는 것이었다. 쿠스완트 싱이 소설에서 후쿰 찬드를 통해 식민지의 관료주의를 분단의 한 원인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분단의 원인으로

156)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69~70.

157)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94~95면.

보는 것이다.

‘I don’ t mind your taking whatever you do take, within reason of course— everyone does that—only, be careful. This new government is talking very loudly of stamping out all this. After a few months in office their enthusiasm will cool and things will go on as before. It is no use trying to change things overnight.’ 158)

나는 당신이 (모든 이들이 다 그래야하듯) 신중히 처리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일을 처리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새 정부는 이것을 무시한 채 너무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야. 이, 삼개월 공직에 몸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열은 식어버리고 마는 거고 모든 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요. 하루 밤새에 세상을 변화시키려 든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거든.159)

본 인용문은 텔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돈을 벌고 폭력을 선동한다면 후쿰 찬드도 이 위기에 돈을 벌고 싶었다는 내용이다. 후쿰 찬드는 해방 이후에도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며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 후에 부경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쿰 찬드의 이런 태도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는 쿠스완트 싱이 과거의 이 식민지의 흔적을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고, 과거의 식민 기억은 미래에서 소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의 잔재를 아무리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르게 보자면 후쿰 찬드의 이 말로로 식민지의 과거는 새로운 정부를 부패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등장한바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폭력을 가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부경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관료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과거 식민지의 이런 공권력에 대한 기억은 해방된 국가에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외면하고 분단의 욕망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Sometimes, sir, one cannot restrain oneself. What do the Gandhi-caps

158)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22.

159)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47~48면.

in Delhi know about the Punjab? What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in Pakistan does not matter to them. They have not lost their homes and belongings; they haven't had their mothers, wives, sisters and daughters raped and murdered in the streets.<sup>160)</sup>

하지만 각하, 때로 누구나 자제력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델리에서 간디 식 모자를 쓰고 앉은 사람들이 폰잡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파키스탄의 저쪽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들은 가정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물을 약탈당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어머니, 아내, 누이, 딸 자식이 윤간을 당하거나 길바닥에서 살해당하거나 하는 일은 경험하지 않았어요.<sup>161)</sup>

본 인용문에서 부경위는 델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현-상황을 모른다고 한다. 부경위는 ‘델리 사람’ 들 혹은 지배자들은 편자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고 공감도 없다고 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는 우물에 뛰어 들어 자신과 자녀를 죽이는 여성들의 사건도 언급된다. 분단 때 이런 사건은 종교적인 집단주의 기억을 만드는 것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뻘데이가 분단의 역사를 해석할 때 예전 화합의 기억은 망각하고 타자인 종교를 짐승으로 간주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논했다.<sup>162)</sup> 『파키스탄행 열차』의 이 인용문에서 관료와 민중 사이에 집단주의 폭력의 기억의 형성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기억은 실제 사건의 영향을 받았고 왜곡되었다는 것도 소설에서 나타난다. 본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지도자들과 민중 사이의 거리감을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민중이 자기 가족을 잃어 피난민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정치인들이 델리에서 편하게 삶을 취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정치인, 지배자들은 일반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식민지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소설에서 부경위는 파키스탄에서 죽이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을 위해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종교의 집단주의 피해의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 종교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기억은 타자인 종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이 현상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부경위의 말에서 찾아낼 수 있다. 부경위는 정부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했고 파키스탄 군인들이 살인과 약

160)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21~22.

161)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48면.

162) Gyandendra Pandey, “The Evidence of the Historian.”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67, 91.

탈에 빠져 있고 전리품을 즐기고 있어서 인도의 군인과 경찰도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설에서 파키스탄의 공무원은 전리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소설에서 부경위의 이런 말은 폭력이 민중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해방 이후 인도의 관료 제도는 완전히 바뀌지 않고 영국제국을 위한 의무를 수행한 자는 해방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공권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잔재인 관료의 태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식민지 잔재인 이 영국 시대의 행정부는 해방 이후 뇌물을 받고 서민을 착취하는 데 탐닉했다. 새로운 ‘해방’ 된 정부가 수립되어도 관료 제도가 이전과 유사했다. 국민과 관료 사이에 큰 불신과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영국의 지배에서 진정한 해방을 꿈꾸던 일반 사람들의 불행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자면 식민지의 지배전략의 잔재의 차원으로 공권력을 볼 수 있고 식민지의 기억과 탈식민지 국가 수립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다.

‘You should use your tongue with some discrimination, Mr Iqbal. I am not in your father’s pay to have to put up with your “bloodys”. Your name is Iqbal and you are circumcised. I have examined you myself. Also, you cannot give any explanation for your presence in Mano Majra. That is enough.’ 163)

당신은 사리분별을 가지고 혀를 놀려야겠어요. 미스터 이크발. <새 빨간 거짓말> 이라니, 나는 이런 소리를 참고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당신 아버지의 고용인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이름은 이크발이고 또 당신은 할례 (割禮)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직접 당신을 맡가벗겨 조사해보지 않았소? 아울러 당신이 마노 마즈라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여하한 변명도 할 수 없소. 그것으로 충분한 거요.164)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타자성이 사회에서 등장하는 것의 사례를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본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타자에 대한 의식은 관료 제도에도 적용되었고 분단의 요구를 더 강화했다는 것이었다. 부경위는 이크발이 이슬람교도라고 비난했으며 이의 이유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슬람교도라서 이크발은 무슬림 연맹에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크발은

163)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78.

164)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02면.



질병의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지만, 부경위는 이크발을 후콴 찬드가 시키는 대로 마노 마즈라에서 범질서를 깨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고발하였다. 부경위는 이크발과 다코이트 술탄이 람랄을 죽인다고 모함하려고 했다. 부경위는 이런 식으로 마노 마즈라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의심과 공포감을 심게 되었다. 그 결과로 마노 마즈라 사람들도 이슬람교도들이 인도를 떠나 파키스탄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경찰과 관료들은 이런 음모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 이런 사건은 식민지의 과거의 종교 갈등의 기억을 소환하는 지배전략에서 나타나고 종교 사이에 불만을 강요했다. 소설에서 보다시피 이 지배전략의 대상에는 민중뿐만 아니라 공권력 혹은 관료, 군인도 제외되지는 않았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경찰과 관료들이 국민을 보호하는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도 분단의 한 이유가 되었고 소설에서 국민을 피난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관료들이 국민을 압박하는 또 다른 사례는 소설에서 부경위가 이크발이 이슬람교도라고 고발한 후에 이크발에게 파키스탄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관료는 종교에 따라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과거의 기억으로 나타나게 하고 민중 사이에 불만, 혐오를 일으켰다. 이크발의 이름은 이슬람교도에 속하기 때문에 부경위는 이크발은 무슬림 연맹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크발의 충성심은 파키스탄에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보자면 식민지 시기때 경찰들은 다른 종교에서 나온 민중을 압박하고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슬람교에 속하는 사람이면 힌두교나 시크교의 타자가 되고 또 이 타자가 되어 버린 주체는 자아와 다른 정체를 가지게 된다. 자아가 타자의 태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공포감에 빠진다. 소설에서 마노 마즈라 사람들도 이크발을 이슬람교도로 고발한 후 이크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크발의 이름은 힌두교나 시크교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경위는 이크발은 이슬람교이자 무슬림 리그에 있는 것을 결정한 후 전 마을에서 이 말을 전파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노 마즈라 시크교들은 이슬람교도들로부터의 위협과 공포감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쿠스완트 싱이 제시한 관료들의 태도는 실제로도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의 관료는 예전부터 카스트와 종교에 기반을 두고 차별해 왔다. 자기 종교나 자기 카스트를 우수하게 대접하고 남의 카스트와 종교를 괴롭히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관료의 이런 태도 때문에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는 서로 공존하는 것의 기억을 망각해갔다. 이 때문에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이라는 이분법이 더 심해졌다. 힌두교들이 다수 민족이라서 관료, 경찰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물론 많았다. 이 다수 민

죽인 힌두교 경찰과 관료가 이슬람교도를 압박한 기억으로 인해 이슬람교도의 권력을 보호하는 나라의 제안을 이슬람교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자세히 분석해 보자면 이 식민지 지배에서 초래된 불만과 불만족의 기억을 정치인들이 이용했다. 정치인은 이 불만족을 분단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정부, 공권력의 태도를 식민지의 지배전략의 기억으로 제시하며 비판했다. 소설에서 관료들이 사회에 불만과 후환을 일으키는 것을 후쿰 찬드를 통해 알 수 있다. 후쿰 찬드는 관료의 대표자로서 마노 마즈라의 무슬림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흥계를 세웠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혹은 애인인 매춘부 하시나가 탄 기차가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자가를 감옥에서 내보내 하시나와 수많은 피난민을 구했다. 그런데 후쿰 찬드의 이런 행동도 그의 과거의 기억 혹은 자기 딸의 기억으로 가능해졌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선동했다. 그런데 후쿰 찬드는 식민지를 기억하는 관료제의 구성원으로서도 등장한다. 후쿰 찬드도 식민지의 한 잔재로서 직접 폭력을 막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파키스탄행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안 후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 후쿰 찬드는 식민 시대의 관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관료의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의 잔재를 볼 수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독립 이후의 관료의 태도를 통해 식민지 시대 관료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해방 전과 비슷하게 해방 이후에도 행정제도는 여전히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여전히 뇌물을 받고, 장교들은 여전히 봉건주의자들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의 계층 구조와 대중으로부터의 하층과 소외층은 소외감을 느꼈다. 후쿰 찬드는 식민지배자가 인도를 떠난 후에도 새로운 행정부가 ‘신-식민지배자’가 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쿰 찬드는 영국 행정부의 매우 낮은 급에서 시작하고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이제는 독립된 새 정부의 치안판사가 되었다. 대영제국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새로운 독립 국가에서 결국 결과를 얻었다. 식민지개척자는 떠났지만, 식민지개척자의 충성과 혹은 친영국인은 독립 이후 인도에서 더 높은 직위를 받았다. 후쿰 찬드는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시대의 모든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후쿰 찬드의 집안일을 해주는 하인이 있고 구두를 닦고 발에 마사지까지 해준다는 하인들은 식민지의 기억으로 볼 수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이 맥락에서 식민지의 기억을 소환하고 식민지의 잔재를 상기시킨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식민지 때 영국 공무원들이 호화로운 것을 즐겼고 인도 하인들을 거느렸다. 그러나 영국 지배자가 떠난 후에도 영국의 이런 하인을 삼는 봉건제도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이제 부유한 인도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의 새로운 주

인이 되었다. 소설에 나타난 등장인물 후쿰 찬드도 마찬가지이다. 후쿰 찬드는 식민지의 행정장관이 대접받은 것처럼 해방된 새로운 국가에서도 하인, 운전사, 요리사가 있고 하인이 술을 주고 목욕을 준비하는 등 모든 식민지의 편안한 삶을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는 독립 이후의 상황도 식민지기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고 식민지 제도는 여전히 멀쩡해서 마노 마즈라 사람들은 영국 지배자들이 인도를 떠났고 지금은 그들이 해방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소설을 통해 영국 지배의 관료는 민족을 불만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 되어도 이 식민의 관료제가 변하지 않은 것이 민족에게 자기 권력을 보호하는 나라를 요구하는 것을 더 강요했다. 이 관료의 태도는 해방 이후 더 부패하였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것은 람바르다르가 폭력에 대해 들은 후 영국인의 통치가 인도의 통치보다 낫다고 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람바르다르는 적어도 식민지 때 안전과 안보가 있었다고 덧붙인다. 이런 점으로 보자면 식민지의 과거의 기억은 후쿰 찬드로 대표하는 관료제를 통해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해방 이후 새롭게 수립된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모든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안전을 부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식민지의 기억을 그대로 소환하고 망각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영국 통치와 유사하지만, 안보는 사라졌다. 이런 국가의 상황은 안보가 없고 불안전 상황의 집단 기억을 형성했고 분단의 욕망은 더 강하게 등장했다. 이 식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공권력의 사례를 다음으로 보자.

‘You have no right to arrest me like this,’ he shouted. ‘You made up the warrant in front of me. This is not going to end here. The days of police rule are over. If you dare put your hands on me, the world will hear about it. I will see that the papers tell the people how you chaps do your duty.’<sup>165)</sup>

이런 식으로 나를 체포할 권리가 당신들에게는 없소.“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은 영장을 슬쩍 내비치기만 했소. 여기서 그걸로 만사가 옛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자세 부리던 시대는 지났소. 만약에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될거요. 나는 신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거요. 당신들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행패를 부렸다고 말이요.<sup>166)</sup>

165)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5.

166)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80면.

위 인용문에서 경찰은 이크발 앞에서 영장을 작성했고 이크발은 불법적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소설의 이 장면은 국가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비난으로 억압하는 영국 통치의 과거 관행은 여전히 만연했다는 것의 한 사례이다. 이크발은 불법 체포에 대해 항의했지만, 경찰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상관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식민지에서 공권력은 적절한 규칙과 법을 따르지 않고 혐의로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현실이 본 장면으로 나타난다. 이크발은 영국 지배자들이 떠났지만, 인도인이 영국 지배자를 대신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 이크발이 체포되면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었다. 자기도 이크발과 동시에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의 자가와 이크발의 대접은 인도의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크발은 교육받은 지식인이었고 자가와 아예 다른 대접을 받았다. 예컨대 부경위는 수감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크발의 허가를 요청하고 이크발에게 신문과 잡지를 제공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는 존경과 명예로 대우 받았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하위층은 항상 영국 정권의 가해자이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인도의 해방은 가난한 하층민에게 해방을 가져오지 않았다. 인도의 하층민은 의식주만큼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도 얻지 못했으며 이들의 곤경은 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피고인이 당한 고문도 해방된 나라임에도 식민지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이 사회의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를 한 것과 가난한 사람은 구타당했고 영국 경찰의 부당한 대우와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 인도 식민지의 해방된 국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이었다. 이는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인도의 독립 후에도 이크발과 자가가 자기 계층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엘리트 가정에서 속한 이크발이 수감 되어도 신문과 다른 감방을 받았다는 것은 해방 이후 엘리트주의의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인도의 분단 상황에서 공권력은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식민지의 지배전략을 그대로 따라 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해방 이후의 공권력은 해방공간의 짧은 기간 동안 옛날과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정치인과 공권력의 식민지의 지배전략 혹은 분할 지배라는 의식 때문에 분단의 욕망이 강해졌다. 다음으로 식민지의 기억과 지배전략으로 인한 종교적인 정체성의 강화와 분단 욕망의 양상을 살펴보자.

인도 분단의 큰 원인은 국민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체성 의식이었다. 이 정체성 의식에서도 기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분단 시기의 기억과 망각으로 등장한

타자성의 결과로 일어난 폭력을 이해하려면 리쁘만의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종교가 기호가 되고 할례, 수염 등은 타자로 지정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기호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기호는 현재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7)</sup>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기호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에게는 할례를 했는지의 여부, 시크교도에게는 수염이라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분할과 지배라는 기억에서 이 정체성 의식이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단 때 종교적 정체성이 중요해졌으며 정체성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 정체성의 의식은 물론 식민지 지배자, 이후의 인도 지도자들을 통해 더 심해졌다. 쿠스완트 싱의 이런 정체성의 대한 의식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크발과, 하인의 딸 순다리와 그녀의 남편을 통해 확인된다. 싱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둘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오랫동안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슬람교도들에게 힌두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는 시크교도들은 힌두교도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였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런 정체성의 사례가 많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정체성에 관한 사건을 보면 인도 사회의 이 현실을 찾을 수 있다.

‘You are Sikh, Iqbal Singhji?’ inquired one of the men. ‘Yes.’ A fortnight earlier he would have replied emphatically ‘No’, or ‘I have no religion’ or ‘Religion is irrelevant.’ The situation was different now, and in any case it was true that he was born a Sikh.<sup>168)</sup>

“당신은 시크입니까, 이크발 싱씨?” 사람들 중의 하나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닙니다> 또는 <나는 아무

167) *The famous American writer Walter Lippmann (1889-1974) understood this dilemma and emphasized it in his famous book Public Opinion (1922). He said that “symbolic pictures” would determine the human interrelations especially in times of war or crisis, when people developed a particular fear that was capable of exploiting the otherwise harmless symbols:*

(Jacob, Frank. Stereotypes and Violence. Neofelis: Verlag, 2017) [유명한 미국 작가 Walter Lippmann (1889-1974)은 이 딜레마를 이해하고 자기 유명한 책 Public Opinion (1922)에서 강조했다. 그는 “상징적인 그림”이 특히 전쟁이나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이 무해한 상징을 악용할 수 있는 특별한 두려움을 개발했을 때 인간의 상호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Jacob, Frank. Stereotypes and Violence. Neofelis Verlag, 2017)(연구자 번역)].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도 타자의 살해를 시작하였다. 어떤 때는 이 살해가 두려움 또는 어떤 때 복수의 목적이 있었다.

168)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75.

종교도 안갖고 있습니다〉라거나 〈종교는 불필요한 겁니다〉라고 응수했을 것이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어쨌거나 그가 시크 가문에서 태어난 것만은 사실이었다.<sup>169)</sup>

위 인용문에서 지금까지 무종교였던 이크발은 자기 종교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 분단 때 여느 때 보다 종교적인 정체성은 더 강해졌다. 이크발의 이런 태도의 변화가 국가 수립에서 정체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수립에서 집단주의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적 정체성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자기의 정체성의 기억을 망각한 이크발은 이 정체성을 새로운 국민국가 수립에서 회상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수립의 기둥이 되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이크발은 다시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례를 보자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후쿰 찬드가 자기 하인의 딸은 결혼하고 남편과 버스를 탄 사건으로 그려진 장면을 들 수 있다. 폭도들이 버스를 정지하고 버스를 탄 모든 사람을 내리게 하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남편은 힌두교이고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폭동을 당했다. 또, 딸은 강간당했다. 소설 속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이크발은 이슬람교에 속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분단의 혼란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주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옷을 벗고 주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장면이 소설에서 그려져 있다. 그런데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만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시크교도들은 오랫동안 이슬람교도들과 적대감이 있었다. 이슬람교의 한 황제가 시크교의 구루와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시크교도의 기억에서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은 것이다. 또한 이슬람교 황제들이 힌두교의 사원을 파괴하였다는 과거의 기억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현상으로 보면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이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기억이 민중의 기억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도 이슬람교도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마지막으로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원인을 지식인의 위선과 엘리트들의 태도에서 찾았다. 싱은 자기를 포함하여 지식인은 분단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싱의 이 지식인의 비판은 분단의 기억으로 물론 등장하고 이 지식인은 내셔널리스트 역사학과 반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

169)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97~198면.

이런 지식인의 위선을 제시하려고 이크발이라는 등장인물을 그렸다. 소설에서 이크발은 엘리트 지식인으로 그려져 있다. 이크발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사단에 들고 있다. 이크발이란 인물이 비판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쿠스완트 싱의 지식인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지식인에 대한 그의 비판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도 이크발이란 등장인물로 그려져 있다.

The young man was relieved that the other had not gone on with his first question. He did not have to say what Iqbal he was. He could be a Muslim, Iqbal Mohammed. He could be a Hindu, Iqbal Chand, or a Sikh, Iqbal Singh. It was one of the few names common to the three communities. In a Sikh village, an Iqbal Singh would no doubt get a better deal, even if his hair was shorn and his beard shaved, than an Iqbal Mohammed or an Iqbal Chand. He himself had few religious feelings.<sup>170)</sup>

청년은 상대방이 그의 성명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것에 안심했다. 그는 이크발이라는 이름에 성씨(姓氏)가 어찌되는지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힌두도였다면 이크발 찬드가 되었을 것이고, 무슬림이었다면 이크발 모하메드가 되었을 터이며 시크라면 이크발 싱이 될 것이었다. 그런 성씨들은 세 개의 종교 문화권에서 가장 흔한 것들이었다. 그러니 시크 마을에서는 이크발 싱이 이크발 모하메드나 이크발 비해 여쭙없이 나온 대접을 받을 게 틀림 없었다. 비록 그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고 면도를 해버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는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171).172)</sup>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이크발은 마노 마즈라에 도착하여 숙박 시설에 대해 문의하고 숙박시설이 없고 시크교 사원에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크발은 시크교 사원으로 가서 마노 마즈라에 있는 동안 시크사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노 마즈라 마을은 여러 집단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전국에 벌어진 분단과 종교적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모두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식인인 이크발은 다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사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만약 자

170)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38.

171) 원본에서 ‘그는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혀 있음.

172)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63면.

기가 시크교가 아니라고 하면 사원에서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시크교 이름을 가지면 다수 시크교도 마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을 생각한 것이었다. 이크발이 영국에서 유학해 오고 서구 역사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와 시크교 사이의 공존감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식민지 역사학의 결과이었다.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식민지 역사학이 종교 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sup>173)</sup> 소설에서 이크발은 인도와 사회와 대립하는 식민지가 축조한 기억이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지식인은 인도 시골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 잘 모르고 도시처럼 시골에서도 집단 갈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크발은 마노 마즈라 마을 사람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식민지의 지배전략인 분할과 지배의 영향이 있는 교육제도에서 교육받아 공존의 기억을 망각했다. 즉 『파키스탄행 열차』에서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며 살고 있고 이맘이 아침기도를 부르면 시크교 사원의 관리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게 힌두교, 시크교와 이슬람교들의 삶이 서로 얽매어 있다는 것을 식민지 역사학에서 볼 수 없다. 이 장면으로 쿠스완트 싱이 『파키스탄행 열차』를 통해 인도의 평화로운 시골 사회를 표현하고 해방 이전의 식민지 역사학과 해방 이후의 내셔널리스트 역사학과 대립하는 담론을 제시했음을 볼 수 있다. 지식인의 이런 현실과 멀리 서 있는 의식은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Not many people said ‘thank you’ in these parts. Most of the ‘thank you’ crowd were foreign-educated. They had heard of several well-to-do young men, educated in England, donning peasant garb to do rural uplift work. Some were known to be Communist agents. Some were sons of millionaires, some sons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All were looking for trouble, and capable of making a lot of noise.<sup>174)</sup>

“댕큐” 라는 말을 쓸 줄 아는 족속들이란 대체로 외국물을 먹어본 먹물 잡이들이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몇몇 청년들에 대해서는 바가 있었다. 영국에 유학 공부하고 왔다는 그들은 농촌의 힘든 일을 한답시고 갈고랑쇠를 손에 잡기도 한다고 했다. 그들 중에는 빨갱이 꼬나폴로 알려진 자도 있고, 백만장자의 아들도 있으며 고급 공무원의 자식들도 있다고 했다. 그 모든 녀석들이 문제거리를 안고 있었으며 농

173) Gyanendra Pandey, “The Colonial Construction of Indian Past” The construction of communalism in colonial north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23.

174)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36.



촌 마을을 시끄럽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sup>175)</sup>

이 인용문에서 엘리트들과 지식인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적되어 있다. 이들은 인도의 지방을 전혀 모르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식민지가 축조한 역사학으로 인도 사회를 이분법적으로만 보았다. 인도의 지도자 네루 또는 파키스탄을 지도한 진나도 외국에서 교육받았고 식민지 역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진나와 네루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싱이 엘리트를 비판하는 것은 네루와 진나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싱은 이 엘리트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의 시도를 못 하였다는 것을 이크발을 통해 보여준다.

따라서 쿠스완트 싱의 작품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의 주요 원인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이라는 것으로 등장한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인도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일으켰다. 그리고 인도의 지도자들도 식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민중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실패했다. 공권력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의 지배전략, 지도자와 공권력의 태도로 인하여 민중 사이에 종교적인 정체성의 의식이 강해졌다. 더 나아가 이 종교적 정체성은 종교에 바탕 둔 국민국가의 욕망을 강화했다. 그리고 인도 사회의 지식인도 점점 심해지는 갈등을 해결하고 분단을 막는 시도 하지 않았다.

## 2.2. 폭력으로서 집단적 기억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를 인도의 시골과 유사하게 은둔지로 설정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은둔지로 인도의 평화로운 사회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쿠스완트 싱이 마노 마즈라를 어떻게 평화로운 은둔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권력인 관료, 경찰, 군인이란 체계가 대규모의 폭력을 일으키며 생명과 생계를 잃는 국민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를 새롭게 탄생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로 설정했다. 이 마을에는 시크교도,

---

175)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61면.

이슬람교도,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으며 힌두교도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자이고, 시크교도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슬람교도들은 그 땅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다. 식민지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자였고 이슬람교도들은 농부였다. 이 논의를 참고하자면 『파키스탄행 열차』는 인도의 전통 사회의 현실이었다. 또한 스리니바스도 이 은둔한 마을은 인도 당시의 대부분의 시골 사회의 그림이기도 할 수 있다고 했다.<sup>176)</sup> 인도 북방 지역의 곳곳이 집단 폭력에 의해 망쳐진 이 시기에 마노 마즈라라는 작은 마을은 평화롭고 사람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전혀 모르고 다른 종교와 평화와 화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폭력은 사소한 갈등으로 일어나 대규모의 학살까지 이른다는 것으로 그렸다. 마을의 보리수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흔한 장소이며 인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가 공유하는 흔한 장소는 인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용시설의 한 기억이다. 종교가 분명하지 않지만, 소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선교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불가촉천민도 있다. 카스트, 종파, 종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마을 전체가 위기의 시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고 외부 세계와 파키스탄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 인도의 시골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대부분 인도 시골에서 해방이 무엇이나, 독립은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 또 파키스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혀 몰랐던 것처럼 소설의 마노 마즈라 마을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젊은이들이 연애 관계를 맺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쿠스완트 싱은 시골에서 당시 집단 갈등이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마을의 이상적인 상황을 그렸다. 마노 마즈라의 연못 근처에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위한 신성한 장소인 ‘데오(Deo)’가 있고 마노 마즈라의 모든 사람이 이 ‘신을’ 동등하게 숭배하며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누구나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평화로운 시골 사회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쿠스완트 싱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화합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다른 종교 혹은 타자에 대한 혐오가 피난민의 유입과 정치인의 영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공동체적인 화합과 평화의 양상을 보자.

Juggut Singh stretched out his hands over his head and behind him,

176) I. K. R. Srinivasa, Indian writing in English,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1985, p.498.

groping; the girl dodged them. Juggut Singh started with the hand on his eyes and felt his way up from the arm to the shoulder and then on to the face. He caressed her cheeks, eyes and nose that his hands knew so well. He tried to play with her lips to induce them to kiss his fingers. The girl opened her mouth and bit him fiercely. Juggut Singh jerked his hand away. With a quick movement he caught the girl's head in both his hands and brought her face over to his. Then he slipped his arms under her waist and hoisted her into the air above him with her arms and legs kicking about like a crab. He turned her about till his arms ached. He brought her down flat upon him limb to limb.<sup>177)</sup>

쥬구트 싱은 머리 위로 손을 뻗어 그의 뒤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자 했다. 그 여자는 그의 손을 피했다. 쥬구트 싱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손을 붙잡자 그의 얼굴 위에 그 여자의 팔이 닿어지고 있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닿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두 손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녀의 두 뺨과 눈과 코를 애무했다. 그는 그녀의 두 입술이 자신의 손에 키스를 하도록 했다. 그녀는 입술을 열더니 그의 손가락들을 약간 세계 깨물었다. 쥬구트 싱은 그의 팔을 빼내었다. 그리고 아주 재빨리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붙잡아 그녀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포개었다. 이어서 그는 두 팔을 밑으로 내려뻗어 그녀의 허리를 휘어감았고 그녀를 바로 자기 몸 위로 올라태우려고 했는데 그녀는 두 팔과 다리로 참게처럼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면서 요동질을 쳤다. 그는 밑으로 깔린 두 팔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몸을 돌려누었다. 그는 그녀를 밑으로 내려깔았고 사지를 포개었다.<sup>178)</sup>

『파키스탄행 열차』에는 서로 다른 종교에 속하는 자가와 누란의 연애 관계가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싱은 인도의 지방에서 종교의 갈등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쿠스완트 싱의 집단 화합 기억인 인도주의를 믿는 것에서 나타났다. 자가는 시크교도에 속하지만, 누란은 이슬람교도에 속한다. 소설 초기에 쿠스완트 싱은 누란과 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휴머니즘을 암시한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비인간적인 압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인간의 힘인 것 같다. 집단 폭동의 시대에 힌두교도들 - 시크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사이의 인간-관계는 인간의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남성

177)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3.

178)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38~39면.

-여성의 사랑 관계는 다른 사악한 세력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 제시하다시피 어떤 어려운 시기나 혼돈스러운 사회에서도 사악한 힘은 사랑을 억누를 수 없다. 누란은 마노 마즈라에 사는 모든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시크교도 중에서도 존경받는 이슬람교도인 시각장애인 이맘의 딸이다.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는 깊어지고 자가는 나쁜 놈이라고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약탈 사건이 벌어진 밤에 누란은 집을 떠나 자가를 만나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는다. 자가라는 등장인물은 분단의 집단적 폭력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 집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강하게 따르지 않고 회교도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사례이다. 자가와 누란의 사랑은 당시의 평화가 손상되는 사회상 현실과 다르다. 분단 당시 여성을 납치하고 여성의 몸을 훼손하는 것 혹은 여성이 영토가 되어 버린 사건이 많았다. 부탈리아는 분단 동안 여성에게 행해진 잔혹 행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분단 때 여성들에게 가해진 개종, 강간, 납치, 강제 결혼에 대해 논한 바가 있다.<sup>179)</sup> 이런 일이 흔하게 되어버린 시대에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자가와 누란의 사랑을 집단주의 평화의 기억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보다시피 쿠스완트 싱에게는 집단적 평화가 실제적 폭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쿠스완트 싱의 이런 태도는 인도반도 전체가 폭력으로 파괴되었을 때 희망을 주었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고수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싱은 인도 사회에서 원래부터 집단적 평화가 있다는 것이 망각되는 시기에 기억을 소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폭력은 외부에서 온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싱이 말하려고 하는 다종교에 대한 증오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분단 전에 마노 마즈라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문,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마노 마즈라에 오기 시작한 후 마노 마즈라의 평화가 상실되고 폭력의 중심지로 변했는지를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The summer before, communal riots, precipitated by reports of the proposed division of the country into a Hindu India and a Muslim Pakistan, had broken out in Calcutta, and within a few months the death toll had mounted to several thousand. Muslims said the Hindus had planned and started the killing. According to the Hindus, the Muslims were to blame. The fact is, both sides killed. Both shot and

179) Urvashi Butalia, *The Other Side of Silence : Voices from the Partition of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부탈리아는 분단의 비탄 중에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세밀하게 논했다.)

stabbed and speared and clubbed. Both tortured. Both raped.....The only remaining oases of peace were a scatter of little villages lost in the remote reaches of the frontier.<sup>180)</sup>

이해 여름철로 접어들기 얼마 전 이 나라가 힌두의 인도와 무슬림의 파키스탄으로 분단될 것 같다고 보고들이 전하는 바에 자극되어 각 지역의 자치를 요구하는 반도들이 캘카타에서 들고 일어난 아래 불 과 삼개월 사이에 벌써 죽은 자의 숫자가 몇천 명이 되었다. 무슬림은 힌두의 사전 음모에 의하여 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힌두들에 의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무슬림 분자들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학살했다는 것이었다. 서로 총질을 했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대검으로 베어 죽이고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 서로 고문을 했다. 서로 부녀자들을 겁간했다. 캘카타에서 시작되어 반도들은 북으로 동으로 서쪽으로 번져갔다. 동부 벵갈의 노아칼리에 이르러서는 무슬림들이 힌두들을 대량 학살했다. 비하르에서는 힌두들이 무슬림들을 살육했다. 무슬림 율법학자들은 비하르에서 살육 당한 무슬림들의 해골것들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중략)

오직 평화스러움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전선(戰線)에서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두메부락들 뿐이었다. 이런 부락들의 하나가 마노 마즈라였다.<sup>181)</sup>

밀리는 폭력은 쿠스완트 싱의 소설에서 근본적인 것이지만, 싱의 최종 목표는 집단 폭력, 죽음, 재난, 증오, 복수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의 길을 보여주고 국민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했다.<sup>182)</sup> 쿠스완트 싱의 폭력, 유희, 혐오에 대한 항의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는 종교 간의 폭동, 죽음, 폭력, 무질서, 혼란 등이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복잡하게 묘사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사소한 충돌은 큰 폭력으로 이어진다. 인도 사회에서 19세기의 폭력은 영국 지배자들 이전부터 때때로 내려오는 고정관념의 결과물로 나타난 루머의 결과물이었다.<sup>183)</sup> 이 루머는 식민 지배가 강제하는 갈등의 기억으로 인

180)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2.

181)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28~29면.

182) Umme Milli, “The attitude of Amitav Ghosh and Khushwant Singh on nationalism and partition in The Shadow Lines and Train to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Vol. 4, no. 6, 2019 p.2030.

183) Gyanendra Pandey, “The Long Life of Rumor.”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 27, no. 2, 2002, p.169.

한 타자성의 결과물이다. 뻘데이는 이슬람교도들과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종교 때문에 일어난 폭력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이 분단의 폭력은 식민지 유산과 식민주의 역사를 통해 연상되며 식민지 역사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고정관념으로 연상시켰기 때문에 소문이 큰 규모의 폭력이 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이런 식민지적인 갈등을 해방 이후의 정치인과 정부도 활용했고 폭력을 저질렀다.<sup>184)</sup> 정치인과 정부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관료들 모두 이 폭력의 주도자이었다.<sup>185)</sup>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도 이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대규모의 폭력으로 인하여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학살이 일어났다. 인간의 정체성이 살해되어야 할지, 구해야 할지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으로 보내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었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어 경계선을 넘어 평생의 상처를 당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50만 명에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피난민이 되었다. 이 피난민이 된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느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국가 수립 과정에서 한 종교가 다른 종교에게 가한 폭력과 학살을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파키스탄행 열차』에 나타난 폭력은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 기억의 망각과 과거의 종교 갈등의 기억 소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싱의 작품에서 그는 이 타자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타종교적 평화를 외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의 평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점점 폭력에 대해 묘사하는 경로를 밝혔다. 이것은 평화의 기억이 망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노 마즈라의 사람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서 온 주체는 평화의 기억을 망각시키기 시작한다. 마노 마즈라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폭력의 시작은 랄라 람랄의 살해로 시작되었다. 랄라 람랄은 마을의 힌두교 대금업자였으며 이웃 마을 강패 말리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마을의 악인 자가는 람랄을 죽인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다. 이 살인은 마노 마즈라의 평화를 잃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 살해 사건으로 개도 짓고 울부짖게 되었다고 했다. 옥상에 올라가 마을 여성들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다고 하며 기차의 도착과 출발을 시계로 이용해 오던 마을

184) I. K. R. Srinivasa, Indian writing in English.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1985, p.498.

185)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66.

사람이 이 사건으로 갑자기 깨어 있었으며 평화로운 마노 마즈라 마을에 공포, 호기심, 절망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이 살인은 마노 마즈라의 마을에서 폭력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사건 이후 관료와 경찰들이 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시작했고 피난민들도 파키스탄에서 쫓겨난 후 마을에 정착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마노 마즈라에서도 종교 집단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집단의 화합 기억을 망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친구로 여겨온 사람을 점점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평화가 붕괴되고 외부에서 온 영향 때문에 집단 학살이 일어난 과정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train had brought a full load of corpses, a heavy brooding silence descended on the village. People barricaded their doors and many stayed up all night talking in whispers. Everyone felt his neighbour's hand against him, and thought of finding friends and allies.<sup>186)</sup>

열차가 하나 가득히 시체를 싣고 왔다는 것이 판명된 이래 무거운 침묵이 뗏장구름처럼 온 마을을 누질러대고 있었다. 주민들은 제 집의 문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쳤으며, 꺾속말로 소근거리며 웅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도 많았다. 누구나 한동네 삼이웃간이라 해서 무턱대고 믿을 처지는 못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도리어 이웃의 손길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제 편을 찾아 끼리끼리 뭉칠 방도를 구하고 들 있었다.<sup>187)</sup>

기차는 마노 마즈라 마을 사람들의 알림 시계였고 안전하고 안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학살이 시작된 후에 공포의 상징으로 변했다. 기차는 본 소설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두려움과 혐오의 첫 수단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학살이 시작된 후 마노 마즈라의 시계가 된 열차가 늦게 운행되기 시작하자 마노 마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방해되었다. 기차의 도착과 출발은 마노 마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의 시계였다. 이맘은 아침 열차가 도착한 후 기도를 부르곤 했다. 오후 기차는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저녁 기차는 잠자리에 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차는 작품에서 안전과 안정의 기억이었다. 마노 마즈라의 거주자들의 시간표가

186)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24.

187)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47면.

된 열차의 규정하지 않은 도착과 출발로 인해 그들의 삶이 혼돈되어 버렸다.

본 인용문에서 시체로 가득 찬 열차가 마노 마즈라에 도착한 후 사람들이 친구와 동맹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마노 마즈라에서 널리 퍼지는 공포감을 표시하고 집단주의 화합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의 출발점으로 그려져 있다. 평화로운 마을에 시체로 가득한 차가 도착한 후 사람들은 이 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죽인 사람은 누군지를 궁금해하며 많은 시체가 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 있느냐, 길에서 어떤 학살을 당하였는지 예상만 했다. 구체적인 답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다. 소설 속 열차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죽었으며 마노 마즈라에 첫 열차가 도착했을 때 마을 시민들은 시체를 화장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명 열차가 많아지도록 시체도 많아지고 두려움과 죽음과 파괴에 대한 소문이 흔해졌다. 이러한 대규모의 폭력과 학살이 더 빈번해지면서 치안 관사는 학살당한 시체를 화장하기보다는 공동 무덤에 묻기로 했다. 당시 기차는 자기 고향이던 장소에서 빼앗기는 탈구의 수단이었던 데다가 폭력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열차를 가로채서 승객을 죽일 수 없도록 하려고 하고 혹은 열차는 학살당할 수 있는 두려움에 너무 취약해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달리고 있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난과 비극의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시체로 가득 찬 기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이야기하곤 했다. 열차의 시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본래 떠들썩하고 활발한 마노 마즈라에서 침묵이 퍼졌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집단의 평화로운 기억을 망각하는 장면으로서 『파키스탄행 열차』에 등장한다. 기차가 도착한 후 학살에 대한 소문도 함께 왔다. 기차가 파키스탄에서 왔기 때문에 이 학살의 가해자가 파키스탄의 이슬람교도들이었다는 것이 추정되었다. 이러므로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도 그들의 이슬람교도 정체성 때문에 이 학살의 한 가해자로 여겨졌다. 마노 마즈라의 힌두교와 시크교의 기억에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아온 것의 기억이 망각이 되기 시작하고 이슬람교와 힌두교 사이에서 과거 폭력의 집단 기억이 소환되었다.

소설에서 나오다시피 분단 때 열차는 새로 형성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피난민들을 수송하는 이동의 수단이자 폭력의 무대인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이 열차에 몰려 새로운 장소와 정체성을 찾아 달렸다. 기차는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하는 분노에 빠진 사람들의 빈번한 먹이가 되었다.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이슬람교로부터 학살당한 후 시크교와 힌두교들은 파키스탄으로 향한 이슬람교도 피난민으로 가득 찬 기차에서 학살하고 “파키스탄에게 선물”을 썼다. 피난민들로 가득 찬



열차는 도중에 정차되고, 민중은 학살당하고 부상자와 사망자로 가득 찬 열차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달렸다. 즉 기차는 학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체와 함께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통근했다. 기차가 학살의 무대가 되어 폭력이 만연해지자 기차 운전사들도 목적지에 도착한 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는 내용이 소설에 있다. 기차에서 학살이 너무나 심했고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누가 살아 있는지 또 누가 죽었는지 찾기가 어려웠다. 소설에서도 기차는 학살당한 사람의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로 가득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기차에서의 학살은 쿠스완트 싱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쿠스완트 싱은 기차 안에서의 폭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sup>188)</sup>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열차는 줄거리의 중심을 차지한다. 기차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지 않은 삶의 일부였으며 나아가 공포와 소문의 공간이 되었다. 기차에서 나온 시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괴로워했다. 이 공포로 인한 마노 마즈라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혐오를 이용하여, 젊은 군인처럼 보이는 소년은 파키스탄에서 온 다른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난민들과 복수를 기획했다. 이 기획에서 원래 이슬람교도들과 평화롭게 사는 마노 마즈라의 젊은 사람들도 이슬람교도 피난민을 죽이고 파키스탄에서 폭력을 당한 시크교도와 힌두교도와 복수하기를 결정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기차는 희생과 폭력의 전형이 된다. 파키스탄에서 온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피난민과 깡패 말리는 파키스탄으로 향한 이슬람교도 난민들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가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파키스탄에 가는 애인과 다른 이슬람교도 피난민들을 구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주인공 자가가 자기 애인 누란을 구하는 것은 사랑과 회합의 개인 기억이고 말리와 다른 피난민들이 열차를 정지하고 이슬람교도를 학살하는 것은 가해자와 폭력의 집단적인 기억이다. 이들과 함께 열차를 세우고 학살하는 음모의 참여하기로 응원한 마노 마즈라의 젊은이들은 회합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서 미트 싱과 람바르다르는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고 싶지 않고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을 구하고 싶었다. 반면에 마노 마즈라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고 강제로 가해의 집단 기억을 만드는 것에 빠져 함께 살아온 이슬람교도를 죽이고 싶었다. 따라서 분단의 폭력은 기억하기와 망각하기, 기억의 소환이라는 여러 차원의 전쟁터로 볼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서 망각되어,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것과

188) Andrew Whithead,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대립하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강제적인 망각과 개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폭력을 일으켰다.

소설에서 큰 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분단의 폭력적인 양상이 집단 학살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Everyone—Hindu, Muslim, Sikh, Congressite, Leaguer, Akali, or Communist—was deep in it.<sup>189)</sup>

각인 각자—힌두·무슬림교·시크·의회파·연맹파·아칼리파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이에 깊이 개입돼 있었다.<sup>190)</sup>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의 폭력이 일반인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인 정치 사상자인 공산주의자, 우파주의자, 종교 사상자 힌두 마하사바<sup>191)</sup>, 무슬림 리그 및 아칼리는 모두 살인, 약탈 및 강간에 참여했다고 한다. 분단 이후 지식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들도 폭력을 막으려는 노력을 안 했고 오히려 학살과 약탈을 가했다. 인도 및 파키스탄의 정치인들은 영국의 '분할 통치' 정책을 사용했고 민중에게 폭력에 가담하는 동기를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국가의 수립을 구체화하려는 종교에 바탕을 둔 국수주의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렸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분단의 욕망이 더 깊어졌다.<sup>192)</sup> 이 맥락에서 보자면 소설의 내용과 분단의 현실은 매우 비슷하다. 분단 때의 집단 학살이 행정부 혹은 공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소설에서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식민지 지배 전략에 뿌리가 있는 인도 및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국수주의는 타자의 감정을 일으켰다. 타자로 여긴 다른 종교에 속하는 사람을 향해 여러 가지 잔학행위를 했다. 이 국수주의에 몰두한 지배계급의 부패는 소설에서도 잘 드러난다.<sup>193)</sup> 역사학자 탈보

189)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4.

190)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79면.

191) 힌두 마하사바는 힌두교도들의 우파주의 단체이다.

192) Umme Milli, “The attitude of Amitav Ghosh and Khushwant Singh on nationalism and partition in *The Shadow Lines* and *Train to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Vol. 4, no. 6, 2019, p.2036.

193) Vinothini M, “Double Victimization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 Postcolonial Feministic Reading.”, *Journal of Xi’an University of Architecture & Technology*,

트에 따르면 이 지배계급으로 인해 분단의 폭력은 냉혈한 계획적 학살이 되었다. 정치인, 관료, 철도 직원들은 이러한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몰두했다. 철도 직원들은 피난민이 타고 가는 열차의 시간표를 공개하고 열차를 향한 공격을 조장했다. 피난민의 호송에 대한 공격은 군사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sup>194)</sup> 이 사실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등장인물 말리가 피난민이 탄 열차의 세부적인 정보까지 가진 것이란 내용으로 소설에서 등장한다.

분단 이후 새롭게 형성된 인도와 파키스탄을 경비하는 사람들은 군인이었다. 이 군인도 새롭게 구성된 군인이 아니고 영국제국에서 분단 이후 인도나 파키스탄 군대로 명칭을 개정한 군대이었다. 이 군대의 명칭만 개정되었고 사고방식이나 습관은 아직 영국의 식민지와 같았다. 분단 당시 벌어진 폭력에서 군인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sup>195)</sup> 이 군인들은 전에 영국 육군이었지만 해방 이후 파키스탄이나 인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대부분 군인이 이슬람교도라면 파키스탄을 택하고 힌두교도나 시크교도라면 인도를 택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군인들도 자기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양국의 군인조차도 폭력에 빠졌고 학살에 참여하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학살에서 구하기 위해 주둔이 되었는데 군인들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학살을 도와주었다.<sup>196)</sup> 분단 때 군인인 보호자가 포식자가 되고 상황을 더 위협했다. 군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이 도덕적 의무보다 우선이었다. 즉 이 군인들도 자기의 종교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카프리에 따르면 경찰들의 태도로 정부의 하층에서도 널리 벌어진 부패를 볼 수 있다. 관료와 힘을 모아 경찰들도 자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관료와 행정 기관의 불합리한 체계의 폭력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볼 수 있다.<sup>197)</sup>

---

Vol. 13. no. 3, 2021, p.392.

194) Swarna Aiyar, “August anarchy” : The partition massacres in Punjab, 1947.” South Asia: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Vol. 18, 2007, p.13, 36.

195) Shromarī Guraduārā Prabandhaka Kameṭī and Gurbachan Singh Talib, “Muslim League Attack on Sikhs and Hindus in the Punjab 1947” , 1950, p.173-175.

196)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88.

197) Chhote Lal Khatri, “Trauma of Partition in Khushwant Singh’ sTrain to Pakistan.” , Indian English Fiction: Readings and Reflections, Edited by Gajendra Kumar and Uday Shankar Ojha. New Delhi: Sarup and Sons, 2003, p.44.

‘We do not know whether they have joined up on the other side— they kept protesting that they did not want to go at all. On the day of Independence, the Superintendent sahib disarmed all Muslim policemen and they fled. Their intentions were evil. Muslims are like that. You can never trust them.’ ‘Yes,’ added another policeman, ‘it was the Muslim police taking sides which made the difference in the riots. Hindu boys of Lahore would have given the Muslims hell if it had not been for their police. They did a lot of zulum.’ 198)

“그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붙어버려서 그렇군요?” “그것들 저쪽편에 붙었는지 어땠는지 알게 뭐야. 그들이 도통 맡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엉너리를 쳤거든. 그래 지난번 독립기념일 날 우리 총경님이 모든 무슬림 경찰관을 무장해제시켰는데 글썄 그것들이 모두 줄행랑을 놓아버렸어. 그들의 의도가 의뭉스러웠던 거지. 무슬림 들이라는 게 본래 그꼴들이지. 당신두 그것들 믿지 말라구.” “아암 그렇지.” 다른 순경이 거들었다. “무슬림 경찰들은 제쪽 편만 들기 때문에 폭동의 양상이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라호르 (파키스탄에 속하게 된 곳—옴긴이)에 사는 힌두 아이들은 경찰서에 뺨려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대구. 그 경찰들은 아주 지독하거든.” 199)

경찰은 체포된 자가에게 이슬람교도 경찰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말한다. 경찰은 이슬람교도 경찰이 파키스탄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총경님이 모든 이슬람교도 경찰을 무장 해제시켰고 이들은 파키스탄으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슬람교도가 현 지역 이슬람 경찰과 협력하여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를 죽였다는 사실과 라호르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당한 불쌍한 폭력에 대해 알려준다. 이 인용문에서 학살에 경찰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들의 종교 정체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도 자가의 의지 없이 파키스탄이나 인도로 보내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도 여러 곳에 경찰들이 현지인과 손을 잡고 학살을 했다. 200)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분단의 양상의 다른 차원은 범질서의 완전한 붕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이 시작될 때 범질서를 지켰으면 폭력과 집단 학살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범질서를 지키

198)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71.

199)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95~96면.

200) National Documental Centre (Pakistan) and Rukhsana Zafar, “Disturbances in the Punjab 1947 : A Compilation of Official Documents.” Islamabad: Government of Pakistan Cabinet Division National Documentation Centre, 1995.

는 군인, 경찰, 관료 정치인이 다들 집단 학살에 참여하거나 도와주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보호하는 군인들도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타자에 대한 혐오가 마음속에 있었다. 이것은 분단 때 인간의 행동이 자아와 타자의 정체에 따라 변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파키스탄행 열차』의 한 장면이 있다. 군인들이 이슬람교도들을 난민 수용소로 데려가기 위해 마노 마즈라에 왔을 때 시크교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 군인들도 동행했다. 시크교도 군인들이 악당이 되어 서로에 대한 혐오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 병사들도 파견되었다는 것에서 군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마을의 이슬람교도들과 시크교도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슬람교도와 시크교도의 군인 수가 같게 함으로써 어떤 집단이 남을 공격하거나 싸우거나 죽이는 것을 막으려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마노 마즈라를 떠난 이슬람교도들이 피난민 수용소로 가는 장면에서 시크교 군인인 이슬람교도들이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에게 저지른 폭력이 설명되며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재산을 약탈한 것과 살해한 것, 여성들을 강간하고 납치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 분노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미뜨 싱에게 힌두교도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의 폭력과 잔학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미뜨 싱을 파키스탄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군인들도 자기가 속하는 집단의 사람이 학살당함으로써 분노, 혐오 및 복수의 감정이 강해졌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군인들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괴롭히는 일에 몰두했다. 뻬데이는 분단사의 서발턴적 논의에서 델리와 가드무크페스바르의 군인이 학살을 도와준 것을 예를 들어 경찰과 군인도 인도에서 이슬람교를 죽이는데 손을 모았다는 것을 논의 한 바가 있다.<sup>201)</sup> 싱의 작품에서 이런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진술에 관한 내용이 있다.

‘Their army is like that, too. Baluch soldiers have been shooting people whenever they were sure there was no chance of running into Sikh or Gurkha troops.<sup>202)</sup>

그들의 군대도 마찬가지야. 발루치 군인들은 시크나 구루카 (인도 북방에 사는 호전적인 회교도—웁긴이)사람들의 떼거리 속으로 뛰어들어 썰

201) Gyanendra Pandey, “Folding the local into the national: Garhmukhteshwar, November 1946”,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98.

202)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71.

러 죽일 기회가 없을 적에는 마구 그들에게 총질을 해대곤 했더니 말  
야.<sup>203)</sup>

위 인용문은 경찰이 발루치 군인 폭도들을 도와주었다고도 말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군인들이 자기 종교에 속한 폭도들을 도왔던 사례의 장면이다. 이런 소식이 손쉽게 전파되고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으며 타자의 군인이 무서웠다. 무슬림 군인들은 파키스탄에서 또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군인들은 인도에서 학살하거나 학살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탈보트는 제시한 바가 있다.<sup>204)</sup> 다시 소설의 위 인용문을 보자면 발루치 군인들은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도망치는 피난민을 괴롭히고 총을 쏘아서 죽였다는 내용이다. 발루치는 파키스탄의 남서쪽 지역이며 이슬람교도들이 대다수였다. 난민을 죽이고 괴롭히는 군인들은 이슬람교도에 속하며 분단 후 파키스탄 군대에 봉사하기로 서명했다. 인도에서도 인도 군인이 이슬람교도들을 죽인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자면 한 지역의 대다수인 종교가 소수를 죽이는 것이 분명해진다. 분단 때에 폭력을 가한 군인들의 사고방식은 폭도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폭도들이 연령과 성별의 차별 없이 사람들을 죽였듯 군인들도 그런 짓을 했다. 분단 때 사람들은 공동 열풍(communal frenzy) 되었고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졌다. 군인들은 자기 정체성과 무관하게 국민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군인이 학살하니 민중이 보호받는 것이 어려워졌고 큰 학살, 고난과 고문의 비극이 나타났다.

‘The Bhai told me of a truckful of Baluch soldiers who were going from Amritsar to Lahore. When they were getting near the Pakistan border, the soldiers began to stick bayonets into Sikhs going along the road. The driver would slow down near a cyclist or a pedestrian, the soldiers on the foot board would stab him in the back and then the driver would accelerate away fast. They killed many people like this and were feeling happier and happier as they got nearer Pakistan. They were within a mile of the border and were travelling at great speed. What do you think happened then?’ ‘What?’ asked an

---

203)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96면.

204)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88.

obliging policeman. They all listened intently—ll except Iqbal. Even the driver stopped flogging the horse and looked back. ‘Listen, Babuji, this is worth listening to. A pariah dog ran across the road. The very same driver of the truck who had been responsible for killing so many people swerved sharply to the right to avoid the dog, a mangy pariah dog. He crashed into a tree. The driver and two of the soldiers were killed. All the others seriously wounded. What do you say to that?’<sup>205)</sup>

“스님이 들려준 얘기는 한 트럭에 가득 타고 있는 발루치 군인들이 벌인 짓에 대해서였는데요, 그자들은 암리짜에서 떠나 라호르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국경선이 가까와지자 군인들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시크 사람들을 총검으로 마구 찢러 죽이기 시작했대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거나 보행자가 눈에 띄게 되면 운전병은 일부러 속력을 떨구고 그러면 트럭의 발판에 타고 있던 그 군인놈들은 사람들의 등어리를 찌르고 운전병은 디립다 속력을 놓아 내빼는 겁니다. 놈들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아갔는데 파키스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더욱 신들이 나서 발광을 했대요. 놈들은 국경선에서 일 마일 안 쪽으로 접어들자 무섭게 속력을 냈대요. 그러자 바로 이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뭔데 그래?” 순경 한 명이 자상하게 물어 주었다. 모두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크발을 빼놓고 모두들 그랬다. 심지어 마부는 말에 채찍질하던 것을 멈추고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들어보세요, 나오리들, 들어볼 만한 얘기라구요. 들개란 놈이 한 마리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그 트럭 운전사란 놈은 그 더러운 들개 새끼 한 마리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급작스럽게 차를 틀었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운전사와 다른 군인 두 명은 그 자리에서 골로 갔고, 나머지들도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싸고단지 아니겠습니까?”<sup>206)</sup>

위 인용문에서 불라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살해당했다고도 했다. 불라는 군인들이 최대한 많이 살해했지만,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보호자가 포식자가 된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 체계를 믿지 않고 하느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해자 군인들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불라는 하느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저승의 도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205)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71,72.

206)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96~97면.

인도 사회 전통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분단의 폭력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이것을 막으려면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간주의 가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심리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폭력을 이들보다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크발은 수백 명의 인간을 죽여놓고 정말 길 잃은 개의 삶을 구하기를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이냐고 물어본다. 이크발은 이 군인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가 이 학살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단의 홀로코스트의 규모를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분단 당시 소문으로 공포와 타자성이 강화된 것도 볼 수 있다. 불라가 말하는 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민중 사이에 이슬람 교도에 대한 분노와 공포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싱은 이런 소문의 결과로 폭행의 사례를 직접 봤다고 했다.

They have not lost their homes and belongings; they haven't had their mothers, wives, sisters and daughters raped and murdered in the streets. Did your honour hear what the Muslim mobs did to Hindu and Sikh refugees in the marketplaces at Sheikhpura and Gujranwala? Pakistan police and the army took part in the killings. Not a soul was left alive. Women killed their own children and jumped into wells that filled to the brim with corpses.<sup>207)</sup>

파키스탄의 저쪽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들은 가정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물을 약탈당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어머니, 아내, 누이, 딸 자식이 윤간을 당하거나 길바닥에서 살해당하거나 하는 일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각하께서는 무슬림 반도들이 셰이쿠푸라 시장이라든가 구즈란왈라에서 힌두도와 시크도에게 무슨 행악을 했는지 들으셨나요? 파키스탄 경찰과 군대는 학살극에 같이 끼어든 겁니다. 단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여인네들은 제 자식들을 자진해서 죽인 다음 시체더미가 물 꼭대기까지 차오른 우물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sup>208)</sup>

위 인용문에서도 군인이 학살을 가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 부경위는 셰이크뿌라와 구즈란왈라에서 군인들이 이슬람교도들이 가하는 학살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군인들은 어떤 때는 학살을 했고 어떤 때는 학살하는 것을 막으려 아

207)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22.

208)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48면.



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학살의 참여자가 되었다. 카프리는 군인들조차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군인들에 대한 의혹도 컸다. 군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말리와 갱단처럼 범죄자처럼 보였다.<sup>209)</sup> 우물에 뛰어넘는 사건이 많이 왜곡되어 시크교도 여성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널리 전파되었고 이런 사건은 자기가 타자에게 가하는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군인들도 여성을 강간하고 납치하고 훼손하는 것이었다. 셰이크뿌라와 구즈란왈라의 사건과 타자에 의해 행해진 잔학 행위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군인들의 혐오에 큰 이유가 되어 이들도 폭력을 가했다. 집단주의적 광란의 사고방식은 타자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 폭력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순간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타자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복수 감정이 더 강조되었다.

‘You are quite right, Bhajji, there is some danger of being misunderstood. One should never touch another’ s property; one should never look at another’ s woman. One should just let others take one’ s goods and sleep with one’ s sisters. The only way people like you will understand anything is by being sent over to Pakistan: have your sisters and mothers raped in front of you, have your clothes taken off, and be sent back with a kick and spit on your behinds.<sup>210)</sup>

지당한 말씀입니다. 스님. 오해가 생겨날 소지가 충분하지요. 누구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서는 안되지요. 누구나 남의 부인을 쳐다봐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제 재물을 남에게 맡기거나 제 누이를 단지 남이 데리고자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같은 양반들이 세상 물정을 조금이라도 익히기 위해서는 저 너머 파키스탄으로 가봐야 한다 이겁니다. 당신들의 면전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누이와 어머니를 겁간하고 옷을 발가 벗겨서 발길질을 하고, 등뒤로 침을 벨으며 쫓아내는 그런 일을 겪어봐야만 무엇인가를 안다 이겁니다.”<sup>211)</sup>

위 인용문에서 시크교도 군인은 미프 싱에게 남의 집단의 여자를 보지 않고,

209) Chhote Lal Khatri, “Trauma of Partition in Khushwant Singh’ sTrain to Pakistan.” Indian English Fiction: Readings and Reflections, Edited by Gajendra Kumar and Uday Shankar Ojha. New Delhi: Sarup and Sons, 2003, p.46.

210)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43.

211)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67면.

남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이슬람교도가 시크교도 여성들을 강간한 것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어린 시크교 여성들은 파키스탄으로 가는 이슬람교도 피난민을 살해한 것을 언급한다. 본 인용문에서 군인은 마노 마즈라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슬람교도 피난민을 수용소에 데리러 왔지만, 마음속에 이슬람교도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많았다. 이 군인이 이슬람교도 피난민을 수용소로 데려가는 길에서 살해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분단의 비극은 이토록 심해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동료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군인들의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배가했다는 내용이 『파키스탄행 열차』의 내용이다.

군인, 경찰 등의 공권력은 폭력을 가했지만, 일반 사람 혹은 민중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 이 민중은 옛날에 공존하고 회합의 기억을 가졌었지만, 분단 때 서로를 죽이는 집단주의 갈등에 빠졌다. 집단주의 갈등의 뿌리는 서로의 종교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이 없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스는 분단 당시 이슬람교도는 시크교도를 인간으로 취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주관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광기와 악마의 특징을 소유한 생물로 상상되었기 때문이다.<sup>212)</sup> 반대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모든 이슬람교도에 대한 전면적인 증오로 연합되었다. 이러한 증오심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공동의 적을 구성함으로써 확고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sup>213)</sup> 고정관념의 생성 또는 강화로 인해 역사적인 편견이 집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인도 분단 폭력은 정치적 발전의 최종 결과였다.<sup>214)</sup> 집단 폭력은 소수자를 제거하고 토지를 획득한다는 생각으로 일어났다. 분단의 폭력에서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은 국가가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대규모의 폭력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sup>215)</sup> 폭력이 통제되지 않고 폭력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으면 일반 사람들은 폭력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에 빠진다. 때로는 이 폭력이 두려움의 결과이고 때로는 영리한 동기로 행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구성원은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잃고 집단적 정체성을 의식을 가졌고 자아와 타자의 의식이 나타

212) Veena Das, Specificities: Official Narratives, Rumour,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Hate, *Journal for the Study of Race, Nation and Culture*, Vol. 4 no.1, 1998, p.125.

213) Gyandendra Pandey, "The Prose of Otherness." *Essays in Honour of Ranajit Guh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205.

214)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60.

215) Ian Talbot and Gurharpal Singh,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61.

났다. 일반인이 타지의 기호를 무서워하고 그 기호를 파괴하기 위해 싸움에 빠진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슬람교도에게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타자가 되었고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에게 이슬람교도가 타자가 되었다.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조장된 폭력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수행되며 개인적인 폭력은 두려움으로 수행된다.

The Sikhs were sullen and angry. ‘Never trust a Mussulman,’ they said. The last Guru had warned them that Muslims had no loyalties, the holy Granth had been torn to bits. And Muslims were never ones to respect women. Sikh refugees had told of women jumping into wells and burning themselves rather than fall into the hands of Muslims.....Then there was the murder of Ram Lal. No one knew who had killed him, but everyone knew Ram Lal was a Hindu; Sultana and his gang were Muslims and had fled to Pakistan. An unknown character—without turban or beard—had been loitering about the village. These were reasons enough to be angry with someone. So they decided to be angry with the Muslims; Muslims were basely ungrateful. Logic was never a strong point with Sikhs; when they were roused, logic did not matter at all.<sup>216)</sup>

시크인들은 시무룩해 있었고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은 “무슬림을 믿지 말라” 라고 말해 왔다. 전번의 구루는 무슬림들이 도대체가 인간 말종들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인도 역사에 있어서 무슬림이 지배하던 시대는 아들이 제 친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고,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끼리 맹목적으로 다투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시크인들에 대해 어떻게 했던가? 두 명의 구루는 처형되었고 다른 구루는 피살되었으며 그의 어린 자식들은 학살당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반항을 했대서가 아니라 단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칼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사원은 도살된 암소로 더럽혀졌다. 그란트 성전은 갈기갈기 찢기위졌다. 거기에 무슬림들은 여자를 위해줄 줄 모르는 종자들이었다. 시크 피난민들은 무슬림의 손에 더럽힘을 당하느니 우물 속에 뛰어들었다. (중략)..... 예는 살해되었다.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 학살당한 시크들의 시체 하물들이 마노 마즈라에서 화장되어졌다. 파키스탄에 있는 그들 집으로부터 쫓겨나 흘러온 힌두도와 시크도들은 이제 죽어서 마노 마즈라에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한 셈이었다. 그리고 그뿐인가, 램 랄의 살해사건이 있다. 어떤 자들이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램랄이 힌두인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술타나와 그의 일당은

---

216)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28.

무슬림들이었으며 파키스탄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거기에 어떤 정체불명의 사내 (터번도 두르지 않고 수염도 기르지 않은)가 마을 근처를 배회했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어떤 종류의 인종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들에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었다.<sup>217)</sup>

파키스탄에서 도망치고 마노 마즈라에 정착하는 피난민이 점점 많아졌다. 마노 마즈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 있는 마을이라서 피난민들이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폭력을 피하려고 긴 거리를 걸어 마노 마즈라에 와서 정착했다. 그런데 그들은 파키스탄에서 시크교도와 힌두교들이 당한 폭력의 기억을 같이 가져왔다.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위협과 고문의 체험을 듣고 이때까지 마노 마즈라에 사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자기 뒀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노 마즈라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마노 마즈라의 시크교도는 이슬람교도를 형제로 기억하고 있던 것이 걸려도 이슬람교도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시크교도의 태도를 바꿨다. 과거에 이슬람교도 다스린 왕들의 폭력의 집단 기억이 소환되기 시작하였다. 마노 마즈라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타자로 지목하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보고 공권력자인 후쿰 찬드는 마노 마즈라의 시크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으며 그 결과로 이슬람교도들은 마노 마즈라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후쿰 찬드는 시크교도에게 이슬람교도를 타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크발이란 공산주의 소년을 이용하고 이 음모에 성공했다. 이크발을 이슬람교도라고 지적하고 술탄이란 강도도 이슬람교도인 것을 주장하고 대금업자 랄라 람랄의 살인 사건의 원고인으로 지정했고 마노 마즈라에서 이슬람교도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 시크교도들은 망각한 과거의 집단 갈등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슬람교도에 대해 혐오에 빠졌다. 수 세기부터 역사적으로 타자로 지정된 것을 망각한 기억이 소환되며 타자인 이슬람교도가 악마가 되어버려 위협에 처했다. 마을의 시크교도는 자기 구루를 언급하며 타자인 이슬람교도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슬람교도는 시크교 구루의 후손과 형제를 죽인 주체와 권력에 욕심을 품고 있는 주체가 되었다. 즉 회합의 기억이 망각되고 갈등의 기억이 소환되었다.

---

217)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51면.

분단 당시 폭력의 가장 특이한 양상은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해 가해진 폭력이었다. 혐오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난민들이 마노 마즈라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에 분노하고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마노 마즈라를 방문하여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학살당한 것에 대해 복수를 요청한 사람들과 합류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를 알았고 한때 공존했던 젊은이들은 파키스탄에서 온 피난민들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가는 열차를 세우고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 피난민들을 죽이기로 동의했다. 철교에 밧줄을 묶고 기차 지붕에 앉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으며 기차가 멈추면 기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노 마즈라에 사는 이슬람교도들이 집과 축우를 두고 마을을 떠난 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도인 말리는 이슬람교도의 집을 불태우고 남은 것을 약탈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인도에서만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도 일반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과 강간당한 여성들이 많았다. 시크교 사원을 불태우고 여성들을 강간한 후 납치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크교도들은 수염을 강제로 깎았고 살해당하거나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것이었다. 폭도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인구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마을을 총과 창으로 무장한 수천 명의 사람이 둘러싸고 있을 때 압도적인 적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 달리거나 살해당하는 것뿐이었다. 이 폭력은 전-인도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판자브와 멀리 있는 동-인도의 비하르에 주에서도 폭력은 심했다. 소설에서 몇 사람들이 머리뼈를 가지고 비하르 폭동에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뼈라고 하고 돌아다녔다는 장면은 전-인도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려주려는 작가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런 사건은 혼했고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자기의 종교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 집단 학살이 더 심해졌다. 사람들이 한 데에서 벌어진 학살로 인하여 다른 데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자기가 당한 폭력을 말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쿠스완트 싱은 이런 살해와 학살의 장면을 그렸다.

피난민들은 인도에서 파키스탄 또는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도망치는 여정 중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후쿰 찬드의 머리에 떠오르는 두 개의 사건을 보자면 이것은 분명해진다. 순다 싱과 후쿰 찬드의 하인의 딸 순다리가 당한 사건이다. 순다리는 신혼이었는데 남편은 결혼 4일 만에 살해당했고 순다리는 강간을 당하고 거리에 방치되어 죽었다. 순다 싱은 파키스탄에서 도망치던 중 아내와 아

이들을 죽여야 했다. 순다리와 순다는 여정에서 살해당한 후에 자기의 가족을 잃었다. 분단 때 이런 사건은 드물지는 않았다.

Sunder Singh's case was different. Hukum Chand had had him recruited for the army. He had done well. He was a big, brave Sikh with a row of medals won in battles in Burma, Eritrea and Italy. The government had given him land in Sindh. He came to his tryst by train, along with his wife and three children. There were over five hundred men and women in a compartment meant to carry '40 sitting, 12 sleeping'. There was just one little lavatory in the corner without any water in the cistern. It was 115° in the shade; but there was no shade—not a shrub within miles. Only the sun and the sand ... and no water. At all stations there were people with spears along the railings. Then the train was held up at a station for four days. No one was allowed to get off. Sunder Singh's children cried for water and food. So did everyone else. Sunder Singh gave them his urine to drink. Then that dried up too. So he pulled out his revolver and shot them all. Shangara Singh aged six with his long brown-blond hair tied up in a topknot, Deepo aged four with curling eyelashes, and Amro, four months old, who tugged at her mother's dry breasts with her gums and puckered up her face till it was full of wrinkles, crying frantically. Sunder Singh also shot his wife. Then he lost his nerve. He put the revolver to his temple but did not fire. There was no point in killing himself. The train had begun to move. He heaved out the corpses of his wife and children and came along to India. He did not redeem the pledge. Only his family did.<sup>218)</sup>

순다 싱의 경우는 그와 달랐다. 후쿰 찬드는 그를 군대에 집어넣었다. 그는 군대생활을 잘해냈다. 그는 버마·에리트리아·이태리의 전쟁터에서 줄줄이 훈장들을 달게 된 거대하고도 용감한 시크 병사였다. 정부는 신드에 있는 땅을 그에게 내려주었다. 그는 아내와 세 명의 자식을 데리고 떠날 기차 여행에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40인 좌석, 12인 침대적> 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차의 한 방통에 남자·여자·어린이를 합쳐 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 방통에는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물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늘 쪽의 기운이 화씨 115도를 가리키는 더위였다. 그러나 그늘이라곤 도대체 없었다. 수마일 사이에 관목 숲 하나 없었다. 다만 태양과 모래뿐이었고, 그리고

---

218)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87.

물이라곤 전혀 없었다. 모든 정거장들에는 창을 들고 철로변에 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기차는 어떤 정거장에서 4일 동안이나 불박혀 있게 되었다. 아무도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중략) 그리고 물이라곤 전혀 없었다. 모든 정거장들에 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기차는 어떤 정거장에서 4일 동안이나 불박혀 있게 되었다. 아무도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순다 싱의 어린 것들은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칭얼거렸다. 모두들 아우성이었다. 순다는 자기의 오줌을 마시라고 내주었다. 그러자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참다못해 그는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고 자식들 모두를 죽여버렸다. 상가라 싱은 여섯살짜리 사내애로서 길다란 갈색 블론드 머리 끝을 나비 매듭리본으로 묶어놓고 있었으며, 네 살짜리 데포는 쌍꺼풀이 진 속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넉달 밖에 안된 딸아이 아모로는 말라버린 엄마 젖통을 잇몸으로 빨면서 발악하듯 울어대느라고 얼굴에는 잘디잔 주름들이 잡히면서 오그라들어 있었다. 순다 싱은 또 한 게 아내에게도 충을 쏘았다. 그는 거의 미쳐버렸다. 그는 자기 관자놀이에 충을 갖다 대었으나 발사하지는 못했다. 스스로 죽이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세 자식들의 시체를 내던지고 저 혼자서만 살아서 인도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다. 그의 가족들만이 지켰다. 219)

이 인용문에서 치안 판사 후쿰 찬드가 기억에 떠올린 것은 영국을 위해 싸웠고 파키스탄의 신드주에서 땅을 수여 받은 군인 순다 싱이란 등장인물의 이야기이다. 분단의 비탄 중에서 순다는 수여한 땅을 버리고 인도로 날아가야 했다. 순다가 탄 기차는 약 50명을 태울 수 있는 칸에 500명 이상을 태우고 있었다고 말한다. 열차는 이슬람교도에 의해 사흘 동안 역에서 잡혀 있게 되었다. 여름의 사흘 동안 마시는 물도 먹는 음식도 없어지고 순다 싱의 가족을 포함해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다. 싱의 4개월밖에 안 자란 아이도 엄마의 가슴에 우유가 없어져 배고파 울었다. 결국, 순다는 자기 아이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마실 수 있도록 자기 오줌을 목마른 아이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며칠 후 말라 버렸다. 순다 싱은 고통, 피난과 폭력의 삶보다는 죽음의 평화를 주기로 하고 결국 자기 아내를 포함하여 모두를 총으로 쏘고 죽였다. 이 사건은 쿠스완트 싱이 직접 체험한 사건의 변형이고 현실을 허구화하여 묘사한 것이다. 싱에 따르면 그는 한번 소송에 관한 일로 아보타바드에 갔다. 그는 라호르행 기차를 타기 위해 아보타바

219)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211면.

드에서 택실라까지 가야 했는데 걷는 것을 좋아하는 쿠스완트 싱은 이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을 생각했다. 도중에 싱은 군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싱에게 산책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야단을 쳤다. 군인들은 쿠스완트 싱을 트럭에 태우고 택실라 역에 내려주었다. 쿠스완트 싱이 탈 기차는 택실라 역 바로 밖에서 세워졌고 모든 시크교도 승객들은 학살당했다.

여정 도중에 가해진 또 다른 학살의 사건은 후쿰 찬드의 하인 중 한 사람의 딸인 순다리에 대한 것이다. 순다리는 결혼했고 자기 남편 집에 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후 자기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것이었다. 돌이 탄 버스는 도중에 이슬람교도 폭도들에게 잡혔다. 폭도들은 수염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수염이 없는 사람들의 할례 여부를 확인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살려주고 하지 않은 사람은 남근을 잘랐다. 폭도들은 노중에서 순다리를 강간했다. 분단 때 이런 식으로 일반인도 학살, 살해, 강간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She had been married four days and both her arms were covered with red lacquer bangles and the henna on her palms was still a deep vermilion. She had not yet slept with Mansa Ram. Their relatives had not left them alone for a minute. She had hardly seen his face through her veil. Now he was taking her to Gujranwala where he worked as a peon and had a little room of his own in the Sessions Court compound. There would be no relatives and he would certainly try it. He did not seem particularly keen, sitting in the bus talking loudly to all the other passengers. Men often pretended indifference. No one would really believe that she wanted him either —what with the veil across her face and not a word! ‘Do not take any of the lacquer bangles off. It brings bad luck,’ her girl friends had said to her. ‘Let him break them when he makes love to you and mauls you.’ There were a dozen on each of her arms, covering them from the wrists to the elbows. She felt them with her fingers. They were hard and brittle. He would have to do a lot of hugging and savaging to break them. She stopped daydreaming as the bus pulled up. There were large stones on the road. Then hundreds of people surrounded them. Everyone was ordered off the bus. Sikhs were just hacked to death. The clean-shaven were stripped. Those that were circumcised were forgiven. Those that were not, were circumcised. Not just the foreskin: the whole thing was cut off. She who had not really had a good look



at Mansa Ram was shown her husband completely naked. They held him by the arms and legs and one man cut off his penis and gave it to her. The mob made love to her. She did not have to take off any of her bangles. They were all smashed as she lay in the road, being taken by one man and another and another.<sup>220)</sup>

순다리라는 여자가 있었다. 후쿰 찬드의 하인의 구즈란왈라로 가는 길바닥에서 운명에 걸여 그녀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그녀는 나흘 전에 결혼식을 올린 몸이었고 아직도 두 손목에는 락카 팔찌가 채워져 있었으며 손에 칠한 헤나(식물 이름-옹긴이) 물감은 여전히 자줏빛을 진하게 남겨놓고 있었다. 그녀는 신랑인 만사 람과 아직 함께 자지도 않았다. 그들의 친척들이 잠시도 두 사람만이 있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베일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신랑 얼굴도 푹푹히 보지 못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날뎀팔이꾼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 형사법원이 있는 부근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도 장만해 둔 구즈란왈라로신부를 데려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친척 떨거지들은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달겨들지 못하도록 할 작정이었다. 신랑은 버스에 앉아 서는 다른 승객들과 큰 소리로 잡담이나 주고 받을 뿐 제 신부에 대해서는 잘 보살펴 줄 줄을 몰랐다. 승객들은 탄전을 부리고 있었다. 하기가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얼굴 전체에 베일을 뒤집어쓰고 있는 데다가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기만 하였으니까 그랬다. “락카 팔찌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부수면 안된다, 애. 그러면 액운이 든대더라.” 하고 그녀의 여자 친구들은 말했었다. “신랑이 너를 사랑해주려구 거칠게 덤벼들 적에 저절로 부숴지도록 해야하는 거란다.” 그녀의 두 팔에는 손목에서 팔꿈치에 이르기까지 각각 열두 개씩이나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만져보았다. 그것들은 딱딱하기는 하지만 쉽게 부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신랑이 그것들을 모두 부수어버리자면 신부를 힘껏 끌어안아서 몸부림깨나 쳐야 할 것이었다. 버스가 멈추는 바람에 그녀는 공상에서 깨어났다. 길바닥에는 커다란 돌맹이들이 가로놓여져 있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모두들 버스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크인들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 황천길로 갔다. 수염을 완전히 깎은 자들은 발가벗기워졌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사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자리에서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였다. 다만 그것은 표피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물건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만사 람의 눈에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던 그녀는 신랑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기 워졌다. 사람들이 신랑의 팔과 다리를 꼭 붙들었고, 그러자 한 사내가 신랑의 생식기를 칼로 쳐내려서 그녀에게 주었다. (중략) 팔찌들은 그녀가 길바닥에 누워서 한 사내 다른 사내 또다른 사내에

---

220)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86.

의해 겁강 당하는 동안에 모두 부숴져버렸다. 그러니 팔찌들은 그녀에게 많은 길운들을 가져다 준 것에 틀림 없게 된 것이었다.<sup>221)</sup>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폭력은 소문(hear and say)로 시작하고 점점 마노 마즈라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말을 듣고 폭력을 예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 집단 폭력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소설에서 사틀르즈강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An old peasant with a grey beard lay flat on the water. His arms were stretched out as if he had been crucified. His mouth was wide open and showed his toothless gums, his eyes were covered with film, his hair floated about his head like a halo. He had a deep wound on his neck which slanted down from the side to the chest. A child's head butted into the old man's armpit. There was a hole in its back. There were many others coming down the river like logs hewn on the mountains and cast into streams to be carried down to the plains. A few passed through the middle of the arches and sped onward faster. Others bumped into the piers and turned over to show their wounds till the current turned them over again. Some were without limbs, some had their bellies torn open, many women's breasts were slashed. They floated down the sunlit river, bobbing up and down.<sup>222)</sup>

“이장님 저 사람들은 홍수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학살 당한 거예요.” 회색 수염을 가진 늙은 농부 한 명이 물 위에 반듯이 떠 있었다. 그의 두팔은 마치 그가 십자가에 박혔었던듯 똑바로 뻗어 있었다. 그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어서 이빨이 없는 잇몸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두 눈에는 옅은 막이 생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후광처럼 머리쪽으로 흘러내리 부표하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깊은 자상(刺傷)이 생겨 있었는데 가슴 쪽으로 비스듬하게 그어져 있었다. 한 어린애의 머리가 노인의 겨드랑이 쪽을 치받고 있었다. 그 아이의 등어리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강에는 이런 시체들이 많이 떠 있었다. 시체들은 산에서 도끼로 잘라낸 다음 아래 평지로 운반하기 위해 물에 떠온 통나무들과 같이 떠 있었다. 아아취 아래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여 빠르게 흘러가는 시체들은 많지 않았다. 교각

221)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210, 211면.

222)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51, 152.

의 방조제에 세계 부딪혔다가 발라당 뒤집혀져서 자신의 상처를 보인 다음 조류에 의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하였다. 어떤 시체는 사지가 잘려 나갔고 어떤 시체는 아랫배가 찢겨져 있었으며 많은 여자들의 젖가슴이 짓이겨져 있었다. 햇살을 받고 있는 강 아래로 시체들은 솟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시체의 다리 위에는 술개와 제비갈매기가 붙어 있었다.<sup>223)</sup>

위 인용문은 남녀노소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다. 사틀루즈 강에서 살해되어 강에 던져진 팔다리가 잘린 늙은 시크교도 농부 남성, 가슴이 잘린 여성, 심지어 아이조차 학살당했다는 장면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편자브주에서 폭력은 제일 심했다. 편자브주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도의 사람들이 많았다. 동 편자브주에는 이슬람교도들이 많고 서-편자브에는 시크교도들이 많았다. 그런데 국경을 정할 때 서-편자브주는 파키스탄이 되었고, 동-편자브주는 인도가 되었다. 파키스탄에서 다수 민족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시크교도가 학살당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다수 민족인 이슬람교도가 힌두교와 시크교도를 학살했다. 한 마을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학살당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의 위 인용문에서도 한 마을이 학살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늙은 시크교의 잘린 시체 또는 강간당한 여성의 시체들은 민중에게 가해진 폭력의 규모와 심각성을 상기시킨다. 어린아이들도 이 학살을 피할 수 없었다. 기차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도착한 후 타자가 저지른 학살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한 마을 전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의 목격자조차도 없는 학살의 기록은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에서 볼 수는 없고 분단 소설에서 개인의 이야기와 지역적인 요소로 점점 등장한다.

싱의 작품에서 다른 중요한 양상은 지배층의 사람들이 분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쿰 찬드에 따르면 권력자, 부자, 정치인들은 분단의 트라우마에 처하지 않았다.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단을 이용해 혜택을 받았다. 다른 편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분단 때 벌어진 대학살과 강간과 상처에 희생되고 살해당했다. 분단은 사람들의 계급적 차이도 드러냈다. 분단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과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여 취한 삶을 누렸다. 이런 장면을 후쿰 찬드의 동료 프렘 싱(Prem Singh)을 통해 볼 수 있다.

---

223)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74면.

There was Hukum Chand's colleague Prem Singh who went back to fetch his wife's jewellery from Lahore. He made his tryst at Feletti's Hotel where European sahibs used to flirt with each other's wives. It is next door to the Punjab Assembly building where Pakistani parliamentarians talked democracy and made laws. Prem Singh whiled away time drinking beer and offering it to the Englishmen staying in the hotel. Over the privet hedge a dozen heads with fez caps and Pathan turbans waited for him. He drank more beer and forced it on his English friends and on the orchestra. His dates across the hedge waited patiently. The Englishmen drank a lot of beer and whisky and said Prem Singh was a grand chap. But it was late for dinner so they said, 'Good night Mr ... Did not catch your name. Yes, of course, Mr Singh. Thank you very much, Mr Singh. See you again.' ... 'Nice old Wog. Can hold his drink too,' they said in the dining room. Even the orchestra had more beer than ever before. 'What would you like us to play, sir?' asked Mendoza the Goan bandleader. 'It is rather late and we must close down now.' Prem Singh did not know the name of any European piece of music. He thought hard. He remembered one of the Englishmen had asked for something which sounded like 'bananas'. 'Bananas,' said Prem Singh. '“We'll Have No Bananas Today.”' 'Yes, sir.' Mendoza, McMello, DeSilva, DeSaram and Gomes strummed 'Bananas'. Prem Singh walked across the lawn to the gate. His dates also moved along to the hedge gate.<sup>224)</sup>

후쿰 찬드의 동료 중에는 프렘 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마누라에게 보석을 사주기 위해 라호르로 갔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팔레티 호텔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유럽 사히브들이 제 친구 여편네들과 서로 시시덕거리며 돌고 있었다. 그 건물은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법률을 만들어내는 국회 의사당 바로 옆에 있었다. 프렘 싱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영국인들과 술잔을 나누려고 여가를 내었다. 한편 쥐똥나무로 생울타리를 친 저 바깥쪽에서는 페즈 모자 (붉은 바케츠를 얹어놓은 모양에 검정 술이 달려 있는 회교도들이 쓰는 모자-웁긴이)를 쓰고 있거나 파키스탄식 터번을 두른 열두 명의 사내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고 영국인 친구들과 오케스트라 단원에게도 마시기를 강요했다. 생울타리 너머에서 그와의 만남을 바라는 자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놈들은 맥주와 위스키를 굉장히

---

224)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85.

축을 내었으며 그리고 프렘 싱을 거물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만찬을 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들은 작별을 고했다. “굿 나잇 미스터…… 아직 이름을 묻지 못했군요. 아 네, 물론 미스터 싱이시지요. 땡큐 베리 머휘, 미스터 싱 다시 만나요.” “늙은 주책바가지야. 그만 마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몰라.” 사람들은 식당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전에 없이 많은 맥주를 마셔댔다. “저희들이 무슨 곡을 연주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오리?” 고어 (인도 서남해안의 옛 포르투갈령-옴긴이)사람인 밴드마스터 멘도자가 물었다. 프렘 싱은 유럽 노래는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 그는 난감해졌다. 그러자 그는 어떤 영국인이 <바나나> 비슷하게 발음되는 어떤 곡목을 청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바나나” 하고 프렘 싱은 말했다. “아, 「오늘 바나나는 더 없습니다」라는 곡목을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나리.” 멘도자 · 다멜로 · 디실바 · 디사람, 그리고 고메즈는 곡을 켜기 시작했다. 그와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또한 생울타리를 따라 걸어서 현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악단 단원들은 프렘 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시이시여 왕을 도우소서」 하는 영국 국가를 연주했다.<sup>225)</sup>

일반인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국경을 뛰어넘던 비참한 상황이었던 분단 시대 때 프렘 싱은 아내의 장신구를 찾으러 파키스탄의 라호르를 방문했다. 사람들이 손쉽게 죽는 시 파키스탄 쪽에 있는 라호르로 가서 아내의 장신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의 특권 때문이었다. 이것은 분단 시의 비특권자와 특권자 사이의 대조적인 차이를 상기시킨다. 마노 마즈라를 떠나기 전에 소지품을 가져갈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의 상황에도 이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가난하고 무력했다. 프렘 싱처럼 편안함을 누릴 힘이 없었다. 라호르에서 프렘 싱은 영국인 남녀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호화로운 호텔에 머물며 식민지 지배자들의 영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여자들을 만나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반면에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고 몇 시대 전부터 살아온 자기 마을을 떠나 수용소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프렘 싱의 행위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길을 건축하는 새롭게 지정된 국회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파키스탄 국가의 형성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새로운 나라의 국민들은 파키스탄으로 가는 도중에 학살되고 있다는 모순을 싱은 소설에서 묘사했다. 원래부터 특권을 누렸

225)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209면.

던 프렘 싱 같은 사람은 잃을 게 별로 없었다. 그들은 영국 통치 아래에서 누리던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분단과 해방 이후에도 상층 계급에 속한 특권자에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반면 하층 계급의 사람인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나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위기에 처한 힌두교와 시크교들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백인(Whites)은 떠났고 이제 갈색인(Browns)은 인도인을 지배할 것이다. 특권자들은 계속해서 특권을 누릴 것이며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었다. 이러한 독립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하층민 혹은 하급의 사람들은 백인에게 더 이상 경례하지 않고 갈색인 인도인에게 경례를 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관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쿠스완트 싱은 이크발이 해방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그렸다.

‘What you say is absolutely right,’ he agreed warmly. ‘If you want freedom to mean something for you—the peasants and workers—you have to get together and fight. Get the bania Congress government out. Get rid of the princes and the landlords and freedom will mean for you just what you think it should. More land, more buffaloes, no debts.’ 226)

“그런 말씀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근하게 동감을 나타냈다. “자유라는 것이 당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니안(인도 상인 계급-웁긴이)들로 이루어진 의회 정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왕족이나 지주들을 쫓아내면 자유는 당신이 말한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땅, 보다 많은 물소, 아무런 빛도 없게 되는...” 227)

이크발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약속한 이 독립의 공허함과 분단의 의미를 의문한다. 그는 이 해방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크발은 영국의 통치가 끝을 맺지만, 종교 정체성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는 일반민 혹은 프롤레타리아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급의 문제는 종교와 관련이 없고 모든 종교에 속한 민중의 삶에서 비치는 문제가 있고 종교의 정체성으로 형성된 국민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226)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2.

227)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79면.

있어 실패한다는 것이다. 영국 지배 때 하층민 혹은 소외되었던 사람은 여전히 비참과 빈곤으로 계속 고문을 당하는 것이 연속된다고 의심한다. 그는 진정한 독립은 부르주아 지배의 족쇄를 끊는 데 있다고 말하며 종교에 바탕을 둔 분단은 허무한 것이라고 고발한다.

‘No,’ the Muslim said. ‘Freedom is for the educated people who fought for it. We were slaves of the English, now we will be slaves of the educated Indians—or the Pakistanis.’ 228)

“그게 아니야.” 무슬림이 말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야 자유를 위해 싸웠으니 그게 그들의 몫이 되는 게 당연한 기여. 우리야 영국 사람들의 노예였으니 이제부터는 고등교육 받은 인도인 (또는 파키스탄인)의 노예가 되겠지.” 229)

위와 비슷하게 이 장면에서도 이슬람교도 인물의 대사를 통해 해방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전에는 영국 식민지배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인도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 해방은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교양이 있는 자가 지배자가 되고 민중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의심한다. 해방과 국가의 분단 혹은 종교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수립된 국민국가는 민중에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해방의 공허함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대한 일반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보여준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를 통해 민중이 국가의 해방과 새로운 국민국가의 수립으로부터 보답받지 못한 것과 교육받은 엘리트들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것은 해방과 분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나타나며 해방과 분단의 허무함을 상기시킨다.

분단의 여러 양상 중 하나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공권력 사이에 나타난 분단에 대한 혼란이었다. 사람들은 이 분단이 일시적이고 두 국가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30)</sup> 이 정치적인 혼란이 가라앉은 후 곧 사람들은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이것의 한 이유는 분단의 자세한 제안이 영국 식민지배자들이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이었고 이 분단은 사람

228)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52.

229)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79면.

230) Gyandendra Pandey, “The Three Partition of 1947”, *Remembering Par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42.

들의 실제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인들은 이런 기이한 일이 수년 전부터 한 나라로 여겨온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분단이 지도자들의 하이폴리틱스의 결과인 것을 보여준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국선 혹은 국가의 경계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접경하는 편자브, 벵골 국경주에서는 분단의 국경에 대한 혼란이 매우 컸다. 사람들은 국경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단지 공동의 동족 학살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목숨을 구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은 쿠스완트 싱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도 그렸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에 사는 무슬림들은 대대로 마노 마즈라에서 수년 동안 살아왔으나 마노 마즈라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난민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을을 떠나기 바로 전에 난민 수용소에서 파키스탄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으로 이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마노 마즈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은 분단이 임시적인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 폭력을 오래 진행할 수 없으며 빨리 끝을 맺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이 인도를 분단하는 제도가 전혀 오래갈 수 없고 곧 인도가 한 나라로 통일될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있는 친구를 떠나 인도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시크교도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가는 장면은 이것을 상기시킨다.

The news that the Mano Majra Muslims were going to Pakistan came as a surprise. The lambardar had believed they would only go to the refugee camp for a few days and then return.....

.....As you are going to Pakistan, it may be many months before they return.<sup>231)</sup>

마노 마즈라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뉴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장은 그들이 난민 수용소에 이삼일간 묵었다가 곧

---

231)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42.



되돌아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중략....

.....하루나 이틀 정도라면 그들의 가재도구들을 간수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파키스탄으로 간다면저 사람들이 되돌아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  
릴 거란 말예요.<sup>232)</sup>

일반인도 분단을 일시적인 제도라고 생각한 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가의  
어머니가 누란에게 하는 말이다.

When all this is over and Jugga comes back, he will go and get you  
from wherever you are.<sup>233)</sup>

이 모든 분란이 지나가고 그리고 쥬가가 돌아오게 되면 네가 어디에 가  
있든 개는 너를 찾아내어 데리고 올 게다....<sup>234)</sup>

치안 판사 후쿰 찬드란 인물의 말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인용문에  
서 이것은 뚜렷해진다.

‘I suppose,’ said Hukum Chand, clearing his throat, ‘they will come  
back when all this blows over?’<sup>235)</sup>

내가 알기로는, 후쿰 찬드는 잔기침을 했다. “이런 북새통이 지나가면  
그들은 되돌아오려 할 거 아니요?”<sup>236)</sup>

‘It will not last forever. You see how things change. Within a week  
they will be back in Chundunnugger and the Sikhs and Muslims will be  
drinking water out of the same pitcher.’<sup>237)</sup>

오래도록 이렇지는 않을 거요. 일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두고 봅시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들은 다시 춘두누거로 돌아와서, 시크와 무슬림들

---

232)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65면.

233)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39.

234)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62면.

235)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65.

236)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88면.

237)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65.

이 같은 주전자 물을 나누어 마실지도 모르는 일이고.....<sup>238)</sup>

지금까지 인도의 분단에 대한 물리적인 차원을 깊이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인도의 분단은 인도와 새롭게 형성된 파키스탄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다. 소문으로 인한 집단적 공포와 학살의 여파는 여러 차원으로 나타났다. 쿠스완트 싱은 국민국가 수립의 여파를 잘 그렸다. 그는 이것을 다양한 양상으로 살펴본 바가 있다. 텍스트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국민의 희망을 배신한 국민국가의 수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한 문제도 있다. 바로 남아시아의 지리정치학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단 이후 국민국가를 수립한 후 몇 번이나 전쟁을 하고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 소유자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냈다.

분단의 결과로 수립한 새로운 국민국가의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바로 분단이 만든 피난민 문제였다. 분단으로 인하여 백 명 이상의 민족이 물리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주도 당했다. 분단이 일으킨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의 합리, 조화, 평화와 존경의 고갈과 사회의 혐오와 종교 간의 서로에 대한 적대감의 확산이다. 분단은 인도 사회에서 타자성의 감정을 깊게 심었다. 몇 개월 안에 사람들은 서로의 적이 되었고 학살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민중은 수 세기 동안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갑자기 분단은 종교적 정체성을 부여했고 서로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였다. 국민의 마음은 종교의 정체성으로 분열되었고 변했다. 친구는 적이 되었고, 마음에는 만연한 증오와 의심이 들어와서 서로를 죽이고 복수하게 되었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단의 비극으로 변화된 분위기를 말리처럼 나쁜 놈들이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데 오용했다. 이주한 민족은 다른 마을에 정착한 후에 거기의 남아있는 쫓겨난 사람들의 재산을 소유했다.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와 평화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평화를 가르쳤던 종교가 갑자기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으며 사회는 여러 파로 분열되었다. 살인자들은 자신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죽음을 복수하려 거리에 돌아다녔다. 인간주의 감정은 본질을 잃었고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집어삼켰다. 다음으로 이 현상을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난민의 문제를 보도록 하자.

‘Maybe,’ the subinspector answered. ‘There is not much for them

---

238)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88면.

to come back to. Their homes have been burned or occupied. And if anyone did come back, his or her life would not be worth the tiniest shell in the sea.’ 239)

“그렇지도 모릅시다마는,” 부경위는 대답했다.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불태워졌거나 남이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설사 돌아온다 한들 그들의 목숨은 바다 한가운데의 조그만 조개만큼도 대접을 못 받을는지도 몰라요.240)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도와 파키스탄 중에서 선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어렸을 때부터 인도를 ‘우리나라’로 또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모든 사람을 존중해 온 사람들은 이 새로운 ‘투네션’ 해결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교와 시크교도들은 이슬람교도 폭도들로부터 학살, 강간, 고문을 당했다.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폭도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 자기 고향에서 쫓겨 떠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가야 하는 피난민들은 처음부터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두고, 도중에 사망한 가족의 트라우마는 분단 이후 국경의 엉뚱한 쪽에 서게 된 많은 사람에게 평생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서부 편자브에는 시크교도와 힌두교도가 많았고 동부 편자브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았다. 그러나 분단이 일어난 후 동쪽 편자브는 인도로, 서쪽 편자브는 파키스탄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국경 양쪽으로 이동했다. 조상의 집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살아온 마을, 도시,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제로 떠나거나 대규모의 학살을 본 후 떠나기를 결정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학살당한 것과 자기 친척, 친구를 떠나는 것을 봐도 자기 출신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공포와 분단의 트라우마에 평생 아팠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마노 마즈라의 주민들의 이별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별이고 분단의 다른 불행한 결과물이었다.241) 이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가져가고

239)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65.

240)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88면.

241) V. Villavan, “Reading of Trauma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shokamitrans The Eighteenth Parallel and Taslima Nasrins Lajja” Bharathidasan University, PhD thesis, 2020, p.63.

싶었지만, 군인들은 트럭에 모든 짐을 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소지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긴 추억도 가지고 있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시크교도를 형제로 여겼고 이제 갑자기 이 슬픔과 행복한 추억을 모두 뒤로하고 파키스탄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피난민들의 큰 고통이었다. 로이에 따르면 이 소설에서는 국민의 모든 환상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들의 시야가 점차 어두워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노 마즈라의 무슬림들의 대피의 실제 행위보다 더 잘 일어나는 곳은 없었다.<sup>242)</sup>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 하시나는 매춘부이며 이슬람교도와 시크교도와 힌두교도를 동등하게 섬겼다. 그러나 분단 때 사람들은 그녀의 종교도 지적했으며 “타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녀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다. 하시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이슬람교도로 지적한 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며 피난민이 되었다. 이 피난민들의 운명은 다음 인용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You may be right, sir. But it will certainly take more than a week for that to happen. Chundunnugger refugees are being taken to Pakistan by train tonight. God alone knows how many will go across the bridge alive; those that do are not likely to want to come back in a hurry.’ <sup>243)</sup>

부경위도 그렇게 하였다. 자면 일주일보다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두누거에서 소개된 난민들은 오늘밤 기차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수송되어집니다. 아서 철교를 넘어가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일지라도 서둘러서 되돌아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up>244)</sup>

피난민이 되어도 고통의 종결이 아니었다. 피난민의 여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정에서 노중에 학살당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강간 범행을 당하기 쉬웠다. 피난민들은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폭도들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난민들이 타고 도망치는 기차가 자주 정차하고

242) Rituparna Roy, South Asian partition fiction in English: From Khushwant Singh to Amitav Ghosh.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39.

243)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65.

244)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88~189면.

사람들이 살해되고 불구가 되었으며 남성들은 여성을 강간하고 납치했다. 도중에 열차를 세우고, 복수하려는 광란의 집단으로 무차별 살해를 당했다. 소설에서 나타난 마노 마즈라에 온 유령 열차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으며 손꼽힐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피난민이 살해당했으며 어린 아이조차 학살당했다. 이런 피난민의 학살의 음모는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I got it from the camp commander. There was danger of attack on the camp itself, so he decided to get the first train available to take the refugees out. If they do not go, probably no one will be left alive. If they do, some at least may get through, if the train is running at some speed. They are not planning to derail the train; they want it to go on to Pakistan with a cargo of corpses.’<sup>245)</sup> (165)

파키스탄 캠프 지휘관으로부터 알아냈습니다. 캠프 자체가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대로 아무 기차든 우선적으로 난민들을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기차가 제법 속력을 낸다면, 열만가의 사람들은 살아서 통과하게 되겠지요. 난동자들은 기차를 탈선시킬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시체 더미를 실은 기차가 파키스탄에 가 닿도록 한다는 것이니까요.<sup>246)</sup>

피난민들은 군용 트럭과, 다룰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타고, 없다면 걸어가면서 도망치고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도시는 모두 피난민 수용소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피난소로 끌려가 최종 목적지인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피난민 수용소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것에 분노한 폭도들이 이 피난민 수용소를 자주 공격했으며 중립적이어야 하는 군대와 경찰은 이러한 학살을 조장했다. 이런 것이 1947년 해방 이후 인도의 분단을 겪는 많은 사람에게 악몽으로 여기졌고 국경의 엉뚱한 편에서 잡힌 사람들에게 지옥 같은 것이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sup>247)</sup>. 이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의 고통은 전 인도 피난민의 상황이었다.

245) Khushwant Singh,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p.165.

246) 쿠스완트 싱,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189면.

247) Rituparna Roy, South Asian partition fiction in English: From Khushwant Singh to Amitav Ghosh.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40.

작품에서 분단으로 인한 나타난 여파는 타자성이다. 이 타자성은 인도 사회에서 원래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분단 이후 이 타자성은 회복할 수 없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는 독립 이후 간디의 살인, 때때로 일어난 집단 갈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종교에 대한 혐오는 독립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에 빠지는 원인이 되었다. 인도에서 이슬람교도들은 아직도 이런 타자성 때문에 억압과 고문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타자성'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타자로 지목해 왔다. 인간은 종교, 성별, 지리, 정치, 피부색, 카스트, 계급 등의 차이로 '타자'로 지목되어 왔다<sup>248)</sup>. 인도의 분단 문학에서 '타자성'은 민족정체성, 공동체주의를 통해 형성된다. 인도의 민족정체성은 영국인이 인도에서 축출되면서 분단 때 생겨나고 강요되었다. 그 결과로 '타자'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증오심이 인도 사회를 분단 때 지배했다. 영국은 '분할과 지배' 정책으로 3세기 동안 인도를 지배했다.<sup>249)</sup> 이것의 결과로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겼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서로를 타자로 지목해 왔다. 이것은 남아시아의 민족 사이에 엄청난 혐오의 씨앗을 뿌렸다. 해방 이후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새로운 민족정체성이 만들어졌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타자성은 마노 마즈라 사람들의 종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마노 마즈라의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무슬림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버리거나 두고 종교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 혹은 파키스탄 국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한 시점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해방 이후 타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노 마즈라의 이슬람교도들은 자기의 마을을 떠나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다. 마노 마즈라의 힌두교도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타자성을 느꼈다.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는 파키스탄에서 난민들이 도착한 후 끓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이 난민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나 시크교도들이었다. 이들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도에 의해 타자로 지정되고 약탈당하고 살해당했다. 인도든지 파키스탄이든지,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적이 되었다. 폭력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sup>250)</sup> 인도의 '타자성'은 종교적 정

248) Marja-Liisa Wallenius, "The Concept of 'Otherness' in Partition Narratives of Finland and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4, No. 1, 2017, p.55.

249) Dominique Lapierre and Larry Collins, *Freedom at Midnight*. New Delhi: Vikash Publishing, 1990, p.195.

250) Gyandendra Pandey, "Historians History", *Remembering Par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45.

체성에서 더 많이 파생되었다. 작가는 분단 이후의 난민들의 곤경과 그들이 지닌 삶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 소설은 새로운 국가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직면한 인간의 비극과 폭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 폭력의 근본 원인은 '타자성'이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인도반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라는 종교에 바탕을 두고 타자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은 서로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고 결국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타자성의 원인을 논의하려는 시도에서 성공하였다. 쿠스완트 싱은 '타자성'이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고정관념에서 생겨났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고정관념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데다가 분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작가는 민중의 고통과 고난, 영혼(Soul)의 분단을 비판하는 것이다. 민중에게 외적 영향으로 인한 내적 갈등은 불안함을 가져왔고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람들의 타자성 때문이었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의식이 압박한 폭력의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을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한 여파로 보았다.

전-인도에서 마을은 폭도들의 공격을 당했고 가족들이 헤어졌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렸다. 피난민의 호송대가 공격받아 사람들이 죽었고 여성들이 강간 범행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다. 이 분단은 대대로 살았던 고향에서 자신들을 외계인으로 만들었다.<sup>251)</sup>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로 수십만 명의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의 대규모 이주의 주요 원인으로 분단을 고발한다.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가족의 해체 양상을 다룬 바가 있다. 마노 마즈라뿐만 아니라 마노 마즈라에 사는 자가와 누란은 다른 종교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분단으로 인해 누란이 파키스탄에 가게 되기 때문에 자가와 누란은 헤어졌다. 종교적 갈등 및 타자에 대한 혐오가 극단적인 시기에도 자가와 누란이 애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는 인간주의적 메시지가 있다. 자가와 누란은 성관계를 맺어서 누란은 자가의 아이를 뱉지만, 분단 후 폭력이 시작되자 마노 마즈라를 떠나 피난민 수용소로 가야 했다. 마노 마즈라에서 이슬람교도에 대해 이미 벌어진 혐오 중에서도 자가의 어머니는 이슬람교도인 누란을 받아들인다. 자가의 모친은 누란에게 피난민 수용소에 가라고 했으며 자가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수용소에 가서 데려올 것이라

251) Giuseppe De Riso, "Memory and Negotiations of Identity in Train to Pakistan." Simplegadi, vol. 16, no. 18, 2018, p.151.

고 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피난민 수용소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데 대한 복수를 하려는 폭도들의 끊임없는 죽이려는 시도의 대상이 되었다. 찐단나가르의 피난수용소는 폭력적인 폭도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자가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누란은 파키스탄행 열차를 타고 파키스탄에 갔다. 누란이 탄 열차를 폭도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자가도 죽었고 그들의 가족이 해체되었다. 순다르과 순다리의 경우도 가족의 해체된 것이었다. 순다리는 노중에서 강간당하고 남편은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순다르 싱도 자기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죽였다. 이것도 가족의 해체이었다.

따라서 쿠스완트 싱의 작품에서 식민 이후 인도의 분단 과정은 집단 학살, 소문, 공포로 특정화 되어 난민, 이주와 인도 사회에서 종교에 바탕 둔 타자성을 끌어냈다. 이 타자성은 파키스탄과 인도라는 국민국가 수립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와 사회를 좌우했다.



### 3.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내전의 위기

#### 3.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신식민주의의 재편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이후 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종결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특정화되었다. 이 외세의 주둔은 한반도의 신식민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는 이 외세의 서서히 뜨거워지는 냉전의 결과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는 것이 해방공간 문학에서 자주 나타난다.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남쪽은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 사이의 사상적 차이의 원인이었다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조선의 ‘민족’은 강제 사상 시대에 시달리게 되었다. 염상섭의 세 편의 중기 단편소설은 해방 직후 사람들의 분단으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상기시킨다. 이 새로운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울을 떠나 만주에서 생활했던 염상섭은 만주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은 함께 한반도의 분단이 일어나자 염상섭은 분단을 직접 체험했다. 염상섭은 분단이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폭넓게 저술하였다. 염상섭은 이 아시아의 슬프고 위대한 사건인 분단의 여러 가지의 양상을 모두 목격했다. 특히 이 중에서 세밀하게 보자면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분단의 원인, 양상과 분단의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염상섭이 관찰한 분단의 큰 원인이 된 사상적인 정체성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염상섭은 한반도의 분단을 사상적인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 결과로 보았다. 그는 분단을 일으킨 요소로 주요한 것으로 그는 신제국인 미소의 영향으로 인한 정치사상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정치사상의 대립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 즉 탈식민주의 특성도 있고 신-식민지에의 특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식민지의 지배전략 때문에 우파, 좌파, 용공, 반공의 이분법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피식민지 과정에서 탈식민지적인 사상의 대립은 한국의 분단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염상섭은 사상적인 대립의 양상을 「이합」의 김장한의 가족으로 그렸다.<sup>252)</sup> 「이합」과 연작인 작품 「재회」에서도 정치사상의 대립을 볼 수 있다.

252) 이병순, 「염상섭의 후기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110, 서울, 1993, 279면.

그런데 이 사상의 대립은 주로 어디에서 초래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지배정책에서 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식민 국가가 피식민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인도에서 분명히 논의된 가장 일반적인 통치 기술은 바로 분할 지배이다. 식민지는 피식민 주체를 종족, 종교와 정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분할했다. 한국에서는 분단은 정치적 사상에 기초했다. 일본은 분할 통치정책을 과거 서구 식민지 경험을 이용하여 이미 다른 곳에서 시험한 식민정부의 기술을 한국에 적용했다.<sup>253)</sup> 조선의 식민지 이전 정체성은 내셔널리스트적(nationalist)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와 정책과 제도는 이러한 정체성을 파괴하고 계급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였다.<sup>254)</sup> 이 사실은 일본의 농업 정책과 문화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이 추진하고 지주들이 채택한 분할 지배 정책이 조선 농민들 사이 계급투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이 분할과 지배정책은 한국의 식민지 사회에는 개인성을 강화했다. 개인성은 더 높은 정치적 통제 단위를 특징으로 하는 제도에 통합되었다.<sup>255)</sup> 한국의 농민 사이의 이러한 차이의 가장 직접적인 징후 중 하나는 계급 분열이었다.<sup>256)</sup> 이 문제로 인해 농민은 정치적 목표를 중심으로, 농민과 도시 노동자를 조직하는 내셔널리스트 및 사회주의 정치 집단의 편에 들었다.<sup>257)</sup> 그리고 이 분할 지배의 결과물로 나타난 한국의 분단에 대해 서정숙과 로빈슨은 넓게 논의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인 사상은 일제강점기에서 나타난 것이고<sup>258)</sup> 미소의 주둔으로 인해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분단은 식민지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탈식민주의의 특징이 있다. 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는 해방 이후 심해지는 사상 갈등과 화합하고 분단을 일으켰다. 이것은 박수빈은 「이합」과 「재회」에서 해방 이후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평가되는 남과 북의 상황이 해방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sup>259)</sup>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사상 대립은 일제강점기

253) Lionel Babicz, "Japan-Korea, France-Algeria: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Japanese Studies*, vol. 33-2, 2013, p.201, 211.

254) Kim Dong-No, "National Identity and Class Interest in the Peasant Movements of the Colonial Period",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1910-1945*, edited by Hong Yung Lee, Yong Chool Ha, and Clark W. Sorensen, Seattle and London: Center for Korea Studies Publi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p.145~146.

255) Kim Dong-No, 앞의 글, p.161.

256) Kim Dong-No, 앞의 글, p.161.

257) Kim Dong-No, 앞의 글, p.165.

258) 서중석과 로빈슨은 민족주의가 배반당한 관점으로 일본이 실시한 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좌우의 대립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의 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상의 대립은 신식민지의 과정에서 더 심해지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폭발하였고 한국의 분단으로 야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을 일으킨 이 사상 대립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와 외부의 세력으로 인한 이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소련과 미국이 펼치는 신-식민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염상섭은 이 분단의 원인을 어떻게 봤을까?

염상섭은 분단의 원인으로 미소를 크게 비판한 바가 있다. 염상섭은 미소의 외세적인 세력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분단이 일으켰다는 것으로 봤다. 이 미소의 신-식민지적인 외세는 한국 사회에서 사상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염상섭의 시선이다. 이 외세의 존재는 한국에서 여러 방법과 도구로 사상의 갈등을 심해지게 했다는 것이다. 먼저 염상섭은 김장한의 가정으로 한국의 사상 대립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자.

만주로부터 쫓겨난 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지 않았다. 일부는 한반도 북부에 정착했다. 이들이 북한에 정착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남으로 여행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소망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몇 명은 만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오히려 북방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게 되었다. 염상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만주에 온 후에 각기 신의주와 안동에서 머물렀다.<sup>260)</sup> 김윤식은 염상섭이 만주에서 온 후 신의주에서 정착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sup>261)</sup> 그중 하나는 신의주에서 생활을 보장받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합」은 만주에서 쫓겨난 후 북쪽에 정착해 새로운 생계를 위해 노력했던 장한 가족의 이야기는 어쩌면 염상섭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타난 '허구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염상섭은 분단의 원인으로 한국인은 해방 이후 민족이 정치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에 있다고 봤다. 이는 신숙의 해방 이후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볼 수 있다.<sup>262)</sup> 만주에서 쫓겨난 이후 남한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위협이 많았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의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다. 남한으로 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염상섭도 마찬가지였다. 「이합」에서 보시다시피 이북에서 생계를 보장

259) 박수빈. 「해방기 염상섭의 시대감각 연구- 해방기(1946~1949) 염상섭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2집, 2017, 312면.

260)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34면.

261) 김윤식, 앞의 책, 734면.

262) 최현식, 「파탄난 '생활세계'의 관찰과 기록」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205면

받을 수 있다는 장한의 욕심은, 김윤식이 염상섭에 관해 말한 “신문사.극장.인쇄사나 공짜 얻어 경영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3)</sup> 염상섭 또한 비슷하게 「이합」에서 장한도 욕심에 빠져 북방 지역이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염상섭의 이런 태도는 월남 작가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민주에서 염상섭은 바로 월남하지는 않고 신의주에서 지체하다가 월남을 했다. 김윤식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역사감각의 소유자’라는 태도, 둘째는 3.8선이 막혀 있는 것, 마지막으로 겨울을 넘기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264)</sup> 여기서 염상섭의 태도로 적산 인쇄사가 생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합」의 장한도 마찬가지이다. 「이합」에서 나타난 듯이 장한은 S-읍에서 정착한 이유에는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소유자인’ 욕망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합」과 「재회」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합」과 「재회」도 염상섭의 신의주의 본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합」과 「재회」도 염상섭의 ‘허구성이 있는 사실’ 혹은 ‘현실을 허구화하는’ 것이다. 「이합」의 장한처럼 인민의 복지가 정부에 의해 보호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방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조선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좌파와 우파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때 좌파 우파의 이분법적인 사상과 무관심한 김장한처럼 중간과 사상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다. 더 설명해 보자면, 좌파는 공산주의의 총체적 기풍은 국가의 토대라고 생각하고, 우파는 국가는 자본주의 성향을 지니고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한쪽 발로만 걸을 수 없고, 양쪽 다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염상섭과 같은 중간파들도 있었다.

「이합」에는 김장한과 신숙의 가정의 침예하게 대립한 사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담겨 있다. 「이합」에서 주인공 장한의 부인 신숙은 공산당에 속하는 부인회에 가입했고 국가의 해방은 여성의 해방도 가져왔다는 것을 믿었다. 신숙에 따르면 이제 여성들도 남성만큼 평등하기 때문에, 여성은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정치변화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숙의 이런 태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신숙은 욕망에 빠져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욕심과 신여성의 식민지적인 기억이다. 여성 평등의 의식은 식민지의 신여성 운동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합」에서 신숙의 태도는 신여성의 태도로 나타난다. 신여성이란 것도 일제의 식민 지배정책의 결

263)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34면.

264) 김윤식, 앞의 책, 734면.

과물이었다. 일제 강점기에서 식민지 근대성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sup>265)</sup> 이 신여성의 모습은 『두 파산』에서 신여성의 기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떠올린다면 더 뚜렷하게 보아낼 수 있다. 김옥임은 동경에서 학교에 다니며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하고 식민지의 신여성의 기억으로 보자면 해방 이후 신숙의 행동도 식민지 기억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서도 재현되었다는 뜻이다. 반면 장한은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지만, 다른 것보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국가 건설이 여성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여성의 우선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식민자의 근대성에 반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장한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월남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합」에서 사상의 차이는 주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째는 소련이 도입한 사회주의 사상이고 둘째는 식민지의 기억이라는 것이다. 염상섭은 「이합」에서 이 사상의 차이로 인해 소련이 투입한 정치사상을 크게 비판한다. 따라서 가족 내 사상적 차이란, 염상섭에게 있어서 곧 한국의 분단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장한의 가정이 분단되는 것은 한국의 분단과 비슷한 것이다. 가정에서 사상의 대립의 문제는 해방 이후의 폭발적으로 나타난 사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상의 충돌은 가정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합」에서 나타나며 나라를 해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의 상징적이다. 염상섭은 「이합」에서 나타난 이 사상 혹은 정치적 사상은 신식민지(소련)의 영향으로 피식민 후 국가 건설 과정 혹은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분단으로 나타나며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는 국민 사이에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려냈다. 염상섭은 이 충돌을 점점 극심해져가는 것으로 그렸다.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서로를 고발하는 것의 과정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염상섭의 이 신식민지의 영향으로 나타난 사상의 충돌은 기억과 망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이 기억은 현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작품을 통해 살펴보자.

이것이 해방 이후 일 년 넘어나 걸려서 새로 세운 네 식구의 보금자리다. 밖에 나갔다가 집이라고 기어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진작 이남으로 내려서는 것을 공연한 짓을 하였다고 눈살이 저절로 찌푸러지는 것이요, 울 초봄에 해빙이 되자마자 불계하고 훨 떠나 버린 처남의 가족들이 부럽기도 한 것이다. “씩수 글렀데, 땅이 차례에 오겠나. 집이 차례에 오

265)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80.

겠나. 이 좁은 바닥에서야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자네도 함께 뜨세.” 처남이 이렇게 권할 때 장한이는 제 고향은 아니건마는, 그래도 쉽게 이만치라도 자리를 잡은 것만 다행하여, 버리고 나서기가 아깝기도 하고, 아내도 여기에 본값어치가 남아 있느니만치 찬성을 아니기에 그대로 주저앉았던 것이다.<sup>266)</sup> 「이합」

장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주에서 건너와 북부의 작은 읍, S-읍에 정착했다. 그는 만주에서 돌아왔을 때는 피난민이었지만, 우연이 좋게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가 되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주에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보고 남한으로 떠난 처남을 부러워하는 면도 있다. 몇 달 전에 안전하게 정착한 이 곳이 이제는 불편함의 한 이유가 되었다. 전에 좋아했던 정부의 혜택은 이제 점점 검열과 선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방의 결과물은 사람에게 해방의 느낌뿐만 아니라 우익으로 지목되는 의심과 공포도 함께 가져왔다. 장한의 풍요로운 삶은 점점 지옥으로 바꿨다. 아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앞뒤보지 못한 채 정치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장한으로 하여금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장한은 남한으로 월남하고 싶어 한다. 장한은 아내가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알지도 못한 채 추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족을 무시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인용문에서 장한의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기억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장한은 해방 이전 아내의 행동을 기억하며 현재의 기억과 비교하는 것이다. 해방 전에 안내는 가족을 돌보고 행복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주에서 도망친 후 S-읍에서 정착하는 것을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다행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의 처남 진호는 월남하는 것은 장한에게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고 처남을 부러워했다. 장한은 남한의 기억을 머리 속에 둔 채 북한에서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장한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가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남한에서 식민지의 비참한 상황의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식민지 때 만주로 도망친 대부분 사람이 식민지의 비참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266)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97면.

그러나 그러한 명량한 기분이나 공기도 불과 몇 달이 못 갔다. 처남의 식구를 떠나보낸 뒤로 여름철이 들어갈수록 가뜩이나 보리고개라 그렇겠지만 식량 사정이 더 궁색해 가고 자연 살림이 간구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올 여름내로 아내의 태도가 차차 전과 달라지는 데에 장한이는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 회(會)의 일이 바쁘다고 나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딱 마주앉으면 까닭 없이 피차에 말이 순편치 아니 나가게 되어 갔다. 자연 전과 달라서 점점 설면설면해가고 로는 집안의 공기가 왜 그런지 무겁고 킁킁하여만 가는 것 살만 찌푸러지는 것이다. 더구나 요새 며칠 정면충돌을 한 뒤로 이는 그렇지 않아도 머릿살 아픈 교원 생활이 하루가 약약하게 싫은 판에 훌쩍 이남으로 달아나고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나마 도리질을 하니 장한이는 더욱이 속만 썩이고 있는 터이다.<sup>267)</sup> 「이합」

장한의 S-읍에서 자리 잡고 안정한 삶을 취하는 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도 아흐레 간다는 것처럼 끝나 버렸다. 장한의 ‘명량한 기분이나 공기’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좋은 대우받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반대이며 유쾌한 것이었다. 해방의 기쁨과 새롭게 삶을 시작할 욕망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해방이 후 처음에는 먹을 것도 많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지만, 서서히 생활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강요되고 전파되는 선전과 정치사상이었다. 장한에게 이 강제적인 신식민지의 정치 정책은 과거 식민지의 기억의 소환이었다. 장한은 압박하는 식민지 제도에서 벗어나고 다시 압박의 신식민지 제도에 몰두하는 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보았다. 그런데 신숙에게 해방과 새로운 신-식민지적인 사상제도는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 주었다는 것이다. 신숙은 새로운 희망찬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기억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기 전의 희망의 기억이다. 그의 이 기억 속에는 여성의 평등과 권리 등이 있었다. 이 여성이 ‘해방’의 기억’은 식민지의 신여성 운동의 기억이다. 식민지의 여성 해방의 기억은 신식민지에서 재현된다. 이 재현은 신식민지의 좌파주의 사상이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신여성 운동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신여성은 식민지하에서 여성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여성의 해방은 기본적인 가부장제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의 자유 등의 여러 가지의 양상이 있었다. 해방 이후 냉전 체제의 신식민주의 구조에서 식민지 근대성과 전통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 갈등은 「이합」에서 보아지듯, 여성의

267) 염상섭, 앞의 책, 99면.

정치 사상의 자유, 전통적인 여성의 사회 구조에서 해방과 남성인 남편의 사회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대립으로 등장한다. 신숙은 여성의 자유를 좌파주의 정치사상으로 누리게 되었다. 다른 한편 장한은 이 좌파주의 사상은 억압의 한 도구라고 여긴다. 해방 이후 따르고 싶은 정치사상을 자유롭게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은 식민지의 기억이고 「이합」에서 사상적 충돌로 등장한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구조에서 쉽게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사회주의 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믿을 수 없는 강요된 구조가 식민지의 경험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지배 구조에서 신숙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을 돌보는 대신에 그녀는 정치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을 시작했다. 장한이 해방 이후 새 삶에 대해 꾸 모든 꿈이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꿈은 곧 악몽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한은 점차 숨 막히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월남하면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꾸준히 머릿속을 여러 번 스쳐지나갔다. 그러나 장한은 우파주의로 몰릴까 두려워 마음속으로 욕망을 억누르면서 한편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점이 뚜렷해진다. 좌우의 사상 대립은 극단화되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고문당한 것이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정착지를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커졌다.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의 식민지의 압박하는 제도의 기억은 현재에서 다시 등장했다. 식민지하에서 사상자로 지목되면 고문을 당하는 집단주의 기억은 북한의 새로운 제도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신숙은 식민지의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장한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장한과 신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사상에 충돌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아니 요새 부인과 각거(各居)를 하신다니, 아니 이건 가정의 철벽이란 말요?” 하고 현 선생은 실소를 한다. “그이 기정은 소국가(小國) 아니요. 허허허.” 복도를 어린에 틈으로 천천히 걸으며 장한이는 은어 버린다. 부인께서 그런 줄이 몰랐군!“<sup>268)</sup> 「이합」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 다툼이 있는 이후 신숙은 집을 나가 친척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신숙이 남편 집을 떠났다는 소식은 곳곳에 퍼졌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떨어져 사는 이 부부는 남한, 북한과 3.8선으로 비유된다. 염상섭은 장한의 가족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현실은 똑같다고 말하고자한 것 같다.

268) 염상섭, 앞의 책, 109면.



부부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서로를 떠나 멀리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경계선이 되었다. 장한의 가족을 해치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의 불가분한 구성원이고 따로 살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가족의 파탄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선생은 가족도 작은 나라와도 같다고 했다. 하지만 현 선생의 이런 말을 듣고 장한은 가족이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아내는 모른다고 대꾸한다. 그리고 이 가족 분단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염상섭이 쓰고 있는, 장한의 이 말은 나라의 분단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바뀐 상황에서 신속은 권력을 얻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염상섭은 분단으로 권력을 얻어 취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이런 분단으로 권력을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권력이며 이 권력의 대가는 나라의 붕괴라고 해도 그들은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다.

부엌에서 서름질을 마치고 난 아내는 저녁 세수를 하고 물 묻은 얼굴로 들어서는 양이 오늘 저녁도 나갈 눈치다. 장한이는 모른 척하고 앉았으려니까 수건질을 하면서 부리나케 손바닥만한 의경대를 책상위에다가 놓고 돌아앉아 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한다. 밖에서 놀던 여섯 살짜리 준식이란 놈이 뛰어들어오다가, “어머니 또 어디 가우?” 하고 핀잔이나 맞을까 보아 조심조심 말을 붙이며 애가 쓰이는 눈치로 아버지를 잠깐 치어다본다..... 중략.....어제 저녁 일이 있는지라 “어제 그 지경을 하고도 오늘 또 나간다는 거야?” 장한이는 참다참다 못하여 먼저 입을 벌리고 말했다. 아내는 시치미 떼고 머리 빗은 손을 씻으려 부엌으로 내려가 버린다. 아직 김장때 전이라 그리 추울 지경은 아니지마는, 문을 여닫는 대로 쌀쌀한 저녁바람이 훅훅 끼치고, 아랫목의 따뜻한 맛이 좋았다.<sup>269)</sup> 「이합」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사상의 차이는 가족을 분단하는 것처럼 나라의 분단을 가리킨다. 사상의 차이는 나라를 깨뜨리는 장면으로 「이합」에서 한 가정의 상황으로 비유되어 있다. 염상섭은 장한의 가정에서 신식민주의로 인한 사상의 문제의 재현을 그렸다. 「이합」에서 장한에게 가장 큰 불편함은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었다. 장한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했으며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가족들과 기타들이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정치 활동에 바빠 해방된 나라의 여성들도 해방되었다는 생각으로 가족

269) 염상섭, 앞의 책, 99~100면.

들을 계속 방관하는 것이었다. 신숙은 해방은 나라와 남성들 뿐만 해방하지는 않고 사회의 여성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자유를 가져왔다고 했으며 해방을 여성과 남성은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주장을 가졌다. 신숙은 이제 해방이 되어 여성의 사회 역할도 변했고 여성은 더 이상 가족을 돌보는 주체만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제 여성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식민지의 가부장적인 기억을 폐기하고 고루한 관념을 버리고 집밖으로 나가서 자신과 새로운 국민국가의 발전에서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숙은 이러한 기회는 좌파주의 사상 덕분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한은 이 새로운 해방된 사회에서 숨통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장한은 새로운 체계는 인간이 권력을 얻고 이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장한에게 이 새로운 체계는 단지 착취의 수단일 뿐이었다. 장한은 이 새로운 사상 체계에 대한 의심이 많았다. 장한은 권력은 여전히 권력자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믿고 적응하는 것이 식민지의 권력자의 기억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런 제도가 가족의 가치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권력 획득에 몰두하는 억압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장한의 생각이었다. 장한과 신숙의 가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사상의 차이가 극명해졌다. 이 사상적 충돌 때문에 장한은 가족을 버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 온 남한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한국의 분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민중은 이 의견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편에 들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즉 민중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을 따라가서 새롭게 형성된 국가로 도망치고 새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김장한의 가정의 경우를 통해 보아낼 수 있듯 그 과정은 가족의 분단처럼 국가의 분단도 이뤄졌다.

그런데 다른 사상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일까? 그것은 곧 다른 사상에 대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편견이다. 남한과 북한의 사상에 대한 편견은 선전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염상섭은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사건을 지적했다.<sup>270)</sup> 이 선전 역시도 과거의 식민지 경험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하에서 검열과 일본제국을 선전하는 것과는 유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좌파는 우파를 고발하고, 우파는 좌파를 고발하고 선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직접 체험하지 안해본 사람들은 이 정치적 사상에 이분법에 빠졌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남한에 사는 사람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270) 이혜령,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집, 상허학회, 2012. 159면.

매우 달랐다. 작가는 「재회」에서 장한과 처남 진호의 대화를 통해 곤란과 고민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분단의 현실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염상섭이 해방 이후 북한에서도 잠깐 살아보고 남한에서도 살아보았던 체험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은 북한에서 정치 체계를 세밀히 봤고 남한에서도 와서 정치의 체계를 유심히 봤다. 즉 염상섭은 우파와 좌파의 체계를 직접 체험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사는 사람과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그 원인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소문이었다. 예컨대 장한은 남한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월북하고 싶었다. 반면에 진호는 남한에서 살다 보니 남한의 상황은 북한과 매우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작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으로 정치사상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 둘 다 고려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어한 듯 하다. 말하자면, 한쪽의 상황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한쪽을 칭찬하고 다른 한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중이 의지 없이 사상의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는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나타났다. 편을 들지 않는다면 소외되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 속에서 신식민주의 등장인물들의 운명은 사상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의 사면 남한의 통치자가 전과하는 사상을, 북한의 사면 북한 통치자가 전과하는 사상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크게 흔들려 혼란을 겪었다. 장한에 따르면 아내가 ‘경멸’하는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월남해야 했다. 이런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장한은 S-읍을 떠나 서울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서울에 와도 찾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당신네 신시대가 되었어도 가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할 거지. 피차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도록은 해야지. 남녀평등 여권확장도 좋지만 아내 된 의무, 예미 된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 장한이는 인제는 노하지도 않았다. 말은 순탄하였다. “네, 말지요! 하지만 하나씩 갈라 말으십시오. 저년만 내 데리구 가죠!”<sup>271)</sup> 「이합」

서로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장한

271)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103면.

뿐만 아니라 신숙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반도의 현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사상에 몰두한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겨내기는 보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장한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장한의 ‘신세대’ 라는 것은 곧 신식민주의 사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책임을 나누자고 제안하자 신숙은 집안일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숙은 더 나아가 장한을 여성들도 남성처럼 해방이 되었고 이제 밖으로 나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질투하는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고발했다. 심지어 장한에게 어떻게 이런 상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지라고 하면서 비난했으며 아내를 부엌에만 두고 싶어한다고 꾸짖었다. 신숙과 장한의 서로에 대한 이런 태도는 무조건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장한은 현대인이 되더라도 가정을 공동으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부간의 각명 행복이 한 가족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이것이 곧 장한의 과거의 가부장적인 시선이다. 장한에 따르면 희생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며 부부간에서 아내와 동등하게 남편의 행복과 평등이 유사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인용문에서 부부는 두 사상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하며 양 사상이 같은 권리와 평등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장한의 말을 한번 보자면 장한은 여성 평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내의 의무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사회의 가정에 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장한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현대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이합」에서 장한과 신숙의 분쟁이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은 탈식민지적 근대화와 신식민지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식민지는 과거의 전통 혹은 가부장적 사회 구성을 망각시키고 새로운 식민주의 근대성의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의 근대성은 전통 가부장제 사회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장한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기억은 망각되지는 않았고 시간이 흘러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기억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신숙은 아이가 한 명만 있었다면 배꼽에서 두 개로 자랄 수 있느냐고 한다. 배꼽에도 3.8선이 있어야 한다고 신숙은 화를 냈다. 이 표현을 통해 염상섭은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뜻이다. 영혼이 있는 육체는 나누지 못한다고 하며 굳이 나누고 싶다면 영혼은 영원히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은 영혼이 있는 육체이고, 둘로 나누면 조선의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의 민족적 의식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다르

게 보자면 작가의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라는 기억으로도 볼 수 있다. 장한은 해방을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는 대가로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자면 자유에 대한 인식은 사람 나름이라는 것을 장한과 신숙을 통해 볼 수 있다. 한편은 탈식민지적인 해방은 새로운 희망찬 기억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편은 전통을 수호하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방에 대한 민중들 사이에서는 욕망의 다양성들을 보아낼 수 있었다. 이 다양성은 바로 사상적인 차이이다. 이 해방의 다양성 혹은 사상의 차이는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결합된 형태로 등장한다. 이 결합은 식민지의 기억과 신식민지가 제공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장한이는 혼자 맥없이 알아서 어젯밤에 뒷방 사람이 간과하고 동리가 부끄럽게 싸우던 불쾌한 생각을 하다가, 이혼이라두 해 달라면 해주지 하고 입을 악물며 허공에 대고 눈을 부릅뜨다가 옆에 앉았던 어린 것이 이상히 볼까 보아서 열린 낮빛을 고켰다. 그렇게 의심쩍고 못마땅하기든 이혼이라두 하시구려. 하시구려가 안니라 좋두룩 하십시다그려. “죄 없는 어린것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거나, 이것도 급격한 과도기의 한때 풍조니, 주책없이 날뛰는 것을 덩달아서 마주 날뿔 수도 없다는 생각만 없으면야, 진정 이혼이 소원이라면 덮어놓고 불들어 두려고 빌붙을 묘리도 없다는 역심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해방이 그 잘난 살림까지 거덜을 내놓고 인제는 계집까지 놓치게 된다면, 물론 해방을 탓하는 것은 아니나 억울한 노릇이다.”<sup>272)</sup> 「이합」

해방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예컨대 장한의 가족에게 해방이 가정을 깨트렸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 아닌 슬픔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한의 가족으로 염상섭은 조국의 분단을 가리키고자 하지 않을까? ” 이혼이라두 해 달라면 해주지 하고” 는 분단을 내부 아니 외부의 영향 때문인 것임을 가리킨다. 남한과 북한 양국은 원래 한 가족이고 신식민자의 영향으로 사상의 차이 때문에 분단되었다. 다른 사상의 억압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의 원인이다. 해방이 행복을 가져왔어야 했지만, 국민 사이의 차이를 가져왔다. 여기서 국가의 분단은 가족의 이혼으로 나타난다. 장한은 아내의 사상을 더 견딜 수는 없고 가족을 뒤로한 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이 부부 사이의 이혼은 한반도의 상황을 은유한다. 사상적 차이로 인한 마음의 분단이 이 인용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반도의 국민처럼 장한은 지난밤 아내와의 사소한 말

272) 염상섭, 앞의 책, 100면.

다툼이 이혼 문제로까지 어떻게 치달았는지 다소 당황하지만, 그래도 사상의 차이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가정의 갈등은 자녀들에게 평생까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합」을 통해서 보아낼 수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원하는 분단은 한국의 민중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즉 장한의 가족이 이별하는 것이 부부의 결심이지마는 그들의 자녀들의 큰 상처가 되었다. 염상섭은 이를 통해 가정의 어르신 혹은 지도자들을 비판한 바가 있다. 즉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정치인과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단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대전이 끝난 후 세계에서 냉전이 벌어졌다. 한국의 지도자들도 이 냉전의 게임에 몰두할뿐, 결코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는 않았다. 염상섭은 분단의 책임을 외부 돌리고 외세의 세력의 영향을 쉽게 받아드린 정치인과 지도자들을 비판을 한다. 염상섭은 본 작품을 통해 분단의 책임을 외적인 신식민주의 혹은 외세인 소련과 미국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염상섭은 외세가 가져온 해방까지 비판한다. 그는 「이합」에서 이 해방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아내가 올 여름에 부인회의 군지부(軍支部) 부위원장인가 된 뒤로는 그야 좀 바빠졌으리라고 장한이도 짐작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밤이면 어린애를 보아 주어야 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허둥지둥 저녁밥을 지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더구나 일요일 같은 때는 온종일 집을 보고 들어앉아서 아이 \*치다꺼리나 하게 된 이 형편이 장한이로서는 못 견딜 일이다. 결혼한 지 육칠년 내에 없던 일이다. 손을 씻고 들어온 아내는 나들이옷을 부덩부덩 갈아 입는다. “그래 가어이 밤중에 싸질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야?” 남편은 모른 척해 두고 말려다가 한이 없는 일이니까 “기위 트집이 벌어진 끝이니, 이 김에 제독을 주어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놓으려 는 생각으로 또 말을 먼저 붙였다. “밤이고 낮이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걱정이란 말요? 무엇 때문에 요새루 부쩍 이 야단이슈? 그러기에 그렇게 못 믿겠거든 따라 다니란 밖에!” 아내는 저고리에 팔을 꿰면서, 이 역시 참다못해 대꾸를 한다. “허구헌날 회의라니 낮에 모여서는 뭘 하기에 저녁이라야만 회의가 되는구?” 피차에 벌서 몇 번이나 뇌까리던 말을 또다시 새 판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거 왜 이러는 거요? 세상은 해방이라는데 계집을 올개미를 씌워 가뉘 두지를 못해 이러는 거요?” 아내는 웃고름을 매고서 동정이가 맞았나?<sup>273)</sup> 「이합」

273) 염상섭, 앞의 책, 101면.

장한은 자기 아내인 신숙의 행동을 해방 후 한반도 국민의 사상 충돌 탓으로 돌린다. 이 해방은 이런 사상에 대한 논의는 가족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 장한은 자신이 해방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염상섭은 해방이 한국인들에게 가져다 준 실제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74)</sup> 지난 6~7년간의 결혼생활은 행복했지만, 해방과 함께 아내도 ‘해방되었고’, 해방은 권력에 대한 갈망을 불러왔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자면, 장한은 해방보다는 해방이 가져온 사상의 충돌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방은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 장면에서 비판이다. 그런데 이 미·소련군은 해방과 함께 사상의 극단적 갈등도 가져왔다. 한 사상을 통해 권력을 얻는 것에 대한 욕망에 빠진 아내는 가족을 뒤로하기 시작했다. 해방이 한반도에서 전에 보지 않은 새로운 체계를 가져왔고 모두가 이 체계에 적응하여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물론 이 새로운 체계는 우파와 좌파의 핵심이 있었지만, 세계 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세계질서에 뿌리가 있었다. 세계 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에 갈등 현상은 한반도에서도 벌어졌다. 장한의 아내 신숙은 지난 여름 공산주의 부인회에 가입했고, 이번 여름 그녀는 부인회 군지부의 부위원장이 되었다. 장한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집 밖에서 심부름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모든 책임은 장한이 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숙은 이 새로운 신식민주의 체제에 잘 적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장한은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두 명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했다. 이 상황에서 장한은 아내가 공산주의 단체의 심부름 때문에 뒤로하는 가족을 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가족의 해체를 야기한 가중한 해방을 비판하게 했다. 장한에게 이 해방은 그가 희망했던 해방이 아니다. 그는 식민지하에서 행복한 가족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해방은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가치를 망각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시대 때 일본제국과 협력한 친일파도 권력을 얻으려고 일제제국과 협력하였다는 것이다. 장한은 신숙의 이 권력을 얻으려는 행동은 이 식민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상에도 “모리(利)가 있습니까? 얼마쯤 연구라도 하구, 얼마쯤 이라 두 자기의 사상적 체계(思想體系)를 세워 놓고야 말이지, 목적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고, 네네 한대서야 경찰에 붙들려 간 놈이 고문이 무서워서 헛소리 부는 것 같아서, 인텔리로서 양심이 허락할 가 있어야지.”<sup>275)</sup>

274) 김재용, 해방 직후 염상섭과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80면.

## 「이합」

염상섭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장한은 이데올로기를 믿는 자들은 도덕성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상을 가진자들을 비판한다. 장한은 사상자들이 도덕성이 부족하고 사상을 영리하게 목적에 이용해왔다고 생각한다. 염상섭은 장한의 딜레마에 빠진 심리상태를 통해 남한과 북한 모두 사상에 기반을 두고 분열되었으며 사상은 유일하게 장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도 좌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에서 우파로 지목되거나 유사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즉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믿으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이런 사상의 이분법은 장한의 큰 고통의 원인이며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은 장한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반도에 대립하는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은 민중의 고통을 무시하고 민중을 돕기보다 반대로 민중의 정서를 무시했다. 염상섭의 이 지도자들이 미국과 소련도 포함된 것이다. 인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상이 있다는 것이 염상섭의 중도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우파든 좌파든 사상을 제일 중요한 것을 고려했다. 자기의 사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적 혹은 타자로 지목되었다. 사상은 인간의 편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도자들이 이 사상을 이용하며 권력을 얻었다. 따라서 염상섭은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이 없다고 지적하고 비판했다. 한국은 한 민족의 나라이며 민족은 우선이고 국민 정체성은 사상 아니라 민족의 정서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민족의식으로 볼 수 있다. 염상섭의 이 태도는 국민 정체성을 배타적이지는 않고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왜 남의 말 하듯이 비웃기만 하나? 말하자면 이게 자네집일만이 아니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있는 분란이요 조선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뉘게나 남의 일 같지 않는 자기 일 아닌가. 일시적 감정으로 만이 아니라 그 소위 대소고소(大所高所)에서 허심탄회하게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래 고집 악지를 서루 부리고 끝내 헤어지면 신통할 게 뭔가? 우선 자식들은 어떡할 텐가? 그래두 자식들의 장래란 것은 염두에 있겠지? 팔아를 먹을 텐가? 고아원 신 세를 질 텐가? 고작해야 계모 시하에 들볶일 것밖에! 조선 형편이 꼭 자네 형편일세.....<sup>276)</sup> 「재회」

275)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112면.

276) 염상섭, 앞의 책, 121면.



본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조선의 상황을 장한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 소설에서 장한은 자신의 사상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했다는 것이 조선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반도 전체를 조국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어 사상에 바탕한 두 개의 국민국가 되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한민족이었다. 한 민족에 나라인 조선은 신국민국가의 영향으로 민족 아니라 국민으로 지목되었다. 이 변한 상황에서 사상의 토대로 형성된 국가의 편을 들어야 한다. 이 상황을 한 가족에서 자녀가 강제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수백 년부터 한 민족의 나라로 생각해 온 한반도가 분단된다면 민족의 고민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 한반도가 자기 고향으로 여긴 민족은 갑자기 남한과 북한이란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다. 만약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분단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운명은 어떨까요? 소설에서 작가에 따르면 장한의 ‘가족의 분단’은 조선의 분단과 비슷하다. 분단으로 인하여 조선 사람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한 나라이었다면 천 민족의 힘으로 갈등, 고통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아가 되어 나라의 힘은 외세 손에 있다.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나라를 외세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합」으로 북한에서 사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남한에서 사상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다음으로 보자.

명한이는 정치의 자유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인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 소위 정치적 자유란 게, 여기에는 얼마나 있는지? 한발로 양감질치는 생활이기는 남북이 똑같지 않습니까. 비단 땅덩이가 짜개졌대서만 말이 아니라」 「왼발로만 걷는 세상에서 오른발로만 걷는 세상에를 건너와 보니 그게, 그 턱이란 말이지만, 그래도 오른발은 같은 양감질이라도 익숙하고 든든할 게 아닌가! 하고 형은 웃는다. 「그러나이것은 요새 며칠 묵은 신문을 보며 생각한 일이지마는, 미국의 방임주의가 특권적 정치세력을 만들어 놓지나 않을지? 그러면 이북의 경제 해방이 무산 독제세력을 만들어 놓거나 일반 아닌가요」 「그야 과도적 현상으로 하는 수 없을지 모르지」<sup>277)</sup> 「재회」

위 인용문에서 장한과 명한은 술을 마시며 해방과 북한과 남한의 정치 상황을 논한다. 이 장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사상의 대립은 극단적인

277) 염상섭, 앞의 책, 130면.

것을 보아낼 수 있다. 북한에서 좌파 사람들이 압박하는 것이었고 남한에서 우파가 민중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 대화의 내용은 당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한은 S-읍에 있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은 그의 가족을 해체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두 사상이 뒤섞여 나라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의 형 명한은 극단주의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장한과 명한의 이 대화는 한반도에서 그 당시 사상의 극단적 차이의 단면을 보여준다. 장한은 평등은 경제적 해방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명한은 민족해방 이전에 계급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명한에게 진정한 해방은 계급체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먼저 해방시키는 것이다. 명한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무대를 제공하여 경제적 복지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계급해방이 민족의 해방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족’ 해방은 민족이 경제적 불평등의 족쇄에서 해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더 붙인다. 명한은 남한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질문은 던지며,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 발로 걷도록 강요를 받음을 예시한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강제로 선전된다면 남한에서도 자본주의 사상이 강제로 선전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만약 북한에서 공산주의 또는 남한에서 자본주의 사상만을 강제로 믿으라고 하면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다. 명한은 국가 건설의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양국은 서로가 정치적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더 나아가 명한은 북한과 남한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을 위해 서로를 비난하지만 자기 국가에서 똑같은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명한에 따르면 한 발로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잘 걸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보자면 남이든 북이든 정치적인 자유가 혹은 사상적인 자유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남에서도 사상의 대립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파산』에서 염상섭은 남한의 해방 이후의 사회를 그렸다. 해방 이후 장래의 어머니라는 주체는 김옥임과 원장에게서 압박당하는 것은 남한 사회의 실제 모습이다. 북한에서 좌파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좌파주의 사상의 기동으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것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과 남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민중은 이 사상적인 체계로 압박을 당하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실제 상황이었다. 염상섭은 북한에서 이 사상의 차이는 소련으로 인한 것으로 그리고 남한에서 미국으로 인한 것으로 그렸다.

이럼으로써 염상섭의 「이합」과 「재회」에서 나타난 사상의 극단성을 알 수 있다. 이 사상의 극단성에서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과 망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서 선택적으로 망각되거나 망각시키는 것이 사상의 충돌로써 등장한다. 이 극단적 사상의 차이는 장한의 가족처럼 한국의 분단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사상은 한국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사상의 차이는 식민지 지배의 정책에서 유래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체계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계적인 폭력은 「이합」과 「재회」에서 나타난다.<sup>278)</sup> 일본제국의 몰락은 아직도 일본제국의 자취가 남아 있다. 관료제는 여전히 일본의 관료제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었다. 만주에 오는 도중에서 일본인 여성은 조선인 피난민 무리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도 일본이 남긴 문제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러움의 눈으로 조선인을 바라보는 것이 패배한 나라가 해방되고 형성될 국가를 바라보는 주체와 가까웠다.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과 권위가 모두 없어지고 일본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운명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의 과정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일본인 여성은 패배한 나라가 해방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상징한다. 해방된 나라가 「삼팔선」에서 '나'의 일행은 여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 건설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일행은 앞으로 직면할 것은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장애물을 상징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일본은 패배한 후에 소련과 미국 혹은 전쟁에 이긴 국가들로 결정된 자기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염상섭은 만주에서 서울까지 남하한 과정을 직접 체험한 바가 있어서 「삼팔선」의 줄거리는 실제 사건과 영향을 받아 그려져 있다.

일제 잔재야. 일제 잔재야.”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더니 참 사람 잡으라는군.” 승객들은 또 한마디씩 떠들어 놓았다.<sup>279)</sup> 「삼팔선」

“선무당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는다.” 여기서 선무당인 한국의 체계는 일본의 억압하는 체계로 배우고 한국인을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식민지의 과거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선무당은 일본의 식민지 과거를 가리킨다. 일본 강점기의 통치 때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고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국가도 자기 국민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의 억압한 체계의 기억이다. 일본인들의 잔혹 행위는 한국 통치자가 그대로 습득했

278) 최현식, 「파탄난 '생활세계'의 관찰과 기록」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210면.

279)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64면.

으며 따라서 한국인 통치자는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민은 의심받고, 조사를 받는데, 피난민들이 이상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식민지의 잔재이자 기억이다. 이것은 체계의 폭력성 기억이다. 해방 이후 한국인에 대한 관료들의 무관심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피난민이 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체계’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와 비슷한 것이다. 민중 사이에서 식민지의 과거 기억은 사라지기 보다는 다시 떠올리는 듯하다. 식민지하에 있는 한국인의 집단적인 기억은 식민자가 폭력을 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에 검열, 조사 등의 식민지 지배의 기억은 해방의 기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삼팔선」에서 등장한다. 지속되는 조사로 인하여 ‘나’는 항상 잡히는 두려움에 빠진다. 또 ‘나’는 이 조사로 사상자로 지목되어 있는 것의 두려움도 있었다. 본 인용문에서 일본의 잔재는 ‘체계’에 관한 것이다. 군인, 경찰, 관료들이 피난민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식민지의 기억이고 이 기억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제 잔재야 뿌리를 빼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울 것은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한대도 그 역시 한 전통이 되지 않나? 우리 조선 사랑도 철도국 속에서 전통적인 무엇이 있었더라면 일제 잔재 대신에 당중들이 저의서 틀이 잡혔을 것이 아닌가.“ 등 그야 그렇지.” 280) 「삼팔선」

일본인의 자취가 아직 사회에 남아있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새로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지금까지 일본의 잔재가 많은 국가와 일제 강점기의 잔재들이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 식민지의 이런 잔재는 냉전 시대의 한반도에서 의부 세력 혹은 소련과 미국을 통해 더 극단적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염상섭은 이 현상을 소련과 미국군으로 표시한 바가 있다. 염상섭은 식민지의 기억을 망각하고 희망찬 국가를 만드는 것이 민중의 정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식민지의 기억을 망각한 후 새로운 국가의 집단 기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합」에서 장한은 미주국에서 돌아와 S-읍에 정착한 것도 일본의 잔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에서 돌아와 S-읍에서 적산기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일본의 잔재를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 일본인은 소유한 집을 싸게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280) 염상섭, 앞의 책, 72면.

일본의 식민지 기억을 제거하고 그 기억을 새로운 국가의 국민주의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럼으로 식민지의 잔재를 없앨 수 있다. 이 식민지의 기억을 없애는 것을 『해방의 아들』에서도 나타냈다. 준식은 혼형이고 해방 이후 의협에 빠져 있었다. 식민지의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일본과 협력하거나 혼혈을 린치하는 사건으로 이것은 나타난다. 『해방의 아들』의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조선사람이 일본녀자와 사는것과도 또 다르거던. 그나마 일본녀성을 모독이나 하는듯이 얼마나 아니꼽게 녀기고 시기를 하는지 아우? 흑인종이 백인종의 부녀자를 범하면 린치(私刑)를 하지마는, 일본의 해외발전의 선봉대가 갈보라는것은 까맣게 잊은듯이 조선사람인 경우에는 입으로라도 린치를 하거든. 인제는 지나간 일이지마는 동족의 남자가 얼마나 놈들에게 부대끼고 악착한 꼴을 당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아무러기로 그놈들에게 시집을 가드람? 못된 년들이야! 281) 『해방의 아들』

『해방의 아들』에서 나타난 다른 장면은 일본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불매하는<sup>282)</sup> 것도 이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의 기억은 일본과 영관성이 있는 것을 억압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기억에 대한 더 날카로운 장면은 『엉덩기에 남은 발자국』에서 볼 수 있다. 주인공 창근은 자가와 부친이 당한 수치는 복수하려고 굴전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엉덩기에 남은 발자국』의 주인공은 식민자의 기억을 그대로 기억하고 친일파인 사람을 제거하고 싶지만, 그의 부친과 모친은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라고 설득했다. 부친과 모친의 태도로 염상섭은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고 새로운 포괄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을 욕구한다.

장한이가 도서관에 가서 해방 후의 묵은 신문을 보고 와서, 이남은 이려다가는 모리배, 탐관오리에 쓰러지겠다고 혼자 분개도 하고 찬탄도 하는 것을 듣고, 형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sup>283)</sup> 「재회」

남한의 상황도 북한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에서도 자유 유지는 환상일 뿐이었다. 정치적인 자유는 진정한 정치의 자유가 아니었다. 이남에서 모리배, 탐관오

281) 염상섭, 앞의 책, 14면.

282) 염상섭, 앞의 책, 24면.

283) 염상섭, 앞의 책, 130면.

리의 문제가 있었다. 이북이든 이남이든 상황은 매우 다르지 않았다.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염상섭은 해방 이후의 사회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매우 비슷한 것으로 그렸다. 『두 파산』에서 염상섭은 해방 이후의 남한의 사회상을 그렸다. 『두 파산』에서 해방 이후 대금 업자가 민중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의 자유로 여긴 욕심은 민중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권영민은 『두 파산』이 해방 이후의 사회의 정신적 파멸을 그렸다고 했다.<sup>284)</sup> 『두 파산』에서 김옥임과 장례의 어머니로 해방 이후 남한의 사회는 북한의 사회와 비슷하게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리배, 탐관오리로 인해 남한의 사회도 억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식민지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식민지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XX 인민 위원회 만세. 붉은 군대 만세. 스탈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라고 작문 꼬트머리에 쓴 판에 박은 듯한 구절을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머리맡으로 휙 던져 버렸다. 이번에 돌아오는 십일월 칠일, 노서아 혁명 기념일에 열리는 학예회에 낭독(朗讀)시킬 작문을 써서 꽃다가 학교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장한이는 해방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도처에서 시시로 보고 듣는 이 말이 아직까지도 좀 어설피게 생각되는 것이요. 도 아이들이 으레 써야 할 말로 여기고 무심히 쓰는 데 비하여 자기는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의식(意識)이나, 감정으로는 “상거가 있고 격이 지는 것이 내심에 불안스럽고 늘 괴롭기도 한 것이다..... 중략..... “남조선에서는 아메리카군 만세, \*트루우먼 대통령 만세를 부르렸다.<sup>285)</sup> 「이합」

위의 인용문에서 국가가 해방되었지만, 주권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 수 있다. 염상섭은 이 인용문에서 빈미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방에 아들』에서 염상섭은 “해방은 왜놈의 잔재 건국은 우리의 몫”<sup>286)</sup>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더 분명해진다. 염상섭은 『해방에 아들』에서 해방이 외세의 잔재라고 불렀다. 이는 식민지시대의 잔재이고 냉전 시대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이 재현은 식민지 세대에서 민중 사이에 있는 차이와 불평등의 잔재로 인해 국가가 분단 되었다는 것이다. 「이합」에서 장한에게 국가의 토종인 영웅을 칭송하는 대신 해방 된 국가에서 소련인 스탈린은 칭송하는 일은 불편함을 느낀다. 장한은 건국은 우리의 몫이라고 믿는다. 해방은 큰 사건이 아니고 건국은 우리

284) 염상섭, 앞의 책, 325면.

285) 염상섭, 앞의 책, 96~97면.

286) 염상섭, 앞의 책, 21면.

민중이 정당한 것으로 해야하는 염상섭의 생각은 이 두 작품에서 보아낼 수 있다. 염상섭은 미.소에 대한 반감은 선전의 이용으로 비판한다.<sup>287)</sup> 장한은 어린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선전 포스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상처를 입혔다. 어린 학생들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잘 모르고 이런 선전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은 왜놈의 잔재 때문 것이었다.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아니라 강요로 인해 사상을 따라 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이런 구호가 일상화되어서 장한은 이 새로운 것으로 인해 심란해지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찬양을 상징하는 붉은 군과 함께 스탈린에 대한 찬사는 장한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다. 장한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고 이것 자체를 경축하는 행사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한국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제가 멸망한 뒤 신-식민주의자가 사상적으로 민족을 식민지로 이끌게 된 것이다. 러시아 정권의 선전이 학생을 현실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도 식민지의 기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도 민중은 사상적인 식민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미.소의 영향은 신식민지로 식민지의 거역을 상기시킨다. 이데올로기에 몰두하기 전에 그 이데올로기는 깊게 이해하기, 적응하기 전에 장단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현실적과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선전 포스터와 선전의 수단이 되어 버린 학생들을 강제로 어떠한 사상을 가르친다면 결코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심리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주입될 것이다. 소설에서 장한은 하고 싶지 않아도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연설을 써야 한다. 장한은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장단점을 알고 따르든 말든 자유의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한에 따르면 신속도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한 현실적과 실제적 지식이 없고 모른 채 이 공산주의 사상에 주입되었다고 했다. 장한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 연설을 작성하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기때문에 고통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식민지하에서 의지 없이 강제로 해야 할 행동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합」에서 국민은 사상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상으로 인한 고통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붉은 군대와 스탈린을 칭송하는 것이고 남한에서 미군, 트루먼과 자본주의를 칭송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에서 트루

287) 김재용, 「해방 직후 염상섭과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75면.

먼은 한반도 독립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남한의 국민은 트루먼을 남한을 해방해서 칭찬하고 있다. 장한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적 대립으로 남한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남한에서 북한의 뉴스 매체가 검열되어 있고 북한에서 남한의 뉴스 매체가 검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열 때문에 라디오조차 소유할 수 없어서 시청하고 싶은 것은 시청할 수 없었다. 검열 때문에 남한의 신문을 북한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사상의 선전의 한 사례이다. 선전은 다른 사상의 통신을 차단해야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되 소문을 퍼뜨려 사람은 선전을 쉽게 믿을 수 있다. 장한은 남부 지역 출신이라 고향이 그리운데다 고향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궁금했지만 이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극단적 사상에 입각한 양국의 분단을 싫어하게 되었다. S-읍의 이런 현실은 한반도 전체의 현실이었다. 한 사상은 다른 사상을 막는 것으로 사상의 차이가 점점 벌어졌고 영원한 분단으로 나타났다. 한반도가 남에서 미군, 북에서 소련군이 지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수월한 이동의 큰 한계가 있었다. 이 외세 군인의 이미지가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이편 언덕 비탈에 쉬고 앉았는 축에서 누구인지 대꾸를 하려준다. 삼팔선의 이 산중의 골목을 지키는 소련병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틈을 타서 남북에서 반나절씩 어떤 날은 하나절이나 숲속에 숨어 었다가 산도덕처럼 눈깜짝할 새에 후닥닥 서로 건너서는 것이다.<sup>288)</sup> 「재회」

「삼팔선」과 「재회」에는 38선은 소련군이 지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38선을 넘고 싶다면 소련군이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은 건너야 했다. 피난민이 38선을 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언급하면서 작가는 38선이 조선인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선에서 조선인 군인이 없고 소련군과 미군이 있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은 내적 영향뿐만 아니라 외적 영향이기 때문에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작가가 조선인들이 이 38선을 오래 있을 수 없고 곧 무너질 것도 소설에서 몇 번 나왔다. 또 남북에 사는 사람이 「삼팔선」을 자주 넘어 건너고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과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들다 자기의 국가의 상황에 유쾌하지 않다고 말을 한다. 더불어 조선인들은 38선을 스며들기를 원하며 양측 사람들의 원활한 교감도 소설에서 나타났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염상섭은 한반도의 분단은 조선들의 의지로 하지

288)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117면.



않고 외세의 의지로 완성되었고 조선인이 이 분단에 대해 절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절망은 외세에 대한 반감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분단은 한반도 민족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의지 때문에 완성하는 민족들의 의지는 동일한 나라에 있다는 것도 작품에서 뚜렷해진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국경의 저편에서 자기를 발견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사상을 착취했다. 이 착취는 욕망, 권력과 권위에 대한 욕망으로 주도되었다. 이것은 국경의 양쪽에서 비인간적인 폭력과 타자의 의식을 강요하고 소외된 사회를 만들어 냈다.

컴컴한 질퍽질퍽한 길을 찬바람을 안차며, 지치발거리는 어린 자식의 손을 붙들고 걷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일 년 만에 다시 짙어지는 룩색이 왜 이리 무거운지 옷통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다. 장한이는 이 정거장에서 타다가는 들킬까 무서워서 남의 눈을 피하여 다음 정거장으로 십 리 발길을 아침에 북으로 향한 아내와 등을 지고 으로 남으로 타박타박 가는 것이다.<sup>289)</sup> 「이합」

마침내 장한은 아내가 정치 활동을 그만하고 집안일과 자녀를 돌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신숙은 정치인으로 사는 삶을 더 즐기고 있고, 더 큰 책무를 받으려고 도청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자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다는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보고 장한은 북한을 떠나 아들과 함께 월북을 결심한다. 이제는 장한은 월북 후에 아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결심하고 계속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한의 여정을 위해 일 년 만에 다시 룩색을 등에 들었다. 마음 안에 있는 피난민은 아직 살아있었고, 북방에 와서 정착한 후에도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없었으며 유일한 방법은 남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주를 떠나 북방에서 정착한 피난민들도 사상의 이분법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 인용문에서 신숙을 통해 분단이 구체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정치적 욕망에 빠져 자기 가정을 뒤로 했다. 다른 편, 장한도 그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어 월남하기로 결심한다. 장한과 신숙의 이런 자아의식은 분단문제에서 깊게 구체화 되었다.

요컨대, 염상섭은 한국의 분단은 외부에서 혹은 외세의 세력의 결과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염상섭의 작품에서 식민지의 기억은 신식민지의 냉전 체제

---

289) 염상섭, 앞의 책, 116면.

에서 순환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염상섭의 작품에서 식민지의 기억에 대해 말하자면, 식민지의 분할 지배의 경험 혹은 식민지적인 경험의 기억은 신식민지에 대한 반감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제의 잔재는 외세의 주둔과 한국인의 욕망과 힘을 입어 한반도의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은 「삼팔선」, 「이합」과 「재회」의 줄거리의 주요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염상섭은 작품에서 외세 혹은 미소를 한국의 분단의 책임자로 그렸지만, 식민지의 정치 전략을 깊이 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쿠스완트싱의 태도와 반대하다.

따라서 염상섭은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서 한국의 분단을 이념적 국민 정체성의 결과로 보았다. 이 이념적 정체성은 신제국주의 미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이념의 차이와 갈등으로 장한과 신숙의 이야기가 국가의 분단을 상징한다. 염상섭은 이념의 갈등은 민중의 욕망 결과로 구렸다. 이것은 식민지 경험 기억의 망각이고 신식민지의 재편으로 등장한다.

신식민지의 다음으로 이 분단은 염상섭의 세 편 작품,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서 어떻게 양상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3.2. 망각된 식민지 경험과 이념적 타자의 축출

「삼팔선」은 염상섭의 난민 경험의 5인 가족의 개인적인 기록이어서 개인적 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증언적인 작품이다.<sup>290)</sup> 「삼팔선」은 염상섭의 개인 체험인 것을 염두에 두면 이 개인적인 체험은 주인공 ‘나’가 가족을 이끌고 신의주에서 「삼팔선」을 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sup>291)</sup> 이 작품이 지식인의 귀환 과정을 통하여 당대 조선이 처한 실상을 파노라마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92)</sup> 염상섭은 신의주에서 「삼팔선」을 넘어 미군을 본 장면까지 그는 경험한 것을 「삼팔선」 연작에 그렸다. 그런데 이 난민 경험은 「삼팔선」뿐만 아니라 「이합」과 「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세 권의 작품에서 염상섭은 분단의 양상으로 여러 가지의 차원을 그렸다. 「삼팔선」과 「이합」과 「재회」에서 폭력의 양상은 주로 두 가지의 주요한

290)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37면.

291) 조병도, 「廉想涉 建國期(1945~1950) 小説의 이데올로기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國內박사학위논문, 2007, 127면.

292) 조병도, 앞의 글, 87면.

차원이 있다. 첫째는 물리적인 폭력이고 다른 것은 비물리적인 폭력이 있다. 「삼팔선」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주로 소련군과 북한군에 의해 가해 되었다는 것이다. 「삼팔선」에서 소련군은 두려워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총을 쏘고 이동을 통제하는 주체로 그려졌다. 한반도의 치안 부재 상황에서 그들을 습격해 오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sup>293)</sup> 그리고 총 세 권의 소설에서 비물리적인 폭력은 국가 권력 내지와 공권력으로 등장한다. 이 물리적과 비물리적 폭력은 분단의 비탄 중에 정부가 없거나 정부가 없는 인식은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내며 억압과 고문을 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더한 것이었다. 세밀하게 보자면 한국의 분단에서 이 물리적과 비물리적인 폭력 중에 연관성이 있다. 이 물리적과 비물리적인 폭력은 결합하여 무질서한 사회의 장면을 나타낸다. 즉 군인의 폭력, 공권력이 가한 억압과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차원은 해방과 국민국가의 수립으로써 분단의 담론에서 민중의 정서가 생략되어 이념에 바탕 둔 국민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하이폴리틱스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외세 세력인 미군과 소련군이 있는 장면으로 사람들이 분단에 대한 반감과 해방의 절망은 해방의 허무함을 상기시킨다. 이 공포, 통제와 국가의 폭력, 무질서한 사회와 해방의 허무함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면 미군과 소련군의 해방자로 지적하는 내셔널리스트주의 역사학과 대립하는 것도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염상섭이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 그린 분단 혹은 사상에 바탕 둔 국민국가 형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염상섭은 분단의 폭력은 사회급의 모든 계급을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삼팔선」에서 만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직위를 말하면서 이것을 표시했다.

안동 있을 때, 예전에 경성일보 무엇인가 지내고 북경서 전기회사라 던가 무슨 공사(소리)의 이사라는 일인이 굴뚝에서 빠져나온 족 제비같은 꼴로 청년 두엇을 데리고 와서 일본인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몸부칠 곳을 얻어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간신히 떼어 보낸 일이 머리에 떠오른다. 지금 저 문 밑 땅바닥에 누운 자들도 회사의 이사나 아닌지? 적어도 과장, 사무관 부스러기의 주임관으로서 땡땡거리고 살 았으리라 이런 상상을 하여보다가 잠이 다시 들어버렸다.<sup>294)</sup> 「삼팔선」

293)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51면.

294)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76면.

해방 이후 혼란의 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이 공포와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부자와 지식인도 동시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한반도의 독립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쳤다. 인용문에서, '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보았고, 이 사람은 국립 회사의 이사 아니면 부부장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 인용문에서 농민, 상인 등 서민들에게만 폭력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한때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제국 정부를 위해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들에게도 분단의 폭력은 가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중이 해방은 식민지 과거를 연상시키는 모든 잔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 직원들은 식민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에 처했다. 한때 삶의 모든 사치를 누렸던 회사 직원은 이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염상섭은 지식인이었고 「삼팔선」으로 자기의 귀향을 서사한 바가 있다. 염상섭은 분단 이후 지식인도 다른 사람과 유사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그렸다. 분단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난민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혹은 남녀노소 모두 거의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 같이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이 해방 이후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 볼 수 있다. 「이합」의 장한도 일본의 식민지 교육제도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월남하는 피난민의 길에 다니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도 남한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다. 「삼팔선」의 여관을 관리하는 여성의 가족과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학생복을 입은 청소년이 이러한 사실의 한 사례이다.

염상섭은 「삼팔선」에서 폭력의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삼팔선」의 총소리, 학생 사건이 물리적인 폭력의 사례이다. 염상섭은 신의주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다. 이 학생 사건은 그의 작품 『그 초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첫째 「삼팔선」에서 그가 그린 신의주 사건과 안동 사건의 물리적인 폭력의 양상을 보자.

일행에서 뒤떨어진 축을 기다리느라고 그렇다 한다. 정거장에서 나오다가 큰길로 돌치는 목에서 총소리가 나고 길을 막는 바람에, 앞선 축은 똥줄이 빠져서 무사히 들어왔으나 길이 막혀 뒷사람들은 정거장으로 다시 들어갔는지 잡혀갔는지 알아보려 갈수도 없고, 총소리에 놀란 끝이라 거세인 경상도 사투리로 떠들어만 댈 뿐이다. 한 시가 넘은 오밤중이니 사무실은 전등만 환히 켜있고 퇴체에 사는 식당주인집 일꾼만 졸린 듯이 앉아있을 뿐이다. “별일 있겠소, 보안대 주체소가 있으니까 잠결에 드

는 소리에 놀라서, 무언지 모르고 헛총을 쏘게지. 염려들 말우. 그러나 덮어놓고 총을 쏘다니!“ 이렇게 안위를 해주며 저절로 혀를 찼다. 나도 총소리라면 머리끝이 으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해방 이후에 이리저리 다니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전같이 눈이 뚱그래지지는 않을 만큼 모질어진 편이다. 작년 해방 직후의 일이지마는, 안동에 남겨둔 집을 찾아가지고 오려니까 시가지를 다 빠져나오기 전부터 압록강 철교 쪽에서 총소리가 팽팽 끊일 새 없이 났었다.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으면서도 하여간 맞닥 뜨려 보리라 하고 철교 이편 세관에까지 가보니 소련병들이 만주인 세관사람과 조선인회 출장원들과 떠들면서 강물 속에다 대고 장총으로 사냥 하듯이 쏘는것아였다.....(중략)

피난민이 통과한 뒤라 철교 위에는 '어리.. 친 개새끼도 내 뒤를 따르는 사람도 없다. 그 좁은 철교의 통로를 빠져나가야 할 터인데 총은 여전히 쏜다. 집을 조사하는 세관이나 두서넛 있는 조선측 보안부사람이나 얼굴 빛은 이상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신의주에 있으니 되돌아설 수 없거니와, 소용없는 일인의 총탄(銃彈)으로 기룡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 사격 같기도 하여 그래도 철교 안으로 쏙 들어서 보았다. 여전히 귀밑에서는 팽, 팽 소리가 났다. 혹시 유탄(流彈)에 맞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태연히 그 옆을 지나 빠져났으나 뒤에서는 털미를 집는 것 같다. 앞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어슬어슬해가는 긴 철교에 다만 하나 믿을 사람이라고는 차부이였었다. 그 후에는 거리에서, 혹은 길가로 난 내 방 밑에서 열시 후면 거의 안 듣는 날이 없는 총소리가 귀에 익게 되었다. 새벽 두 시 세 시나 밝을녘에 줄달아나는 총소리에 잠을 소스라쳐 깨는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었다. 피난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자다가 깨어나 대문을 찌걱찌걱하며 문 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기에 대개는 안집에 손님 이러니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 밤중에 왔을 때야 무슨 급한 일이려니 싶어서, 자는 내자를 일으켜서 문을 열게 하였다. 겨울밤이 새로운 시는 되었으리라. 나는 깨인김에 뒤를 보러 갔다가 나 오려니까, 금방 안집에 들어왔다는 주인의 작은댁이란 사람이 사랑싸움인지 무언지 두세 마디 하고는 금시로 가는 기척이 나기에 멈칫하고 변소안에 섰을 수밖에 없다. 속바지 바람으로 나왔는지라, 주인집의 안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려 따라 나온 주인댁이 들어가기를 기다려서 차기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에 추위에 떨고 섰던 것이다. 그러나 나간 사람이 후닥닥하고 되돌아 들어오는 기척이 나면서 두 여자의 겹을 집어 먹은 소리가 속살거리면서 뒤미쳐 보안대원이 총을 겨누며 세 사람이나 줄대어 들어온다.“어디 갔어? 어디 갔어? 금방 확하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워하고 당황한 세 사람이 똑같이 총부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허둥거리 다다, 결국에는 맨구석 변소 앞에 선 내게로 총부리를 들이댄다. “아뇨. 난 이 집 사람요. 기웃이 내다보니 뜰에는 여자

가 둘이나 소실이라는, 나가다 들어온 색시는 부엌문 옆에 착 달라붙어 섰고 주인택은 마루 앞에 열이 빠 뎀저 섰는 모양이다. “들어온 사람은 저기 섰지 않소.” 하고 부엌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려니까 내자도 방문을 열고 황급히, “어서 이리 오세요. 우리집 양반이에요.”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나 내 방문이 열리자 셋째로 섰던 보안대원은 내 방으로 총부리를 돌려대고, “누구요? 누구요?” 하고 서둔다. 얼떨결에 하여튼 첫째 총부리, 둘째 총부리를 지나쳐서 셋째 총부리 앞까지 와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자니, 주인도 \*창졸간에 겁이 났던지 그제야 방안에서 나선다. 나는 주인에게 맡겨 버리고 들어왔다. 보안대원은 주인의 변명을 듣는 모양이더니 주인과 소실은 세 청년을 데리고 나도는 아닌 모양이다.<sup>295)</sup> 「삼팔선」

본 인용문에서 폭력의 물리적과 실제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총소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것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해방 후 총소리를 많이 들어서 총소리는 더 두려워하지는 않고 총소리에 익숙해졌다. '나'는 해방 후 총소리가 일반화되어 더 이상 자신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총소리도 놀라지 않는 것은 새로운 해방국가의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총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총을 맞아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난민들이 도중에서 탄알로 인하여 총에 맞아 죽는 것과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함께 걸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일행에서 이탈해야 하는 난민들이 있으며 일행은 점점 작아지고 도로는 점점 더 길어졌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서 일행에서 빠진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과 가족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 만약 누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길이 막혀서 뒤로 가서 빠진 수색할 수도 없었다. 본 인용문에서 소련과 국군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인은 자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의 사례이다. '나'가 해방 직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묘사한다. '나'가 안동에 남은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압록강 다리에서 소련군이 무차별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탄에 겨우 목숨을 건졌을 것이었다. 소련군과 만주군, 조선군이 강물 속에서 무차별 사격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군인들은 사람들의 생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것이란 물질적인 폭력의 양상이었다. '나'가 이 사건 이후 귀가 총소리에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군인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너무 흔해져서 총알 소리가 사람

295) 염상섭, 앞의 책, 67~68면.

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들리게 되었다. 안동 학생 사건은 새로운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사상로 인한 폭력의 사례이다. 단일한 사상의 바탕을 두고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 단일한 사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중은 제거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를 수립하는 세력은 자국민에게 잔학한 행위를 저질렀다. 조병도는 ”염상섭은 신의주 학생 사건에 의거를 통하여 소련과 북한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지근거리에서 경험하였다고 했다.“<sup>296)</sup> '나'가 언급한 사건에서 사건들 경찰이자 군인이자 '나'가 사는 집에 누군가를 찾으러 왔다. 그들은 총을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집주인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반공자를 제거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 사건을 좀 더 해석해 보자면 새로 해방된 국민의 삶은 경찰이나 군인들로 인해 물리적 폭력과 학살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물리적인 폭력의 양상을 염상섭은 거리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흔해졌고 모두가 의심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자가 되었고 제거될 수 있다는 위협에 처한 것으로 그렸다. 즉 사상의 대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면 국가건설 과정에서 사상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국가 수립의 사상과 반대 사상에 속한 사람이 가장 먼저 국가의 분노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자국민들에게 폭력의 도구가 된다. 안동 학생 사건으로 '나'가 그 때 벌어진 사상에 걸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탄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유탄은 죽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운 좋게 유탄에서 살아남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거리에서 이 총알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사건은 해방 직후 흔해졌고 많은 사람은 목숨이 걸려 있다. 이런 사건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서 제주 4.3사건, 대구 사건 들로 볼 수 있다. 「이합」에서 진호가 남한에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은 대구 사건이다. 분단 당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가가 자기 자국민에 폭력을 가하고 죽고 있다는 것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의 사례이다. 이것은 국민정체성의 형성과정의 세계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한반도에서 국민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타자로 여긴 모든 것을 폭력적으로 제거하였다는 것이고 이 제거하는 과정에 민족이 피난민이 되었고 고통과 곤란의 여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이들이 비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이 물리적인 폭력은 비물리적인 폭력의 출발점이 있었다. 여정에서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절망은 어두워

---

296) 조병도, 「廉想涉 建國期(1945~1950) 小設의 이데올로기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국내박사학위논문, 2007, 127면.

진 것뿐이다. 이 폭력은 민중사이에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의 느낌을 갖추었다. 이 무질서한 사회는 비물리적인 폭력의 요소로 나타난다. 이 비물리적인 폭력은 안전의 부재, 군인이 계속하는 짐조사, 검열과 통제로 등장한다.

「삼팔선」이 소련군인과 미군이 점령한 삼팔선 이남과 이북의 무질서한 현실을 다루었다.<sup>297)</sup> 그런데 이 무질서한 사회의 양상 「삼팔선」뿐만 아니라 「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합」에서 S-읍의 우익으로 고발되는 위험도 이 무질서한 사회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합」에서 장한의 위험은 체계의 폭력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체계는 미국과 소련의 외세인 세력과 북한과 남한의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체계가 폭력을 가하는 것도 무질서한 사회로 인한 비물리적인 폭력이다. 또 이 비물리적인 폭력은 한반도에서 해방 이후와 단정수립의 기간 동안 정부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불온 분자들이 약탈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단정수립 이후 체계적인 폭력이 이뤄졌다. 해방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체계'는 민중에게 여러 방법으로 잔학 행위가 쉽게 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폭력은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폭력, 사회적 양극화, 인종차별, 성차별처럼 제도화된 차별 때문에 고통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앞으로 국가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하는 폭력도 소설에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인들이 시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외세의 자비에 맡겼다. 또는 한반도의 정치인들이 사상에 바탕둔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잔혹한 행위를 했다. 이는 사상에 근거하여 한 나라를 나누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항상 한 나라로 여겨졌지만, 해방 이후 정치권은 나라를 두 갈래로 갈라놓았고, 정치인들은 국경을 결정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해방된 국민은 정신적으로 불확실해서 강제로 피난민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찾는 길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여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여정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폭력에 직면했다. 이 폭력은 새롭게 형성된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이 비물질적인 폭력의 모습은 국민을 소외하고 차별하고 위협에 빠져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가 국민에 하는 폭력의 모습은 한 가지만 아니며 폭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해방 이후 이 체계는 점점 국민국가로 형상되어 비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 이 비물리적인 폭력은 피를 흘리는 것과 사람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자기 운명에 맡기는 것이 폭력의 한 모습으로

---

297) 김재용, 「해방 직후 염상섭과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79면.



등장했다. 다음으로 이 비물리적인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질서가 없어서 인플레이션, 안전과 안보의 문제이었다.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인상되어 민중의 비물리적인 폭력의 한 사유가 되었다.

순시를 돌다가 들어온 역원을 붙들고 “노순을 물어보니, 자기 역시들은 말뿐이요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금교로 아니 간다면 배천 온천(白川溫泉)으로 도는 길이 있다 하나 온천에서부터는 여러 갈래가 있다는데 그것은 현지에 가보지 않고는 모를거라 한다. 배천으로 빠진다면 삼각형의 이변을 도는 이상의 노정일 것이다. 신의주에서 단 한 장 있던 지도를 빌려주고 찾지를 못한 후에는 살래야 살 수도 없이 떠난 터이다. “대중만 지고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sup>298)</sup> 「삼팔선」

피난민들이 이동하는 길도 위험하고 장애물과 봉쇄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여정의 길은 시간과 함께 점점 늘어만 갔다. 난민들이 들고 있던 짐도 무거워 들고 가는 일이 어려웠다. 특히 수천리의 여정을 했는 동시 먹을 것도 없고 편안히 자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때 말이다. 이 모든 여정이 피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여정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고 노자 다 써버렸다. 이 상황은 위기에 처한 것을 음식을 먹을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8선 근처에 온 사리원에 태울 수 있는 버스를 마련해야 분계선이란 38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이지만 돈이 없으면 버스도 빌리기도 어렵다. 이런 고통은 일제강점기의 기억의 소환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떠날 때에 들은 말이지만, 보안서원이 나와서, 권총 강도가 났으니 특별히 밤길을 주의하라고 하니, 아마 아까 얻어맞던 그 정년이 바로 권총강도인 모양이다. 플로 난 문을 열어 제친 방에서 어디서인지 온 건화를 받는 소리가, “일인 두 명이 어쨌는데, “권총이 어찌고 하는 소리도 뜰에까지 흘러나온다.”<sup>299)</sup> 「삼팔선」

난민이 걷는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피난민들이 여정 초기에는 군인과 관료들의 감시와 관찰하는 시선 난민이 불안을 느끼고 난민길의 도적과 강도들 때문에 공포에 빠졌다. 이 공권력의 시선은 일제강점기의 시선과 다르지

298)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74면.

299) 염상섭, 앞의 책, 84면.

않았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소문의 한 결과물이었다. 실제 사건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사실은 널리 퍼졌다. 이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성이 가셔버렸다. 인용문에서 본듯 두려움은 버스가 산을 통과했을 때 '나'가 강도나 도적들이 공격할 예상으로 나타난다. 도적들에게 공격당한다면, 소지품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38선을 넘기 전에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도적과 강도들에 대해 두려움이 가장 컸다. '나'는 도적과 강도들의 공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에 주변에 군인이 있을 때 어디선가 유탄이 날아와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다른 편에 군인과 떨어져 있으면 도적과 강도가 덮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도 이러한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피난민들의 상황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민중의 운명은 국가의 보상과 군인의 위협과 사회의 나쁜 놈 사이에 걸려 있다. 이렇므로 일행에서 불안과 문제로 인해 도중에 동반자가 되었다.

남쪽에서 일본 돈을 몸에 지닐 수 있는 대로 지니고 건너서면 이북에 있는 일본 사람은 조선 돈이나 만주 돈과 바꾸어 두느라고 갈급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도 일본 은행권은 통용이 아니되고 일본으로 돌려보낸다는 예정은 점점 밀려가니 조선 은행권이나 만주 돈을 다 쓴 사람은 저희끼리 바꾸어 쓰기도 하겠지마는 일본사람 전체에 밀전이 드러나면 일본 은행권을 생으로 먹는 부 없고 팔아먹을 것은 다 팔아먹고 나면 미구불원에 굶어 죽을지 형편이다. 일본 은커녕 전재민도 어름어름하다가는 가도 오도 못하 굶어죽을 판이다.<sup>300)</sup> 「삼팔선」

위의 인용문에서 제국의 기억으로서의 일본 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본 돈은 해방 이후 일본의 잔재이고 더 이상 유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기억이란 일본 돈을 가지고 범질서가 거의 없는 혼란의 시대에 여행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일본 돈은 제국의 기억이 있지만 새로운 국가의 돈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 돈을 가지고 여정을 했다. 이런 시기에서 뭇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생애를 유지하려고 일본의 잔재인 일본 돈도 다른 제일 필요한 것이었다. 제국의 기억을 망각하고 싶어도 이런 잔재로 통해 제국의 기억은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것이었다. 피난민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 무엇이든 가지고 여정해야만 했다. 일본 돈으로 인하여 도난당할 위험도 있었지만, 또한 돈이 몰수될 위험도 매우 컸다. 군인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계속한 감시는 흔했다. 돈 많은 사람이 발견되면 밀수업자로 지정되기 쉬워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강도

---

300) 염상섭, 앞의 책, 60면.

나 새로 형성된 국가의 공권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은 속옷에 돈을 넣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이렇므로 제국의 기억을 망각하고 싶어도 혹은 잔재를 없애고 싶어도 새로운 국민국가의 환경에서 식민지의 잔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멀어졌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아무도 몰랐으며 추정할 수 있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소설에 나타난 상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조사를 받아 돈을 압수당했다. 위험을 감수하지만 힘들게 번 돈을 버리고 가는 대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밀수꾼 용의자로 지적되었다. 난민이 여정할 경로의 지속적인 변화와 비싼 밥값은 피난민들의 모든 비용의 추정을 뒹굴었다. 일제가 몰락하고 일제의 통화는 잔재가 된 것이었다. 일본의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소문 때문에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소문의 한 이유는 북에서 남의 신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정보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과 소문,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돈이 여전히 유효하고 비용으로 사용될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일본 돈을 들고 가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의 문제도 있었다. 우동은 제일 싼 음식이었지만,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동마저 비싸게 느껴졌다. 노자가 없는 피난민들이 우동밖에 다른 것을 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우동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피난민들이 우동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피난민의 상황이 억압해졌다.

사리원(沙里院)에서 한바탕 법석들을 하고 백여 명의 피난민이 꾸역 꾸역 몰려 나리고 나니, 맨끝에 달린 이 피난민 찾간에 덩그러니 남은 사람이라고는 우리일행 여덟 사람뿐이다. 가뜩이나 어린 아이가 말은 아니 하여도 제각기 애가 타서 하는 판에 일행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보니 불안과 초조가 한층 더 마음을 어둡게하여 아무도 입을 벌릴 기운도 없는 듯이 맥맥히 앉아서 치어다보느니 내 얼굴만 치어다본다. “염려없어, 신막 가서 하룻밤 편히 쉬고 정 못 가게 되면 짐 차려가지고 뒤돌아서면 피난민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은가” 301) 「삼팔선」

「삼팔선」은 염상섭의 난민의 개인적과 지역적인 체험으로 피난민의 비극은 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난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안전이었다. 이 사실은 “불안과 초조가 한층 더 마음을 어둡게하여”라는 말로 목격된다. 난민

301) 염상섭, 앞의 책, 55면.

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여정하는 방법은 기차였다. 일행으로 여정하는 것이 난민들에게 도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행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감소했으며 일행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난민들과 합류했다. 이런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도 신식민지의 계속 감시의 결과물이었다. 널리 벌어진 공포는 식민의 잔재와 신식민지의 형성과 결합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도중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났다는 것이 흔해졌다. 가장 안전한 경로는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민들은 38선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기 위해 운을 떼고 있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새롭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새롭고 안전한 경로에 대한 이런 정보는 여행하는 동안 희망과 안전의 한 줄기였다. 난민들은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한 난민 수용소에서 다른 난민 수용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삼팔선」에서 이런 개인적인 난민 경험은 피난민의 상황이 정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의 체험을 통해 길은 막혔고 조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도 신막의 길은 검열이 까다로워서 사리원 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남한으로 향하는 것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향하는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들은 현지 만주족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남겨두고 만주에서 도망쳐야 했다. 만주에 머무는 동안 많은 소지품과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싼값에 팔거나 완전히 버려야 했다. 이러므로 보자면 한반도의 일본인과 만주의 조선인이 상황은 매우 비슷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재산과 집이 약탈을 당했다는 것이 한반도의 일본인의 적산가옥과 비슷하다. 일제의 만행을 피해 만주국으로 도망친 조선인은 생계를 꾸릴 수 있었고 만주는 이들에게 고향을 떠난 보금자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무엇이든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처럼 도무지 도피한 꿈이 되었다. 한때 식민지 조국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만주국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느꼈지만, 이제는 원주민의 적이 되었고 복수를 피해 도망쳐야 한다. 그래서 만주에서 도망치는 조선인은 슬픔과 고통, 공포감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다.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과 자기의 삶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피난민이 된다는 뜻이다.

소설에서 비물리적인 폭력의 한 사례는 군인들과 관료들이 하는 도중에서 지속한 통제 및 조사이었다. 조사를 피하려고 피난민들이 숨고 여정하는 것이었다. 난민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사상에 걸리는 것이다. 이 사상에 걸리

는 것의 두려움도 일본의 잔재이자 식민지의 가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인이 사상문제로 걸려 고문을 당한 바가 있다. 해방 이후도 사상에 걸리면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에 강제로 보내게 돼서 고향 대신에 원치 않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 식민지 기억의 소환이다. 민중은 부상한 사람, 임산부와 아이들까지 남북에서 피난민이 돼 38선의 한쪽에서 다른편으로 날아가곤 했다. 만주에서 조선 민족에게 자행된 체계의 폭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수십 년 동안 만주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비물리적인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서 집은 불에 탔고 생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국가는 몸이라면 군인은 국가의 손이다. 국민국가에서 정부가 뇌라면 군대는 국가의 팔다리가 되며 국가의 모든 물리적, 군사적 행위는 군인에 의해 수행된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소련군과 미군이 상당한 수로 남아 있었다. 이 군인은 그 당시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군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너무 뜨거웠으며 많은 사람에게 해방자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에게 억압자로도 여겼다. 이는 군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르게 보자면 이 군인들은 멸망한 제국의 잔재를 지키는 모든 곳에 존재했다. 사람은 소련군과 미국군은 해방자로 가장한 일반인을 죽이는 압제자였다고 믿었다. 이 소련군과 미군은 조선인에게 잔혹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조선인은 자국에서 끊임 없이 의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역시 문짝이 없는 변소에서, 아니네나 지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면서 불일을 보고 자리로 돌아오지니, 지금 잠깐 선 정거장에서 올라 온 소련병정 둘이 지편으로 마주 앉으면서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 본체 만체하고 지나쳤다. 뒤미처 철도공부들도 이삼인 들어와서 떠들썩해진 바람에 잠깐 불안한 빛을 띠던 여자들의 얼굴도 다시 피어났다.<sup>302)</sup> 「삼팔선」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를 일본제국의 멸망 후 감시하고 있었다. 조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소련군의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인용문에서 정거장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 함께 같은 열차를 타고 있었다. 소련군은 수상쩍은 눈빛을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려 했다. 이 인용문에서 '

302) 염상섭, 앞의 책, 58면.

'나'는 해방된 나라에서 외세인 병사는 자국 사람들을 의심하고 의뢰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식민지의 제도와 다르지 않았다. 즉 이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신제국주의 위협에 빠진다는 뜻이고, 신식민지는 낡은 식민지의 기억을 소환한다. 즉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의 상태와 해방이라고 해도 실제로 해방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킨다. 군인들의 수상쩍은 눈빛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 눈빛으로 불안을 느낀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의 이런 수상한 시선에 익숙한 '나'는 해방 이후에도 비슷한 대우를 받던 식민지 시절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난민들에게 종결된 일제 강점기의 시절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소련군의 수상쩍은 시선은 조선인들이 여전히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 미소 점령국인 식민지를 물리치고 신식민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조선인은 미국과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공권력과 군인의 비물리적인 폭력의 양상을 자세히 보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련군은 돈과 귀중품을 얻으려고 난민들에게 짐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 소련군은 한국인인지 러시아인인지 구별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눈과 코가 조선인과 달랐지만, 한국말을 했기 때문이다. 혼란의 시기에 군인들은 피난민들에 대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이 한국말을 하는 소련군도 피난민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에 다르지 않았다. 소련군은 전쟁 때 하는 짓과 비슷하게 피난민들을 심문하고 다 것을 빼앗긴 피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귀중품을 얻고 싶어 했다. 여기서 피난민들의 상황은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국민과 다르지 않다. 난민들은 더 이상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소련군을 설득하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만주에서 빼앗겼다고 더 붙였다. 여정 동안 피난민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지면 안 되는 ' 것이 발견되면 피난민들은 큰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다면 군인들로 살해당할 수도 있고, 죽지 않다면 오래 걸리는 신문과 절차 때문에 시간을 잃어, 동반 여행자와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정은 더 위협해지고 피난민의 고통스러운 길은 더 길어질 뿐이다.

산기슭을 지나 비탈길로 올라서니, 장군같은 어린것을 업은 육학 짜리의 딸년은, 비지땀을 흘리며 짹짹맨다. 한 걸음이 새로운데 '군 음을 치다가 되돌아 오르자니, 벌써 어깨가 물러나가는 듯한 모양이다. 그러나 짐을 지불질을 하다시피 해서 싫어졌고 제각기 소영이오니 바꾸어 업어줄 형편도 아니 된다. 소련병이 점심을 드럭스느냐, 숟가락질을 빨리 하느냐에 칠십 명의 운명을 맡겨 놓은 터이라, 앞에서는 킁킁대면서 줄달음질

이요 뒤에서는 떠밀듯이 하며 올라오는데, 마음은 급하나 발은 올라서지를 않는다. 산비탈의 뜨끈뜨끈 달는 바위를 의지하고 잠깐 쉬게 한 뒤에 다시 엷은 아이를 앞장을 세웠으나 서너 간통쫘 올라가서는 쉬기 전보다 더 못 가겠는지 딱 서서 영영 운다 “내려라.” 길치로 비켜 세우고 어린것을 내려놓았으나 엷을 사람도 앓을 사람 도 없다. 앞에서는 끌어 올리고 뒤에서 엉덩이를 떠받들며, 걸리기 시작하였다. 세상에 나온 지 삼년 남짓해서부터 죽을 고생이다. 어린 마음에도 이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았던지 몇 번이나 겪은 노서아 병정이 무서운 줄은 아는지 눈만 꺾벽거리며 짹소리 없이 지치발지치발 끌려 올라간다. 어찌등 산등성이까지 기어 올라는 왔다. 그러나 땀 들일 새도 없이 얼른 몸을 감추지 않으면 어디서 팽하고 탄환이 날아올지 모를 것만 같다. 그러나 산 너머를 내려다보니 금시로 앞에 섰던 사람이 그림자도 아니 보인다, 그대로 섰어도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은데 어디가 길인지 우거진 잡초잡목 사이로 들어서면 길이 꼬불거려 앞 뒤가 끊인 듯이 안 보인다. 어린놈은 올라올 때보다도 겁이 나서 감히..... 303) 「삼팔선」

난민들은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만약 소련군이 도발하면 38선을 건너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피난민들의 큰 공포 중 하나이었다. 피난민들의 이동하는 권력은 군인들에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들에 의해 지속해서 침해되었다. 난민들의 운명은 이제 소련 군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즉 소련 군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는 70명의 운명이 군인 중 누구 한 명에게 달려 있다고 의심한다. 더 설명해 보자면 38선을 넘고 싶어 하는 피난민들의 운명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소련 군인들의 점심을 먹는 속도에 달려 있다. 즉,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식사를 마치는 시간에 따라 피난민들이 38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불안과 절박함이 고조되는 것을 증언시킨다. 목적지에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38선은 피난민들에게 신기루가 되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목적지를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건너지 못한다. 총알이 어디든 날아와서 38선을 넘기기 전에 피난민들을 죽일 수 있고 이런 긴 여정에 당한 고통은 결과 없이 끝을 맺을 수 있다. 군인들이 공포와 불안으로 민중에게 가하는 비물리적인 폭력의 형태였다. 피난민들은 마침내 38선을 넘었지만, 새롭게 형성된 남한의 풍경도 유쾌하지 않다. 그들은 남한에 발을 뺏자마자 목격한 첫 장면은 미군들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공포와 오싹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

---

303) 염상섭, 앞의 책, 91면.

난민의 첫 소감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식민지의 기억의 소환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국에서 도망쳐 북한에서 소련군의 감시를 걸쳐 조국을 찾는 것의 장면은 외세의 존재로 식민지의 거역을 소환한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긴 여정하고 나서도, 운명이 아직도 외세인 군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식민지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유사하게 남한에서도 해방이 실제 해방이 아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자기 영토를 지키는 자기 민족을 돌보는 자기 국가의 군인이라는 해방의 꿈이 유리창처럼 깨졌다. 해방자인 외세의 군인은 억압자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높았다. 북한에서 직접 보고 목격한 군인들의 두려움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일제강점기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정을 마쳐도 운명은 외세인 군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실망의 큰 원인이 되었고 해방을 허무한 것으로 보여준다.

다른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난민 증명서의 문제이었다. 이 난민증명서는 공권력의 비물리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나'가 난민 증명서가 가족처럼 되고 난민 증명서가 없으면 정체를 증언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신분에 대해 의심도 받았다고 했다. 난민 증명서 없을 때 여행 중에 공무원에 의해 고문과 굴욕과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난민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을 주고 계속 그 종이를 소유하고 늘 난민임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국민들과 국가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가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고 곤란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체계의 비물리적인 폭력의 사례이다. 국가가 종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례이고 인권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증명서가 인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것의 사례이기도 할 수 있다.

난민들이 만주에서 폭력을 당한 후 도망치기 전의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야 했다. 이렇게 챙긴 짐과 재산은 들어주는 것이 거부되었다. 한 곳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은 물론 짐이 많고 새로운 곳으로 이탈할 때 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이 짐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추억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기 추억에서 제일 좋은 추억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가장 어려운 결정이기도 한다. 이것은 부모에게 살아있을 만한 아이를 고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주 폭력에 의해 파괴된 난민들의 재산은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폭도에 의해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남겨두고 가는 재산을 고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될 수 없어 모



든 짐을 싣다. 그런데 관료와 군인도 난민에 대해 매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더 설명하자면 「삼팔선」에서 처음에 난민들이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약속했고, 나중에는 거부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의 관료체제가 자국민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것의 예이다. 관료주의는 사람들의 감정을 의식하지 않아 소유물이 난민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공권력에게 난민들의 소유품은 기차에 실을 때 무거운 물리적 물질이고 난민에게 기억이었다.

비물리적인 폭력의 제일 분명한 사례는 「삼팔선」에서 나타났다. 이 것은 「삼팔선」에는 국민에게 저지른 국가의 비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 중에서 대표한 것 중 하나는 호열자 주사이었다. 그리고 호열자 주사를 맞는 것의 여러 가지의 차별이 있었다. 호열자 주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난민들의 남북행 이동을 막기 위해 도로가 폐쇄되었고, 날이 갈수록 검문검색이 어려워졌다.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난민들은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호열자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정하고 싶어서 여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부터 자기 집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직면한 더 가혹한 상황은 이 난민들을 여정을 견게 했다. 만주에 재산과 집을 남겨두고 거지가 된 사람들은 호열자로 죽는 것에 무관심이고 호열자를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다녀야 했던 위험한 길은 호열자보다 산적과 총격이 더 심한 문제였다. 이 호열자 예방 주사는 국가가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의 한 도구가 있었다. 검열과 통제의 도구가 식민지에서 적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검열과 통제는 식민지 기억의 소환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형성된 국민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이 병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확실하기를 위해 호열자 접종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부담이 될 수 있는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국가가 자기의 책임에서 버서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비물질적인 폭력으로 인해 국민은 고통에 빠지고 자기 실 상황을 숨어야 하게 되었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난민이 식민 국가에서 해방된 국민으로 아니고 새로운 형성된 국민국가의 검열, 통제와 조사를 피하려는 도둑인 주체가 되어 여정하고 있었다.

.....정거장에 나가는 길에 병원에 들어서 호열자 주사를 맞으려하니 약이 떨어져서 오늘은 그대로 태운다 한다. 정거장 문턱에서 보안대원이

일일이 묻는 것은 하여간에 동행인 K군을 붙들고 우리 내외가 일본 사람 아니냐고 묻더라는 것은 요절을 할 노릇이었다.<sup>304)</sup> 「삼팔선」

위의 인용문에서 '나'는 난민들이 호열자 주사를 맞고 싶지만 재고에 없어서 못 맞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주사 없이 기차를 타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호열자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임원들이 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난민들을 큰 딜레마에 빠뜨렸다. 이것은 국가 정책과 정책을 펴는 것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든다. 좀 더 설명하자면 난민들에게 주사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난민들의 호열자 맞는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남부로 가는 길은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은 데다가 호열자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훨씬 더 큰 괴롭힘의 빠질 수 있다. 난민들은 38선을 넘어가기 전에 어디서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는 주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억압의 이유도 되고 주사 맞는 여부를 검사하고 난민들의 이동을 막히므로 억압의 가해자도 된다. 예방접종은 물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며 구호보다는 고통과 위협이 되어버린다. 호열자 주사는 사람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난민들에게는 매우 힘든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주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추사가 없어서 주사를 맞지 않은 난민이 많고 계속 여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만주국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긴 후 평화롭고 위엄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난민을 호열자 접종 증명서가 통제하는 것의 한 도구가 되었다. 이러므로 호열자 주사는 난민들에게 가한 국가혹은 공된력의 비물리적인 폭력의 모습이었다.

“자아 이리들 모여 서요. 대표자가 누구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짧은 서원이 나와서 한가운데 서니까, X청년이 썩 나서며 인사를 한다. 나중은 꽤 의 대표자라는 의미로 알고 나선 모양이나, 우리 편 두 대표는 조사도 끝났고 고단한 판이라, 잘되었다 하고 이편 한구석에 가만히 섰었다. 만주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부터 묻기 시작하여 사상 문제를 꺼내 가지고 문답이 한참 되다가 있다 다시 만나서 좀 더 자세히 묻겠다 하고 들어가 버린 뒤에, 그 꽤의 짐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조사는, 살살이 뒤지니 만큼 시간이 꽤 걸렸다. 나는 있다가 또 조사하겠다는 그말이 언제까지 귀에 걸려서, 좀처럼 오늘밤 안으로는 놓여나가지

304) 염상섭, 앞의 책, 63면.

못할 까보아 애가 쓰였다. 더구나 그 편 사람들의 \*호열자 예방주사 증명서를 걷으라 하여 들고 들어갔으니, 있다고 내일이고 다시 만나 묻고 나야 내줄 모양같다. 우리더러도 주사증명서를 걸어 들어라고나 아니할 까 겁이 난다. “공연히 제가 증빨나게 나서서…….” 305) 「삼팔선」

난민들은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렸다. 난민들이 호열자 주사가 재고가 없어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호열자 주사 증명서를 계속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자국민에게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즉 나라가 제공하는 주사가 재고 없어도 임원들이 주사를 맞는 거의 책임을 난민들에게 물어본다. 이 인용문에서 '나'는 만약 임원들이 그에게 주사 맞는 여부를 물어보거나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만약 걸린다면 '나'의 일행은 더 이상 여정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더러운 난민 수용소나 비싼 여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민들도 돈이 점점 모자라고 있고 버스까지 빌려야 했던 돈이 없는데 여관에 묵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또 큰일이다. 주사를 맞고 떠나라고 해도 주사가 언제 입고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마음에 불안감과 불안감을 더했다. 모든 것이 빼앗긴 난민들 도왔어야 했던 국가는 억압자가 되었고, 안전한 수송을 돕는 대신 난민들에게 장애물을 세우고 있다.

김윤식은 해방 이후 기차가 교통수단의 주축이라하고 한다.<sup>306)</sup> 남한에서 북한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무질서한 사회에서 도중에서 약탈당하거나 도둑을 당하는 것과 계속되는 통제와 검열을 피하려는 제일 쉬운 수단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민중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민중이 위협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의무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난민 된 국민에게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비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 기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난민의 이도이 힘들어졌다. 당시에 기차가 긴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기 때문에 모든 난민이 기차를 타고 싶었지만, 기차의 수가 적고 사람들을 모두 태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여정은 길었고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데다가 더운 날씨에 기차를 타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라는 내용은 「삼팔선」에서 등장한

305) 염상섭, 앞의 책, 84면.

306)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53면.

다.

“여관에 들러야 여관이 있어야죠. 여관마다 대만원이요, 그나마 숙박료가 아침저녁으로 오릅니다그려.물밥 사 먹어가며 기대리다가는 노자 다 까불리고 큰일이지요.” 307) 「삼팔선」

피난민들의 여정은 고통스럽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고통의 한 상징물이었다. 난민들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잠을 잤다. 여관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쉬고 다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편하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는 곳조차도 없었다. 피난민들은 룝색을 등에 지고 다녀야 해서 정말 지쳤지만, 도둑질당할까 봐, 피난민을 강도의 두려움 때문에 결코 잠들지 못했다. 여관은 안전한 잠자리였을 텐데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앞에 아직도 상당히 남이 있는 멀고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고민과 아픔을 떨쳐내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난민 수용소는 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밖에는 안전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난민들이 여관에 잠깐 들고 싶었지만, 여관은 너무 비싸 난민들이 여관에 갈 여유가 없었다. 또한 굳이 여관에 가면 앞길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 것이 불확실해서 노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난민들이 노자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 큰 문제가 있었다. 피난민들의 여정이 길고 길어지고 있어서 노자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상도 못 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도 무수히 많았다. 밥값도 비싸고 길도 계속 바뀌어 운명으로 생각해 온 38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피난민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여행하면 위험하고 돈을 많이 마련하고 여행하면 돈이 부족한 것은 이들의 딜레마였다. 이 고민으로 피난민들이 돈을 아꼈려고 굶으면서 여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물리적인 폭력을 볼 수 있다.

이십여 년 전에 들러본 신막(新幕)이나 다를 것 없이 소조하다. 비는 그쳐 다행이나 저물어가는 손바닥만한 거리에 나서니 여관집 아이들이 길을 막고 법석이다. 일박에 육십 원이라 한다. 구제소(救濟所)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생전에 처음이라, 여관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앞길이 며칠 걸릴지 모르는데 한 품이라도 절용을 해야 할 것이다. 창피는 하나 바로 정거장 앞에 있는 구제소로 찾아 들어갔다. 해방 전에는 무슨 일본사람의 저자터인지 우중충한 습기가 차는 흙바닥에 테이블을 두엇

307)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72면.

놓고 부이스런 전등 밑에 어린애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사무원은 저녁밥 먹으러 들어갔다 한다. 앞길의 형편과 노정을 물어보아야 요령부득이요 남천(南川)까지는 토라쿠(트럭)는 있지만 남천 금교(金郊)간은 마치 모른다 한다.<sup>308)</sup> 「삼팔선」

난민들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관을 빌려야 할지, 난민 수용소로 가야 할지 확실히 결정할 수 없었다. 난민들은 여관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여정에서 나중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 여부도 몰랐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포영(泡影)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관에 가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음식을 사 먹는 것이었다.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민중에게 싼 음식을 마련하는 데에 실패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이지만 곡물을 포함하고 물가는 엄청 많이 비싸졌고 밥 먹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 인용문에서, '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간지만 난민 수용소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수용소가 아니라 한 일본인의 대가를 난민 수용소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바닥이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인 데다 책임자도 부재중이었다. 여기서 폭력은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난민 수용소의 잘못된 운영으로 나타난다. 난민 수용소의 한심한 처지에서 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고통받게 한 것이 국가의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난민 수용소의 상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인도하여 주는 대로 이층으로 올라가서 짐을 풀고 앉으니 깨끗하고 시원하기가 어제 신막서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 꿈같다..... (중략)..... 아이들의 얼굴에는 길 떠난지 처음으로 화색이 돌면서, 다섯 살짜리 는 세상이나 만난 듯이 가로뛰고 세로뛰고 범석이다. “너, 어제 신막서는 왜 울었니?” “집이 티꺼우니까 울었지.” 신의주 몇 달에 배운 평북 사투리를 내놓으며 꺄꺄꺄 웃는다. 어른들의 입에서도 오래간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sup>309)</sup> 「삼팔선」

'나'가 도착한 사리원에 비교하면 신막 피난민 수용소는 꿈 같은 곳이었다. '나'의 아들은 신막 난민수용소를 보고 울었지만, 사리원의 좋은 수용소를 보고

308) 염상섭, 앞의 책, 59면.

309) 염상섭, 앞의 책, 65면.

행복해졌다. 수용소가 잘 관리 되지 않고 시설도 부족하고 너무 더러워서 '나'의 아들은 울었다. 아들의 우는 것이 수용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난민 수용소는 피난민으로 넘쳐나고 수용소에 하룻밤을 보내는 피난민들이 엄청 많아서 편의시설은 추락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삼팔선」으로 통해 비물리적인 폭력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비물리적인 폭력의 큰 원인은 무질서한 사회 혹은 정부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진본하고 정확한 정보를 못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소문을 널리 퍼지게 했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분단의 비탄 중에서 불안과 공포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 공포감이 실제로 본 사건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소문으로 많아졌다. 「재회」에 속한 인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기 염상섭의 소설에는 겪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 해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들뜸과 흥분, 그리고 혼란과 감격이 실제 없이 난무했던 당대의 상황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sup>310)</sup> 우익과 좌익으로 지명되는 것의 공포, 돌팔 때 총을 맞아 죽는 것의 공포가 대표이다. 이런 것도 비물질적인 폭력으로 이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 비물질적인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의 양상을 살펴보자.

염상섭의 소설 「삼팔선」에서 공포의 양상이 뚜렷하다. 본 작품에서 피난민이 만주에서 당한 폭력과 여정에 겪었던 폭력을 상상하고 있다. 첫째 분단의 과정에서 국민의 공포 사례를 살펴보자.

오래간만에 두 다리를 뺀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놀리며 앉았으니,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한 귀퉁이가 막히는 듯하다. 그러나 생각하면 삼팔선이란 허황하고 허무한 것 같고, 두세 사람의 눈을 기우고 불과 오십리나 십리 길을 건너느라고 천리 밖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집어 먹고 몸에 지닌 것까지 다 버리고, 이 고생을 하며 허위단잡 겨우 허위 넘어 왔다는 그 일이 얼뜨고 변변치 못한 짓 같기도 하다. 다음날에 자식들이 자라서, 소위 삼팔선이라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검은 줄을 오늘에 이렇게 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에서 찾아내고 기록에서 본다..... (중략) 어떠한 감개가 있고 저희의 선대(先代)를 어떻게 생각할고? 하는 생각을 하면 분한 것이 지나쳐 어이없는 웃음이나 커다랗게 웃었으면 조금은 시원할 것 같으나, 그런 웃음조차 나오지를 않는다. 일행이 차츰차츰 다 모여두니까, 개성 들어가서 축하연이라도 하고헤어져야 하겠다고 감격하고 감개무량해 하는 젊은이도 있다. 달구지꾼을 불러서 집을 전부 모아서 실리고 어정버정하면서 보아 없음 X청년은 눈에 아니 띈다. 나는 서울

310) 박수빈, 「해방기 염상섭의 시대감각 연구- 해방기(1946~1949) 염상섭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2집, 2017, 315면.

턱밑까지 와서도 피난민 구제회에 들기가 싫어서, 시간만 되면 서울로 직행할 작정으로 식구들과 한걸음 먼저 떠났다. 지난번 장마에 사태가 난 언뜰뜰한 길을 개천을 끼고 내려오다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골목을 나서니, 널빤지로 짠 한간방만한 감시소(監視所)가 마주치며 젊은 미국병정 두 사람이 들어앉았을 뿐이요 길은 쓸쓸하다. 불려서 무엇을 묻지나 않을까 하였더니 너는 너요 나는 내라는 듯이 모른 척 하고 앉았다.<sup>311)</sup>  
「삼팔선」

이런 소문과 공포가 혼란 시기에 난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이 시종일관 높았다. 그래서, 피난민은 강도나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을 의심했다. 신뢰가 없는 무서운 세상에서 도와주고 싶거나 도와줘도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설에서 '나'는 노력 후 젊은 서관에 도움을 구한 후 버스를 예매했지만, 피난민들은 너무 좌절하고 불안에 빠져 X 청소년 와 함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인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정에서 큰일이 날 수 있는 것의 의례와 공포 때문이었다. 피난민들은 이곳에 머물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버스 마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 지름길을 걸기로 했다. 그런데 이 지름길도 공포에 빠져 못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삼십 분도 못가서 차는 뚝 선다. 왼쪽 뒷바퀴가 펑크가 났다. 북조선에서 타이어가 몹시 달리기 시작한다는 말은 벌써 전에 들었지만 이 차의 타이어도 마치 뒤가 물러난 고무신 뒤축 같다. 타라 내려라 하며 그렇게 코큰 소리를 하고 내놓은 차가 기껏 이 모양인가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탔던 사람이 내리고 짐을 내리고 하여 수선을 해 보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바퀴를 갈아 가지고 오기로 돌쳐서 들어가 버린다.<sup>312)</sup>  
「삼팔선」

'나'는 다른 피난민들과 수많은 노력 후 버스를 탔지만, 버스에 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많은 고통 후에 탄 버스는 피난민들의 고통을 가중했다. 버스가 여러 번 펑크가 났고 여정은 점점 더 좌절하고 피곤의 원인이 되어 시간이 더 걸렸다. 버스가 펑크 난 후 '나'는 도중에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의 가격을 알게 되자 당황했다. 음식의 값과 받은 양은 상대적으

311)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94면.

312) 염상섭, 앞의 책, 80~81면.

로 매우 적었다. 여기 '나'는 세상이 어떻게 무서운 곳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깨닫는다. 이 장면에서 피난민들의 고통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두려움, 점주들이 요구하는 높은 가격으로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講(청)에 바탕을 둔 한국 사회, '나'도 피난민들에 대해 청으로 인하여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가치는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사람들을 변하고 세상이 무서운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 무엇 해 왔소?」 하고 묻는 것이 한 방에 먼저 든 친구들의 첫인사다. 딱은 그 어려운 길을 한 번 걸음에 밥값만도 천 원 이천원 쓰는데 빈몸으로 오다니, 장한이는 아무 것도 안해 왔다고 코대답은 하면서도 그런 어렵없는 대답이 도리어 짐하게도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남이 고향이요 형님 은 영등포에 산다니까, 「허, 그럼 됐소그려」 하고 무에 됐다는 것인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장한이는 기가 막히고 속으로 우습기도 하였다.<sup>313)</sup> 「재회」

분단 때 월남이나 월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월남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 또는 월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다. 이것은 월북이나 월남해도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한은 북한에서 우익으로 지적인 두려움 때문에 남한에도 망쳤지만, 남한에서도 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도망친 사람으로 의심받는다. 이것은 월남과 월북하는 사람이 낙인 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고향이 남이나 북에 있다면 도망치고 고향과 다른 편에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받아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염상섭은 난민의 여로에서 자기가 일본인으로 의려 받는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로 「삼팔선」 소설의 현실성을 알 수 있다.

그거 무슨 놈의 삼팔선인구! 난 목책이라도 세우고 철망을 둘러친데를 총자루라도 가누어 든 놈이 섰는 줄 알았더니만!」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 하다못해 경계표라도 세워 있을 것이요 전쟁 뉴우스에서 보던 철조망이나 돌파하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 별게 아닌 데에 김이 빠졌다는 수작이다. 사실 제일 위험한 삼팔선의 길목이라는 데가 산협의 쓸쓸한 한촌이나마 제법 인가가 야트막한 산기슭에 몰려 살고 올망졸망한 노적더미도 여기저기 널려 있어 의외에 여기도 사람 사는 데로구나 하는

313) 염상섭, 앞의 책, 125면.



안심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던 마음이 탁 풀리지는 것이었다.<sup>314)</sup> 「재회」

38선은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는 경계선이고 사람들이 이 경계선의 모습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있었다. 경계선 그야말로 위험한 곳이고 경계선 근처에 가도 뭇을 잃을 뿐이다. 그러나 38선은 사람들의 인식과 정말 달랐다. 사람들은 38선이 철사로 되어 있고 군인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피난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38선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위험한 고도 아니었다. 38선에서 마을도 있었고 이 마을에서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피난민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이렇게 경계선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로 안도감도 느꼈다. 피난민들이 38선이 단지 뇌에만 있는 가상의 경계일 뿐이고 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구] 「어구가 뭐요. 쌀 반 말 값밖에 더 되우」 주제를 보아하니 탈 것같지 않은지 편둥이를 주고 달아나 버린다. 사백 원이 쌀 반 말 값이라는 데에 장한이는 또 한 번 속으로 어구! 하며 머리끝이 어쩔하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통에 간혹 서울에 와도 식량 때문에 형의 집에 묵기가 거북하던 것을 생각하면 형의 집으로 기어들기도 싫은 증이 든다. 서울만 찾아들면 내 집에 온 것 같을 줄 안 것이 어렵없는 생각이었던 것을 인제야 깨달은 듯싶다.<sup>315)</sup> 「재회」

남과 북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달랐다. 남쪽보다 북쪽이 낫고 남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북쪽은 남쪽이 낫고 남쪽이 낫다고 생각했다. 오직 살아보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장소와 그 장소 모두에서 모든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호는 매우 열정적으로 북으로 가서 며칠 후에 남쪽으로 돌아왔다. 만주에서 건너와 남쪽에 살던 진호는 다시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갔다. 그는 남한의 어려운 상황도 체험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진호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보고 며칠 후 그는 다시 신숙과 함께 남한으로 월남했다. 이러므로 해방은 허구하고 분단도 허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상의 모리가 없는 것이 이 맥락에서 뚜렷해진다. 남이든 북이든 국민의 삶이 위협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

314) 염상섭, 앞의 책, 117면.

315) 염상섭, 앞의 책, 124면.

전화는 해방 안 됐나요!」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장한이는 귀에 남은 주인의 말을 속으로 되어 보았다. 서울 들어오는 첫발에 해방된 전차와 전화로 두 시간 이상을 시달리고 나니 장한이는 이만하면 서울도——남조선도 반남아나 안 듯싶었다.<sup>316)</sup> 「재회」

위 인용문을 통해 작가가 해방을 풍자하는 것 같다. 해방은 온 후에 아내를 포함하고 모든 것이 해방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한 수단 전화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의 한 의미가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끼리 말 통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화기가 여전히 일본 제도와 같다. 일본 식민지 때도 사람들의 통화가 검열되고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인용문에서 피상적인 해방을 비판하면서 해방의 결과물 분단을 가리키고 있다. 남한에 살거나 북한에 살거나 평민들의 고통과 곤란은 마찬가지다. 해방 이후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선택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사상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 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또 이 피상적인 해방으로 국민에게 중요한 것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밥값, 버스, 기차 모두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다. 국민에게 유용하고 독립 후에 바뀌었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국민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해방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장한은 형 택으로 가고 싶어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탑승하려는 사람보다 버스가 적어서 버스를 탈 수 없었다. 택시 요금을 물어봤는데 택시 요금은 쌀 반값과 비슷했다. 이렇게 보자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민은 해방과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해방은 약속한 해방이 아니다. 장한이 북한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남한에 왔지만, 처음 겪은 경험은 유쾌하지 않았다. 장한은 점차 해방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분단을 싫어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사람들은 이 분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38선은 곧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소설에서 염상섭의 관점이기도 하고 또한 통일에 대한 작가 희망이기도 하다. 조선인들이 이 38선은 조선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만든 것이어서 조만간 38선이 무너지고 양국의 사람들이 통일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인들에게 있어 이 분단의 원인을 내적 아니라, 외적이기 때문에 38선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이 외국 군인 있을 때만 38선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니 월남하는 사람들은

---

316) 염상섭, 앞의 책, 124면.

의심받았다. 사람들의 사이에는 소문 때문에 38선을 건너 온 사람이 피난민이 아니라 사상자로 지목되었다. 소설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도둑이나 축적가로 의심받았다. 양국에서 축적가는 동일하게 반역자로 간주 되었다.

..... 또 한 사람 스물둘쫓 된 청년이 영기우듯이 들어온다. 저녁을 굶은 모양이다. 이 청년도 이백여리를 도보로 삼팔선을 돌파하여 왔다 한다. 몸에 지닌 것도 없고 서울서 얻은 피난민증만 있으니까 국도로 고생 아니하고 왔다 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노자가 떨어진 것은 가여우나 몸에 학생복 한 벌만 걸쳤을 뿐이요 아무 달린 사람 없이 그렇듯이 어려운 삼팔선을 무서울 것 없이 넘어온 그 팔자가 부러웠다. 밥이 있으면 먹고 싶었으나, 먼저 청년도 십 원에 우동 한 그릇만 먹었다기에 나누어주고 다 없애버린 끝이라, 우동이라도 먹은 사람을 더 먹인 것이 좀 불공평하게는 되었으나 발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을 어찌하는 수 없이 가만 내버려두었다.<sup>317)</sup> 「삼팔선」

22세 된 청소년은 서울에서 왔으며 다른 피난민들과 비슷하게 난민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짐도 없고 몸에 학생복만 있을 뿐 별다른 문제 없이 38선을 건넜다. 이것은 피난민들한테 한 줄기 희망일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문제의 징후였다. 소년은 서울에서 도망친 것은 서울도 북과 유사하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했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은 서울을 도망친 이유가 따로 없었다. 소년은 서울에서 올 때 짐이 없다는 것이 서울에서도 사람들 유쾌한 삶을 취하지 않으며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 피난민들은 이 시기에 비싸게 된 우동 조차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고 남으로 향하는 것이다. 만약 남한에서도 삶은 어렵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 큰 고민의 원인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난민들의 고통과 고난을 가중했다.

인제야 삼팔선을 건너셨다는 실감이 들면서도, 갖은 곤경을 다 겪고 들어서서 첫 번째 딱 마주친 사람이 미병이었고고나! 고 머리속에 몇번이나 뇌어보았다.<sup>318)</sup> 「삼팔선」

38선을 넘은 후 '나'가 본 첫 장면은 미군들이 경비하는 장면이었다. '나'가 북한에서 소련군을 여기저기 많이 봤기 때문에 남한에서 국군이 보길 기대했지만,

317) 염상섭, 앞의 책, 61면.

318) 염상섭, 앞의 책, 94면.

그 대신 미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북과 남 양측은 모두 해방됐지만, 아직 진정한 자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일본제국의 통치자는 한국을 떠났지만 새로운 통치자들은 해방자로 가장하여 도착했다는 것이 식민지 기억의 소환으로 나타난다. 제국의 몰락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한국인의 주권은 없었다는 것이 신-식민지의 의식이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소련과 비슷하게 미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몇 명은 미군이 해방군이라고 믿었고 몇 명은 사람들은 해방군 아닌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염상섭은 「삼팔선」을 통해 미소의 외세를 비판한다.

38선을 넘은 후 '나'는 쌀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고민에 빠졌다. 지난 며칠부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38선을 건넜다는 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봤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먹을거리의 고민 등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연히 생각났다. 장한은 마침내 회사에 다니는 형인 김명한의 영등포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 표시된 김 씨의 명판을 봤다. 이 장면은 피난민으로 38선을 넘은 후 첫째로 엄청난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 장한은 해방 후에 마침내 가족이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장한은 이 성취는 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장한과 형 명한은 저녁때 술자리에 나누는 이야기로 명한은 중간과가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장한과 명한은 좌파와 우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남한에서 자본주의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강제로 선전하는 것이 명한과 장한에게 큰 곤란이 있다. 장한은 또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북한 후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보여준다. 장한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 취직, 가족조차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장한도 북한에서 딸과 아내를 두고 새로운 삶을 찾으러 남한에 왔다. 그러나 남한의 상황도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자리가 없고, 물가가 높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서 월북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의심했다. 월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새로운 환경과 국가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으로 이어졌고, 고난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 장한과 비슷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친족이 있는 사람들의 남한에서 정착은 쉬워졌지만, 가족과 북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한이란 등장인물로 북한에서 사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비슷한 짓을 하고 권력을 얻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월북한 사람들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남한에서 이런 비도덕적 짓을 비판하고 이 비도덕적 일을 월북하는 것의 한 이유로 삼고 남한에 와서 유사한 비도덕적 짓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장한은 자신의 사상 때문에 시아버지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도착한 후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구했다. 이럼으로 분단 이후 북한과 남한의 새로운 체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방의 허무함과 분단이 민중의 의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이념에 바탕두고 이념적 타자가 축출되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식민 이후 분단 과정에서 폭력, 불안, 공포가 발생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난민과 한민족으로 여겨온 한국의 민족을 이념에 바탕 둔 타자화 하는 것을 가져왔다.

「삼팔선」은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한국으로 쫓겨 났던 피난민 경험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연작이다. 「이합」과 「재회」의 주인공 장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은 한반도 북부에 정착했고, 다른 사람들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가게 되었다. 「삼팔선」은 난민들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겪었던 고통, 비참, 두려움에 대해 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삼팔선」, 「이합」과 「재회」는 외세가 가져온 해방 이후 한반도의 현실을 그려 있다. 하이폴리틱스(Highpolitics)로 인한 분단은 고통, 공포의 양상이 있다. 그런데 이 냉전 시대의 해방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사상의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형성이 수행되었다. 이 국민국가는 38선을 중앙에 놓고 한반도의 분단을 일으켰다. 다음으로 해방과 분단이 일으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주를 떠나 한반도로 날아가야 하는 이들의 혼란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바로 '난민'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避難)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진격을 피해 탈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의 트라우마와 연관시킨다. 그러나 이 '피난민'이라는 단어는 2차 세계 대전의 휴전과 일제강점기로 해방 직후 한국인들이 비참한 여정을 마치고 귀국한 현상 또는 수많은 사람의 국경을 넘는 이주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묘사하기도 한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이주를 지배한 요인은 물론 피난민들의 정치적 사상이었다. 한반도의 해방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해방은 해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 정치적·사상적 분열을 가져왔다. 나라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급격한 불화를 직면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이주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삼팔선」 「이합」과 「재회」는 한반도 넘어오는 피난민들의 여정, 더 나아가 남한으로의 탈출, 사상적 불화를 극복하고 「재회」를 그린 서사시이다.

첫째로 본 글에서 연구자는 사람의 만주에서 한반도로 이주하는 이유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에 한국인들이 만주국에 내착을 통찰해 보자.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국인은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반도 북쪽의 위치한 만주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주했다. 1940년에 실시된 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2,350만 명의 조선인이 있는 반면에 만주국에는 약 140만 명의 조선인, 일본에는 120만 명의 조선인은 이주하고 있었다. 좀 더 해석해 보자면 당시 조선 인구의 10% 이상이 사람들이 만주 또는 일본에 거주했음을 의미한다.<sup>319)</sup>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탈출하고 있는 조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45년 6월의 통계에 따르면 해방 전날 만주에 있던 조선인은 216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때 당시 재외조선인의 수는 최고 500만 명으로도 추산된다.<sup>320)</sup> 또한 만주국에 이주하는 것의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있다. 일제 강점기 초기 20년 동안 조선의 인구는 약 1.5배 증가했지만 도시는 과잉 인구를 흡수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sup>321)</sup> 한국 농업의 상업화, 금융 자본의 투자, 대규모 토지 집중, 소유는 궁극적으로 농장 생산의 합리화와 부재 지주에 의한 소작인 해고로 이어졌다. 농촌 빈곤은 또한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여 식민지 동안 이 이주한 조선인은 일용직 일꾼의 대부분을 형성했다.<sup>322)</sup> 1930년대 조선 총독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들의 북방 이주를 장려했으며, 1932년에서 1940년 사이에 약 72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이주했으며 더군다나 조선 총독은 만주로의 대규모 한인 공식 이주를 조직하기도 했다.<sup>323)</sup> 일제 강점기의 식민 정책으로 조선인들은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고 만주에는 농경지가 있어 조선인들이 살기가 훨씬 수월했다. 몇 명 귀국자들은 만주를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땅이라고 회상했다. 한 기록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8월 15일까지만 해도 만주는 돈이 있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장춘(長春) 같은 시장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 높이

319) Irene B. Taeuber and George W. Barclay, *Manchuria and Koreans in the Northeast Region*, Population Index, October 1950, 281. Trewartha and Zelinsky estimate that by 1944, 11.6 percent of all Koreans resided outside of Korea. Glenn Trewartha and Wilbur Zelinsky,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1949*, The Geographic Review, vol. 45 1955, p.14. < Bruce Cumings,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54. 에서 인용.

320) Michael Kim, “The Lost Memories of Empire and the Korean Return from Manchuria, 1945-1950: Conceptualizing Manchuria in Modern Korean Histor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3, 2010, p.203.

321) Michael Kim, 앞의 글, p.214.

322) Michael Kim, 앞의 글, p.214.

323) Michael Kim, 앞의 글, p.215.

쌓여 있고 사람들은 돼지처럼 파도를 타고 움직였다.”<sup>324)</sup> 그러나 만주에서 모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돈이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수립된 후 조선인들의 삶은 비참해졌다. 일본 지주의 노예가 되어 “황무지에서 피와 눈물로 경작한 땅을 빼앗기고 쫓겨 났다”<sup>325)</sup>. 많은 한국인은 만주의 꿈이 실패한 후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일제 강점기 덕분에 만주에는 철도가 신설되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기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인들은 도중에 러시아군과 도적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모든 정류장에서 열차에 억지로 올라타려고 하는 광란에 빠진 다른 한국 난민들과의 투쟁도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한 여행기는 돌아오는 길에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만주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난민 열차를 기다리며 잠을 자다가 우리 열차가 멈추면 ”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이고 난민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탑승하게 해야 합니다!” 를 묻지도 않고 필사적으로 뛰어올랐다.<sup>326)</sup> 만주국에서 사는 조선인은 인생의 10년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고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조국에는 상황도 좋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확신하지 않았다. 더욱 이 가혹한 식민 체제와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 조국으로의 귀환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만주를 가로지르는 행군은 도적과 약탈하는 러시아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연과 끊임 없는 투쟁도 그만큼 위험했다. 한 여행기는 장춘 근처에서 갑작스런 폭풍우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큰 홍수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물에 휩쓸려 가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 지쳐 옹기종기 모여들었다.”<sup>327)</sup> 일본의 패배는 만주에서 조선인의 패배이기도하다. 수많은 자료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낮은 주체이지만 지역인 만주인보다 높은 주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인은 만주인의 두 번째 압제자였으며 일본이 있을 때 조선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았지만, 일본이 패망한 후 만주인들의 분노가 임박했다.

“내려가는 길에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의미심장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

324) Michael Kim, 앞의 글, p.206.

325) Michael Kim, 앞의 글, p.206.

326) Michael Kim, 앞의 글, p.207.

327) Michael Kim, 앞의 글, p.208.

려였다. 우리가 '제2의 일본인'이라 불리며 인종으로 분개했던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이다.” 328)

일본인들이 만주인을 대우하는 것은 만주인들에게 복수심을 심어주었다. 만주족의 고통은 일본인의 손이 아니라 조선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폭력이 조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다. 한 기록에는 한국인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를 묘사하고 있다. 만주족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 만주족의 무서운 시선은 그들의 인내심이 며칠 더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나요? 복수의 날이 온 지금, 우리는 그들이 공격적으로 돌을 차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sup>329)</sup> 일본인은 만주인을 조선인보다 낮게 대접했기 때문에 만주인에게 일본인은 억압자이지만 조선인은 이 억압을 조력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일본이 패망한 후 만주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조선인의 집은 공격을 받고 약탈당했다. 조선인에 대한 폭력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조선인이 언제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보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조선인에 대한 폭력은 가라앉았지만, 조선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는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 사이에 혼란의 상태를 가져왔다. 해방 후 조선인들은 생계를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더 큰 문제를 직면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 밤이 되자 그들은 흩어져서 시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모이는 거리로 들어가 눈먼 군중을 선동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의 집을 공격하여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에 대한 복수를 피했다.” 330)

그러나 한반도의 식민 주체가 만주의 압제자로 어떻게 간주 되었다. 한국인들은 특히 일본 문화에 잘 동화될 수 있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내선일체 정책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인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영준은 또 다른 만주의 회고록에서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라는 아첨하는 주장은 중국인들 사이에

328) Michael Kim, 앞의 글, p.205.

329) Michael Kim, 앞의 글, p.209.

330) Michael Kim, 앞의 글, p.209.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설명했다.<sup>331)</sup> 만주에 거주하는 화교는 조선인을 일본 시민으로서 치외적 지위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주동자로 지목했다. 중국인은 조선인의 이주를 일제 팽창의 전조 신호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만주에서 조선인의 운명도 일본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본인은 조선인도 일본 시민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표면적으로 선언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다. 만주인들은 조선인도 만주인의 고통에 기여한 식민지 체제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인은 일제의 야망의 희생양이기도 했다. 조선인을 일본제국의 일원으로 포함한다는 일본의 수사학은 한국병합 이후 만주에서 상당한 갈등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군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유랑하는 도적들의 빈번한 표적이 되었다.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만주족의 증오와 일본군의 압제에 희생되었다. 이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 의한 조선인들의 악마화로 이어졌고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주의자와 만주인 간의 투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한씨는 더 나아가 만주 신문에 조선인의 언론 표현이 자주 조선인이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고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선동적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선인들도 일제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만주인을 그들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인에게 만주인은 야만인이자 악마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만주인을 문화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했다. 박영준은 한국인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문화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up>332)</sup>

우린 떠날거야! 우린 떠날거야! 누군가 창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북부 야만인의 참을 수 없는 땅. 노란 이빨. 우울한 옷. 정말 끔찍합니다. '역겹다', '안심한다'라는 말만 속으로 들렸다. 사실 북동쪽의 쿨리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sup>333)</sup>

1946년 10월 조선일보는 국민당 정부가 조선인을 패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모든 토지를 몰수하고 소유권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 막 공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농장에 있는 조선인은 모든 수확물을 몰수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압수당했으며 재산을 몰수당했다. 신문은 한국의 재산을 압류하는 평균적인 중국인 생각이 정당화되어 한국인을 위

331) Michael Kim, 앞의 글, p.210.

332) Michael Kim, 앞의 글, p.210.

333) Michael Kim, 앞의 글, p.211.

험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귀국한 조선인들의 상황과 함께 기술하였다.

최근 귀국한 피난민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수많은 해외 동포들에게 광복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소련군, 팔로군, 중앙군의 진격에 따른 2차, 3차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쌓아온 생계의 기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다.<sup>334)</sup>

더 나은 삶을 찾아 만주로 간 조선인들은 재산도 돈도 없이 다시 한국으로 탈출해야만 했다. 지방 정부는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만주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이 한국인들은 피난민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들의 만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갈 곳도 없이 무일푼이 되었다. 그들 중 몇 명은 한국에 친척이 있었지만, 조국에서 새로운 생계를 찾을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했다. 더 나은 삶을 찾으려 만주에 상륙한 것이 해방 이후 많은 사람에게 악몽이 된 것에 대해 세밀한 묘사가 엮상섭 「삼팔선」 연작에서 볼 수 있다. 「삼팔선」 연작은 만주에 사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 모든 것을 버려 한반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며 소설은 만주에서 시작하여 '나'가 38선을 넘은 후에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온갖 고난과 고문의 기록이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해방은 난민의 문제를 함께 가져왔다. 수많은 사람이 이산되었고 이탈하였다. 「삼팔선」에서 이런 엑조더스는 이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여파로 나타난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조선 사람들의 한반도를 탈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조선인들이 해방이후 정착한 곳에서 타자가 되어 다시 조국으로 귀향해야 했다. 이 과정에는 한반도에서 난민의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난민이 해방 이후부터 6.25까지 계속 이어졌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인해 한반도에서 이산가족, 고향의 잃은 의미 외세의 끝낼 수 없는 주둔과 신식민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합」에서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도 볼 수 있다. 장한의 부인 신속은 정치활동을 하는 바람에 가족이 해체된다. 장한은 안내를 버리고 남한으로 월북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삼팔선」에서도 볼 수 있다. 난민 된 여정에 많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잃었다.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고아 아이도 어머니가 죽었고

334) Michael Kim, 앞의 글, p.211.

아버지의 행방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산은 분단 당시 조선의 현실이 되었다. 첫째 이 이산의 문제는 「이합」에서 김장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장한은 이 사상의 국민정체서의 억압구조를 피하려고 자기의 딸과 아내를 북한에 넘어두고 월남했다. 장한의 처남 진호도 자기가 북한에서 정착하지는 않고, 부모를 북한에 넘어두고 월남했다. 이 이산의 구체적인 장면은 「삼팔선」에서도 그려져 있다.

아이가 당장 쓰레기통에서 주워낸 듯한 꼴로 들어선다. 흙 뭉뚱 맨발이다. 잠방이의 가랑이가 찢어져서 흙 묻은 엉덩이가 불쭉불 내어다 보인다. 그 발로 철버덕 철버덕 어린애를 끼고 누운 아내의 두를 돌아 머리맡에 가서 꼼지락 꼼지락 쓰러졌다. 아내도 그 기척에 눈을 번쩍 떠보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으며 한참 바라보더니, “넌 어머니 있니?”하고 말을 붙인다. “없세요.” 아이는 눈을 깜작깜작하며 마주 바라보다가 누운채 대답을 한다. “아버지는?” “몰라요. 어디 갔는지.” “해방 후에?...” 대답이 없다. 귀찮다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받는 같은 질문의 같은 대답이 인제는 넋더리가 난다는 무언의 반항이다. 아내는 룯색을 풀고 부스럭 부스럭 무엇을 찾는다. 현 잠방이 조기이라도 찾는 모양이다. “무얼 찾으?” “침상이나 물건 따위가 어에 꼭 맞는 모양을 말 “꼬마년의 짧은 속바지가 어느틈으루 끼어 들어갔는지.....” 탄은 침상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기에 못 찾아낸 모양이다. 아까 그 굵은 청년에게도 그랬지만 마음만 먹고 헛생색만 혼자 냈다. 그러나 썩썩 자는 다섯 살짜리에게 그 꼴을 아니 보여준 것이 다행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는 꼴들을 훑어보니 어쩐지 마음이 또 다시 무거워졌다. 고단은 하면서도 잠이 깊이 들지를 못하고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깨었다. 머리맡의 굵은 청년이 폭꺼진 눈을 커다랗게 뜨고 누워서 이편을 휘둘러다 보는 것과 눈길이 마주칠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노자를내외가 나누어 가진 것이지마는 무심코 손이 셔츠 속주머니로 갔다.<sup>335)</sup> 「삼팔선」

‘나’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안 피난민이 된 고아 어린 아이를 보았다. 그 어린이 아이는 맨발이었고 진흙투성이였다. 입은 옷도 찢어졌고 그 찢어진 바지에서 엉덩이가 보였다. 그런 상태에 있던 아이는 누구의 동정심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나’의 아내는 어린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고, 어린 소년은 엄마가 없고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해방 후 아버지가 사라졌는지 물어본 후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해방 후

335)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61~62면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이산가족이 되어 버리는 시절의 증거였다. 해방과 분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실수 없이 피난민이 되었고 이 어린 시절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기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수 없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이러한 운명을 피하기 없었다. 사상자로 지목되거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은 해방과 민족국가 형성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런 것은 피난민들에게도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져왔다. 특히 피난민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은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어린이 피난민들이 순수한 어린 시절에 상처와 고통을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분단의 아이가 되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빼앗겼다는 것도 어린이들의 빼앗긴 재산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다. 피난민 아이들은 위기 때 가장 취약해지고 이 취약성은 그들이 따라서는 안 될 길을 걷게 할 수 있다.

이 이산은 민중에게 고향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만주에서 쫓겨난 후 수많은 사람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새로운 고향을 찾으러 월북과 월남을 했다. 이들이 이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고향의 의미를 찾을 시도를 했다. 고향은 출생지로 절 먹고 잘 사는 곳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재회」에서 장한 월남한 후 도착지는 원래 고향이고 고향 의식은 있지만, 고향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 들었다. 고향은 토지뿐만 아니라 정서, 가족과 생애 모든 것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이 고향은 그 고향의 느낌이 들지 않고 새로운 해방국가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남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피난민들의 심리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이때까지 현직 교원으로 있던 장한이는, 아무 데 그르나 취직 걱정은 없지만, 군의 교육과장으로 있는 처고모부가 접수 가옥(接受家屋)을 사택으로 한 채 내어 줄 터이니 학교에 있어 달라고 끄는 바람에 하여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게 되었던 것이다. 장한이 역시 서울, 영등포의 방직공장에서 사무원으로 간신히 꾸려 가는 형님이 있지만, 서울이고, 고향인 제천이고 불쑥 간대야 부모가 계신 때와도 달라서 생활 근거가 있는 터가 아니니 해방이 되었다고 금시로 팔자를 고쳐서 탄 직업은 붙들지 못할 바에야 집 한 채가 손쉽게 잡히는 것만 감지덕지하여 나중 일은 어쨌든지 우선 남매 두 가구가 지금 이 집을 차지하고 살림을 시작하였던.....<sup>336)</sup> 「이합」

해방 이후 만주에서 쫓겨난 대부분 피난민은 고향의 의미를 잃었다. 고향은 물질적 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감정과 구성된다. 이것 중 하나라도 놓치면 고향이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런 재산 소유해도 먹고 사는 땅에 불과하다. 장한한테 고향은 생애를 유지하는 주는 곳은 고향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장한은 S-읍을 고향이라고 믿고 정착했다. 그가 S-읍의 정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룡색을 들고 정착한 곳에서 일자리를 잡고 피난민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했으며 새로 정착한 곳이 곧 그의 고향이 되었다. 만주에서 쫓겨난 조선인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출신지와 아예 다른 곳에 정착하였다. 경상도 출신인 장한은 S-읍에서 취직하게 되었고, 아내의 친척들도 S-읍에서 정착하게 되어 장한은 힘을 얻어 S-읍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장한은 피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쉽게 피하게 되어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찾았다. 해방 이후 수많은 사람이 만주에서 쫓겨난 후 북방에 정착했다. 이의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다. 북방에서 쉽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고 남한의 고향까지의 긴 여정을 피할 수 있었다. 만주에서 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짐도 많아졌다. 이 짐을 들고 남한까지 가는 것이 힘들었다. 장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처남 진호는 만주에서 취한 삶을 버리고 남한까지 가 버렸지만, 장한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장한에게 고향의 의미가 매우 달라졌다. 그는 식구가 있는 것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계획에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내인 신숙은 가정을 무시하고 수많은 시간을 정치 활동에 할애했다. 이럼으로 장한은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월남하고 딸과 아내 신숙을 북한에 넣어두었다.

염상섭의 작품 「이합」 과 「재회」 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 타자화이다. '타자성'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지목해 왔다. 인간은 종교, 성별, 지리, 정치, 피부색, 카스트, 계급 등의 차이로 '타자'로 지목되어 왔다. 사회 정의는 다른 공동체를 본질로 타자로 해석하는 이기적인 오류를 인정하는 것, 서로에 대한 자아의 본질적인 연결을 인정하는 것, 자아의 실수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인간의 연결성과 자기 비판적 기억을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정의를 받을 가치가 없고 우리 공동체보다 덜 거룩하다는 의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sup>337)</sup> 한반도에서 이

336) 염상섭, 앞의 책, 98면.

337) Jason Francisco, "In the Heat of Fratricide: The Literature of India's Partition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결합으로 나타난 타자성의 잔재는 아직도 한반도에서 남아 있다. 「이합」에서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라는 기본적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쉽게 국민국가로 분리될 수 있고, 분단은 정치적 사상의 공허한 비유의 대가로 인간 세계를 떠나도록 두 정치적 사상의 구성원을 강제했다는 부조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조선인의 국민 정체성은 일본의 탈식민지와 소련과 미국에 신-식민지에 의해 민중에게 강요되었다. 즉 한국의 국민 정체성은 피식민지 이후 소련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펼치는 것의 결과물이었다. 민중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식별되었고 서로 사이에 타자로 지목되어 버렸다. 정치사상은 민중에게 끼칠 부당함을 탓하며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결과로 '타자'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증오심은 한반도에서 생겼다. 장한은 북한에서 우익이라는 비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소인 사상으로 억압당하고 남한으로 월남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타자로 지목되기 때문이었다. 이 타자성의 뿌리는 탈식민지의 과정에에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타자성은 권력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되었다. 정치적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형성은 폭력적인 것이었다. 이 폭력은 타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었다. 이것은 김종욱의 말을 빌리자면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식민지배의 청산과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단일한 국민으로 호명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38)</sup> 염상섭의 「이합」과 「재회」는 정치적 사상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타자성을 보여 준다. 신숙은 남편이 진보적이지 않고 한 나라의 남녀 모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고발하여 타자로써 지목했다. 「이합」과 「재회」에서 한 시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다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아내를 '타자'로 생각해서 아내를 버렸다. 남편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남한으로 월남한다. 남한이든지 북한이든지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타자가 되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합」에서 정치 사상의 차이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타자로 지목했다. 한때 아내를 사랑했고 북한에 정착하기를 결정한 장한은 이제 자신의 의지 없이 강조되는 정치적 사상의 숨이 막히는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장한은 좌파 사상이 민중에게 강압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답답했다. 그리고 이 좌파 사상이 가족을 해체하는

Burning Freshly” Annual of Urdu Studies, vol. 11, 1996. p.230.

338)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0집 2015, 115면.

것을 보고 아내를 버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염상섭의 「이합」과 「재회」에 나타난 타자의 이분법은 좌파와 우파 이데올로기이다. 한국의 타자화는 정치적 정체성에서 파생되었다. 이 현상을 보자면 분단은 국가의 분열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민의 삶과 영혼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것은 염상섭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염상섭과 싱은 이 '타자성'이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임을 주장한다. 때로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 관념이었다. 한반도의 민중이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바탕을 두고 타자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타자성은 동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권력 투쟁 때문에 구체화 되었고 한반도의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 한반도 민중은 과거의 기억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두 세계 강대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에서 신식민지는 서로의 사상에 대한 혐오가 전국적인 규모로 부채질 되었고 사상에 속하지 않은 민중은 다른 사상에 속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이것은 과거의 식민지 기억에서 초래되었다. 한국의 식민지 기억은 경제적 차이로 점철되어 있다. 이 계급 불평등은 일본 식민 정책의 결과였다. 이러한 계급적 불평등은 상류층과 하층민에게 서로에 대한 타자성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정체성의 욕구로 나타난 이 타자성의 다른 차원은 염상섭은 『해방에 아들』에서 자세히 그렸다. 『해방에 아들』에서 준식은 혼혈이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 한국인들이 부모중에서 한 명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준식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여겼다. 해방 이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혼혈인 사람도 난민이 되었다, 그런데 식민지의 모든 잔재를 없애고 싶은 한국인은 이 혼혈인 민중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염상섭은 포괄적인 국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혼혈인 민중의 고통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따라서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서 염상섭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이념적 타자가 축출된다고 한다. 이 이념적 타자는 단일적인 이념에 바탕 둔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다. 이 폭력은 물리적과 비물리적으로 구려져 있다. 작품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살해, 학살, 난민 등이 등장하며 비물리적으로 공권력의 태도, 검열, 조사 등이 등장한다.

## 4.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분단에 대한 대응의 비교

### 4.1. 식민지 지배전략에 대한 작가로서의 감각

식민지가 피식민지를 통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 중 하나는 분할 통치 정책이었다. 로마 제국의 'Divide et Impera'는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채택했다. 이 식민 통치 기술인 분할과 통치의 정책은 식민지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상흔을 남겼다. 분할 통치의 식민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는 식민지 지배 전략으로 구축된 갈등으로 인한 피식민 국가의 분단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영국제국의 분할 통치 정책은 악명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매우 드물고 동경에 중심<sup>339)</sup>(Tokyo Centric)라는 시각으로만 연구되었다. 이는 탈식민주의 연구의 서구 혹은 유럽 중심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촉발된 동아시아의 식민 경험은 일제 치하 피식민 국가의 탈식민 경험에 바탕을 두고 탈식민주의적 담론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다른 피식민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통치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탈식민주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나타난 냉전이 자주 언급되지만, 분단에 대한 일본 식민정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마이켈(Michael E. Robinson)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분단 정복' (Divide and Conquer)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서중석은 이를 '분단 통치' 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서로 다른 용어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범위에서 보자면 두 개의 용어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논의에서 한국 사회에서 분할 통치는 식민지의 지배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는 한국 사회에 일어난 이념 갈등의 큰 원인이었다. 일본의 분할 통치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영국이 수 세기 동안 인도를 통치하는 데 적용한 분할 통치 정책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sup>340)</sup> 식민지 지배자의 '분할과 지

339) Todd Henry, "Sanitizing Empire: Japanese Articulations of Korean Otherness and the Construction of Early Colonial Seoul, 1905-191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4, no. 3, 2005, p.639.

340) Alok Bhalla, "Memory, History and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the Partition",



배' 341)의 정책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힌두교 통치자들에 의해 수천 년 동안 통치되었던 인도는 12세기 초에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서부에서 온 이슬람교 지배자들이 힌두교도 왕들을 물리치고 이슬람교 통치 시대를 확립했다. 이슬람교도 대왕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 탓에 힌두교도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슬람 통치자들이 장려한 종교 개종은 민중의 의지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인구가 증가했다. 수 백년 역사의 무굴제국의 몰락 이후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영국 지배자들은 인도에 들어와 '분열과 지배' 혹은 분할 통치 정책을 선포하고, 육군, 법률, 교육, 선거 등 인도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적용했다. 이의 목적은 사회의 여러 집단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대영제국은 "분할 통치" 전략은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즉 영국 지배자들은 사회 구성원의 여러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광대한 인도를 다스리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인도의 분열을 초래했다. 영국 식민지 지배자가 보기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인도를 착취하고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분할 통치 정책을 펼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식민지 지배자는 분할 통치의 정책을 펼쳤다. 힌두교도를 선동하여 무슬림에 대항하고, 민중을 선동하여 왕자에 대항하고, 카스트와 계급을 분열시키는 분할 지배를 하였다. 분할 통치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를 갈라놓고, 그들의 민족적 운동을 억누르려는 기민한 계획이었다.<sup>342)</sup> 그런데 이 분할 통치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양상은 종교 정체성을 이용해 인도인 사이를 갈라 놓음으로써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이주하였고, 주요 경제 자산이 파괴된 것이다.<sup>343)</sup>

인도에서 영국의 지배는 플라시(Plassey) 전투 이후 공고히 되었다.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몇 년 동안 영국은 인도의 국가적 결속력을 약화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촉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

---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4, no. 44, 1999, p.3120~3121.

341) 지배자가 피지배층 간의 민족 감정, 종교, 사회적 입장, 경제적 이해 따위를 이용하여 내부 대립을 부추겨 통일적인 반대 세력 형성을 방해하고 지배를 더 수월하게 하는 통치 기술. 이 통치 기술은 영국제국은 인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거의 2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였다.

342) Martin Deming Lewis, *The British in India: Imperialism or trusteeship?*, Boston: Heath, 1962, p.81~83.

343) Aziz Rahman, et al. "The British Art of Colonialism in India: Subjugation and Division." *Peace and Conflict Studies*, vol. 25, no.1 article.5 2018, p.4.

이의 분열은 점점 심화되었다. 영국 통치자의 분할 통치의 목적은 식민지 개척자에 대한 저항과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와 카스트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1857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군인이 동등하게 연합하여 '세포이 반란'(Sepoy Mutiny)을 일으킨 것에서 촉발되었다. 대영제국의 인도 군대의 구조에서 장교는 영국인(즉 백인)이 있었고 군인들은 백인이 아닌 인도인이었다. 1857년 이후, 영국은 통치의 위협이 되는 무슬림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영국 지배에 대한 반감이 커져 영국 지배자들이 정책을 변경하고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이슬람교에 바탕둔 공동체를 조직하는 권력을 제공하고 이슬람교의 권리를 보상함으로써 이슬람교도를 구애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행정을 편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였다. 일례로 1905년 벵골의 진보적 지식인의 정신을 억압하려는 벵골 분할이 있다.<sup>344)</sup> 영국 통치자들은 각각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많이 분포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분할함으로써 벵골주의의 화합을 파괴하려 하였다. 한편으로 힌두교도의 우파당과 이슬람교도의 우파당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1857년 이후 인도의 정치계에 등장한 인도국민회의<sup>345)</sup>(Indian National Congress)와 무슬림 연맹<sup>346)</sup>(Muslim League)은 분단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도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간디와 제휴하였고, 무슬림 연맹은 파키스탄의 첫 총리이자 이슬람교도의 지도자 진나<sup>347)</sup>(Mohammad Ali Jinnah)와 제휴하였다. 진나(Mohd. Ali Jinnah)는 무슬림들의 지도자였고 무슬림 연맹의 창립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인도 정치계에서 나타난 정당은 인도 국민 회의당과 무슬림 연맹의 이분법이었다. 처음에는 인도 국민회의당과 무슬림 연맹의 유일한 목적은 인도의 독립이었다. 1857년 이후 인도에서 식민 지배로 인한 종교적인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다. 독립운동가 사바르카(V.N Savarkar)가 투옥된 후 힌두트바(Hindutva)라고 불리는 신-힌두(Hindutva) 이데올로기가 나타났다. 이는 힌두교의 기본 교훈과 정치학이 혼합된 종교정치 사상으로, 힌

344) Aziz Rahman, 앞의 글, p.5.

345) 인도국민회는 영어로 Indian National Congress(INC)라고 하며 대영제국을 반대한 대영제국 식민지인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1885년에 최초로 성립된 네셔널리스트 정치 당이었다.(P.J. Marshall,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179.)

346) 무슬림 연맹은 영어로 Indian Muslim League(IML)는 동시 인도의 벵갈 주에서 이슬람교도 지식인은 1906년에 무슬림 네셔널리스트 정당으로 세웠다.

347) 진나(Mohammad Ali Jinnah)는 파키스탄의 정치가 있고 민족 운동 지도자(1876~1948)이었다.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의 지도자로, 1947년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의 독립을 실현하였으며 첫 총리가 되었다.

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적대감을 강요했다. 이슬람교도 사이에 인도국민회의당 대신에 무슬림 연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영국의 이런 분할 통치는 드디어 1930년 무렵에 정치적인 결과를 얻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들 사이의 긴 적대감은 인도 분단의 촉매제였다. 1937년 영국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 게 서로 다른 유권자 정책을 편 것은 수 세기 동안 만연해온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적대감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정치적으로 분할되었다. 이 정책은 인도를 종교에 바탕둔 선거구로 구성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선거구에서 이슬람교도 후보자,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선거구에서 힌두교도 후보자만 의석을 두고 다룰 수 있었다. 별개 유권자는 모하메드 알리 진나가 제시한 ‘두 국가 이론’ (two nation theory)을 대중화하였다. 진나는 이슬람교도는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에서 박해받는다 고 하며 이슬람교도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골왈카르(Golwalkar)는 라스트리어 스워염 세박산그(Rashtriya Swayamsevak Sangh/RSS )라고 불리는 힌두교 조직을 형성했다. 골왈카르는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힌두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왈카르는 RSS를 통해 이슬람교도들이 영국 지배자보다 힌두교도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이슬람교도들과 먼저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48)</sup> 또한 RSS는 이슬람교도는 힌두교와 타자인 주체라는 것을 전파했고, 힌두교도에 속한 위대한 왕에 대한 글을 출판했으며, 인도 대다수인 힌두교도를 자기 종교 정체성 혹은 힌두교도 정체성을 자랑하라는 영감을 부여했다.<sup>349)</sup> 이런 극단적 정체성을 유발하는 것은 드디어 내전의 모습으로 인한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 길마르틴(D. Gilamartin)에 따르면 아흐마드가 관찰한 또 다른 분단의 원인은 이슬람교도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협으로도 볼 수 있다.<sup>350)</sup> 이 정체성의 위협도 식민지의 정책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당시 인도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힌두교도였다. 이슬람교도는 힌두교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슬람 문화와 언어는 이슬람의 원칙보다 인도의 대다수 문화의 영향이 컸다. 인도의 이슬람교도는 ‘진정한 이슬람교도’ 보다 더 많은 인도 대다수의 영향력을 받은 인도-이슬람교도(Indian Muslim)이었다.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두 개 국가를 요구하는 이슬람교도 지도자들에 의해 착취되었다. 이로 인해 이슬람

348) 스티븐 휴 리, 나지원, 「분단국가들의 내전」, 『아시아리뷰』, 5집, 1호, 2015, 261~262면.

349) David Gilmartin, “The Historiography of India’s Partition: Between Civilization and Modern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74, no.1, 2015, p.24.

350) David Gilmartin, 앞의 글, p.24.

교도들은 힌두교도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힌두교도는 이슬람교도를 침략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몰락시키고 싶어 했다. 즉 힌두교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슬람교도 역시 새로운 나라의 대다수인 힌두교도의 정체성에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식민지 지배의 영향에 따라 인도에 종교정체성에 바탕을 둔 정치 당파가 등장했다. 자기의 종교 정체성에 대한 타자의 종교 정체성의 가공적인 위협이 민중 뇌에 심었다. 1940년 3월 라호르 회의에서 진나는 힌두트바 정치사상에 따라 무슬림을 위한 별도의 국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한 각자의 소망을 갖고 참가했지만, 이슬람교도 지도자의 두-국가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단되었다.

인도 분단의 또 다른 원인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인도에 가져온 새로운 사상을 들 수 있다.<sup>351)</sup> 이 사상은 주로 영국식 교육제도를 통해 인도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도의 역사는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 재기록되었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대해 저지른 잔학 행위의 역사는 되거나 매우 과장되었다. 예를 들어 밀(J.S. Mill)은 인도의 역사를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시대로 나누었는데, 나중에는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종교의 역사를 사용했다. 영국의 역사가는 인도인에게 계급 의식이 없고 문명인이 없다는 것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 인하여 인도에서 전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지식인과 식민지 근대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인 사이의 갈등도 생겼다. 이는 인도의 지식인 사의 분할 통치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인도의 식민지 지배가 다양한 차원의 분할 통치 정책을 구사했다는 것과 이것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민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한국에서의 식민지 정책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식민 경험의 독특성은 두 개의 국민국가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반도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는 정치적 파벌주의의 유산을 남겼다.<sup>352)</sup> 또한 작가, 예술가, 교육자, 사업가, 지식인을 포함한 지도층들의 다수가 일본에 협력을 강요당했다.<sup>353)</sup> 문화개혁주의와 사회주의적 급진주의라는 두 사상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을 분할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은 식민 시대에

351) David Gilmartin, 앞의 글, p.24.

352)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103.

353)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4.

끓어 터졌다가 해방 이후 망명한 민족주의 지도자와 귀국한 사회주의 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해방 후 시대에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민 통치는 분할 정복의 유연한 규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sup>354)</sup> 한국 분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 식민지 역사에 대한 한국의 역사학자 서중석과 하와이대의 한국사학자 로빈슨의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일본제국의 분할통치정책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었고 이것은 18세기 말에 한국의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광활한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통치를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 지배자는 친일파를 임명했다.<sup>355)</sup> 친일파들은 식민지 근대성을 통해 한국을 근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식민 통치자는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된 조선의 옛 체제보다 새로운 사상과 행정 조치를 조선 사회에서 도입했다. 일제의 명에 따라 일하던 이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남과 북의 국민국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진국을 전심으로 지지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토지개혁은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나, 이것은 분단통치정책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후 이 토지개혁은 한국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반-부르주아적 계급 혁명으로 여겨졌으며,<sup>356)</sup> 한국인에게 계급 의식을 심어주었고 나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런 개혁으로 나타난 반공의식은 일본 분단통치정책의 결과물이었다. 일본 통치자들은 분단통치정책을 시행하고 민중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 충성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sup>357)</sup> 이러한 반공의식은 초우파적 성격을 띠었고<sup>358)</sup> 장기적으로 반공 민족주의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 반공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두 개의 국민국가 수립으로 끝을 맺었다. 분할 통치를 통해 양산된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민족주의자들이 친일파를 처벌하는 욕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광적인 반공사상을 공식화하였다.<sup>359)</sup> 친일 공모자들을 숙청하지 못한 것은 초우파 반공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친일파들의 희생은 나아가 민족분단제도와 극단적 반공사상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공고히 되었다. 그 결과 극우주의적

354)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4, p.52.

355) Seo Joong-Seok, Korean Nationalism Betrayed. UK: Global Oriental LTD., 2007, p.60.

356) Seo Joong-Seok, 앞의 책, p.61.

357) Seo Joong-Seok, 앞의 책, p.64.

358) Seo Joong-Seok, 앞의 책, p.65.

359)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104.

반공주의와 분단제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360)</sup> 즉 친일파들이 분할 지배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 북한과 남한이란 분단국가를 세우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다. 남한의 우익의 대다수가 일제강점기에 협력 행위로 일반 대중의 분노를 받은 친일 개량주의자들이 었다.<sup>361)</sup> 이들은 외세, 특히 일본과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들은 분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미국의 힘에 의존했고 한반도에서 극단적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이러한 외세 의존으로 인해 한국의 옛 국가 정체성은 파괴되었다.<sup>362)</sup>

일본 통치자들은 갑오개혁을 통해 많은 사회적인 개혁을 했다. 이 개혁은 중산층(middle class)의 사회상을 강화했고 이 중산층이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친일파가 되었다.<sup>363)</sup> 이들은 나중에 ‘친미’가 되었고<sup>364)</sup> 남한의 형성을 공고히 했다. 친일파는 사회주의 사상을 거부했다.<sup>365)</sup> 식민지 시기의 친일파들은 제국주의 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 해방 후 미군정은 일본 제도를 해체하지 않고 해방 이후 급진적 반란과 운동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다.<sup>366)</sup> 이 때문에 친일파들도 새로 건설된 나라의 공권력이 되었다. 일본의 통치 정책이 친일파 반일의 대립과 정치사상의 대립을 일으킨 것이다.

분할 지배의 가장 명백한 양상은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 정책으로 등장했다. 이 정책은 국가를 여러 파벌로 분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인까지 두 파로 나뉘었다. 일제의 식민 교육 정책 하에서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은 식민지 근대화를 지지했고 반대파를 반대하고 늘렸다.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등 외국에서 교육받은 조선인 학생들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매료되어 초기 한국 사회주의 조직의 대부분을 형성하였다. 이들 재외동포 학생회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학생들<sup>367)</sup>에게 커뮤니티의 감정을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귀국한 후 일본의 식민지 근대성에 몰두하였다.

3·1운동 이후 신임 총독이자 ‘문화지배’ 정책의 창시자인 마코토는 민족주의 운동의 세력에 대항하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 일련의 조처했다.<sup>368)</sup> 식민지

360)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4~105.

361)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5.

362)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6.

363) Seo Joong-Seok. Korean Nationalism Betrayed, UK: Global Oriental LTD., 2007, p.90.

364) Seo Joong-Seok, 앞의 책, p.91.

365) Seo Joong-Seok, 앞의 책, p.91.

366) Seo Joong-Seok, 앞의 책, p.91.

367)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70.

368) Seo Joong-Seok. Korean Nationalism Betrayed, UK: Global Oriental LTD., 2007, p.98.

정책은 계급 의식을 형성하였고, 조선과 일본 민족이 ‘공통 선조’ 라는 논리는 부유한 조선의 산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노농과의 계급적 갈등과 모순은 산업 또는 소작과 관련된 분쟁을 통해 심해졌다.<sup>369)</sup> 일본의 ‘분할 통치’ 정책은 식민 지배의 공고화를 목표로 했으며 그러한 기조는 한국 부르주아지에 대한 유화 정책에서 명백하게 발견된다. 높은 임차료와 소작권의 해체는 일본이 구축한 식민지 지주 체제의 보루 역할을 했다. 이 체제는 토지 측량의 종료와 함께 강화되었고 다양한 지주협회의 형성에 도구가 되었다. 또 한국농업협회는 농어촌 식민통치의 중추 역할을 했다.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국가를 추진하기를 열망했다. 일제는 한국 부르주아 계급에게 다양한 호의를 베풀고 정책을 수정하여 지원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농어사회에서 계급의 갈등이 생겼다. 다른 면에서 일본은 상류층을 달래고 한국 민족주의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민족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또한 소수의 부유한 조선인들이 식민지 정부의 일부의 재정 지원으로 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폐지했다.<sup>370)</sup>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도 증가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개량주의자들은 특권계급과 재산계급(Property class)에 속하거나 이 계급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 근대화 운동이 국가의 힘을 배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sup>371)</sup> 봉건제도에 있어서 문화 정책 개혁으로 조직이 더 쉬워졌고 1920년대에는 지주와 소작인의 분쟁이 증가했다. 지주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조선인이었고 많은 농민들이 이 지주들과 싸웠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약화하는 역할로 분할 통치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일제 사이의 더 큰 정치적 투쟁은 무시되었다.<sup>372)</sup>

또 식민지의 지배 전략의 한 양상은 한국인의 국내외 이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기 동안 조선 노동자의 국내외 이주는 쓰라린 유산을 남겼다. 식민지 조선의 도시 인구는 1930년과 1945년 사이에 3%에서 10%로 증가했다. 이주민의 대량 이동은 인구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을 높였다.<sup>373)</sup>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대량 이주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삶의 기회에 대한 기대와 계급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식민 지배의 누적 효과는 한국의 계급 갈등을 고조시켰다.<sup>374)</sup> 1941년 이후 전쟁 중 노동 동원은 대량 이주를 가속했다.

369) Seo Joong-Seok, 앞의 책, p.99.

370) Seo Joong-Seok, 앞의 책, p.99.

371) Seo Joong-Seok, 앞의 책, p.102.

372)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74.

373)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98.

결과적으로 토지가 없는 실업자들의 이주는 계급 갈등의 위험을 잠시 가렸다. 종전 후 송환된 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마음속에 품고 시골로 돌아왔다.<sup>375)</sup> 사회주의자들은 토지가 없는 지식인들과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그 이유는 노동자와 세입자를 조직한 경험이 더 많은 좌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험을 즉시 사용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해졌다.<sup>376)</sup>

이렇듯 인도 및 한국의 식민자는 식민 주체를 종족, 종교 및 정치적 이념에 바탕 둔 정체성으로 분할 했다. 영국의 인도 분단정책은 사람들의 종교적 차이에 기초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분단이 정치적 이념에 기초했다. 위에서 논했듯 인도와 한국의 분단 국가 수립 과정에서 식민지의 통치 전략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와 한국에서 식민지 통치 전략인 분할과 지배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인도에서 이는 말 그대로 식민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것은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결합으로 더 복잡해졌다. 인도의 분단은 식민자의 영향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깊이 논의 되어 있고 분단은 영국의 지배 전략의 결과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식민지의 지배 전략이 이념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역사학과 문학에서 외면당해왔다. 한국의 분단은 인도와 유사하게 식민지 지배 전략의 결과물이다. 한국의 분단이 주로 미소의 신식민주의 영향으로만 논의되어 온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분단의 요인을 외부 혹은 미소의 냉전 시대에 찾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소설에 나타난 대응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쿠스완트 싱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식민자의 지배 전략으로 인한 인도의 분단을 바라보는 것과 염상섭이 식민지의 전략을 바라보는 것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인도의 분단에 대한 쿠스완트 싱과 염상섭의 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글에서 외면당한 것과 분단의 담론에서 생략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식민 통치 정책의 결과물로 분단을 해석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종교간의 갈등은 주로 시크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그는 전-인도에서 이 종교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싱이 바라본 갈등의 원인이 식민지 지배 전략 혹은 분할 지배의 정책에서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쿠스완트 싱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서로의 적으로 만든 분할 통치의 식민정책에서 종교간의 적대감의 이유를 찾았다. 싱의

374)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1.

375)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1~102.

376)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103.



작품에서 식민지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로 인한 공동체적인 폭력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영국 식민정책으로 인도의 민중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파키스탄행 열차』를 통해 드러난다. 영국이 인도를 카스트, 종교, 언어, 지역으로 나누면서 분할 통치의 식민지 전략을 내세웠다는 것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폭력의 원인이 되었다. 식은 분단의 원인이 된 인도 사회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책임을 영국의 지배 전략에 돌리며 영국의 지배를 비난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의 분단은 인도의 새로운 지도자와 영국의 분할 통치의 결합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내부적인 요인은 식민지의 통치 전략에서 유래된 것이었다는 것이 지도자, 관료, 군인들로 등장한다. 식은 ‘모두가 살해하고 모두가 강간했다’ 라고 말한다. 이 ‘모두’는 여러 계급, 카스트 및 종교에 속한 인도의 민중이었고 식민지의 지배 전략 때문에 적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은 영국 지배자들을 사기와 기만으로 인도를 지배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영국 식민지의 통치 전략은 사회 집단의 갈등을 일으켜 분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인도 사회에 종교적 갈등의 뿌리를 심은 식민지 통치 정책에 대해 영국의 식민지를 비난하는 태도로 마노 마즈라가 그려져 있다. 식 마노 마즈라가 평화로운 마을이고 전 영국 관료들의 식민 숙취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마노 마즈라의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마노 마즈라 사람들의 비판은 인도 사회의 구성원 혹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우파, 좌파, 인도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식은 분할의 원인으로 식민지 전략으로 인해 인도 사회의 실패를 받아들인다. 대영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국의 지배 전략을 지속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들이 영국 통치자 못지않게 교활하다고 비난한다. 인도 사회에 분열의 씨앗인 식민 지배는 해방 이후 인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대규모의 학살, 이산, 이주를 일으켰다는 것이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명해진다. 인도 사회에서 이 분할 통치로 인한 민중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이 식민지에서 유래했다. 종교적인 갈등은 오래 전부터 인도 사회에 존재했지만, 식민지 정책으로 더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파키스탄행 열차』의 여러 장면에서 나타난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보다시피 이 식민지가 실시한 지배 전략은 내적인 특징이 있다. 즉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분단은 영국의 식민지배 전략인 분할 통치라는 인도 사회의 내부적 요인에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파키스탄행 열차』는 종교 간에 오래 지속되는 내적 분쟁의 내부적인 요인을 비난한다. 이것은 소설에서 분할에 동의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역할이 비판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내부적인 요인은 인물들의 태도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집단학살의 열등 속에서 공동체 광란(communal frenzy)에 참여한 민중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싱은 인도의 분할이 전적으로 민중이 서로의 적이 되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의 원인으로 식민지의 지배 전략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인도 사회의 식민 잔재에서 분단의 이유를 찾고, 그리하여 분단은 그야말로 탈식민지 숙취(Colonial Hangover)라는 것을 보여준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탈식민지 숙취(Colonial Hangover)는 인도 대중과 엘리트들도 깨닫지 못하고 분단과 새로운 국민국가 수립의 욕망에 빠졌다. 이 현상은 소설에서 후콕찬드와 지식인 이크발이란 등장인물로 구려져 있다. 후콕찬드는 식민지의 공권력자이고 이크발은 제국에서 유학한 자이다. 이들은 분단을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들도 식민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새로운 나라의 건국자들은 독립의 망상에 휩쓸려갔다. 이러한 독립의 망상은 영국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일 뿐, 사회적, 이념적, 조직적 식민지 체계로부터의 해방은 아니었다. 영국의 지배전략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다른 정체성으로 민중에게 각인되었고, 원래 평화롭게 공존하던 인도의 다른 종교와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는 어느 것보다 이러한 체계적인 식민주의는 해방 이후에도 종종 등장하며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된 두 개의 국민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고화되는 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쿠스완트 싱의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식민지의 지배 전략에 대한 비판이다. 이 비판적인 태도는 식민지 지배 전략의 기억으로 나타나며 해방 이후 인도인을 통해 식민지의 기억은 소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의 이런 태도를 염상섭과 비교해보면 대립되는 지점이 있다. 염상섭은 싱과는 대조되는 대응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세 편의 소설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서 위에 언급한 분단을 이끈 식민정책의 내부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일제는 35년 이상 한국을 지배했고 일본의 지배는 영국의 인도 지배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일본의 통치는 철권 통치였고 일본의 지배정책은 강제로 구현되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제국의 정체성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강제적 지배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제는 분할 정복 혹은 분할 통치의 지배정책을 사용했다. 그런데 인도와 반대로 한국의 분단에는 이중성이 있다. 즉 계급 의식의 결과물로 등장한 정치이념이 해방 이후 냉전의 정치와 동화하여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분단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분단의 뿌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식민지 전략은 위에 논한 ‘분할 지배’ 이고 한국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염상섭의 작품에서 민중간의 갈등은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념의 갈등은 국민국가의 수립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염상섭은 이념의 갈등이 미소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염상섭은 국가의 비극에 강대국이 마음대로 약소민족을 조종하려는 외세 미소군의 개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77)</sup> 미소 양군이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여 조국이 분열되어 있다<sup>378)</sup>는 것이다. 염상섭은 이북에서 소련군의 존재와 이남에서의 미군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sup>379)</sup> 염상섭은 미군을 외세 분단의 세력으로 지적하며 미군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한다고 말한다.<sup>380)</sup> 염상섭의 이런 미소군의 대한 반감은 그의 다른 작품에 더 분명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작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염상섭의 미소를 분단의 책임자로 여기는 것은 『효풍』과 『양과자잡』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소의 대립을 분단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효풍』에서 볼 수 있다.<sup>381)</sup> 『효풍』에서 염상섭은 미국을 신제국으로 면모한다.<sup>382)</sup> 『효풍』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된 냉전체제를 간신히 봉합한다<sup>383)</sup>는 것으로 고발한다. 염상섭은 「삼팔선」, 「이합」과 「재회」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며 분단을 미소와의 냉전 혹은 신제국의 영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염상섭의 작품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한 이념 갈등의 측면과 일제의 지배 전략이 분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염상섭의 「재회」, 「이합」과 「삼팔선」에 분단의 근간이 된 이데올로기를 구축한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인의 이념 갈등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는 미소의 존재를 분단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단순화의 우를 범한 것이다. 한국의 분단은 미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통치 전략의 결과물이었지만, 염상섭은 식민 지배 정책에서 이념적인 갈등의 근원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분단의 모든 책임

---

377)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170면.

378) 김재용, 앞의 글, 170면.

379) 김재용, 앞의 글, 170면.

380) 김재용, 앞의 글, 174면.

381) 김재용, 앞의 글, 307면.

382) 김재용, 앞의 글, 309면.

383) 김재용, 앞의 글, 311면.

을 외부 혹은 미소에 돌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미소라는 요인은 식민화의 종말에야 나타났고, 이 신식민주의는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미소의 신식민주의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일제의 식민화 정책은 35년 동안의 지배 전략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내부적인 요인이다.

자세히 보자면 염상섭은 정치적 이념의 구축으로 이어진 계급투쟁의 식민적 잔재를 무시하고 분단의 책임을 신식민주의의 외적 요인에 돌렸다. 쿠스완트의 소설과 염상섭의 소설을 비교해 보면 이런 대조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염상섭이 분단의 책임을 외부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미소의 주둔도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것도 외면한 것이다. 김윤식은 염상섭에 대해 이렇게 하였다. “만주의 체험, 탈출, 38선의 돌파라는 모든 것이 일본에 관한 것이었다.<sup>384)</sup> 이 것을 해석해보자면 한국에서 만주로 탈출, 만주에서 체험한 폭력, 38선의 돌파라는 모든 한국인의 경험은 일본 식민지의 지배 전략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해방 공간에서 나타난 분단은 식민지 혹은 내부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의 작품에 일제에 대한 대항과 일본의 지배 전략인 분할 통치에 대한 비판이 분명하지 않다. 일본을 패배자로 여기며 ‘동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염상섭은 상에 비해 분할을 피상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것은 「이합」의 한 장면에서 분명해진다. 예컨대 신숙의 변화된 태도가 소련이 가져온 좌파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려는 일제의 통치 전략인 식민지 근대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제 때 여성 교육은 특히 혁명적이었다. 여성 교육에 대한 오래된 금기는 세기의 전환기에 깨졌고 1920년대에는 모든 잡지가 현대 여성에 대한 담론(신여성)에 전념했다.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은 양복을 입고 대중 앞에 등장하고 이전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역할에 도전했다. 적어도 도시의 중산층 여성에게 식민지 근대성의 진화는 새로운 역할과 스타일을 창조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었다.<sup>385)</sup> 근대 여성운동과 문화적 민족주의가 낳은 신숙이의 태도 변화는 신여성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신숙은 “일제강점기와 식민정책에서 근원을 찾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태도를 보여준다.<sup>386)</sup> 신숙의 해방은 사회주의라는 신식민지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 지배 전략에서 나타난 근대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근대성도 일본의 지배 전략이었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일부 사회 구성원의 보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해방시켰다는 것도 하나의

384)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800면

385) Michael E. Robinson,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80.

386) Michael E. Robinson, 앞의 책, p.91, 92.

분할 지배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강점기에 잠복해 있던 한국 사회의 선택적 근대화는 해방 이후 폭발했다. 이 폭발에는 여러 양상이 있었다. 일제 지배 전략의 선택적인 근대화가 민중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염상섭은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식민지의 지배 전략으로만 보는 관점을 취한다. 염상섭의 작품에서 이것은 이념의 대립으로 등장하고 반 미소, 엄밀히 「이합」에서의 반소련의 감정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식민지의 유산인 식민지적인 근대성은 신속의 태도 변화의 원인이었다. 식민지 지배 전략의 여파는 지금까지 잠복해오다 해방 이후 이념적 차이의 가열된 상황으로 폭발했고 분단으로 끝을 맺었다. 또한 장한이 S-읍에 정착한 것도 식민지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식민지의 지배 전략으로 인하여 남한의 고향을 떠나 민주까지 이주하였다. 해방 이후 S-읍에서 정착한 곳이 적산집이었다.

따라서 염상섭은 분할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염상섭은 분단의 책임을 상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외부 혹은 미소와 냉전 체제에 돌렸다. 그러나 비슷한 식민지 경험을 겪은 두 작가의 이러한 태도상의 차이는 분단 당시 작가 자신이 처한 위치 때문이 있을지 모른다.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은 식민지배와 국가의 해방과 분단을 직접 경험했다. 두 작가 모두 식민지 본국에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 엘리트였다. 싱은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내부 사원의 일원이었다. 두 작가 모두 분단 이후 난민 문제의 피해자였다. 이 난민 경험으로 그들은 매우 개인화되고 현지화된 관점에서 분단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서 분단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에는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쿠스완트 싱은 식민 지배정책을 비난했지만, 염상섭은 식민지 지배 전략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았다. 쿠스완트 싱과 염상섭의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생애를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사회 인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영국령 인도의 편자브주의 타르 사막 근처, 젤람 강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 할달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현재 파키스탄에 있다. 가족은 부자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영제국을 위해 건축가로 일 하였다. 부친과 조부는 모두 대영제국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대영제국으로부터 나이트 작위를 받았다. 쿠스완트 싱은 초기 어린 시절을 할달리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고 교육을 위해 델리로 갔다. 쿠스완트 싱에 따르면 마을의 삶은 독특하지는 않고 평범한 것이었다.<sup>387)</sup> 인도 공무원직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현재 파키스탄

387) Khushwant Singh. Truth, Love and a Little Malice: an Autobiography, Delhi: Penguin

에 있는 라호르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쿠스완트 싱은 고등법원에서 평범한 변호사 경력을 쌓았다.<sup>388)</sup> 그는 라호르 법원에서 8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다. 쿠스완트 싱은 다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비록 쿠스완트 싱의 모국어는 펀자브어였지만, ‘문화 언어’는 우르두어였다. 우르두어는 인도에서 무슬림의 언어 또는 파키스탄에서 고용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싱은 우르두어 시인들을 좋아했고 페르시아어 글씨까지 알고 있는 학자였다. 시크교 종교 배경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불가지론자였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쿠스완트 싱은 ‘인도인’이 아닌 ‘파키스탄인’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고 직장을 다녔다. 해방 이후 분단이 되면서 그는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인도에서 도망쳤다.

반면에 염상섭은 1897년 8월 30일에 서울에 필운대와 야조현 중택의 있는 고가에서 태어나 소격동 종친 부옥에서 자랐고, 조부가 돌아가신 1906년에 종로 수소동 공립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세계와 신지식에 대해 동경한 그는 1912년 9월 10일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고생스러운 일본 유학 시절 조국에 대한 의식을 얻게 되었고, 1월 1920년에 귀국했다. 귀국한 후 동아일보 창간 멤버가 되어 정경부 기자로 활약하며 교사, 편집, 사회부장 생활을 했다. 1920년에는 동인지 폐허를 창간하고, 1921년에 소설가로 등단했으며, 15~16편의 소설을 쓰고 재도일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어 2년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29년 5월에 결혼했다. 1936년 만주로 떠나기 전까지 문예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던 그는 만주국 건설회사에서 홍보직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다. 만주국에서 해방을 맞이한 염상섭은 피난민의 여로를 따라 남한에 귀국한 후 서울에서 1946년 9월 경향신문을 창간하고 편집국장을 역임하며 성균관대에 출강하였다. 염상섭은 중산층에 속한 인물이자 일본 유학으로 식민지 근대성을 체화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쿠스완트 싱과 염상섭의 생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싱과 염상섭은 풍족한 집에서 태어나 식민지 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성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싱과 염상섭의 분단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염상섭이 분단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일본제국의 지배전략으로 인한 사상의 대립을 무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염상섭의 ‘부르주아 보수’ 혹은 중산층으로서의 정체

---

Books in Association with Ravi Dayal Publisher, 2003.

388) Reginald Massey, “Khushwant Singh obituary” *The Guardian*, Thu 20 Mar 2014.

성이고, 둘째는 분단 당시 그의 위치이다. 이것은 쿠스완트 성과 대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윤식은 염상섭의 작가로 고자를 풀려나는 한 방식은 “서울 중산층의 삶의 법도에 관한 탐구”<sup>389)</sup>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하며 작가 개인의 삶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 바가 있다.<sup>390)</sup> 염상섭의 증조부는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조부는 염인식 태조대와의 영정을 그리고 모시는 부사의 책임자였으며 역대 제왕의 영정을 모신 집을 중수하는 부사의 별감을 역임했다. 염상섭은 서울 중산층에서 태어나 서울 중산층의 언어를 사용하는,<sup>391)</sup> 유학생 출신 문학가<sup>392)</sup>였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염상섭은 일본에서 유학하며 식민지 근대성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작품활동을 시작한 후 그는 한국 사회의 중산층에 삶을 속하는 인물을 작중 인물로 삼았다.<sup>393)</sup> 즉 주로 중산층의 삶을 주제로 창작하였다. 해방 전에 그의 작품에서 이런 부르주아 의식이 뚜렷하다.

1930년대에 만주국에서 생활하다 해방을 맞이한 염상섭은 그 후 안동을 거쳐 서울로 귀향하여 ‘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분할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피해자가 아닌 부르주아와 ‘중산층의 지식인’의 특성이 있다. 염상섭은 중산층 계급에 속했으며 이념으로 인해 남한에서 박해받는 좌파도 아니었다. 그는 중산층과 중간파에 속함으로써 우익과 좌익 이데올로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도적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 염상섭에게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에게 북한은 한반도서 분할된 것이 ‘토지의 쪼갬’(loss of land) 것일 뿐이었다. 즉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은 토지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한국의 분단을 보았다는 것 같다. 남한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수립된 국민국가였기에,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염상섭은 계급 투쟁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승리한 계급의 편에 있었다. 따라서 우익 이념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분단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부르주아적 관점은 식민지 근대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글에는 식민자에 대한 동정심과 식민지 근대성을 지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염상섭 역시 남한의 토대를 형성한 다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중립적 정체성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중립적이지만, 분단을 겉으로만 볼 수 있었다. 즉 그의 중립적인 태도도 서울

38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794면.

390) 김윤식, 앞의 책, 9면.

391) 김윤식, 앞의 책, 8면.

392) 양문규, 「근대성 리얼리즘 만족문학으로의 도정」,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13면.

393) 김종균, 『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96면.

중산층의 안정적인 생활자의 태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분단 이후 서울에서 다시 귀향한 것이 염상섭을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만든다. 만약 염상섭은 서울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정착했거나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정착해야 했다면 똑같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따라서 염상섭이 분할을 가져온 일본 정책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닌 태도로 분단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의 원인이 그의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쿠스완트 싱의 분단 경험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분단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학살을 당한 종교에 속한 시크교도였다. 싱도 상류층 계급과 부르주아 가문에 속하기도 했지만, 분단의 희생자였다. 분단의 혼란 중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자기의 권력을 보호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원했지만,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큰 싸움에서 독자적인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힌두교의 일원이 되며 정체성을 상실했다. 쿠스완트 싱은 분할이 일어났을 때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라호르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에 있는 편자브주에서 시크교도들이 대규모의 학살당했고 이주와 피난민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싱은 인도에서 피난민으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슬람교도의 단일한 국가 정체성 형성에서 시크교도가 배제되었기에 쿠스완트 싱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에 정착한 피해자가 되었다. 싱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혼란 와중에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쫓겨나 분단의 고통을 겪은 시크교 소수자였다. 싱에게 파키스탄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조국이였다. 고향에 대한 기억은 새롭게 수립된 파키스탄이란 국민국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싱이 속한 시크교에서 이슬람교도의 파키스탄과 힌두교의 인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슬람교 대다수의 파키스탄이든 힌두교 대다수의 인도든, 시크교는 양 국가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러므로 염상섭은 분단을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단은 식민지의 지배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계급 의식과 신식민주의의 출현이 결부된 복합적인 산물이다. 그런데 염상섭의 분단에 대한 시각은 식민지의 기억을 망각하고 신식민지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김종욱<sup>394</sup>의 용어를 빌리자면 염상섭은 ‘피해자의 기억’을 망각했고 신식민지의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쿠스완트 싱은 삶의 상당 기간을 파키스탄에서 보내고 파키스탄에서 도망친 것이 싱의 체험은 염상섭과 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싱은 분단 후에도 파키스탄을 자주 방문했고 파키스탄을 자기의 다른 집이자 고향으로 불렀다. 파키스탄

394) 김종욱,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 『현대문학의 연구』, 35집, 2008.



에서 보낸 날의 기억은 항상 그를 괴롭혔다. 이에 따라 싱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식민지의 근대성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분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또는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는 종교적인 차이만 있을 뿐 문화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 집단적인 기억과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기억이 식민지의 지배 전략으로 파괴되어 새로운 국민국가와 새로운 종교적 국민 정체성의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했다는 것이 『파키스탄행 열차』에 뚜렷하게 등장한다.

## 4.2.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의 대항으로써 글쓰기

분단사는 대부분으로 승리나 악몽의 기록으로 쓰여졌다. 분단사는 '강력한 내러티브'의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다른 공동체의 형이상학적 정체성과 집단적 운명에만 관심이 있다.<sup>395)</sup> 역사는 민중의 일상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시간에서의 행동을 논하지 않는다. 분단사는 과거에 '회고적 명료성'과 합리성을 부여한 목적론적 역사이다.<sup>396)</sup> 국가가 만들어낸 내셔널리스트 역사는 항상 새로운 국민국가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분단 때 기록된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은 항상 충성하는 국가의 창설을 정당화했고 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분단의 합리성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가 없었다. 이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뻘데이(Gyanendra Pandey)가 “혼란스러운 투쟁과 폭력, 희생과 상실, 새로운 정체성과 충성의 잠정적인 위조의 역사“라고 했다.<sup>397)</sup> 더불어 민족주의 언론으로 분단의 개인적인 내러티브는 왜곡되었다. 내셔널리스트 언론은 분단을 기억하기보다 망각하는 것의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은 식민지 역사를 단절시키고 민중의 정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대한 국가를 만들려는 희망찬 역사를 강요하게 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기억을 상상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해방이 가져온 황폐는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의 내러티브에서 외면당하거나

395) Robert Jay Lifton and Eric Markusen, *The Genocidal Mentality: Nazi Holocaust and Nuclear Threat*, London:Macmillan, 1988, p.12.

396) Paul Ricoeur, Kathleen McLaughlin, David Pellauer, *Time and Narrative.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157.

397) Gyanendra Pandey, “In Defense of the Fragment: Writing about Hindu-Muslim Riots in India Today.” *Representations*, no. 37, 1992, p.30.

왜곡되었다.

그런데 문학은 개인의 기억에 입각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교차하고 대항하며, 분단을 겪고 살아온 민중의 개별적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sup>398)</sup> 해방 경험은 사람마다 달랐으며 국민국가가 해방을 더 큰 사건으로 설립하고자 했고 분단의 피해자와 분단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망각하는 시도를 했다. 즉 해방은 성대한 수준에서 기념회 (memorialized)되었다. 로이(Anjali Roy)는 인도 분단 때 살해, 학살과 절단 또는 난민의 수에 대한 객관적인 수가 경험의 회상을 통해 개인화되고 인간화된다고 주장한다. 문학에서 본 세밀한 설명은 민족 역사적 기록의 큰 범위를 통하지 않고 죽음, 신체, 절단 또는 이산의 비극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해 더 인간적이고 즉각적인 기록을 생성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sup>399)</sup> 그래서 문학은 국민국가의 형성의 출발점인 해방의 외침과 함성 사이에 소외된 민중의 대항적 목소리가 되었다. 분단에 황폐에 민중의 공공 기억 속에 살아있고 문학은 분단에 대한 개인화된 진술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가정“의 사적 및 국내 영역으로 전환하고 인도와 한국에서 분단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국가의 “이념“을 배치하고 재정의한다. 종교나 이념에 바탕 둔 국민 정체성의 불안정성과 인공성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 나타난다. 발라(A. Bhalla)는 인도의 분단 문학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간 내에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문화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sup>400)</sup> 소설가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기억지도처럼 읽히는 내러티브를 펼친다.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소설은 작가의 경험을 통해 과거를 재정리하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소설들은 사적인 경험을 역사와 연결함으로써 인도와 한국의 분단 혹은 국가 수립을 연결한다. 싱과 염상섭의 작품은 공동의 문화적 삶과 그들의 고통을 유사하게 삼고 있으며 분단 이전 시대의 공유된 역사와 민중 서로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파키스탄행 열차』, 「삼팔선」, 「이합」과 「재화」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내셔널리스트 역사와 대항하는 것이 유사하다.

염상섭은 한반도 분단을 논하는 것보다 민중의 곤경과 고통을 기록한다는 것에 주점을 두었다. 「삼팔선」은 남한이나 북한의 수립이나 필요성에 대해 논하지 않고 만주에서 쫓겨난 피난민들 고통의 연대기이다. 「삼팔선」은 사람들

---

398) Anjali Roy, *Memories and Postmemories of the Partition of India*, London: Routledge, 2020. p.27.

399) Anjali Roy, 앞의 책, p.34.

400) Alok Bhalla, “Memory, History and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the Partit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4, no. 44, 1999, p.3120.

의 겪은 고통의 경험으로 형성된다. 『이합』과 『재회』에도 장한의 말은 단일한 정치적 이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새로운 국민국가로 인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싱은 파키스탄 건국의 논리를 논하기보다 한때 이웃이자 친구이자 지인이었던 사람이 자행한 폭력은 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싱은 파키스탄의 수립에 대한 논리를 피하고 해방의 공허함을 비판하면서 민중의 고통을 보여주고 분단을 해방보다 더 큰 사건으로 규정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두 작가의 작품은 분단을 외면하면서 해방에 초점을 둔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비판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기억과 망각의 현상을 이용하여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대항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게 된 마노 마즈라 마을의 이슬람교도나 38선을 건너기 위해 한반도 북부를 여정해야 하게 된 「삼팔선」의 ‘나’는 피난민이 된 민중의 개인 기록이다. 이것은 김경수의 말 ‘「삼팔선」을 분석하는 데 작가 자신이 38선 이남으로 남하하던 과정을 순간 순서대로 풀어간 작품’이라는 말을 빌리면 더 명확해진다.<sup>401)</sup> 「이합」과 「재회」에서 국민국가의 수립에서 제거된 이념적 타자인 장한도 민중이 처한 위기의 한 사례이다. 비록 허구(fiction)이지만 실제 장소와 사건의 묘사 때문에 소설은 매우 현실적이라서<sup>402)</sup> 소설에서 언급된 사건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 분단 과정에는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염상섭의 작품과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볼 수 있다.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은 이런 민중의 고통과 곤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파키스탄행 열차』, 「삼팔선」, 「이합」과 「재회」는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산(M. Hasan)은 인도 분단 문학에 대해 분단 문학의 대부분 작품이 지도자와 그들이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하산(M. Hasan)의 이런 논의를 염상섭의 소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합」에서 장한은 트루먼 만세, 스탈린 만세의 구호가 미웠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장한은 조선인의 희생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의 결과인 한반도 해방의 영웅이 외부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장한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분법은 단일한 민족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게 시키는 것은 지도자들의 탓이다. 이것은 이완범이 파악한 ‘외부 세력인 스탈린, 트루먼과 지지한 한국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함께 소련과 미국 간의 권력 투쟁인 냉전은

401) 김경수, 「염상섭 단편소설의 전개과정」, 『서강인문논총』, 제21호, 2007, 15면.

402) 김경수, 앞의 글, 17면.

한반도를 분단한 원인이라는 것과 일치한다.<sup>403)</sup> 따라서 염상섭은 지도자를 비판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후쿰찬드는 인도를 분열한 네루와 간디의 제자를 비판하고,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제시한다. 후쿰찬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소속과 무관심하고 정치적 중간파에 속한 민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크발은 해방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해방은 민중에게 경제적 해방을 가져오지 않은 데다가 분단을 일으켰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크발은 해방은 정치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만 바꾸고 민중의 고통의 원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크발은 표면적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한 예이다. 염상섭이 구렸던 『삼팔선』에서 38선을 건너도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은 장면도 유사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이 표면적 해방으로 민중이 '유권자' '뽀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중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고 그들이 생계를 얻으려 아무런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의 태도는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민중의 정서, 소망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치는 것을 비판한다. 이렇므로 내셔널리스트 역사학에서 외면된 분단에 대한 저항과 표면적인 해방의 비판은 싱과 염상섭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구려져 있다. 「삼팔선」의 '나' 「이합」과 「재화」의 장한, 『파키스탄행 열차』의 마노 마즈라의 주민을 통해 분단에 대한 저항이 등장한다.

염상섭과 싱의 작품의 다른 유사점은 내셔널리스트 역사가 제외한 개인의 경험, 지역적 경험을 통해 분단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내셔널리스트 역사는 분단 과정과 원인 또는 필요성을 찾아 분단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분단 문학은 민중의 이주, 고난으로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비판하는 것이다. 싱은 인도 첫 총리 네루의 '운명과 밀회'를 비판하면서 해방의 허구성을 찾아냈다. 해방은 민중의 자유 아니라 분단으로 민중의 고통, 학살, 강간을 일으켰다는 것이 염상섭과 싱의 작품에서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이합』, 『재회』와 『파키스탄행 열차』는 사건의 일반화가 아니라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특수화 혹은 개인화이다. 작가의 상상력은 사람들의 '일상' 경험을 대변한다. 염상섭은 부인의 외모 때문에 『삼팔선』의 관료들이 일본인이 있는 여부를 묻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특정화의 한 예이다. 염상섭은 남한에 내려갈 때 기차를 타기 전 아내의 외모 때문에 군인에게서 일본인이냐는 의심받았다는 것을 경험했다.<sup>404)</sup> 『삼팔선』에서도 '나'가 일본인인 여부를 묻는 것은 염상섭의

403) 이완범, 『(1945-1948)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203면.

404)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736면.

개인 경험이다. 또 '나'가 남한에 여정한 길에 보게 된 선전 포스터는 한반도에서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의 현지화된 개인의 세밀한 설명이다. 한반도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선전의 역할의 지역적인 진술이다. 조국에서 의심 받거나 고문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미세한 경험은 내셔널리스트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음식은 비싸고 수확도 좋지 않았다” 라는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데올로기로 비난받는 ‘나’의 두려움은 민중의 관점에서 분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과 현지적 경험의 사례들이다. 마찬가지로, 『이합』에서 장한이 우익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 국민국가를 형성한다는 과정에서 민중의 공포와 억압에 대한 미시사적 개인적인 진술의 예이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끔찍한 폭력을 당한 순다르 싱과 순다리의 이야기는 지역적 경험의 기억과 개인적 경험의 기억의 증거이다.

『이합』에서 학생들은 러시아 혁명 기념일을 봉축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중보다 국가 건설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봉축 행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러시아 혁명 기념일을 거행하는 것이 국가의 분단과 민중의 고통을 사소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의 사례이다.

따라서 작품은 민족주의적 역사와 모순되는 민중의 곤경과 분단에 대한 개인적인 진술에 초점을 맞춘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싱과 염상섭은 ‘인간의 차원’에서 분단을 나타내기에 성공했다. 두 작가의 ‘개인적 경험’은 인간의 감정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크발이 해방을 진정한 해방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없는 새 나라를 책망하는 감정은 한 사례이다. 누란과 자가 다른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이별은 다른 ‘인간적 차원’의 사례이다. 『삼팔선』에서 ‘나’는 가족과 K군에 대한 애정 또는 X 청년에 대한 의혹도 이런 ‘인간적 차원’의 사례이다. 이러한 감정과 고뇌는 문학에서는 다뤘지만, 분단의 내셔널리스트 역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 5. 결론

본고는 한국의 분단을 항상 내부 혹은 한국의 분단문학으로만 보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의 분단 문제를 내부로 보면 항상 단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 분단된 국가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이 분단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해보는다면, 이를 통해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포괄적인 새로운 시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피식민지화 과정에서 분단된 국가 중 한국과 인도를 비교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했다. 식민지는 피식민 국가의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유럽의 식민지와 동아시아의 식민지를 비교하면, 식민지 경험의 공통된 틀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의 염상섭과 인도의 쿠스완트 싱의 작품을 통해 인도와 한국의 분단 문학을 탈식민주의 이론과 기억과 망각의 융합한 이론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본고에서 염상섭의 중기 단편 「삼팔선」, 「이합」, 「재회」와 인도의 작가 쿠스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통해 분단과 식민 이후 국민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해봤다. 이 두 명의 작가를 통해 분단의 문제와 국민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탈식민 국가의 수립 과정을 관찰했다.

2장에서 인도의 분단을 쿠스완트 싱의 소설 『파키스탄행 열차』로 살펴봤다. 소설에서 싱은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던 마노 마즈라 마을을 분단의 폭력과 국민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무대로 설정했다. 『파키스탄행 열차』에서 싱은 분단 상황에서 종교적인 정체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영국 지배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국의 분할 지배 전략은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인도의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그렸다. 식민지 지배의 이와 같은 잔재는 분단을 일으켜 집단 학살로 이어졌다. 싱은 종교 정체성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분단을 영국 식민지배의 정치 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도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태도로 인한 분단을 탈식민지라는 것으로 그렸다. 쿠스완트 싱은 종교적인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양상으로 집단 학살, 대규모의 폭력, 이산 문제를 그렸다. 그는 군인, 경찰, 지도자, 관료 모두 폭력을 가한다고 했다. 싱은 분단 상황에서 일반인도 학살, 상해, 강간에 참여했다고 한다. 권력자, 부자, 정치인들은 분단의 트라우마로부터 비교적 덜 고통받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은 분단을 이용해 보상받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분단 때 벌어진 대학살과 강간과 상처로부터 시달리고 살해당했다. 분단의 가장 가시적

인 문제는 분단으로부터 발생한 피난민 문제였다. 사람들의 이별은 물질적인 것이자 정서적인 이별이고, 분단으로 인한 또다른 불행한 결과물이었다. 피난민들이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폭도들에 의해 학살되었던 경우가 빈번했다. 작품 속에서 분단의 여파로 나타난 것이 한 양상은 타자화이다. 분단 이후 이러한 타자화는 회복할 수 없는 종교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쿠스완트 싱은 작품에서 국민정체성 형성과정 중 나타난 국가 분단이 이산, 이주와 여성의 수난으로 구체화되는 점을 그렸다.

3장에서 염상섭의 세 편의 중기 단편소설 「삼팔선」, 「이합」, 「재회」를 통해 해방 직후 분단으로 인한 민주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사상의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살펴보았다. 염상섭의 작품은 사상적인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치며 분단이 되었다는 점을 묘사했다. 이와 같은 분단의 원인은 정치사상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식민주의 특성도 있고 신식민주의 특성도 있다. 염상섭은 사상적인 대립의 양상을 「이합」의 김장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그렸다. 장한의 가정이 분단되는 것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비슷한 것이며, 염상섭은 이러한 가족 내 사상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사상의 충돌은 국가 또는 가정이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국가 수립과 국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는 국민 사이에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좌우의 사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고문당한 것이다. 염상섭은 좌우의 대립을 통해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했다. 염상섭은 한국의 현상을 소련군과 미군의 존재를 제시하며 주권국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렸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염상섭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삼팔선」에서 피난민들이 두려워하는 주체는 이동을 통제하는 소련군, 보안대 등과 같이 국가가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이다. 염상섭은 국가의 운명이 해방 이후 외세인 군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신식민주의의 변모라는 외세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폭력, 사회적 양극화, 제도화된 차별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폭력이 발생했다. 이 폭력은 물리적인 것이고 비물리적인 것이었다. 염상섭은 해방과 분단의 허무함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합」에서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분단의 한 여파로 나타나며, 「삼팔선」에서도 난민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은 모습이 그려진다. 이산은 분단 당시 조선의 현실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해 월남과 월북을 선택했다. 이들은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고향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4장에서 인도와 한국의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작가들의 감각을 비교했다. 인도와 한국 작가들이 분단을 감각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염상섭은 서울 토박이 소년이었고 중산층에 속한 일본에서 유학한 문학가가 있었다. 그리고 쿠스완트 싱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변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학계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분단을 감각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다. 염상섭은 식민지의 지배 전략 혹은 분할 지배라는 정책이 한국의 분단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무시했다, 반면에 쿠스완트 싱은 인도 분단의 책임자였던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의 통치 전략을 비판했다. 쿠스완트 싱은 소설에서 분단의 원인을 영국 지배에서 찾아내고 비판했다.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책임이 영국 통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인도의 분단을 일으킨 식민 통치의 정책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영국인을 사악한 정책으로 인도를 통치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독재 정권과 영국이 떠난 후 통치하게 된 새로운 지도자들 모두를 비판했다. 다시 말하자면 싱은 식민지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민중이 받게 된 고통의 원인이 영국 지배에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염상섭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일제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식민지 정책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다. 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만주로 탈출했다. 한국의 민중은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 강점기에 계급 의식과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해방 후 발생한 좌우 이데올로기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좌우 대립은 더 나아가 냉전 시대의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염상섭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한 일본인들에게 애도의 태도를 표한다. 그 대신 염상섭은 미국과 소련이 가져온 사상의 이분법에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찾았다. 그는 소련과 미군의 주둔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보여준다. 분단의 책임자로 신식민지배자인 소련과 미국을 고발한다. 염상섭의 이런 태도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망각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각의 차이는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의 사회상과 생애 때문이다. 즉 이들이 분단때 서 있는 위치때문이다. 염상섭은 남한 사람이며 분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잃은 것이 없었다. 오히려 염상섭은 분단 때 남한에 돌아와 안정감을 취했다. 반면에 쿠스완트 싱은 분단의 피해자였다. 그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분단을 경험했다. 분단 때 시크교에 속함으로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큰 이분법에서 자기 종교 정체성이 힌두교에 흡수된 시크교로 분단을 감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분단을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염상섭은 분단을 신식민지의 영향으로만 보았고, 이것이 염상섭으로 하여금 분단을 단순화하도록 만



든 것이다.

한국의 분단을 인도의 분단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탈식민지 분단은 복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에는 신식민지가 도입되었다. 신식민지는 냉전 체제의 결과물이고 한국 사회를 좌파와 우파로 나눴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 우파의 이분법은 신식민지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의 대립은 식민지 지배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식민지의 분할과 지배의 통치 전략은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나눠 계급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식민지는 분할 지배의 한 도구로 이용한 개혁을 통해 한국의 사회를 여러 파로 분할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해방 이후 회상되어 심각한 사상의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상의 갈등은 신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지도자와 국민의 욕망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의 설립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염상섭과 쿠스완트 싱은 소설을 통해 분단의 내셔널리스트 역사를 대항했다. 내셔널리스트 역사 역사는 해방과 국민국가의 형성 위대한 사건으로 기념하여 분단을 무시했다. 인도와 한국의 분단은 양국의 국민에게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 소설가로서 염상섭과 싱은 해방의 여파인 분단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적과 개인적인 진술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은 외적 혹은 신식민지의 도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 혹은 일본 식민지의 매우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분단에 있어서 식민지의 영향도 깊이 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분단을 바라보는 작가는 분단을 단순하게 봤다. 염상섭은 한국의 분단을 신식민지의 결과로 봤다는 것이 분단을 냉전 체제의 한 정치적인 문제로 단순화한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단의 뿌리는 식민지 지배 전략에 있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국의 분단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혹은 한국의 분단을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식민지의 지배전략은 한국에서 이념의 갈등을 심었다. 이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 식민지가 한국 사회에서 심은 계급 의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에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싱, 쿠스완트, 박태진(역), 「파키스탄행 열차」, 『파키스탄행 열차 /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 민중의 지도자』, 한길사, 1981.
- 염상섭, 『염상섭전집10』, 민음사, 1987.
- Singh, Khushwant, *Train to Pakistan*, New Delhi: Penguin Books, 2016.

### 단행본:

-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2』, 고려원, 1991.
- 권영민, 『염상섭 연구』, 새문사, 1982.
-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 김열규·신동욱 편, 김화영, 「취우론」, 『염상섭 연구』, 새문사, 1982.
- 김용직 외, 『현대한국작가연구』, 민음사, 1976.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 김재용,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 김종균, 『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4.
-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 염상섭, 김경수 책임 편집, 「두 파산」 : 『염상섭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6.
- 이병수, 통일인문학연구단, 『기억과 증언 : 소설로 읽는 분단의 역사』, 썬크스마트, 2020.
-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 이완범, 『(1945-1948)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내적형식과 탈식민성』, 태학사, 2013.
-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차일즈, 피터와 윌리엄스, 패트릭(저), 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 2004.
- Butalia, Urvashi, *The Other Side of Silence : Voices from the Partition of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 Childs, Peter and Williams, Patrick,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London: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1997.
- Cummings, Bruc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Daiya, Kavita, *Violent Belongings: Partition, Gender, and National Culture in Postcolonial India*. Philadelphia, Pa: Temple Univ. Press, 2011.
- Didur, Jill, *Unsettling Parti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2016.
- Erll, Astrid and Nünning, Ansgar,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08.
- Erll, Astrid, *Collective memory and cultures of remembrance*, Stuttgart: Metzler, 2011.
- Gilroy, Paul, *After Empire: Melancholia or Convivial Cul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4.
- Guha, Ranajit, *History at the Limit of World-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2.
- Hasan, Mushirul, *The Legacy of the Nation Divided*,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Huggan, Graham, *The Oxford Handbook of Postcolonial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Jacob, Frank, *Stereotypes and Violence*, Neofelis: Verlag, 2017.
- Lappierre, Dominique and Collins, Larry, *Freedom at Midnight*. New Delhi: Vikash Publishing, 1990.
- Lewis, Martin Deming, *The British in India: Imperialism or trusteeship?*, Boston: Heath. 1962.
- Lifton, Robert Jay and Markusen, Eric, *The Genocidal Mentality: Nazi Holocaust and Nuclear Threat*, London: Macmillan, 1988.
- Marshall, Peter James,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Nandy, Ashis, *The Intimate Enemy :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 New Delhi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Pandey, Gyanendra,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izzi, Katia and Göttsche, Dirk, *Memory and Postcolonial Studies Synergies and*

- New Directions*, Oxford: Peter Lang Ltd International Academic, 2019.
- Ricoeur, Paul, *Time and Narrative.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Robinson, Michael E,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Roy, Anjali, *Memories and Postmemories of the Partition of India*, London: Routledge, 2020.
- Roy, Rituparna, *South Asian partition fiction in English: From Khushwant Singh to Amitav Ghosh*,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1993.
- Said, Edward, *Orientalism*, London: Penguin Classics, 2003.
- Schaeffer, Robert, *Severed States: Dilemmas of Democracy in a Divided World*, Lanham: Rowman & Littlefield, 1999.
- Schaeffer, Robert, *Warpaths: The Politics of Partition*, New York: Hill and Wang, 1990.
- Seo, Joong-Seok, *Korean Nationalism Betrayed*, UK: Global Oriental LTD., 2007.
- Singh, Khushwant, *Truth, Love and a Little Malice: an Autobiography*, New Delhi: Penguin Books in association with Ravi Dayal Publisher, 2003.
- Srinivasa, Iyenger K. R, *Indian writing in English*,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1985.
- Talbot, Ian and Singh, Gurharpal, *The Partition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Trivedi, Harish and Mukherjee, Meenakshi, *Interrogating Postcolonialism: Theory, Text and Context*,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1996.
- Uerlings, Herbert, "Ich bin von niedriger Rasse", *(Post-) Kolonialismus und Geschlechterdifferenz in der deutschen Literatur*, Cologne, Weimar: Böhlau, 2006,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Harmondsworth: Penguin, 1970.
- Williams, Patrick and Chrisman, Laura,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4.

## 국내 논저:

- 김 현, 「염상섭과 발자크」, 『서울대학교양논문집』, 1971.

- 김동춘, 「한국 사회 과학에서의 탈식민의 과제」, 『비평』, 3호, 2000.
- 김우중, 「산문정신의 구도자」, 『문학사상』, 제6호, 1973.
- 김윤식, 「염상섭」, 『문학과지성사』, 1977.
- 김재용, 「해방 직후 염상섭과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0집, 2015.
- 김종욱,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 『현대문학의 연구』, 35집, 2008.
- 김치수, 「자연주의 재고」, 『한국현대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 김홍규, 「1920년대 초 한국자연주의문학재고」, 『고대문화』, 1970.
- 나병철, 「한국문학과 탈식민」, 『상허학보』, 14집, 2005.
- 박성태,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3호, 2021.
-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 『구보학보』, 23집, 1호, 2019.
- 박수빈. 「해방기 염상섭의 시대감각 연구- 해방기(1946~1949) 염상섭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2집, 2017.
-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스티븐 휴 리, 나지원, 「분단국가들의 내전」, 『아시아리뷰』, 5집, 1호, 2015.
-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 염형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배제를 위해 선택한 ‘생활자’의 지향점 - 염상섭의 「離合」과 「再會」를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75호, 2021.
- 염형운, 「해방후 염상섭 단편소설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3.
- 이민영, 「낮선 고국으로의 귀향과 탈식민사회의 근대 -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팔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5호, 2022.
- 이병순, 「염상섭의 후기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10호, 1993.
-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48호, 2011
-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51면

- 이혜령,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4호, 2012.
-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한불연구』, 1974.
- 정한숙, 「염상섭문학의 사회성과 세태풍정」, 『아세아 연구』, 53호, 1975.
- 정호웅, 「염상섭의 전기문학론」,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 6집, 1985.
- 조병도, 「염상섭 건국기(1945~1950)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토마르, 안슈만, 서덕순, 「인도 분단 소설에 나타난 비극의 양상 연구-쿠쉬완트 싱의 「파키스탄행 열차」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8호, 2021.

## 국외 논저

- Aiyar, Swarna, “August anarchy: The partition massacres in Punjab, 1947.” *South Asia: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Vol. 18, 2007.
- Basu, Aparna, “Colonial Education : A Comparative Approach” , *Proceedings of the Indian History Congress*, Vol. 50, 1989.
- Benita, Parry,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vol. 9, no. 1,2, 1987.
- Bhalla, Alok, “Memory, History and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the Partit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4, no. 44. 1999.
- Chakladar, Arnad, “The Postcolonial Bazaar:Marketing/Teaching Indian Literature.” , *Ariel-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Vol. 31, 2000.
- Charu, Chitra, “Treatment of Partition in Attia Hosain’ s Sunlight on a Broken Column,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Rahi Masoom Reza’ s Adhagaon, Bhishm Sahni’ s Tamas: A Comparative Study” , Dr. B. R. Ambedkar University Agra, PhD Thesis, 2000.
- Chopra, Radhika, “Partitioned Lives in Khushwant Singh’s “train to Pakistan“ and Manju Kapur’s “difficult Daughters“.” *Indian Literature*, Vol. 54, no. 3, 2010.
- Dangwal, Kamlesh, “The Trauma Of Partition A Study Of Train To Paksitan Azadi Tamas And Ice Candy Man.“, Kumaun University, PhD Thesis, 2009.

- Das, Veena, "Specificities: Official Narratives, Rumour,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Hate" , *Journal for the Study of Race, Nation and Culture*, Vol. 4 no.1, 1998.
- Gilmartin, David, "The Historiography of India's Partition: Between Civilization and Modern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74, no.1, 2015, p.24.
- Gundur, N. S, "The theme of partition in Indian literature in English with special reference to fiction" , Karnatak University, PhD Thesis, 2004.
- Hasan, Mushirul, "Memories of a Fragmented Nation: Rewriting the Histories of India's Partit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3, no. 41, 1998.
- Henry, Todd, "Sanitizing Empire: Japanese Articulations of Korean Otherness and the Construction of Early Colonial Seoul, 1905-191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4, no. 3, 2005.
- Jadeja, Kuldipsinh Dilipsinh, "The partition of india and its reflections in the select english and hindi novels A comparative study." , Mewar University, PhD Thesis, 2018.
-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 *Social Text*, vol.15, 1986.
- Jason Francisco, "In the Heat of Fratricide: The Literature of India's Partition Burning Freshly" *Annual of Urdu Studies vol. 11*, 1996.
- Jill Didur, "Fragments of Imagination: Rethinking the Literary in Historiography through Narratives of India's Partition", *Unsettling Partition: Literature, Gender, Mem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6.
- Kim, Dong-No, "National Identity and Class Interest in the Peasant Movements of the Colonial Period" ,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1910-1945*, edited by Hong Yung Lee, Yong Chool Ha, and Clark W. Sorensen, Seattle and London: Center for Korea Studies Publi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 Kim, Michael, "The Lost Memories of Empire and the Korean Return from Manchuria, 1945-1950: Conceptualizing Manchuria in Modern Korean Histor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3, 2010.
- Kim, Sang Soo,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Intertextuality and Agency", *영국연구* vol.17, no.0, 2007.
- Lionel, Babicz, "Japan-Korea, France-Algeria: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 Japanese Studies*, vol. 33-2, 2013.
- Loomba, Ania, "Race and the Possibilities of Comparative Critique" , *New Literary History*, Vol. 40, No. 3, Summer 2009.
- M. Vinothini, "Double Victimization in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A Postcolonial Feministic Reading.", *Journal of Xi'an University of Architecture & Technology*, Vol. 13. no. 3, 2021.
- Maradi, Sumangala, "The Theme of Partition in Manohar Malgonkar' s A Bend in the Ganges,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and Chaman Nahal' s Azadi.", *The Criterion: An International Journal in English*, Vol. 10, no. 1, 2019.
- Milli, Umme, "The attitude of Amitav Ghosh and Khushwant Singh on nationalism and partition in The Shadow Lines and Train to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Vol. 4, no. 6, 2019.
- Naik, Vaishali, "A study of the Indian partition as seen through selected works of literature and history.", Savitribai Phule Pune University, PhD Thesis, 2013.
- Nehre, K. P and Bhabad, P. R, "Representation of Women in *Train to Pakistan* by Khushwant Singh" , *Asian Research Consortium: Asian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 4, No. 8, 2014.
- Pandey, Gyandendra, "In Defense of the Fragment: Writing about Hindu-Muslim Riots in India Today." *Representations*, no. 37, 1992.
- Pandey, Gyandendra, "The Prose of Otherness." *Essays in Honour of Ranajit Guh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andey, Gyanendra, "The Long Life of Rumor."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 27, no. 2, 2002.
- Paul, Shishu, "Human relationships and political upheavals: a study of select novels of Khushwant Singh Kamala Markandaya and Nayantara Sahgal" , Himachal Pradesh University, Phd Thesis, 2009.
- Pierskalla, Jan Henryk, and Juan, Alexander De, "The Comparative Politics of Colonialism and Its Legacies: An Introduction." *Politics & Society*, Vol. 45, no.2, 2017.
- Porter, Carolyn, "History and Literature: 'After the New Historicism.'" *New Literary History*, vol. 21, no. 2, 1990.



- Potter, S.J and Saha, J, “Global History, Imperial History and Connected Histories of Empire.” *Journal of Colonialism and Colonial History*, vol. 16, no.1, 2015.
- Rahman, Aziz et al, “The British Art of Colonialism in India: Subjugation and Division.” *Peace and Conflict Studies*, vol. 25, no.1 article.5 2018.
- Raichura, Komal, “Politics of religion in Partition Novels: Rahi Masoom Reza’ s Adha Gaun and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and Literature*. vol. 5, No. 8, 2014.
- Rehman, Saeed-Ur, “Decolonizing Post-colonial Theory” , *Kunapipi*, vol. 20, no.2, 1998.
- Riso, De Giuseppe, “Memory and Negotiations of Identity in Train to Pakistan.” *Le Simplegadi*, vol.16, no. 18, 2018.
- Roy, Asim, “The High Politics of India’ s Partition: The Revisionist Perspective.” *Modern Asian Studies*, vol. 24, no. 2, 1990.
- Sankar, G, “Political Turbulence in Kushwant Singh and Chaman Nahal Selected No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Vol. 2, no. 7, 2014.
- Sarkar, Imrul Kayes Alam, “Political Upheaval and Communal Frenzy as Witnessed in Kushwant Singh’ s Partition Narrative Train to Pakistan” , *European Academic Research*. vol. 3, no. 11, 2016.
- Saxena, Pooja, “Review on three partition novels written by Indian writers.” *Research Journal of Language, Literature and Humanities*. Vol. 3, no. 3, 2016.
- Seal, Abhijit, “Historical against Literary: Some reflections on Partition Meta Narratives of selected Indian Texts” , *Mapping Postcolonial and Subaltern Perspectives*, Chennai: Notion Press, 2001.
- Setia, Satyam, “The Theme of Partition In Indo Anglian Fiction With Reference to the Novels of Kushwant Singh B Rajan A Hosain M Malgonkar C Nahal And S Rushdie” , Dr. B. R. Ambedkar University Agra, PhD Thesis.
- Singh, Kunjo, “Conflict of Cultures and Ethnic Violence in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Modern Research Studies*. vol. 1, no. 2, 2014.
- Sundararajan, K, “Positive aspects in Khushwant Singh’ s fiction” , Bharathidasan University, PhD Thesis, 2004.

- Taeber, Irene B, and Barclay, George W, “Korea and Koreans in the Northeast Region,” *Population Index*, October 1950.
- Trewartha, Glenn, and Zelinsky, Wilbur,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1949,” *The Geographic Review*, vol. 45 1955.
- Villavan, V, “Reading of Trauma in Khushwant Singh ‘s Train to Pakistan Ashokamitrans The Eighteenth Parallel and Taslima Nasrins Lajja” Bharathidasan University, PhD thesis, 2020.
- Wallenius, Marja-Liisa, “The Concept of ‘Otherness’ in Partition Narratives of Finland and India” ,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4, No. 1, 2017.

## 기타 자료

- Massey, Reginald, “Khushwant Singh obituary “ *The Guardian*, Thu 20 Mar 2014.
- National Documental Centre (Pakistan) and Zafar, Rukhsana, “Disturbances in the Punjab 1947 : A Compilation of Official Documents.” Islamabad: Government of Pakistan Cabinet Division National Documentation Centre, 1995.
- Shromarī Guradūārā Prabandhaka Kameṭī. and Talib, Gurbachan Singh, “Muslim League Attack on Sikhs and Hindus in the Punjab 1947” , 1950.
- Whithead, Andrew, “Partition Voices: Khushwant Singh.” December 1996. <Video> <https://www.andrewwhitehead.net/partition-voices-khushwant-singh.html>

# Abstract

## Literary Representation of Korea and India' s Partition in postcolonial era.

Focusing on Yeom Sang-seop and Khushwant Singh

Rajesh Kuma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cknowledged that the division of Korea has always been literary analyzed through an intrinsic approach of Korean Literature only. The analyses of division of Korea only through an intrinsic approach have led to a limited and narrow perception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comprehensive and objective perspective can be achiev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writers of different partitioned nations. This study selected the Partition of India among the countries divided in such a way, to compare it to Korea' s division in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The culture and economies of colonizers left a deep impact on their colonies. Thus, a comparison of European and Asian colonizers can lead to finding a possible analogy in the colonial experience. Hence, this study focused on comparing the works of the Indian writer Khushwant Singh and the Korean novelist Yeom Sang-seop by applying a blended research methodology of post-colonialism and memory studies. It compared the novel 'Train to Pakistan' by Khushwant Singh with the novellas 'Samphalseon' , 'Ihap' and 'Jaewhe' by Yeom Sang-seop. The primary focus was o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formation of a nation-state in the post-colonial era as understood through these two writers.

In chapter 2 the Partition of India was analyzed through the writings of

Khushwant Singh. In the novel, Singh put a village called Mano-majra, where people were living peacefully, as the center of partition violence that was experienced during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in India. In 'Train to Pakistan' Singh blamed the British rulers for the intensification of religious identity during Partition. He showed that the British policy of "divide and rule" left a deep impact on the post-independent bureaucracy and politics. This colonial legacy led to the partition and the genocide of thousands. Singh portrayed the partition that was based on aspirations of religious identity as a postcolonial phenomenon where the Indian bureaucracy and the politicians could not escape the political setup of the colonizers. Khushwant Singh showed communal violence, killings on a mass scale and separation of families as the attribute of the formation of religious national identity. He accused everyone, including the common masses, as well as the police, arm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of participating in the killings, maiming, and raping. The rich, the politicians and the privileged suffered comparatively less from the trauma of the division, and those with power milked the partition for their own benefit, while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suffered heavily and were massacred, raped, and maimed during the Partition violence. The most devastating misfortune of the Partition was the refugee crisis that arose during as well as post partition period. Another unfortunate consequence of the partition was physical as well as emotional separation. Refugees were tortured by the police, killed by soldiers or slaughtered by mobs very frequently. One aspect that appeared in the aftermath of the partition in the work is *otherness*. After the division, this alienation among people led to irreparabl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ns of the Indian peninsula. In his work, Khushwant Singh portrayed the fact that the Partition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was embodied in separation, migration, and plight of women.

In Chapter 3,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 new national identity and the pain and suffering caused by ideological differences due to the divis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was analyzed through the three novellas, 'Samphalseon', 'Ihap' and 'Jaewhe' by Yeom Sang-seop. Yeom Sang-seop's works describe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n ideological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ause of such partition was the tension

between the political ideologies. This tension between political ideology was characterized by both the phenomenon of colonialism as well as neo-colonialism. Yeom Sang-seop portrayed the aspect of ideological tussle through the family of Kim Jang-han in 'Ihap'. The division of Jang-han's family is similar to the division of Korea, and Yeom Sang-seop symbolically portrayed the division of the nation through the ideologic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of Jang-han. Conflict of ideologies caused the disintegration of the nation, and conflicting ideologie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also caused a division among the people.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reached an extreme point, and those who did not choose a side were maltreated. Yeom Sang-seop criticized the leaders for the confrontation of the left and the right ideologies and accused them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portrayed the non-sovereign statehood of Korea by criticizing the presence of Soviet and American forces. His works portrayed the division as having been brought about by foreign powers but embodied and concretized by the Joseon people. In 'Samphalseon' the refugees were petrified by the Soviet forces and the Korean officials who restricted their movement, and which shows the violence committed by the nation against its own people. Yeom Sang-seop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fate of the country is in the hands of foreign military powers. The Socially and politically structured violence, social polarization, and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by foreign powers vis a vis neo-colonial power was (nothing more than) a transformed form of colonialism that brought violenc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This form of violence was both physical as well as non-physical. Yeom Sang-seop also portrayed the *futility* of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Ihap', and in 'Samphalseon' the loss of family members during the refugees' journey is portrayed profoundly. Separation became a harsh reality of Joseon at the time of division, and many people crossed the 38<sup>th</sup> parallel in search of a new home. And thus, they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their home in the new places where they settled.

In Chapter 4, the writ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in India and Korea were compared.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Indian and Korean writers concerning partition.

Yeom Sang-seop was a Japan-educated literary scholar and ‘Seoul boy’ who belonged to the bourgeois class of Korean society. Similarly, Khushwant Singh appeared in the literary world after studying in England and working as a lawye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f the Partition of their countries. Yeom sang-seop completely ignored the influence of “divide and rule”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zers in the division of Korea while Khushwant Singh criticized the colonial policies and accused them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India. Singh found the cause of partition in the British rule and criticized it in his novel. He directly criticized the policies and attitudes of colonial rule that, according to him, caused the partition of India. He criticized the British as impostors who governed India with wicked policies. Furthermore, he criticized both the British autocratic rule as well as the new leaders of post-independent India for the partition. In conclusion, Khushwant Singh did not forget the factor of the colonial legacy in partition and criticized the British rule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suffering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Yeom Sang-seop did not directly mention the ro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division of Korea. He ignored the colonial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Joseon people escaped to Manchuria due to Japanese colonial policy. The people of Korea suffered terribl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class consciousness and differences arose; this can be seen as the root cause of left-wing and right-wing ideologies that arose after liberation. This conflict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ideologies further contributed to the division in the Cold War era. However, rather than criticizing Japanese colonial rule, Yeom Sang-seop expressed sympathy towards the Japanese people who lost the World War-II. Yeom Sang-seop found the caus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dichotomy of capitalism and communism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e beginning of Cold War era. He shows anger and despair over the presence of Soviet and American troops. He accuses the new colonial rulers,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attitude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forget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ism.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both writers is due to their social aspects and lives. In other words, it is because of

their location during time of division. Yeom Sang-seop is a South Korean, and he had nothing to lose in the situation of division. Rather, Yeom Sang-seop returned to South Korea at the time of the division and could enjoy a sense of security. On the other hand, Khushwant Singh was a victim of division. He experienced division as a 'Pakistani'. He belonged to the Sikh community and his identity was absorbed in the bigger dichotomy of Hindus and Muslims. That is why he was able to see the division from a more complex point of view. In contrast, Yeom Sang-seop saw the division only as the influence of neo-colonialism and this makes his perception of division very simple and thus flawed.

After comparing the division of Korea with that of India, it can be seen that the post-colonial division of Korea was very a complex phenomenon. After liberation from colonization, a neo-colonial structure was introduced. The new colonialism was the result of the Cold War and divided Korean society into left and right ideologies. However, this dichotomy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s not only due to the neo-colonialism of the Cold War era but also a result of the colonial policy of imperial Japan. The colonial policy of "divide and rule" led to economic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and resulted in a class consciousness among the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colonial masters used reforms as a very effective tool of "divide and rule" policy and divided Korean society into several factions. This colonial policy of "divide and rule" caused a serious ideological conflict among the Korean peopl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This ideological conflict, combined with neo-colonialism and the ambition of local leaders and people ended in the birth of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Yeom sang-seop and Khushwant Singh through their works have resisted the nationalist history of partition that celebrated Independence and ignored partition that caused pain and suffering of people in both the countries. They have focused on localized and personalized accounts of partition to show the aftermath of independence.

In conclusion, the division of Korea did not occur on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powers or neo-colonialism but was also heavily influenced by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fluence of colonialism on the division of Korea in depth. The fact that Yeom Sang-seop saw the division of Korea as the result of neo-colonialism simplifies the division to a mere political issue of the Cold War era. Like in India, the roots of Korea's division lie in colonial policy. The division of Korea can be comprehensively studied only when the role of colonial policy is also discussed in detail. Thus, the division of Korea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where the 'post' lies before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put an end to the conflict that resulted due to colon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source of class consciousness planted in Korean society. Only then can we overcome the division of Korea and find a comprehensive and objective perspective of Korea's division.

**Keywords :** Partition, Memory, Post-colonialism, Nationalist History, Colonial Policy, Divide and Rule.

***Student Number :*** 2017-39530